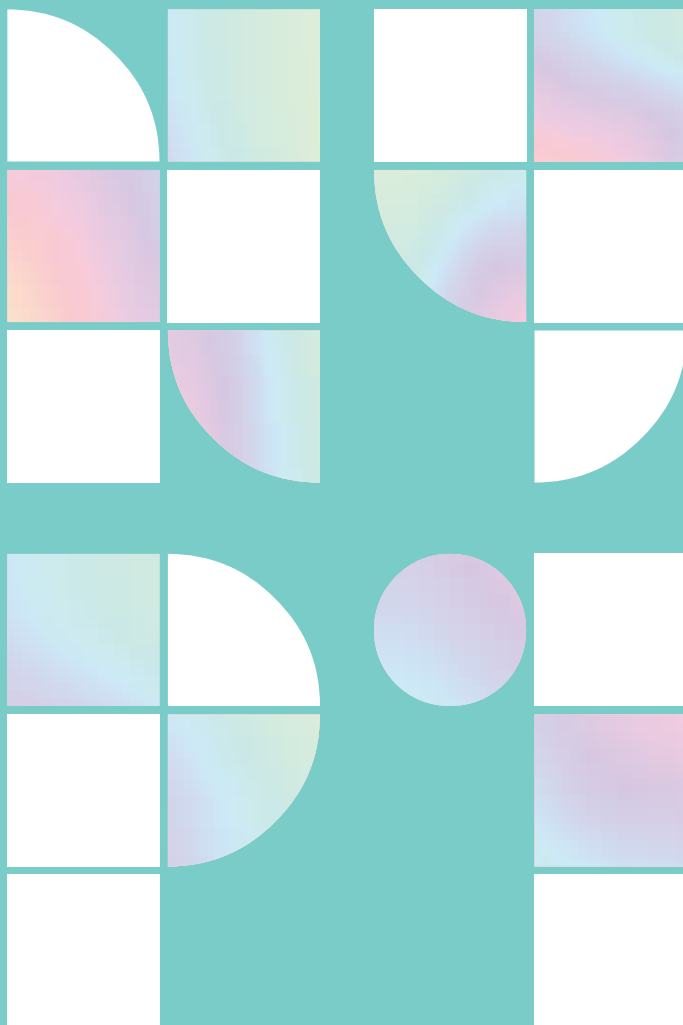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III

황세영 · 이경상 · 송민경 · 조윤정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II

저 자 황세영, 이경상, 송민경, 조윤정

연 구 진 책임연구원_황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송민경(경기대학교·교수)
조윤정(경기도교육연구원·연구위원)
연구보조원_이유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보고서를 펴내며

변화하는 세상에서 청소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장환경을 지역 수준에서 마련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함에 있어 지역 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부천, 대전 유성, 곡성 등 도시 규모와 사회경제적 환경이 다른 세 지역에서 청소년 성장지원의 이름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연계협력을 위해 분투해 온 여정을 보여준다. 3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연도 보고서에서는 양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성과를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심층 면담과 워크숍을 통해 지역별로 연계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와 어려움,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변화와 성장 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시범사업 분석 결과는 지역 중심의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로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힘껏 지원해주는 정책을 통해 계속되어야 한다. 보고서를 읽는 독자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될 수 있을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길 기대한다. 본 보고서에서 담지 못한 지역의 생생한 경험담은 시범사업 성과요약집 “청소년 성장지원, 지역 네트워크로 실험하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연구와 실천, 분석과 변화, 정책과 현장, 그리고 연구자와 활동가가 끊임없이 교류하고 서로 영향을 주며 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함께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유성구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하여 세 지역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연구진을 대표하여 황세영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3개년 사업으로 수행되는 과제의 3차년도 사업으로 올해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확산방안과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의 확산·개편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정책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정책 영역별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 및 네트워크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시범사업 종합성과분석의 연구모형을 개발함.
- (시범사업) 3차년도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사업기간: 2021년 3월~10월), 세 지역의 사업추진기관과 실무운영그룹회의, 간담회,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등을 실시함.
- (양적 연구) 시범사업 종합성과분석의 일환으로 양적 조사를 실시함. 양적 연구 설계 안은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네트워크 운영의 주요 요소(배경, 과정, 구조)와 운영 효과를 분석함. 설문조사(성인, 청소년)와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함.

- (질적 연구) 시범사업 종합성과분석에 있어 지역별 참여 주체들의 주관성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운영 과정 및 성과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심층면담 및 워크숍을 실시함. 심층면담에는 지역별로 시범사업운영기관, 네트워크 참여자, 지자체·교육지원청 담당자, 청소년 등이 참여함. 워크숍은 운영 성과와 사례에 대해 시범사업운영기관의 발제와 논의로 진행됨.
- (전문가 자문·콜로키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개념과 지향가치, 운영모델, 청소년 시설의 연계협력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도출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시범사업의 확대·발전방안과 관련 중앙부처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함.

3. 주요 결과

1)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거버넌스 현황 및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 고찰

- 문헌 분석 결과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적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목적과 개념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 네트워크 관리조직 또는 주도조직의 역할, 그리고 이를 지원해주는 체계 등 네트워크의 실행·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지역 내 정책부서 간의 칸막이 해소를 위해 중앙 부처 차원의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치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지향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음.
-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틀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함.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운영 성과 분석에는 지역사회 청소년

자원과 인프라 등 선행조건, 지역사회 청소년 현안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공동의 인식과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의 목적 공유, 협의체 구성·운영 과정에서의 신뢰와 갈등, 네트워크 내 활동 참여의 규범, 공동의 책무성과 성과 등, 협력의 배경, 과정, 구조, 성과를 아우르는 폭넓은 접근이 요구됨.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운영요소와 운영효과를 중심으로 한 성과분석 연구모형을 도출함.

2) 3차년도 시범사업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실질적인 적용사례를 제시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시범사업을 운영함. 경기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전남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이 사업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등 지역 내 연계협력 활동 노력을 기울여옴.
- 올해는 시범사업 운영의 마지막 해로서 네트워크 주체 간 연계협력의 질을 높이고 신뢰기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구조를 포함하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본 사업 종료 후 네트워크의 자생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 구상에 초점을 두었음.
- 3년간의 시범사업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과제도 대두됨. 곡성은 재단과 협의체 간의 관계설정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협의 기구의 공식화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정책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 부처 차원의 연계협력이 요구됨. 유성은 청소년안전망, 마을교육공동체 등 기존 네트워크와 협의체 간 관계 설정과 관련 조례에 대한 지역 내 합의가 필요함. 또한 협의체의 논의사항과 청소년 제안

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됨. 부친은 협의체 구조를 재단 내 기구로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또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영역의 참여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 시범사업 종합성과 분석

(1) 양적 분석 결과

- 시범사업의 성과를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성인 담당자 설문조사(126명), 기관 네트워크 조사, 청소년 설문조사(58명)를 실시함.
- 성인 담당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추진배경 및 조건 영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음. 특히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높았음. 지자체 청소년 육성위원회 내실화는 약간 부정적이었음. 지난 3년간의 변화는 구축 필요성, 연계기관의 분포, 기관 간 신뢰의 정도가 많이 증가했음. 목표 설정, 신뢰 관계, 의사결정규범, 참여자책무성 영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약간 긍정적이었고, 지난 3년간의 변화도 많이 긍정적으로 증가했음. 운영구조의 효율성 영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많이 긍정적이었으나 예산지원의 충분성은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3년간의 변화도 많이 긍정적으로 증가했음. 네트워크 분석결과 협의체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참가율은 80% 내외로 높았음. 운영주관기관의 중심성도 높았고, 지역별 상호작용의 밀도는 곡성 > 유성 > 부친 순으로 나타남. 운영효과 영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음. 회귀 분석결과 참여자 책무성과 운영구조의 효율성이 운영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3년간의 변화도 많이 긍정적으로 증가했음. 향후 지속참여의향 및 지원필요성도 매우 높게 나타났음.

- 청소년 설문조사 분석결과, 참여과정 및 만족도, 참여전후 인식변화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짐. 지역에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3)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2)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6)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의 순이었음.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알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종합하면, 참여자들은 본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함. 또한 본 네트워크 사업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현재의 네트워크에 참여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나, 지역별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줌.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네트워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네트워크운영에 대한 지원요구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역할 및 제도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2) 질적 분석 결과

- 지역별 시범사업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네트워크 참여주체들에 대한 개별 면담, FGI 형태의 심층 면담 및 워크숍을 실시함. 지역별로 질적 분석 결과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의미, 실질적인 연계·협력의 경험, 각 주체의 성장이라는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세 지역에서의 경험과 주체들 간의 역동을 보여줌. 곡성은 청소년기관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다가 미래교육재단 설립으로 중심축이 재단으로 이행되면서 네트워크 안에서 청소년기관의 역할과 위상의 재설정 필요 상황임. 청소년기관 실무자들은 많은 협력사업에 참여하면서 정서적, 육체

적 소진을 경험하게 되었고, 재단 설립으로 청소년 중심의 의제보다는 교육중심으로 관점이 획일화되면서 청소년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를 표함. 또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사업 시기나 문화의 차이, 각 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는 다름과 이해 부족 등은 앞으로 네트워크가 성장하는데 주체들 간 소통과 신뢰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유성의 경우 유성구청소년수련관과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 청소년기관이 최근 설립된 신생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음.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성격의 네트워크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지자체나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의 연계협력도 매우 느슨하거나 미약한 수준에서 시작하였음. 따라서 청소년기관 주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장을 추동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분과네트워크별 청소년 중심의 우수사례 공유 전략을 통해 네트워크 확산을 추진하였음. 이에 시범사업 이후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향후 각 분과네트워크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가 중요하며, 이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지와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임.
- 부천의 경우 여성청소년재단은 초기 청소년 기관 중심의 협력 구조에서 나아가 민관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의 마련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의 플랫폼 역할을 정립해 갈 수 있었음. 향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서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책무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구조를 통해 신뢰 경험을 더욱 쌓아가야 하며, 이 점에서 재단 내 기구로서 네트워크협의체 구조를 추진하는 방식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음. 다만 네트워크가 재단 중심의 운영구조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과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열린 구조의 마련이 중요함. 이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가 지역 전체의 요구와 참여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형성된 의제들이 실제 실행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지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임.

4)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조건 및 전략 탐색

- 시범사업 성과분석에서 나아가 1, 2차년도 사례분석과 정책방안, 전문가 자문, 콜로키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의 전제 조건으로 1)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개념과 지향 가치 도출, 2) 민관거버넌스의 실행(지원)기구로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체계 마련, 3) 청소년 재단 및 시설(기관)의 지역 내 연계협력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고 관련된 현황과 정책 이슈를 탐색함.
- 정책추진전략을 1) 마을에서 국가에 이르는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계 구축, 2) 지역 내 청소년 의제 주류화를 통한 성장지원 효과성 확보, 3) 지역 모델의 발굴과 확산지원을 통한 점진적 제도화로 제안함.

4. 정책 제언

- 정책과제를 1) 국가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비전 수립, 2) 청소년 시설과 기관의 전문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3)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지자체 책무 강화, 4) 지역 내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5)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기반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으로 제시하고 14개 세부과제와 정책추진로드맵을 제시함.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II

연구보고 21-R11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 2. 연구내용 및 연구추진체계 7
- 3. 연구방법 11
- 4. 연도별 연구 추진계획 및 연구 추진체계 16

II. 이론적 배경

- 1.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고찰 21
- 2.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40

Ⅲ.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 (3차년도)	
1. 시범사업 운영 개요	57
2. 곡성군	58
3. 유성구	77
4. 부천시	94
5. 소결	114
Ⅳ. 시범사업 종합성과분석: 양적 조사 결과	
1. 종합성과분석 개요 및 방법	121
2. 양적 조사 개요 및 방법	122
3. 양적 분석 결과	128
Ⅴ. 시범사업 종합성과분석: 질적 조사 결과	
1. 질적 조사 개요 및 방법	197
2. 질적 분석 결과	203
3. 결론 및 시사점	259
Ⅵ.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 중심 거버넌스 구축 정책방안	
1. 정책방안 개발 과정	269
2. 정책 방안	297
참고문헌	327
부 록	341

표 목차

표 I -1. 자문영역 및 자문진 구성	14
표 I -2. 정책연구실무협의회	15
표 I -3. 콜로키움	15
표 II -1. 청소년 정책 영역에서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거버넌스 관련 연구	23
표 II -2. 교육 정책 영역에서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거버넌스 관련 연구	28
표 II -3. 복지 정책 영역에서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거버넌스 관련 연구	33
표 II -4. 마을공동체 및 기타 민관협력에서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거버넌스 관련 연구	37
표 II -5. 협력적 거버넌스 관련 주요 논의	44
표 III -1. 곡성군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현황	62
표 III -2. 곡성군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현황	63
표 III -3. 활동참여 분과네트워크 회의 현황	64
표 III -4. 진로직업 분과네트워크 회의 현황	65
표 III -5. 보호복지 분과네트워크 회의 현황	66
표 III -6. 네트워크 연수프로그램	72
표 III -7. 유성구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현황	81
표 III -8. 유성구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현황	82
표 III -9. 유성구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실무진 회의 현황	82
표 III -10. 분과 네트워크 구성 현황	83
표 III -11. 분과 네트워크 회의 현황 -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86
표 III -12. 교육 및 학습 분과	86
표 III -13. 정서 및 상담 분과	87
표 III -14. 진로 및 직업체험 분과	87
표 III -15. 청소년 활동 분과 <플레이>	87

표 III-16. 학교밖청소년 분과	88
표 III-17. 부천시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현황	100
표 III-18. 실무협의체 구성 현황(2021.10.01.기준)	101
표 III-19. 실무협의체 운영 현황	102
표 III-20. 분과 네트워크 구성 현황	103
표 III-21. 분과 네트워크 운영 현황	104
표 III-22. 연계협력 논의내용	106
표 III-23. 지역별 시범사업 주요 특징 요약	116
표 IV-1. 1~3차년도 연구 성과분석 개요	122
표 IV-2. 양적 조사 유형별 조사내용의 구성	125
표 IV-3.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 (1)	130
표 IV-4.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 (2)	132
표 IV-5.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 (3)	132
표 IV-6.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 관련 3년간의 변화	134
표 IV-7.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 (목표설정)	136
표 IV-8.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목표설정) 관련 3년간의 변화	137
표 IV-9.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 (신뢰관계)	138
표 IV-10.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신뢰관계) 관련 3년간의 변화	140
표 IV-11.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 (의사결정규범) (1)	142
표 IV-12.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 (의사결정규범) (2)	143
표 IV-13.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의사결정 규범) 관련 3년간의 변화	145
표 IV-14.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 (참여자책임성)	148

표 IV-15.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참여자책 무성) 관련 3년간의 변화	150
표 IV-16.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 (운영구조의 효율성) (1)	152
표 IV-17.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 (운영구조의 효율성) (2)	153
표 IV-18.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 (운영구조의 효율성) (3)	153
표 IV-19.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운영구조의 효율성) 관련 3년간의 변화	155
표 IV-20. 1-3차년도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및 변화	157
표 IV-21.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운영효과 (1)	162
표 IV-22.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운영효과 (2)	165
표 IV-23.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가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167
표 IV-24.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효과 관련 3년간의 변화 (1)	169
표 IV-25.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효과 관련 3년간의 변화 (2)	172
표 IV-26.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지속참여 의향	173
표 IV-27.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운영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	175
표 IV-28. 성인 담당자 설문조사 및 기관 네트워크 조사 주요 분석결과 요약	180
표 IV-29.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 활동에의 청소년 참여과정 및 만족도	183
표 IV-30.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 활동 참여전후 청소년의 인식변화	185
표 IV-31.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186
표 IV-32.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189
표 IV-33. 청소년 참여자 설문조사 주요 분석결과 요약	191
표 V-1. 심층 면담 추진 내용	200
표 V-2. 성과공유 워크숍 추진 내용	201

표 V-3. 지역별 질적 분석 결과 종합	259
표 VI-1.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현황 ..	271
표 VI-2.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예시)	274
표 VI-3.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561호)	275
표 VI-4.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가치	277
표 VI-5.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협력의 유형	278
표 VI-6.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체계 요소(안)	280
표 VI-7.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모델(안)	282
표 VI-8. 거버넌스 운영조직에 따른 네트워크 유형	284
표 VI-9. 청소년 재단의 지역 내 연계협력 현황	288
표 VI-10. 청소년 시설의 지역 내 연계협력 현황	293
표 VI-11.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 주요 내용	304
표 VI-12. 청소년 수련관 평가지표 추가 제안	305
표 VI-13. 지역 청소년교육협력을 위한 교육부-여성가족부 간 협약(안) ..	314
표 VI-14. 교육부-여성가족부 정책사업 연계방안	315
표 VI-15. 지역발전연계 강화를 위한 행안부-여성가족부 협력방안	316
표 VI-16. 청소년 기본조례 제·개정안	318
표 VI-17.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제·개정안	320
표 VI-18.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조례 안	321
표 VI-19.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322
표 VI-20.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324

그림 목차

그림 I-1.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16
그림 I-2. 3차년도 연구추진체계	17
그림 II-1.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종합성과분석의 연구모형 ..	54
그림 III-1.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구조(2019-2021)	61
그림 III-2.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구조(2021)	80
그림 III-3.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구조(2021)	98
그림 IV-1.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성과 양적 조사 설계 ..	123
그림 IV-2. 부천시 3차년도 협의체 네트워크 상호작용 그래프	159
그림 IV-3. 유성구 3차년도 협의체 네트워크 상호작용 그래프	159
그림 IV-4. 곡성군 3차년도 협의체 네트워크 상호작용 그래프	160
그림 VI-1. 정책 개발의 내용과 방법	272
그림 VI-2.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조건-전략-정책과제 흐름도	294
그림 VI-3.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개편전략	299
그림 VI-4. 1단계 사업 세부 추진내용	300
그림 VI-5.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301
그림 VI-6.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업무 지침 수정 제안	304
그림 VI-7. 지역 네트워크 양성 프로그램(안)	306
그림 VI-8. 통합형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제안	307
그림 VI-9. 청소년성장지원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한 지자체 홍보·컨설팅 방안	309
그림 VI-10. 지자체 합동평가 가점 제안	310
그림 VI-11. 지자체 청소년성장지원 계획수립 방안	310
그림 VI-12. 청소년자치 활성화 제안	312
그림 VI-13. 청소년 성장지원 전담인력 확보(안)	313
그림 VI-14. 정책추진 로드맵	326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내용 및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방법
- 4. 연도별 연구 추진계획 및
연구추진체계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다양한 공공 정책 영역에서 지역사회 연계·협력 또는 지역 중심 거버넌스의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중앙집권형의 전통적인 정책전달체계만으로는 시대의 급속한 변화와 다변화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에서는 지역의 교육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물적·행정적 자원 간 연계·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기존 학교 교육 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지향하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업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사회복지 영역에서 나아가 주거·교육·문화 등으로 연계·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정책에서 지역 또는 마을을 주목하는 이유는 공동체로서 지역이 지닌 강점 때문이다. Taylor(2007)는 1) 사회적 자본과 응집력을 발전시키고, 2) 공공서비스 계획과 모니터링에 갖는 영향력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3)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전달에 있어 지역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하

1) 이 장의 1절, 2절의 2), 4절은 황세영 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2절의 1)와 3절의 2)는 이경상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3절 나머지 부분은 황세영 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며, 4)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결핍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을이 가지는 본질적 역량을 강조한 바 있다(Taylor, 2007; 김상민 2016, p. 184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우선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인프라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자체 청소년 사업과 전달체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청소년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고 당사자인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처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지역 청소년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추진한다는 것은 활동, 보호, 복지, 상담 등 청소년 서비스 영역별 경계를 넘나들며, 나아가 교육과 복지 등 타 정책 분야와의 연계·협력 확장을 통한 청소년 중심의 지역 생태계 구축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역단위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청소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 여성가족부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4-2)”를 설정하였고,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4-1)의 일환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역”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관계부처합동, 2018). 여성가족부가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은 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의제 개발 및 이를 실행하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영역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본 연구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서, 총 3년간 지역별(대전 유성구, 부천시, 전라남도 곡성군) 시범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과 서비스 간

연계협력을 추진해 왔다. 본 연구사업을 통해 운영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실제 운영 사례와 성과는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발전 전략을 제시 하는데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이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법적 또는 학술적 용어로 확립된 것은 아니며,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개념이다. 우선 ‘청소년 성장지원’이라는 용어는 청소년 수련활동 중심의 ‘청소년 육성’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에 기반한 다양한 역량 개발과 모든 청소년들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여건 마련이라는 청소년 정책의 변화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이윤주 외, 2018; 김기현 외, 2019; 최인재 외, 2019). 여성가족부는 2020년 5월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발표에서 ‘육성과 수련’의 대상에서 ‘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재정립을 통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였다(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020).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105561)²⁾은 청소년의 주체성을 저해하는 ‘육성’, ‘지도’ 등의 용어를 청소년의 주도적·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두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주체성에 기반한 다양한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필요와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2)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561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Z0H1H1Q0I4Y1H7T4U7T1W0Y6R7O7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협력체계”로 정의하였다(최인재 외, 2019, p. 17). 이러한 네트워크는 단순히 기관이나 사람 혹은 자원 간 연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동으로 찾고 해결하는 과정은 공공 및 민간 영역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의 구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governance)의 원리와도 맞닿아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청소년 성장 관련 기관 및 시설, 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각 주체들이 정책의 수립과 결정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상호협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책임을 지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최인재 외, 2019, p. 21). 따라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구축 과정과 그 성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청소년 성장지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의 운영 방식 및 역할을 논의하는 등, 주로 지역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운영의 목적과 방향성을 규정하고 실행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어 2차년도에서는 분과 네트워크 중심으로 실질적인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협의체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등, 지역별 네트워크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마지막 해인 3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차년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종합성과분석은 앞서 언급한대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관련된 핵심 개념과 요소들을 도출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운영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3년간의 지역별 네트워크 연계협력 양상의 변화, 설문조사를 활용한 네트워크 운영의 배경과 과정상의 요

소 및 운영 효과 분석, 그리고 질적 조사를 통한 네트워크 참여자의 연계협력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시범사업의 종합성과분석, 1, 2차년도의 다양한 지역 사례연구의 2차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정책실무협의회의 등을 종합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과 지향가치, 네트워크의 민관 실행(지원) 기구로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다양한 운영 모델, 그리고 청소년 시설·기관의 지역 내 연계협력 기능 강화 등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탐색하였다. 셋째,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조례안, 중앙부처의 추진 로드맵,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연구추진체계

1) 1, 2차년도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3개년 과제로 진행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과 정책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 마련”에 있다(최인재 외, 2019, p. 6).

이를 위해 1차년도(2019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연계협력 네트워크의 개념과 사례를 분석하고,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였다(최인재 외, 2019).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필요성 및 중요성, 협력적 거버넌스 등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들을 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국내 사례로

성남시, 아산시, 시흥시, 노원구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외국 사례로 미국 필라델피아, 일본, 싱가포르, 핀란드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얻고자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의 3개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등 네트워크 활동기반을 마련하였다. 넷째, 시범사업 담당자, 지자체 및 중앙부처 공무원,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콜로키움, 워크숍, 학술세미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최인재 외, 2019).

2차년도(2020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관련 중앙부처 사업 및 관련 법·조례를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추가 분석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에서는 청소년 성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분과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계·협력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최인재 외, 2020).

구체적으로는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청소년안전망,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사업들의 변화내용을 검토하고, 법적 지원의 근거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령, 조례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연계사업의 국내 사례로 서울시 동작구, 창원시 진해구, 고양시, 완주군, 세종시, 의정부시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외국 사례로 프랑스, 영국, 덴마크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 마련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1차년도에 선정된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의 3개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분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2차년도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사업 참여의 효과성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시범사업 참여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워크숍, 콜로키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였다(최인재 외, 2020).

이러한 흐름 속에 3차년도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의 시범사업 운영의 성과를 종합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의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개념과 운영모델, 청소년·시설 기관의 지역 내 연계협력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 전략과 다양한 정책 방안과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3차년도 연구내용

(1)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지역사업(3차년도) 운영

1, 2차년도에 이어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전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올해는 특히 지역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의 질을 높이고 신뢰기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구조를 포함하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역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자생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다.

(2)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지역 운영 성과 종합분석

시범사업 운영의 성과와 관련하여 1차년도에는 네트워크 분석, 1, 2차 년도에는 네트워크 분석과 사업 참여자(성인, 청소년) 대상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3차년도 연구에서는 3년간의 시범지역 운영 전반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1,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3차년도 사업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3년간의

지역별 네트워크 참여 주체들 간의 연계·협력의 양상과 변화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과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정과 성과에 대한 참여 주체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지역별 차이, 연계협력의 성과와 어려움, 다양한 주체 간 신뢰관계의 형성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3)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조건 탐색

3년에 걸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구축 과정에서 경험한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 청소년 운동으로서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시범사업 지역 사례뿐만 아니라, 1, 2차년도 연구에서 분석된 타 지역의 네트워크 사례를 포함하여 지역 청소년 전문가들 대상 자문회의와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사업 참여지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네트워크의 개념과 지향가치, 그리고 네트워크의 민관 지원(실행)기구로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모델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시설·기관의 지역 내 연계·협력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활성화 전략과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1, 2차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조례 제정,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구축 등의 제도적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책무 강화 방안과 이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의 확산 전략을 통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시설·기관의 연계·협력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과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 간 연계협력의 촉진을 위한 중앙부처 간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정책체계 구축방안을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교육·복지·행정 분야에서 네트워크 및 지역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정책 관련 네트워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 중심 청소년 정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또한 3년간의 시범사업 운영의 성과 종합분석을 위해 다양한 맥락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양적, 질적 분석 도구 개발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였다.

2) 양적 조사

3년간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성과의 종합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성인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협의체 기관 간 상호작용 네트워크 조사, 사업 참여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성인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 관련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배경 및 조건, 과정적 운영요소(목표설정, 신뢰관계, 의사결정규범, 참여자책무성, 운영구조의 효율성), 운영효과의 3차년도 실태 및 지난 3년간의 변화에 대해 2021년 8월 1일 ~ 9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기기입식(self-reported) 설문조사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검수 등의 과정을 거쳐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균분석, 평균차이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다음 협의체 기관 간 상호작용 네트워크 조사는 협의체 기관 간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천, 유성, 곡성 협의체 기관들을 대상으로 기관정보공유, 물적자원교류, 인적자원교류, 프로그램협력 등의 3차년도 상호작용 실태에 대해 2021년 9월 15일 ~ 9월 3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네트워크 조사양식을 보내 자기기입식(self-reported)으로 기록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검수, 코딩 등의 과정을 거쳐 UCINET 6.689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포괄성분석, 밀도분석, 아이겐벡터 중심성분석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NetDraw 2.17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래픽 분석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1, 2차년도에 수집된 자료(최인재 외, 2019; 최인재 외, 2020)도 분석목적에 맞게 재코딩하여 지난 3년간의 구조적 특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다음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만 13세 이상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참여과정 및 만족도, 참여전후 인식변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의 3차년도 실태에 대해 2021년 8월 1일 ~ 9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기기입식(self-reported) 설문조사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검수 등의 과정을 거쳐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균분석, 평균차이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3) 질적 조사

시범사업 운영의 성과 종합분석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운영 담당자 및 네트워크 참여자(청소년 포함)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곡성 17명; 유성 18명; 부친 25명). 질적 조사의 주요 목적은 네트워크 사업 추진의 배경,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과 이슈, 이를 해결해 가기 위한 동력과 한계점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의 실질적 경험들을 지역의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관 간 소통과 상호 이해의 과정, 공동의 목표 형성에서 주도권과 기관의 정체성 이슈,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합의 또는 갈등 등, 네트워크 활동의 역동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4) 시범사업 운영

○ 실무그룹 운영

2차년도에 이어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 담당자, 연구자,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실제 운영상의 이슈를 논의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계획 발표, 중간 보고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의 확산 및 정책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 워크숍 실시

시범사업 운영상의 이슈를 공유하고 성과분석에 있어 시범사업운영 주체들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집단적 숙의의 과정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각 지역별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주제별로 발제하고 시범사업 이후 네트워크의 지속

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은 질적 분석의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5) 전문가 자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방안과 정책 제언 도출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표 1-1. 자문영역 및 자문진 구성

횟수	자문영역	자문진	개최 시기
2회	법·조례 제개정 방안	학계·공무원	8, 10월
11회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체별 역할	청소년시설·기관	7~9월
1회	정책제언(서면의견작성)	청소년시설·기관, 학계	9월(서면)

6) 기타 연구방법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 발전전략, 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부처 차원의 지원방안 및 청소년 관련 법 개정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와 협의를 상시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 내 부처 간 정책사업 연계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다부처정책연계체계구축지원사업 및 교육부의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과의 연계방안 도출을 위해 해당 사업 담당자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표 1-2.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횟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4회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정책화방안 논의	여성가족부	2, 5, 8, 10월
1회	다부처정책연계체계구축지원사업과의 연계 논의	행정안전부	5월
1회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과의 연계 논의	교육부	8월

○ 콜로키움 개최

교육 및 복지분야의 지역 중심 거버넌스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청소년정책과의 연계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2차례의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표 1-3. 콜로키움

회차	발표 주제	발표자	개최 시기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희성 부연구위원	5월
2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의 현황: 연계 협력 거버넌스 및 청소년 분야 사례	공주대학교 양병찬교수	6월

○ 시범사업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2021.11.24)

본 연구를 통한 시범사업의 종합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자료집 발간을 통해 시범사업의 의의를 조명하고 참여자 경험담을 소개하여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4. 연도별 연구 추진계획 및 연구 추진체계

1차년도 (2019년)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중앙부처 정책과 사업 검토 및 분석 · 국내 · 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 거버넌스 사례 분석 ·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1차 년도) 및 구축방안 제시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전문가워크숍 개최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성장지원 시범사업 운영 · 지리정보체계(GIS) 및 네트워크 분석 · 현장면접조사, 전문가의견조사 및 FGI · 콜로키움, 학술세미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2차년도 (2020년)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변화 분석 · 국내 · 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사례 수집 및 분석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법 · 제도, 조례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방안 제시 ·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2차 년도) 제시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시범사업 운영(2차 년도)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성과 분석 · 현장면접조사, 전문가의견조사 · 워크숍, 콜로키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 개최



3차년도 (2021년)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교육, 복지, 행정 영역별 거버넌스 구축 현황 분석 · 시범사업 운영 및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성과분석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탐색 ·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 전략 제시 · 정책 방안 제시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3차 년도) · 사업성과 종합분석(네트워크 분석, 양적·질적 조사) · 워크숍, 세미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출처: 최인재 외. (2019).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9-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 외. (202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연구보고 20-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림 1-1.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연구 목적	시범사업 종합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방안 제시
--------------	--



연구방법 및 연구 내용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교육, 복지, 행정 영역별 거버넌스 구축 현황 분석 •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종합성과분석 모형 도출
-------------	--

시범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년도 시범사업 운영(곡성, 유성, 부천) • 지역별 연계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 탐색
----------------	---

양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성인): 사업 추진배경 및 조건, 과정적 운영요소(목표설정, 신뢰관계, 의사결정규범, 참여자책무성, 운영구조의 효율성), 운영효과 • 설문조사(청소년): 지역사회 인식, 참여 만족도 등 • 네트워크 분석: 협의체 기관 간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지역별 3년간의 변화)
--------------	--

질적 조사-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면담: 세 지역의 네트워크 참여자의 연계협력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이해 • 워크숍: 세 지역별 성과 사례 발제 및 향후 운영방안 논의
------------------	--

전문가 자문·정책실무 협의회-콜로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개념 및 운영 사례 분석 • 타 부처 관련 사업 현황 및 연계방안
---------------------------------	---



정책 방안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구축 전략 제시 정책 과제 및 추진로드맵 제시
--------------	--

그림 1 -2. 3차년도 연구추진체계

○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고찰
- 2.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1, 2차년도 사업에서는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앙 부처의 정책 사업의 최신 동향 및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청소년 성장 지원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차년도인 올해 연구에서는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확산과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하여 청소년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행정 등의 정책 영역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사업 및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여러 정책 영역에서의 네트워크 운영 사례분석, 인식조사, 성과평가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제시된 연계협력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의의와 성과 분석, 그리고 향후 지속가능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청소년 정책 영역

청소년 정책분야에서는 주로 학교와 청소년 기관 또는 교육정책과 청소년 정책 간의 연계·협력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수행되고 있다. 이기봉 외(2011)와 김현철 외(2012)는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2년에 걸친 학교-지역사회자원

3) 이 장의 1절과 2절 1), 4)는 황세영 연구위원이 작성하였고, 2절 2)와 3)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연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지역사회자원연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연계·협력을 위해 학교의 요구를 조사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 요건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 강화, 청소년 기관의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부처 및 지자체 예산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김기현 외(2011)는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현황을 분석하고 진로활동 학교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방안으로는 청소년 시설 중심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청소년 진로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자원연계에 대한 지역사회 관련 주체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임지연 외(2016)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학교-청소년 수련시설 간 연계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구학교에서의 운영 사례 및 자유학기제 운영형태별 비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과제로 기관별 자원분석, 실무수준의 협의·소통 과정 강화, 자유학기제에 대한 청소년지도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강경균 외(2019)는 지역사회 진로체험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청소년 기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청소년 기관 실태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청소년 기관 중심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기관 역할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의 강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이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청소년 분야에서는 학교와 사회의 연결자이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 청소년 기관의 역할 강화와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는 중앙부처 중심의 하향식 정책 추진체계에서 지역 사회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로의 전환, 그리고 교육 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흐름에 대응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형주 외(2015)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과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시설의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창욱 외(2020a)는 앞선 연구들을 종합하는 관점에서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 플랫폼을 제안하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간 협약 체결과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 수반되는 다차원적 협력 플랫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계·협력의 질적 제고를 위해 청소년 활동 콘텐츠 연계 강화, 학교-청소년시설 공간 공유, 인적자원 상호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영지 외(2020)는 지역 내 청소년 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 공간 확충과 관련된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 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이나 지역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공간 조성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역 내에서 청소년 공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주체 및 정책영역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은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의제발굴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청소년 기관(또는 재단)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청소년 의제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김현철 외, 2020).

표 II-1. 청소년 정책 영역에서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거버넌스 관련 연구

출처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방법	정책 시사점
이기봉 외 (2011), 김현철 외 (2012)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모형 개발 - 학교요구 및 연계 성공 요건 제시	교사 및 학생 인식 조사 시범사업 운영 국내외 사례 분석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역할 강화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예산 지원

출처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방법	정책 시사점
김기현 외 (2011)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방안 - 진로체험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청소년진로체험 현황 분석 진로활동 학교 운영실태 분석	청소년 시설 중심 연계방안 필요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공감대 필요
김형주 외 (201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시설종사자 및 전문가 대상 FGI	지자체, 교육청, 학교 연계, 수요자 중심 시설정책 추진
임지연 외 (2016)	자유학기제 학교 - 청소년수련시설 간 연계협력방안 - 운영형태별 비교	사례조사, 연구학교 실증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기관별 자원분석, 실무협의 강화,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강경균 외 (2019)	청소년기관 중심 진로체험지원체계 구축방안 -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모형개발	국내외 사례분석, 청소년기관 운영실태조사	법적 근거 강화, 네트워크 기반구축, 전문성강화
최창욱 외 (2020a)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 협력 성공 및 장애요인, 교육·청소년계 요구분석	청소년활동 참여실태 2차 자료분석, 연계 사례, 전문가·청소년 의견조사	다차원적 협력 플랫폼 구축, 교육 - 청소년활동 콘텐츠 연계 강화, 학교 - 청소년시설 공간 공유, 인적자원 상호역량강화
김영지 외 (2020)	청소년 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 - 교육청 협력방안 - 혁신교육지구 등 지역 청소년 공간사례 분석	사례분석, 교육청·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	마을 공간자원 간 연계, 학교 공간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공간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 등
김현철 외 (202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 시범사업 운영, 지역별 모델 개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자원맵 작성, 연계협력 아젠다 개발	지역 수요 중심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지자체 - 청소년기관 협력 강화

2) 교육 정책 영역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지역의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실태와 방향을 점검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

우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과 관련하여 김경애(2009)는 우수지역에 대한 질적 사례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의 핵심요소와 원리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지역 중심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김의용과 조성숙(2016)은 사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함으로써 네트워크 활동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구지역 실무자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성, 학교장 리더십, 지역사회 조직 관계 등이 네트워크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고,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경민 외(2019)는 민간 주도의 지역 교육복지 네트워크 참여 조직 간 협력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 기업 재단이 운영하는 교육복지 네트워크 사업의 지역별 코디네이터 30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상호 이해와 친밀감, 공동 목표, 성취 경험, 참여자 성장, 지속가능한 재정 등을 협력의 성공 요인으로 추출하였고, 반면 공동 목표의 부재, 한정된 관계, 신뢰기반 부재, 기회주의적 행동 등을 실패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최근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의 실태와 성과를 점검하는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유선미(2015)는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의 구축 과정을 한 지역의 사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과정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체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주체 간 상호관계, 교육공동체의 참여 경험 등을 통해 상세히 드러내고, 이를 통해 지역 혁신교육협의회 중심의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모델이 구축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심수현(2020)은 구로 혁신교육지구의 추진 성과를 민·관·학 협력

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사업 참여자 대상 질적 분석을 통해 관계, 소통, 의사결정, 구조, 가치 등의 연관 주제를 추출하였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적 의사소통과 작은 단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최정은과 김혜원(2019)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도봉구, 마포구, 은평구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참여 정도, 리더십, 제도 설계 협력 과정 등에 따라 지역별 거버넌스의 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민·관·학 주체의 능동적 리더십, 운영협의체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재정 및 제도적 지원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문보경 외(2019)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중간지원 조직 체제 분석을 통해 지역 교육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례 대상 지역의 교육협력센터에 근무하는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담당자 면담을 통해 중간지원 조직의 구조, 문화, 개인적 특성, 정치 체제 환경 등에 따라 담당자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성공과 실패의 맥락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 상호 학습을 지원하는 문화 조성, 협업 과정 모니터링 시스템, 센터 운영의 유연성 등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들 연구가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과정과 양상을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양병찬 외(2019)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전국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의 관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자치’ 패러다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 생태계의 구축, 지역사회 교육기관 구축, 주민들의 실천 역량 강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라는 행정 조직 간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상이한 행정 및 업무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소통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흥주 외(2015)의 연구에서는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협력 실태 및 성공사례 분석, 관계자 요구분석 등을 토대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권한 공유

및 사무분장 재구조화 등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서도 지역과 학교 간 연계협력이 강조되어 왔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하나의 사업처럼 인식되기도 하지만, 지역 중심의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왔던 풀뿌리 교육자치 운동의 흐름과 미래 교육의 혁신 요구라는 새로운 흐름이 만나 마을과 학교의 관계 재구조화 담론이 형성되는 장으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양병찬, 2018). 이러한 맥락에서 홍지오(2018)는 교육공동체의 유형을 학교 중심 교육공동체, 지역사회 중심 교육공동체,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적 관계 중심 교육공동체로 파악하고, 세 번째 유형인 학교-지역협력형 교육공동체의 사례로서 노원구청소년센터와 양평군 지역주민 조직에서 나타나는 교육공동체 구축의 과정을 심층 분석하였다. 이들 사례에서 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구축 과정 자체에 지자체와 교육청의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윤혜정과 김희수(2019)의 연구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자 대상 면담을 통해 주체 간의 갈등과 모순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지닌 인식의 차이, 성과에 대한 부담, 목표와 기대결과의 차이, 행정 절차의 어려움 등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함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식 개선의 노력, 소통과 지원의 플랫폼으로서 중간지원시스템의 구축, 자생력 확보 노력 등이 향후 과제로 제시되었다. 김정현(2019)은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네트워크 사례로서 시흥시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구조와 성격을 분석하였다. 시흥시의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는 중간지원조직주도의 중앙집중 및 탈집중이 혼합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조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최근 국가교육회의는 지역사회 교육거버넌스 발전방향 연구를 통해 광역에서 생활권에 이르는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하였다(김용련 외,

2020).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교육거버넌스의 개념을 “지역(지방)교육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적인 교육지배(행정)체제와 횡적인 참여주체(기관)들 간 참여와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일련의 협력적인 의사결정 행위 혹은 체계(ibid: p. 249)”로 규정하고, 운영주체별로 교육청 단독형, 교육청-지자체공동형 유형별 운영 현황과 조정·이행 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민·관·학이라는 거버넌스 주체들의 참여성 보장과 이를 통한 의제 형성이라는 가치가 공유되고는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관 주도의 정책시행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민·관·학 거버넌스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광역 수준에서는 메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지역의 교육의제들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초수준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교육자치회와 교육협의회, 시청과 교육청(지원)청 간의 중간지원조직 등의 운영을 담당하며, 생활권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주민자치회, 마을교육자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형태를 제안하였다.

표 II-2. 교육 정책 영역에서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거버넌스 관련 연구

출처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방법	정책 시사점
김경애 (200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네트워크 핵심요소와 원리 도출	우수지역 질적 사례분석	학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 제시
유선미 (2015)	혁신교육지구를 통한 교육청-지자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모델 분석 - 교육거버넌스 실행과정 및 모델의 주요 특징 분석	혁신교육지구 질적 사례 분석	지역교육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공교육의 발전
김흥주 외 (2015)	일반행정과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방안	협력 실태 및 성공사례분석 관계자 요구분석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조직구조 및 네트워크 모형 제안 교육행정권한 공유 및 사무분장 재구조화

출처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방법	정책 시사점
김의용 & 조성숙 (201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의 네트워크 활동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전문성, 학교장 리더십, 지역사회 조직 관계가 영향요인으로 작용	대구지역 실무자 218명 대상 설문조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개인, 조직, 지역사회차원의 요인 고려 필요
홍지오 (2018)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중심 교육공동체 구축과정 분석 - 교육공동체 활동 과정과 효과에 대한 인과지도 분석	지역 센터, 주민 등 참여자 사례분석	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지원필요
김경민 외 (2019)	교육복지 네트워크 참여 비영리조직 간 협력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 상호이해, 공동 목표, 성공 경험 등 성공과 실패요인 도출	코디네이터 30명 대상 질적 연구	비영리 조직 간 협력 관계 구축에 있어 우선 고려사항 설정 필요
양병찬 외 (2019)	혁신교육지구 사례 분석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체제구축방안 -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전략 및 마을교육 실천방안 제시	혁신교육지구 및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분석 관계자 인식조사	교육자치 생태계 구축, 지역사회 교육기반 구축, 주민 역량 강화 등
윤혜정 & 김희수 (2019)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사례 분석 - 다양한 주체간 상호작용에서 경험된 갈등과 모순 확인	마을교육공동체 참가자 대상 면담	자발적 참여를 위한 수평적 관계, 중간지원시스템 구축, 자생성 확보를 위한 인력, 장소 투자
문보경 외 (2019)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중간지원조직 체제분석 - 구조, 문화, 개인, 정치 체제에서 협업 원동력의 특징 분석	교육협력센터 사례분석	중간지원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 상호 학습을 지원하는 문화 조성, 협업 과정 모니터링 시스템, 센터 운영의 유연성
최정은 & 김혜원 (2019)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 지자체, 리더십, 제도 설계 협력 과정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 차이 확인	도봉구, 마포구, 은평구 사례 분석	민·관·학 주체의 능동적 리더십 요구, 운영협의체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재정 및 제도적 지원
김정현 (2019)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성격 분석 - 중간지원조직주도의 중앙집중 및 탈집중의 혼합	시흥시 사례 사회연결망 분석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조화

출처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방법	정책 시사점
심수현 (2020)	구로혁신교육지구의 민·관·학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 관계, 소통, 의사결정, 구조, 가치 등 관련 주제 분석	민·관·학 거버넌스 참여자 대상 FGI	민주적 의사소통, 작은 단위 거버넌스 제안
김용련 외 (2020)	지역사회 교육거버넌스 구축방안 - 운영 주체, 조정·이행방식, 운영 근거, 예산, 행위자 요인 등 분석	혁신교육지구사업 현황, 지자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분석	광역, 기초, 생활권 수준 교육거버넌스 체계 제안

3) 복지 정책 영역

복지 정책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기관 간 연계협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로컬 거버넌스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김교정과 김용준(2004)은 아동학대예방 센터의 서비스 연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담당자의 인식, 연계 정도를 분석하고,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조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자를 위한 연계교육 및 합동교육훈련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정호 외(2018)는 설립유형별 지역아동센터 간의 협력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자체, 종교재단, 개인 시설 간 협력 수준에 격차가 발견되었고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협력 기능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개방적 네트워크 구축과 거점형 센터의 협력기능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복지정책 분야에서 로컬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들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운영은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지역복지의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3년부터 법제

화되었다(보건복지부, 2015, p. 1). 이후 2015년 7월부터는 지역 차원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 보건의로 및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영역을 확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ibid, p. 4).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주로 협의체의 운영 실태와 네트워크 수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초의수(2008)는 부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원들이 지닌 기대인지 수준, 대표성과 자질, 의사소통 능력이 실제 네트워크 운영에 영향력있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체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민관협력 평가지표에 협의체 운영 반영, 인력 확보 등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류기형 외(2009)는 협의체 담당자 대상 면담 조사를 통해 서비스 연계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참여 횟수가 높을수록 연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보수교육 등 사후관리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최균과 장영신(2013)은 사회교환이론, 상호조직이론, 사회자본이론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지역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조직인 시·군·구 협의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자본 활용의 중요성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전문화된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각 지역의 성공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김우중(2013)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참여성에 주목하여 참여 목적, 참여 단계와 영역, 권한부여 정도, 견인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성 정도를 판단할 지표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점, 민관 모두 참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및 인식 전환 노력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김진과 김희성(2015)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과를 맥락적, 제도적, 관리적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성, 참여성, 협력성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표협의체의 기능 강화, 공공 및 민간의 역할 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능이 강조되는 흐름과 함께 관주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한계를 지적하고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다. 이주현 외(2009)는 서울시 복지서비스 전달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네트워크 참여도, 활성화 이유, 기관별 역할, 복지분야별 네트워크 수준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발적 네트워크에 비해 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협의체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자발적 조직에 의한 네트워크의 주도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행정 지원 및 운영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네트워크 거점기관으로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백희원 외(2016)는 사회복지기관과 사회적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가치 네트워크의 특징, 원천, 기제 등을 분석하였다. ‘가치 네트워크’는 “집합적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고객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 기술을 지닌 기업들을 모형화한 것”으로, 네트워크 촉진,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를 통해 공동자원이 형성되고 가치를 창출해가는 일련의 기제를 의미한다(Stabell & Fjeldstad, 1998; 백희원 외, 2016, p. 103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참여 주체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창출과 사회적 가치창출이 상호배타적이 아닌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어 연합체 결성의 원천이 되는 점을 확인하여, 상이한 법적지위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 간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강혜규 외(2018)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거버넌스 기능에 초점을 두어 협의체 활성화 정도, 성공요인, 거버넌스 인식,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협의체 거버넌스 기능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민간기관 중심 거버넌스와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주도 거버넌스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주도의 조직, 형식적 운영의 비판에서 벗어나 성장하고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인 김희성 외(2020)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모형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그 성과와 혁신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협력적 연결망 강화 및 확대, 수요자 중심 서비스 기획 및 실천, 지역 맞춤형 전달체계 강화라는 협의체 기능과 관련된 성과와 혁신을 종속변수로 삼고, 지자체 재정요인, 협의체 조직 요인, 분과 운영 등을 독립 변수로 삼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협의체 운영 효과성, 실무분과 운영 활성화, 사무국 지원 역할 등의 요인이 협의체의 성과와 혁신을 제고하는데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II-3. 복지 정책 영역에서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거버넌스 관련 연구

출처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방법	정책 시사점
김교정& 김용준 (2004)	아동학대예방 센터의 서비스 연계 실태 분석 - 인식, 연계 정도, 개인 및 조직 요인	전국 아동학대예방 센터 담당자 126명 대상 설문조사	연계교육, 합동교육훈련 지원 필요
초의수 (200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실태와 네트워크 영향요인 분석 - 기대인지, 위원 대표성과 자질, 의사소통의 영향력 확인	부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전수 조사	지자체 책임성 강화,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민관협력 평가지표에 반영, 인력 확보
류기형 외 (2009)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 실태 분석 - 서비스 연계 만족도, 영향요인 파악	부산 동구 사회복지기관 34곳 담당자 면담	사후관리 체계 마련, 연계 활성화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및 인프라 확충, 재정 확보, 정보체계 구축, 협의체 기능 강화
이주현 외 (2009)	서울시 복지서비스전달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 - 네트워크 참여도, 활성화 이유, 기관별 역할, 복지분야별 네트워크 수준 분석	복지서비스전달조직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조직 간 네트워크 분석	자발적 조직에 의한 네트워크 주도성 필요, 행정 지원 및 운영 프로토콜 제공, 네트워크 거점기관으로서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정립
최균& 장영신 (2013)	지역복지 네트워크 모델 비교 - 사회교환이론, 상호조직이론, 사회자본이론 관점에서의 네트워크 사례 비교	평택, 남양주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자료 분석	시군구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간 협력 강화, 평가도구 개발
김우중 (2013)	거버넌스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성 평가 - 참여 목적, 단계, 영역, 권한부여, 견인요인 등 분석	법령 및 담당 공무원 면담	참여 보장 규정 강화, 권한부여 확대

출처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방법	정책 시사점
김진& 김희성 (201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관리방안 - 맥락적, 제도적, 관리적 차원에서의 협의체 성과분석	복지부 운영지침 및 담당자 심층면담	지역성, 참여성, 협력성 원칙의 제도적 뒷받침, 대표 협의체의 기능 강화, 공공, 민간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백희원 외 (2016)	사회복지기관과 사회적기업 간 협력을 통한 가치네트워크 구축 - 가치네트워크의 특징, 원천, 기제 분석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복지관, 복지재단 실무자 대상 사례연구	사회적 기업과 지역복지기관 각기의 전문성에 기반한 협업 전략 필요
유정호 외 (2018)	설립유형별 지역아동센터 간의 협력 분석 - 지자체, 종교재단, 개인 시설 간 협력 수준 격차,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협력 기능 미진	지역아동센터 26개소 설문조사 및 담당자 면담	개방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 개입 필요, 거점형 센터의 협력 기능 평가 필요
강혜규 외 (20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버넌스 실태 분석 - 협의체 활성화 정도, 성공요인, 거버넌스 인식, 성과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수 조사 및 사례 조사, 민간 네트워크 사례분석	협의체 사무국 강화, 지역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확보
김희성 외 (20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성과 분석 - 협의체 운영 모형 개발 및 성과 분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형별 설문조사	운영 기능 명확화, 사무국 사무 명문화, 중앙·광역 차원 예산지원 강화

4) 마을공동체 및 기타 민관협력

최근에는 지방자치의 강화의 흐름 속에서 마을공동체 등 일반 행정 분야에서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전대욱 외(2012)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구상을 위하여 18개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적용하여 마을공동체의 동태적 변화과정을 마을공동체 현안문제와 협력과정, 그리고 마을공동체 비전과 목표공유에 기반한 성과창출을 중심으로 인과지도 모형으로 나타내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 중간지원조직, 기금 설치 등의 제반 요건을 논의하였다. 고희용(2014)은 마을공동체의 네트워크 특성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따

른 거버넌스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중간지원조직 주도형 네트워크와 지방정부 주도형 네트워크의 지역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활성화와 핵심행위자의 중심성의 두 측면에서 중간지원조직 주도형 네트워크의 밀도와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중개자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함을 도출하였다. 김상민(2016)은 주민자치를 통한 협력적 마을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는 데 있어 마을만들기 활동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마을만들기 참여 사례별로 맥락적 요인, 제도설계, 협력의 구조와 질, 역량,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그 밖에도 자원봉사센터, 지자체 로컬 거버넌스, 민관 협력 등 다양한 행정 정책 거버넌스에서 협력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김이수(2015)는 자원봉사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거버넌스, 행정, 조직자율성, 상호성, 규범 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참여적 의사결정, 상호보완성, 차별적 이해, 신뢰 요인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남재걸(2016)은 지방자치단체 사회정책의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복지와 고용서비스 분야 우수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문헌 분석 및 담당자 면담을 통해 고정적인 수요자 그룹을 상정하는 것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기존 업무를 재구성하고, 시·군청이 아닌 새롭게 형성된 조직이 네트워크의 강한 중심성을 가지는 것이 협력의 성공요인임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접근, 업무조정 역량 강화, 중앙부처 차원의 시스템 통합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김정욱 외(2020)는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사례로서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150개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트워크에서 지자체의 중심성이 높고, 단체 간 소통과 협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 관계가 보조금 제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 의제발견과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표 II-4. 마을공동체 및 기타 민관협력에서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거버넌스 관련 연구

출처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방법	정책 시사점
전대욱 외 (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사례 심층분석	18개 지역공동체 운영자 및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광역, 기초지자체 조례제 정안, 중간지원조직 운영 안, 공동체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고광용 (2014)	자치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중간지 원조직 역할 비교 -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유형에 따른 네트워크 특성 및 중간지원조직 역할	지역별 정기 모임 회 의록 분석 및 담당자 면담	정부주도형보다 중간지원 조직 주도형 네트워크 구축 필요
김이수 (2015)	자원봉사센터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요인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거버넌스, 행정, 조직자율성, 상호 성, 규범이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	자원봉사센터 실무 자 대상 설문조사	참여적 의사결정, 상호보 완성, 차별적 이익, 신뢰 요인 강화, 호혜성 축소 필요
김상민 (2016)	주민자치를 통한 협력적 마을 거버넌스 모델 제안 - 사례별 맥락적 요인, 제도설계, 협력 구조와 질, 협력 역량, 성과 분석	마을만들기 문헌 조사 및 참여자 심층 면담	이해관계자 간 역학관계 및 주민의 권리와 역할 인 식, 협력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 의사소통 방식의 규칙 설정
남재걸 (2016)	지방자치단체 사회정책의 협력적 로컬거버넌스 분석 - 복지외 고용서비스 분야 우수 지자체 사례분석	지자체 사업 문헌조 사 및 담당자 면담	수요자 중심 접근, 칸막이 해소를 위한 고위공무원 교육, 중앙부처 협력
김정욱 외 (2020)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조 분석 - 지자체 중심성 높음, 단체간 소통과 협력 낮음	150개 단체 대상 설 문조사	보조금 제공을 넘어 지역 사회 의제발견과 문제해 결을 위한 소통 필요

5)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여러 정책 영역에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거버넌스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여러 정책 분야에서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의 구축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민-관, 또는 민-관-학

협력적 거버넌스에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기반은 매우 다른 상황에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는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분리에서 오는 오랜 관습을 깨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신뢰 및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 더불어 교육 주체로서 마을(지역주민) 등 민간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제시되며, 이를 위한 장치로서 교육협력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법정 기구로서 협의체의 목적과 운영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 현실은 아직까지 관 주도의 형식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경우에도 민관 조정자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여러 정책적 흐름에서 청소년 정책분야와의 연계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기관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지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의 주도 또는 참여를 전제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가고 있으나 여전히 해당 정책 영역 중심의 구조를 전제로 하며, 더구나 청소년 분야에서는 연계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구축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적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목적과 개념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시범사업에서 추진되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도 이미 교육 관련 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안전망 등 공식적 기구에서부터 민간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법이나 제도에 의한 규정이 아니라 시범사업의 취지에 따라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양한 네트

워크에 더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왜 필요하고 어떤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적 기반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제도화 논의에 있어 법적 근거마련을 통한 공식 기구화에서부터 느슨한 연대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운영 방식과 그 지향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여러 정책 영역에서 민-관 협력을 지원하고 지역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또는 운영조직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외부의 조직이 네트워크의 중개자로서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관리조직(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중심 네트워크’의 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정욱 외, 2020; 김희성 외, 2020). 본 시범사업에서 청소년 시설 또는 재단은 사업운영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의 공동 목표를 정립하고 다양한 주체간의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네트워크 주도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청소년 시설 또는 재단을 중심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었지만, 2020년 이후에는 분과 네트워크 운영이 활발해지고 분과 간 소통과 총괄·조정업무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청소년 시설 또는 재단에서는 운영과 실무 역할을 담당하는 등, 운영구조상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네트워크의 유연하고 동등한 관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관리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청소년 시설 또는 재단의 역할 정립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또한 타 정책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군구 단위를 넘어 광역,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정책 영역마다 지역에서의 연계·협력을 강조하면서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으나, 지역 역시 정책부서 간의 칸막이와 영역 간 이해관계의 충돌

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시설 등이 협력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은 교육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기관들 사이에 어떻게 공통의 목적의식을 공유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유의 업무와 영역에 대한 역할 수행에 갇혀있다는 점,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의 비전을 갖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한 연계협력의 범위와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앙 부처 차원에서의 연계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성공은 참여성, 협력성, 리더십, 권한이양, 상호이해 등,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치가 실제로 얼마나 수용되고 구현되고 있는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관 주도 관행의 탈피, 상이한 업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정, 실적 이전의 공감대 형성 등, 공식화된 규정이나 제도적 장치와 같은 형식성만으로 담보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의 습득과 인식의 전환, 업무 문화와 의사소통 방식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3년간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협의체 운영 실적과 연계협력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인식의 변화와 신뢰 관계의 형성 등, 비물질적인 성과와 문화적 가치가 성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향후 정책사업 또는 정책방안 설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치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치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상의 원리로서 담겨져야 하고, 공통 목표와 신뢰에 기반한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 운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상이하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협력의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Ansell & Gash(2008, p. 2)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공식적이고 합의지향적이며 심의적인 성격을 지닌, 공공정책을 집행하거나 공공 프로그램이나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목적을 지닌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비정부적 이해관계자들을 직접적으로 개입시키는 통치장치”라고 정의한다(김이수, 2015, p. 83에서 재인용). 이들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협력의 초기조건, 협력 과정, 결과의 3단계라는 과정적 접근을 제시한다. 초기조건에는 권력, 자원, 지식의 비대칭성, 협업 또는 갈등의 경험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참여의 유인 또는 억제 기제가 형성된다. 협력 과정은 신뢰 형성, 과정에 대한 헌신, 상호 이해, 중간 성취, 면대면 대화 등의 경험이 순환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협력의 과정은 제도 설계를 수반하며, 촉진적 리더십의 영향을 받는다. 제도 설계는 참여성, 포용성, 명확한 기본규칙, 과정의 투명성과 같은 가치로서 지지되며, 촉진적 리더십은 다양한 주체로의 권한이양(empowerment)을 포함한다.

Thomson, Perry & Miller(2007)는 협력의 본질이 주체들 간의 협상과 규칙 및 관계구조의 생성, 공동의 의사결정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협력의 다면적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협력 모델은 구조적 차원(거버넌스와 행정), 사회 자본(상호성과 규범), 그리고 행위성(조직의 자율성)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거버넌스(governance)는 참여 주체들 간에 행위와 관계를 설정하는 공동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나아가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의 다양한 선택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틀의 구조를 짜는 일이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적이고 고정된

구조라기보다는 동태적으로 형성되는 과정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ibid, p. 3). 행정(administration)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실행과 실행과정 에 대한 관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협력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체들의 자발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관료주의 행정에서 보이는 위계구조, 표준화, 일상화 의 선택이 열린다(ibid, p. 4). 상호성(mutuality)은 다주체 간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상호의존적 특성으로, 개별 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이익 을 창출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규범(norms)은 상호성이 실현되기 위해 따라야 할 규범으로 신뢰의 기제가 된다. 행위성(agency)은 참여자들이 지닌 소속 기관/ 단체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체성 간 긴장 관계 를 통해 형성되는 자율성(개별 조직)과 책무성(공동 이해)의 협상과 조율을 의미한 다. 성공적인 협력관계는 이러한 자율성과 책무성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방 향으로 진행된다(ibid, pp. 5-6).

이들 이론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에 있어 협력의 중요성 과 형성 과정 및 구조화에 주목하게 한다면, Provan & Kenis(2007)은 거버넌스 의 분석 단위로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네트워크는 조정의 기제 또는 그 자체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로서 규정된다(ibid, p. 232). 먼저 참여기관 운영 네트워크(Participant-Governed Network)는 네트워크 참여 조직들이 수 평적, 분권적 관계 구조를 지니며, 네트워크와 관련된 의사결정, 내부 운영,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주도조직운영 네트워크(Lead Organization-Governed Network)는 네트워크를 참여하는 조직 가운데 하나의 기관이 주도조직으로서 네트워크의 활동과 의사결정을 조정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주도조직의 권한이 강하고, 주도조직의 목표와 네트워크의 목표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주도조직은 행정에 대한 책임, 협력과 조정 역할을 담당 하고, 다른 참여 조직은 협력과 지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역할 배분에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운영 조직(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은 네트워크 활동은 하지 않고 조정과 촉진 역할만 담당하는 별도

의 조직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이 이에 해당된다(김정옥 외, 2020, pp. 272-273). 본 연구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는 시범사업수행기관이 주도조직이 되어 네트워크의 촉진을 조정하는 구조로서 두 번째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협의체 운영방식이 변화해 왔고, 시범사업 기간 이후 지역별 상황이나 혹은 재단이나 청소년시설이냐에 따라 네트워크에서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에서 청소년 재단 또는 시설의 역할 모델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트워크는 기관·조직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겠다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성과는 높은 수준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Milward & Provan(2006)은 네트워크의 유형을 목적에 따라 정보공유, 문제해결,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네트워크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김정옥 외, p.273에서 재인용).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유형에 따른 목적이 배타적이기보다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동시에 추구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경우, 지역사회 청소년 사업과 현안에 대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정보공유), 지역사회 청소년 욕구 또는 문제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해결하고자 하며(문제해결), 청소년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계·협력하며(서비스제공),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신뢰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집합적인 역량을 강화(역량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Emerson, et al.(2012)은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실천의 통합적 틀을 제안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른 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 기관, 정부 기관, 기업, 시민사회 영역에 걸쳐 사람들의 건설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공 정책 의사결정과 관리의 과정이자 구조이다”(ibid, p. 2). 이는 앞서 Ansell & Gash(2008)의 정의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주로 공식적이고 정부 주도적 장치를 의미했던

것보다 폭넓은 의미에서의 “다주체 거버넌스(multipartner governance)”를 전제하고 있다(ibid, p. 3). 이들이 제안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틀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통치(또는 레짐, regime)”으로, 이는 어떤 영역에서 주체들의 기대가 수렴하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원리, 규칙, 규범, 그리고 의사결정 절차를 의미한다(Crosby & Bryson, 2005, p. 51; Emerson et al., 2012, p. 6에서 재인용). Emerson, et al.(2012, p. 2)은 다양한 경계를 넘나드는 협력이 나타내는 행동과 활동의 지배적인 패턴이 작동하는 공공 의사결정의 특정 시스템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레짐(collaborative governance regime)을 상정하며, 이러한 레짐은 협력적 역동과 행동이 작동하면서 발전하거나 진화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협력적 역동(collaborative dynamics)은 원칙에 입각한 참여, 공통의 동기, 공동 행동의 역량 등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역동은 레짐의 공동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로서 협력적 행동(collaborative actions)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행동은 협력적 거버넌스 레짐이 속하는 체계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레짐 자체가 적응 또는 발전해 나가는 결과를 낳는다. 이 틀에서 협력이 작동하기 위한 유인 요인으로는 리더십, 결과에 따른 보상, 상호의존성, 불확실성이 제시된다.

Bryson, et al.(2015)은 다주체 간 협력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최근 십 년간의 성과를 종합한 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협력의 조건과 동인, 협력의 과정과 구조, 갈등과 성과 등 다양한 요소들을 총망라한 것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 과정과 성과를 분석하는데 참조틀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자원, 제도적 환경, 공적 이슈의 제기 등이 일반 선행조건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협력의 조건, 동인, 연계 기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권력의 불균형, 다양한 제도적 논리가 내적 갈등과 긴장을 수반하며, 이는 협력의 과정과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협력의 과정은 신뢰와 헌신,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 정당성, 공식 또는 비공식 계획의 추진으로 구성된다. 협력 구조에는 참여의 규범, 규칙, 실천, 역동적이고 특정한 구조들, 구조의 양면성이 포함된다(ibid, pp. 651-653). 여기서 구조

의 양면성(structural ambidexterity)은 기존 문헌에서는 부각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으로, Bryson, et al.(2015, p. 653)은 안정과 변화, 위계와 수평, 기존 권력 구조와 자발적, 비자발적 권력배분, 공식 네트워크와 비공식 네트워크 등과 같이 상반된 구조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역량이 협력의 구조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협력의 과정과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책무성과 성과로 나타난다. 책무성은 공식적, 비공식적 책무를 포괄하며, 성과 역시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 단기와 장기,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ibid, p. 656).

표 II-5. 협력적 거버넌스 관련 주요 논의

저자	관점	분석틀/모형
Ansell & Gash (2008)	협력의 과정에 초점 - 초기조건, 협력과정, 결과의 3단계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조건: 권력, 자원, 지식의 비대칭성, 협업 또는 갈등의 경험, 참여의 유인/억제 기제 • 협력과정: 신뢰형성, 과정에 헌신, 상호 이해, 중간 성취, 면대면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설계: 참여성, 포용성, 명확한 기본규칙, 과정의 투명성 - 촉진적 리더십: 권한이양 포함 • 성과
Thomson, Perry & Miller (2007)	협력의 다면적 특성에 초점 - 구조적 차원(거버넌스, 행정), 사회자본(상호성, 규범), 행위성(조직의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주체들 간 행위와 관계에 대한 공동 규정 마련,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의 선택지에 대한 구조 생성, 동태적 과정 •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과 관리 • 상호성: 개별/공통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의존적 과정 • 규범: 신뢰 관계 형성 • 행위성: 소속 조직의 이해관계와 공통의 이해관계 사이의 조정과 시너지 효과
Provan & Kenis (2007), 김정욱 외	거버넌스의 분석 단위로써 네트워크에 초점 - 참여기관 운영 및 주도조직 운영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관 운영 네트워크: 수평적·분권적 구조, 의사결정, 내부 운영,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 공유 • 주도조직 운영 네트워크: 하나의 기관이 네트워크의 활동과 의사결정을 주도하여 조정, 주도조직의 목표와 네트워크의

저자	관점	분석틀/모형
(2020)	크, 네트워크 지원조직으로 구분	<p>목표 밀접한 관계 형성, 참여조직은 협력과 지원, 주도조직은 행정, 협력과 조정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 지원조직: 네트워크 활동은 하지 않고 조정과 촉진 역할만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 설치.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이 이에 해당.
Emerson, et al. (2012)	다주체간 협력 거버넌스 협력 거버넌스 레짐 안에서 협력적 역동과 행동을 통해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적 거버넌스 레짐: 다양한 경계를 넘나드는 협력이 나타내는 행동과 활동의 지배적인 패턴이 작동하는 공공 의사결정의 특정 시스템으로 협력적 역동과 행동으로 발전 또는 진화 협력적 역동: 원칙에 입각한 참여, 공통의 동기, 공동 행동의 역량 등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짐 협력적 행동: 레짐의 공동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 레짐이 속하는 체계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레짐 자체가 적응 또는 발전해 나가는 결과를 낳음 유인 요인: 리더십, 결과에 따른 보상, 상호의존성, 불확실성
Bryson, et al. (2015)	다주체간 거버넌스 - 선행 조건, 내적 갈등과 긴장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분석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선행조건: 자원, 제도적 환경, 공적 이슈의 제기 내적 갈등과 긴장: 권력의 불균형, 다양한 제도적 논리 협력의 과정: 신뢰와 헌신,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 정당성, 공식 또는 비공식 계획의 추진 협력의 구조: 참여의 규범, 규칙, 실천, 역동적이고 특정한 구조들, 구조의 양면성 책무성과 성과: 공식, 비공식적인 복합적 책무성, 가시적, 비가시적 성과

이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자원과 인프라 등 선행조건, 지역사회 청소년 현안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공동의 인식과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의 목적 공유, 협의체 구성·운영 과정에서의 신뢰와 갈등, 네트워크 내 활동 참여의 규범, 공동의 책무성과 성과 등, 협력의 배경, 과정, 구조, 성과를 아우르는 폭넓은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1차년도 사업에서는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를 1) 청소년성장

지원협의체를 통한 거버넌스 운영주체 역할·기능 부여, 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주체 간 정보 및 사례 공유를 통한 통합적 문제해결 방안 마련, 3) 수평적 의사결정 참여 확산을 위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플랫폼 기능 강화, 4)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사업 운영 시 간영역적 연계협력 가능 등을 제시한 바 있다(최인재 외, 2019, p. 212). 이 가운데 1)과 3)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과정적 특성에 가깝고, 2)와 4)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적 특성에 가깝다. 이처럼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운영 성과는 거버넌스의 구축과정 그 자체에 주목하는 측면과 거버넌스 내 연계·협력의 실질적인 성과 양쪽을 포괄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년간의 시범사업 종합성과분석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 과정상의 측면과 운영 효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운영요소: 배경, 과정, 구조적 요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운영요소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크게 배경 및 조건, 협의체 운영 과정,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조적 특징의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배경 및 조건과 관련된 요소로는 지역사회 내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지역사회 내 연계가능한 관련기관 분포의 충분성, 네트워크 구성과정에서 관련기관 참여제약/자율의 정도, 네트워크 구성과정에서 관련기관 간 갈등/신뢰의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김예린, 2018; 최유미, 심성지, 2008). 이러한 요소들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연계협력의 바탕이 되는 전제적 요소들이다.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물적자원, 인적자원, 프로그램 등 관련자원을 배태하고 있는 연계가능한 관련기관들이 충분

히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연계가능한 관련기관들이 네트워크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을 제약하는 제도적, 문화적 제약조건이 없고 참여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연계가능한 관련기관 간에 갈등이 없고 협의체 구성이 가능할 정도의 신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교육지원청/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의 충분성, 교육지원청내 전담인력(지역사회협력전담장학사)의 충분성, 지자체내 전담인력(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충분성, 지자체내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의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최인재 외, 2019; 최인재 외, 2020).

둘째, 네트워크의 운영 과정과 관련된 요소는 앞에서 살펴 본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적 요소들을 참조하여 다시 목표설정, 신뢰관계, 의사결정 규범, 참여자 책무성, 운영구조의 효율성의 세부 요소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목표설정 부분에서는 네트워크 기관들의 공동의 현안발굴 역량과 공동의 목표설정의 명확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김예린, 2018; 오석홍, 2020). 네트워크 협의체가 형성되고 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협의체 기관들이 공동으로 설문조사, FGI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필요한 현안이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발굴된 현안을 바탕으로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의 사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일이다.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지원 및 해결을 필요로 하는 욕구와 문제가 현안으로 정확히 파악되고, 이러한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의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이후의 의사결정, 자원동원을 거쳐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신뢰관계 부분에서는 네트워크 기관들의 탈퇴/참여의 자율성, 네트워크 기관들의 책임감, 네트워크 기관들 간 수평적 관계, 네트워크 기관들 간 협력적 의사소통, 네트워크 기관들 간 갈등/신뢰의 정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김병욱, 최은수, 2019; 김예린, 2018; 오석홍, 2020).

의사결정 규범과 관련해서는 먼저 네트워크 기관들의 의사결정의 민주적/속의 적/합의적인 정도, 네트워크 기관들의 의사결정의 수요자 중심성/명확성/효율성의 정도 등 의사결정의 원리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김이수, 2015; 김희성 외, 2020). 또한 이러한 원리가 일관되고 책임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운영관련 규정/기본계획/담당자역할규정, 네트워크 운영의 투명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최인재 외, 2019; 최인재 외, 2020).

다음으로 참여자 책무성과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기관 CEO들의 연계협력에 대한 관심, 네트워크 기관 담당자들의 목표달성의지 및 연계협력역량(공동기획, 의사소통, 협업,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 시민성 역량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김의용, 조성숙, 2016). 참여 주체들 간의 자원 동원 및 지원의 내용과 방법이 충분한지, 호혜성의 원칙이 발현되는지 등도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책무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장연진, 2010).

마지막으로 운영구조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운영주관기관의 네트워크 운영의 효율성, 협의체/실무/분과네트워크 등 운영구조의 체계성, 네트워크 전담인력의 충분성, 예산지원의 충분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최인재 외, 2019; 최인재 외, 2020).

셋째, 네트워크의 구조적 요소로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여러 구조적 특성(밀도/중심성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활용되고 있다. 먼저 네트워크의 단위가 되는 조직 노드(node)들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결속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들에는 포괄성(inclusiveness), 밀도(density), 연결정도(degree), 강도(strength) 등이 있다(김용학, 2003; 김용학, 김영진, 2016). 포괄성(inclusiveness)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조직 노드(node)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의는 네트워크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기가 다른 네트워크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조직 노드(node)의 총개수 대비 연결

되어 있는 조직 노드(node) 개수의 비율로 많이 나타낸다(곽기영, 2019; 손동원, 2008). 밀도(density)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조직 노드(node) 간 실제 연결된 관계 수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의는 네트워크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기가 다른 네트워크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조직 노드(node) 간 연결이 가능한 총관계 수 대비 실제 연결된 관계 수의 비율로 많이 나타낸다(곽기영, 2019). 연결정도(degree)는 한 조직 노드(node)가 관계맺음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다른 조직 노드(node)의 개수를 의미하고, 강도(strength)는 두 조직 노드(node) 간의 연계협력의 빈도를 의미한다(Scott, 1992; Wasserman & Faust, 1998; 손동원, 2008).

다음으로 네트워크의 단위가 되는 조직 노드(node)들이 다른 조직 노드(node)들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들에는 도달가능성(reachability), 최대흐름(maximum flow), 경로거리(geodesic distance) 등이 있다(김용학, 2003; 김용학, 김영진, 2016). 도달가능성(reachability)은 두 조직 노드(node)들 사이에서 도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의미하고, 최대흐름(maximum flow)은 두 조직 노드(node)들 사이에서 도달이 가능한 경로의 전체 개수를 의미하며, 경로거리(geodesic distance)는 두 조직 노드(node)들 사이에서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경로의 단계 수를 의미한다(김용학, 2003; 손동원, 2008; 이수상, 2012).

이러한 조직 노드 간 연결관계 속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중심성(centrality)도 측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한 조직 노드(node)가 다른 모든 조직 노드(node)들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한 조직 노드(node)가 다른 모든 조직 노드(node)들과의 연결을 매개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위세중심성(prestige centrality)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한 조직 노드(node)의 다른 조직 노드(node)에 대한 관계적 영향력을 아이겐벡터(Eigenvector) 값 등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이수상, 2012; Scott, 1992). 중심성 개념들도 네트워크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기가 다른 네트워크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크기를 고려한 최대 가능 중심성 값으로 나누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표준화한 중심성 개념을 사용한다(곽기영, 2019; 손동원, 2008).

전체 네트워크에서 조직 노드(node)들이 서로 연결되어 부분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하위집단(sub-group)을 나타내는 개념들에는 파당(clique), 강한 컴포넌트(strong component), 약한 컴포넌트(weak component) 등이 있다(손동원, 2008; 이수상, 2012). 파당(clique)은 조직 노드(node)들 상호 간에 서로 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양방향으로 완전히 연결된 집단을 의미하고, 강한 컴포넌트(strong component)는 조직 노드(node)들 상호 간에 서로 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간접적인 관계도 가능한 강하게 연결된 집단을 의미하며, 약한 컴포넌트(weak component)는 조직 노드(node)들 상호 간에 일방적으로만 도달할 수 있어도 가능하고 간접적인 관계도 가능한 약하게 연결된 집단을 의미한다(Scott, 1992; Wasserman & Faust, 1998; 김용학, 2003).

다음으로 전체 네트워크에서 조직 노드(node)들이 차지하는 구조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에는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이 있다(김용학, 2003; 손동원, 2008; 이수상, 2012).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조직 노드(node)들이 서로 같은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정도를 유클리드 거리나 상관관계 등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Scott, 1992; Wasserman & Faust, 1998).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네트워크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개념들 중에서 이 연구의 인식관심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결속도와 중심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결속도를 나타내는 개념들 중에서는 조직 노드 중심의 결속을 나타내는 연결정도와 강도 개념보다는 전체 네트워크 차원의 결속을 나타내는 포괄성과 밀도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포괄성과 밀도 개념을 중심으로 전체 네트워크의 결속 특성을 살펴보고, 중심성을 나타내는 개념들 중에서는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 개념보다는 위세중심성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위세중심성인 아이겐벡터 중심성 개념을 중심으로 특성을 살펴보았다.

3)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운영효과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운영요소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운영이 목적에 부합한지, 운영 내용과 방식이 효율성과 적절성을 담보하는지를 보여주는 운영상의 성과지표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이러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운영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이러한 효과가 어느 정도 충족해 왔는지를 측정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조직 간 네트워크의 구성은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았을 때의 서비스 제공에 비해 네트워크를 구성했을 때의 서비스 제공이 더 나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뤄진다.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협력 네트워크에 배태된 자원들을 동원해 기관정보공유, 물적자원교류, 인적자원교류, 프로그램협력 등을 도모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Coleman, 1988; Granovetter, 1973; Lin, 1982; 손동원, 2008; 이주현 외, 2009). 이 연구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목적 역시 기관정보공유, 물적자원교류, 인적자원교류, 프로그램협력 등의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구성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물적, 인적자원을 교류하며,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동의 사업을

기획하여 프로그램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성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비해,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이고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Granovetter, 1973; Lin, 1982; 류기형 외, 2009; 서혜미, 민소영, 2012; 손동원, 2008; 유정호 외, 2018; 이주현 외, 2009; 하동원, 2015).

또한 구성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기관의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 프로그램을 협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성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비해 다양한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적 문제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류기형 외, 2009; 박혜원, 문형구, 2009; 서혜미, 민소영, 2012; 손지현, 2016; 최재성 외, 2011).

이러한 서비스 지원의 비용 감소, 시간 감소(속도 증가), 불확실성 감소, 다양성 증대, 통합적 문제해결 가능성 증대 등은 기관 담당자의 청소년 성장지원 연계협력 역량 제고로 이어지고,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해 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류기형 외, 2009; 손지현, 2016; 유란희, 2018; 장연진, 2010). 또한 이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내 공감대가 증대되고, 청소년의 접근성 확대 및 참여 증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차별화, 자생성 증대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연계협력 사업 증가, 공동기획 사업에 대한 참여 증가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4) 시범사업 종합성과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양적·질적 조사설계

이상에서 제시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운영요소 및 효과에 대한 분석은 협력적 거버넌스 관련 문헌을 통해 추출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설문 조사문항을 개발하고 및 지역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는 등, 양적 도구를 통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다. 그런데 시범사업의 성과를 파악하는 일은 이러한 이론적, 연역적 접근뿐 아니라 실제 경험에 근거한 귀납적 접근과 참여자의 주관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사례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양적 접근으로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운영 과정에서 겪게 되는 쟁점과 어려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과 동력, 그리고 그 결과 얻게 된 실천적 지식과 역량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주체들의 학습과 성장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본 시범사업은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에 앞서 지역의 청소년 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여러 구성요인 중 참여자의 주체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주체(사업주관기관, 네트워크 참여자, 청소년 등)간 신뢰 형성과 상호 이해의 과정, 공동의 목표 형성에서 참여 주체들 간의 관점 차이,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합의 또는 갈등 등, 네트워크 활동경험의 역동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면담과 워크숍을 통해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귀납적 경험에 따른 성과의 측면을 지역별 공통 주제로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 종합성과분석의 연구모형은 <그림 II-1>과 같으며, 4장과 5장에서 연구방법과 분석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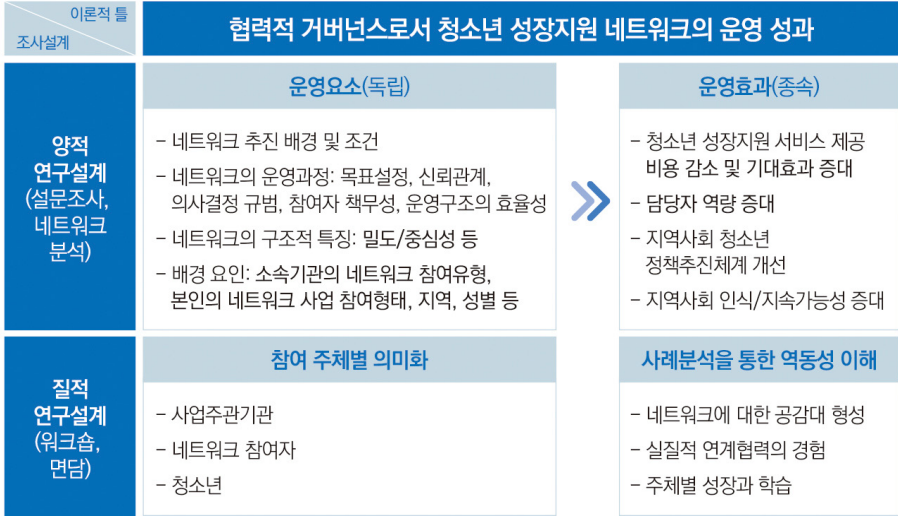


그림 II-1.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종합성과분석의 연구모형

○————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 (3차년도)

- 1. 시범사업 운영 개요
- 2. 곡성군
- 3. 유성구
- 4. 부천시
- 5. 소결

1. 시범사업 운영 개요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실질적인 적용사례를 제시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에 2019년에는 지자체와 지역 청소년시설 등을 중심으로 사업공고를 하였고, 경기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전남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을 사업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사업은 시·군·구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플랫폼 역할을 위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⁵⁾’를 구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1)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한 거버넌스 운영주체 역할·기능 부여, 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참여주체 간 정보 및 사례 공유를 통한 통합적 문제해결 방안 마련 확보, 3) 수평적 의사결정 참여 확산을 위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플랫폼 기능 강화, 4)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사업 운영 시 간영역적 연계협력 가능 등의 내용을 기대효과로 삼았다(최인재 외, 2019, pp. 212-216). 2020년에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별로 협의체의 정체성과 기능을 정립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협의체의 비전과 목표의 명확한 설정, 협의체 운영

4) 이 장은 지역별 시범사업 보고서를 요약·재구성하여 황세영 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5) 본 연구에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네트워크의 운영과 실행을 위해 구성원들의 합의에 만들어지는 공식 기구를 의미한다. 반면 협의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협력사업 또는 비공식적 연계협력을 위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도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범위는 협의체보다 넓고 느슨한 구조를 의미한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분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연계협력 추진 등을 주요 과업으로 설정하였다(최인재 외, 2020, p. 243).

올해는 시범사업 운영의 마지막 해로서 네트워크 주체 간 연계협력의 질을 높이고 신뢰기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구조를 포함하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본 사업 종료 후 네트워크의 자생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 구상에 초점을 두었다.

2. 곡성군

1) 1, 2차년도 사업 추진 결과 요약⁶⁾

(1) 지역 현황: 청소년 유출 방지를 위한 농·산·어촌·소도시

전남 곡성군은 총인구 3만 명이 안 되어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있는 지역으로 청소년 인구 역시 4,100여 명에 불과하다. 학교 통폐합으로 학교 수가 2005년 기준 28개에서 15개로 감소하였고, 여러 청소년 시설이 있음에도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곡성군청은 2019년부터 청소년 담당업무 부서를 복지과에서 미래혁신과로 변경하고, 교육지원청과 함께 곡성군미래협력교육센터를 개소하는 등,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미래협력교육센터에서 미래교육재단으로 확대 출범하고 재단 내 청소년 성장지원팀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보다 긴밀한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

6) 1, 2차년도 연구보고서(최인재 외, 2019; 최인재 외, 2020)의 시범사업 추진 현황 자료 및 3차년도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1a)를 요약하여 제시하였음.

(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19년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청소년기관 5개소(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옥과청소년문화의집,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의 컨소시엄이 주도하고, 곡성군청, 곡성미래교육센터가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2018년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센터에는 군청, 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지역 내 청소년 공통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협의체에는 사회복지기관, 청소년참여기관, 마을공동체 등이 참여하였다.

2020년 협의체 운영은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분과실무자 네트워크와 활동참여 네트워크, 진로직업네트워크, 보호복지네트워크 등 주제별 분과 네트워크를 구분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WEE센터, 지역아동센터, 협동조합, 학교 등 협의체 참여 기관도 확대되었다.

(3) 주요 추진 결과

2019년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관련 주체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를 추진하였다. 또한 청소년원탁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장박람회 때 자치부스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 주도성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2020년에는 분과별 정책실험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었다. 활동참여네트워크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에 따른 의회 구성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는 학생의회와 청소년참여기구를 통합하여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문화의집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보호복지네트워크에서는 상대적으로 청소년 지원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석곡면 지

역에서 석곡중학교 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운영을 추진하였다. 진로직업네트워크에서는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메이트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곡성군 3차년도 사업 추진 결과⁷⁾

(1) 추진 전략 및 계획

2021년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정책실험을 중심으로 분과네트워크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소년의회와 청소년참여예산제를 기반으로 청소년참여 플랫폼을 지원함으로써 수평적 의사결정 참여 확산을 가져오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중심을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시설에서 곡성미래교육재단으로 옮겨 청소년성장지원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2020년 출범한 곡성미래교육재단에서는 민·관·학협의체인 미래교육협의회 운영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로, 향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의 연결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

곡성군은 올해 행정안전부의 소지역 다부처정책연계 체계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자치, 돌봄, 도시재생, 농식품, 교육 등 관련 5개 중앙부처 간 협약을 기반으로 사업 간 연계협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해당 사업을 기반으로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돌실어울림센터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 지자체 연계협력 부서의 범위를 넓혀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7) 3차년도 최종 사업보고서(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1b) 내용을 발췌·재구성함.

청소년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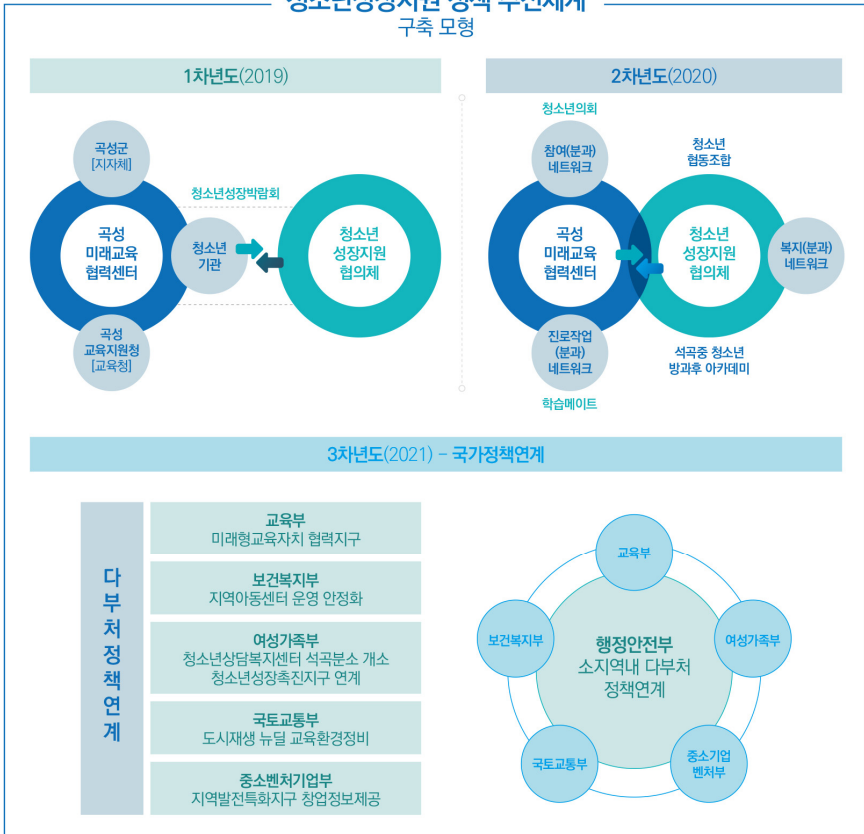


그림 III-1.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구조(2019-2021)

첫째, 청소년참여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청소년 주도의 의제를 발굴하고 청소년 성장박람회를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연계·협력의 일환으로 석곡중학교 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을 운영하여 정책 영역 간(여성가족부와 교육부) 협력 실험을 진행한다.

셋째, 농촌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창의교육 플랫폼 꿈키움마루(전남교육청과 곡성군청 공동추진, 미래교육재단 운영) 설립을 통해 기존 수익형 진로체험프로그램에서 공익형으로의 전환을 실험하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원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청소년성장협의체 운영을 위해 곡성미래교육재단의 미래교육 협의회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안착시키고자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참가자들의 네트워크로서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안착에 기여한다.

(2) 협의체/실무협의체/분과 네트워크 운영 결과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표 III-1. 곡성군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현황

연번	소속	직위
1	곡성군청	미래교육팀장
2	곡성군청	주 무 관
3	곡성군청	주 무 관
4	곡성군청	드림스타트
5	곡성미래교육재단	청소년지원팀장
6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체육복지팀장
7	곡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팀장
8	곡성교육지원청	위센터 실장
9	곡 성 고	교 사
10	옥 과 고	교 사
11	곡 성 중	교 사
12	석 곡 중	교 사
13	옥 과 중	교 사
14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관 장
15	진로체험지원센터	실 무 자
16	옥과청소년문화의집	관 장
17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 터 장

연번	소속	직위
18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 담 사
19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 장
20	곡성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센 터 장
21	청소년참여위원회	위 원 장
22	청소년의회 (옥과중)	의 장
23	(사)한국B.B.S. 곡성군지부	지 부 장
24	청소년 민간전문가	사람책(건축가)
25	청소년 민간전문가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26	청소년 민간전문가	마을학교연합회
27	입 면 초(재단파견)	교 사

- 협의체 회의: 행안부의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의 역할과 사업내용을 논의하는데 초점을 둠.

표 III-2. 곡성군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현황

일시(요일)	참석기관(참석자)	업무 내용
6월 18일 (금)	곡성군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 곡성청소년문화의집 옥과청소년문화의집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021년 곡성군청소년성장박람회 기획회의 ○ 운영 시기와 방식 논의, 목적과 방향 논의, 교급에 맞는 프로그램 논의
7월 27일 (화)	곡성군성장지원협의체 다부처 정책연계센터	○ 업무협의 ○ 내용 : 곡성군 네트워크 현황과 관련하여 정 보공유(곡성군 참여위원회)
8월 3일 (화)	곡성군성장지원협의체 석곡면청년회 석곡 석청도서관	○ 석곡면 어울림센터 건립관련 의견수렴

일시(요일)	참석기관(참석자)	업무 내용
8월 5일 (목)	곡성군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 곡성군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TF회의
8월 21일 (토)	곡성군성장지원협의체 석곡면청년회 다부처 정책연계센터 곡성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석곡 어울림센터 관련 협의
9월 7일 (화)	곡성군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다부처 정책연계센터	○ 석곡권역 다부처정책 연계 관련 사업 논의
9월 10일 (금)	곡성군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다부처 정책연계센터	○ 석곡권역 다부처정책 연계 관련 사업 논의
9월 10일 (금)	곡성군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석곡중 방과후아카데미	○ 석곡중 방과후아카데미 2학기 운영관련 협의

표 III-3. 활동참여 분과네트워크 회의 현황

일시(요일)	참석기관(참석자)	업무 내용
4월 13일 (화)	곡성군청 소년문화의집 옥과청소년문화의집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곡성교육지원청	○ 곡성청소년 내그린학교 서류심사 - 36개 팀 215명 서류심사 실시 - 주제적합성 15점, 실행가능성 15점, 활동지속성 15점, 예산타당성 15점 총 60점 - 4월 24일(토) PPT 발표심사 예정
4월 17일 (토)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임시회의 - 어린이날 행사 2차 기획회의
4월 24일 (토)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옥과청소년문화의집	○ 곡성청소년 내그린학교 PPT 면접심사 - 총 36개팀 접수, 35개팀 선정. PPT 면접심사 - 10시~ 17개팀, 14시~ 18개팀
5월 6일 (목)	곡성군청소년미래 교육재단 곡성교육지원청, 곡 성군청소년문화의집	○ 곡성군 어린이, 청소년의회 관련 실무자 회의 - 학생의회를 포함하여 청소년의원 구성관련 논의 - 그 외 예산 및 연간 사업 일정 협력 논의

일시(요일)	참석기관(참석자)	업무 내용
5월 8일 (토)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옥과청소년문화의집	○ 2021년 곡성 청소년 내그린학교 발대식 - 참가팀: 33개팀(인원 팀별 2인 참석 70명) - 발대식 - 활동설명회(일지 및 회계 활용법) - 장소: 곡성미래교육재단 시청각실
6월 29일 (화)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옥과청소년문화의집 옥과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석곡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활동 연구기관 협의회 - 시간: 13:00 ~ 14:30 - 장소: 옥과청소년문화의집 3층 시청각실
8월 20일 (금)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옥과청소년문화의집 곡성청소년내그린학교 동아리 곡성미래교육재단 곡성교육지원청	○ 곡성청소년 내그린학교 중간활동보고 - 방법: 중간보고서 및 회계일지 점검 후 2차
9월 11일 (토)	곡성군청소년참여위원회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 성장박람회, 할로윈 회의

표 III-4. 진로직업 분과네트워크 회의 현황

일시 (요일)	참석자/ 대상	업무 내용
3월 24일 (수)	신난다 마을학교, 뚝방마을학교, 꿈나래지역아동센터, 곡성중앙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곡성교육희망연대, 곡성교육참여위원회,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곡성미래교육재단,BBS, 곡성읍 이장단 협의회	○ 곡성읍권역 마을교육공동체 '이음' 3월 모임 - 학생들 목소리로부터 출발하기(코로나로 인해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 북토크(책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 나눔-마을발전/송 경애 저) - 실무자 협의회(정보공유, 현안 나눔) - 12명 참석

일시 (요일)	참석자/ 대상	업무 내용
4월 22일 (목)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 입면 길작은 도서관	○ 사람책 '웹툰작가' 섭외 - 입면 '길작은 도서관' 웹툰 작가 사람책 섭외 출장
6월 10일 (목)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 곡성미래교육재단 곡성, 석곡, 옥과 중학교	○ 2021. 곡성꿈키움마루 - 내용: 곡성꿈키움마루/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학교별 일정 조율
7월 14일 (수)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 곡성고등학교	○ 곡성고등학교 휴먼라이브러리
7월 19일 (월)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 석곡초등학교	○ 석곡초등학교 휴먼라이브러리
8월 25일 (수)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 곡성중학교 진로멘토 사람책	○ 곡성중학교 진로탐색(뷰티미용, 건축가)
9월 16일 (목)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곡성꿈키움마루) 옥과청소년문화의집 (옥과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곡성꿈키움마루 STEAM 3회차

표 III -5. 보호복지 분과네트워크 회의 현황

일시(요일)	참석자/ 대상	업무 내용
3월 17일 (수)	다얼협동조합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곡성군 행정과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컨설팅 신청 - 협동조합 운영 기초 컨설팅, 온라인 스토어 운영, 품질검사 진행 관련 교육 지원 신청
3월 26일 (금)	다얼협동조합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곡성군 행정과	○ 협동조합 운영 회의 진행 - 카페 신메뉴 개발 및 피드백 진행 - 운영 현황 확인 - 홍보체계 구축(SNS기재, 포스터 제작)
4월 13일 (화)	곡성미래교육재단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천천히 배우는 학생지원 협의회 - 천천히 배우는 학생지원 접수 면접 상담과 관련하여

일시(요일)	참석자/ 대상	업무 내용
	Wee센터	평가회 개최하기로 함(4월 넷째주) - 접수면접을 통해 정서적 상담지원이 필요한 학생 개입 시기 논의하기로 함
4월 14일 (수)	다얼협동조합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다얼 협동조합 커피 관련 교육 일정 조율 및 강사 섭외 - 전남과학대학교 호텔커피카테일과와 연계 후, 강사 일정 조율 예정
4월 15일 (목)	다얼협동조합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협동조합 운영 컨설팅을 위한 현장 답사
4월 17일 (토)	다얼협동조합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다얼 신제품(드립백) 가격 선정 및 홍보 계획 논의
4월 29일 (목)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석곡중 방과후아카데미	○ 석곡중 방과후아카데미 1차 사례회의
5월 4일 (화)	다얼협동조합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자립지원카페 다얼협동조합 정기 운영 회의 및 운영시간 변경
5월 11일 (화)	석곡중방과후아카데미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석곡중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관련 협의회
5월 18일 (화)	다얼협동조합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다얼협동조합 대표 변경 및 정기회의 진행
5월 26일 (수)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부처지원사업 코디 마을공동체 지원협력센터	○ 곡성청소년성장지원사업 관련 다부처사업팀과 협의회 - 추후 시간과 장소 협의
6월 1일 (화)	석곡중학교 운영위원회 석곡중학교방과후아카데미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석곡중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6월 4일 (금)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곡성군 행정과 다부처 정책연계센터	○ 청소년성장사업, 다부처사업관련 안내- 석곡지역아동센터 방문
6월 11일 (금)	석곡중 교장, 교무부장 석곡중 학부모회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석곡중방과후아카데미	○ 석곡중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협의회

일시(요일)	참석자/ 대상	업무 내용
	곡성군 행정과 곡성군미래교육재단 다부처사업 코디네이터	
6월 29일 (화)	곡성군 행정과 다부처 정책연계센터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성장지원사업, 다부처 연계사업 협의
7월 7일 (수)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옥과청소년문화의집 진로체험지원센터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 7월 워크숍
7월 7일 (수)	다얼협동조합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다얼협동조합,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홍보 일정 및 계획 논의
7월 13일 (화)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곡성 wee센터 곡성군미래교육재단	○ 2학기 천천히 배우는 학생지원 초기면접 상담
7월 16일 (금)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곡성 wee센터 각 학교 위클래스	○ 관내 상담전문가 연수(대상관계) - 주제: 심리적 성숙의 과정
7월 21일 (수)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곡성 wee센터 각 학교 위클래스	○ 관내 상담전문가 연수(TCI 기질 및 성격검사)
8월 7일 (토)	다얼협동조합 옥과청소년문화의집	○ 다얼 여름방학 프로그램 1회기
8월 11일 (수)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곡성 wee센터 각 학교 위클래스	○ 곡성관내 상담전문가 연수(DBT를 활용한 위기상담) - 주제: 경계선성격장애를 위한 변증법적 행동치료
8월 12일 (목)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다얼협동조합 옥과방과후아카데미	○ 1일 바리스타 체험
8월 18일 (수)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곡성 wee센터 각 학교 위클래스	○ 관내 상담전문가 연수(대상관계) - 주제: 관계패턴과 성격구조
9월 1일 (수)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곡성군미래교육재단	○ 학습상담 협의회

일시(요일)	참석자/ 대상	업무 내용
9월 2일 (목)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다얼협동조합	○ 학업중단숙려제-문화체험(1일 커피바리스타 체험)연계
9월 2일 (목)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옥과청소년문화의집	○ 곡성꿈키움마루 STEAM / PBL 프로그램 연계 협의회
9월 3일 (금)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다얼협동조합 전남사회적통합지원센터	○ 협동조합 기초 운영 및 마케팅 컨설팅
9월 10일 (금)	곡성법사랑위원회(법무부)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섬진강변 환경정화 봉사활동 및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선정위원회
9월 14일 (화)	곡성중학교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집단상담
9월 15일 (수)	입면초등학교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생명존중교육
9월 16일 (목)	옥과중학교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아웃리치 '치유 프로젝트' - 내용: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 게 간이심리검사 제공하고 결과에 맞는 처방 으로 어려움 해소
9월 17일 (금)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다얼협동조합	○ 학업중단숙려제-문화체험(1일 커피바리스타 체험)연계
9월 17일 (금)	옥과고등학교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아웃리치 '치유 프로젝트' - 내용: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 게 간이심리검사 제공하고 결과에 맞는 처방 으로 어려움 해소
9월 23일 (목)	곡성중학교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아웃리치 '치유 프로젝트' - 내용: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 게 간이심리검사 제공하고 결과에 맞는 처방 으로 어려움 해소

(3) 연계협력의 주요 내용

① 학교-청소년시설 협력을 통한 청소년 자기주도 동아리 운영(내그린학교)

내그린학교 사업은 곡성청소년문화의집과 옥과청소년문화의집이 관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동아리 사업으로, 43개 동아리에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취지가 있었다. 이 사업의 콘텐츠는 기존에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했던 '여행박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확대된 것으로, 교육지원청과 재단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 실질적인 연계협력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다만 동아리 운영의 취지가 동아리 구성과 계획 수립 등 전 과정을 청소년들이 주도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일부 교사가 중심이 되어 직접 동아리를 신청하여 청소년들의 참여가 저조해지는 등, 실행과정에서의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② 청소년성장박람회 개최

청소년성장박람회는 2019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청소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지역사회 주체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신뢰하는 네트워크로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올해는 초기 회의를 통해 총괄 진행은 미래교육재단에서 맡고, 교육지원청 협의를 통해 학교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곡성군 청소년들의 성장을 전람, 전시, 확대하는 취지로 개최되는 청소년성장박람회는 본 시범사업을 계기로 시작되어 매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올해는 코로나를 감안하여 박람회장을 메타버스로 구성하여 11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학교의 요청을 토대로 학교 안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③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다열 협동조합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을 주축으로 하는 다열 협동조합에서는 기존 체험중심인 자립프로그램에서 탈피해 다양한 기관의 지원(연계협력)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의 실제적인 자립을 지원(인큐베이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작년에 협동조합이 설립된 후 올해의 과업은 협동조합의 안정화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었다. 특히 보조금지원을 통한 경제적 기반 조성에서 벗어나 자립을 위해 다양한 기관의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곡성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대안 위탁교육, 학업중단숙려제 등의 지원 요청시 학생 체험 프로그램으로 참여(지원)하고, 곡성군미래교육재단과 연계하여 판매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곡성군(읍면동)과 곡성교육지원청등 공공기관에 홍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조합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남과학대와 함께 다양한 자격과정을 지원하였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지역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수혜자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목표로 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고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④ 석곡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020년에 시작된 석곡중학교 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곡성군과 곡성교육지원청 간의 협력을 보여주는 시도이다. 기존에는 교육부 예산으로 방과후학교사업을 진행하였다면 협력 초기에는 여성가족부의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예산이 추가 투입되었고, 현재는 여성가족부와 곡성군의 사업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들은 기존 수업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학교는 교과지도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확보하였다. 또한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인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의 부재를 방과후아카데미의 전담인력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 올해는 담당 교사의 변경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대신 기존의 방과후수업을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방과후 아카데미가 유지되고 있다.

⑤ 네트워크 역량강화 연수

네트워크 지속적인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관 실무자 대상 네트워크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였다. “모든 사업은 사람이 한다”는 슬로건 아래 생각과 사고를, 시간과 공간을, 사람과 미래를 잇는 네트워크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연수프로그램은 1회에 4시간, 8차에 걸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진행자로는 청소년자치전문가인 정건희 소장을 섭외하고 청소년자치에 대한 관점과 더불어 지역사회 중심의 관계력을 회복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프로그램에는 30명 내외의 지역 청소년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이는 네트워크로서의 자세와 태도 관점에 대해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실무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역사회 연대에 대한 고민이 투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I-6. 네트워크 연수프로그램

날짜	내용
4월 8일(목)	○ 청소년관 ○ 청소년지도자의 리더십
4월 22일(목)	○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강화 연수 2회기 - 청소년인권과 참여(청소년인권 관점의 활동)
5월 13일(목)	○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강화 연수 3회기 -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청소년단체 -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방향: 청소년활동의 법적, 포괄적 개념, 청소년활동의 운동으로서의 관점

날짜	내용
5월 27일(목)	○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강화 연수 4회기 - 지역사회 청소년운동 관점의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연수 기획 -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청소년자치 조직
7월 8일(목)	○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 강화 연수 5회기 - 청소년활동 네트워크의 이유 - 지역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 청소년친화도시의 국외 사례
7월 15일(목)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 강화 연수 6회기 - 청소년진로활동의 문제와 관련된 개념 - 청소년진로활동의 비형식 교육 특성 및 장(場)으로서의 지역사회
8월 5일(목)	○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강화 연수 7회기 - 청소년지도자 역량 및 청소년친화마을 활동가 양성 (청소년지도자와 활동가의 관점 및 역량, 청소년친화마을 활동가 육성)
8월 12일(목)	○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강화 연수 8회기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평가 및 지역사회 청소년참여, 연대 활동 사례(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과 운영,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활동 사례)

⑥ 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한 연계협력

협의체에서는 기관별로 분절되어 운영되는 청소년참여기구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자치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2019년 곡성군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청소년의회 구성을 계획했으나 코로나 이슈와 더불어 곡성미래교육재단 설립에 우선순위가 밀려 실현되지 못하였다. 올해는 메니페스토 협회와 함께 청소년의회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협회의 사정으로 협력이 어려워졌고, 현재 이를 대체하여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기관을 섭외 중에 있다. 초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의회와 곡성군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역할이 대부분 중첩되어 있어 두 사업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의회에 속한 청소년을 제외하고 별도로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곡성 교육참여위원회에는 학생대표와 학교박청소년대표가 참여하는 등, 통합적인 운영 사례가 있어 청소년의회구성에 있어서도 통합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⑦ 중앙부처 간 정책연계협력: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구축 사업

곡성군은 올해 행정안전부의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여러 부처의 정책사업 간 연계협력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미래형교육자치지구사업), 행안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사회적농업활성화사업),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수 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등이 공동 협약을 맺고 집중적인 지원을 추진하는데 있다. 곡성군의 경우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어울림센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소를 설치하고 청소년활동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청소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이 사업 코디네이터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3)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⁸⁾

(1) 자체 평가

올해 곡성군이 행안부의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구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의 협력사업 추진과정에 본 시범사업에서 구축된 네트워크가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사업에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점은 고무적이나, 청소년성장지원의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8) 3차년도 최종 사업보고서(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1b) 내용을 발췌·재구성함.

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난 3년간 미래교육센터에서 재단으로 지역교육협력사업의 중심이 구축되면서 청소년 기관이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 경험은 모든 사업을 검토할 때 연계협력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등, 네트워크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교육지원청의 천천히배우는 학습지원사업이나 문해력, 수해력 증진사업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함께 하게 되고, 청소년기관 사업이었던 청소년 자기주도동아리가 교육지원청의 내그린학교 사업으로 운영되는 등, 청소년 분야와 교육 분야 간 상호작용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분야와의 연계협력 강화는 한편으로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청소년시설이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험이 늘고, 초기에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역할로 설정되었던 민·관·학 협력사업들이 재단의 사업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재단과 청소년시설 간 관계는 밀접해지고 있으나 협의체의 무게추가 재단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지역 내 합의를 통해 재단과 협의체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2019년 이후 몇몇 기관 간 이해충돌을 경험하면서 이후에는 보다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게 되었고, 주로 분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협의체 차원의 논의구조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거기에 코로나 19로 협의체 회의를 자주 개최되지 못한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시설들은 고유 업무에 더해 네트워크를 통한 부가적인 사업을 수행해야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가적인 업무에 대한 일부 실무자들의 고충과 늘어난 사업비에 비해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실무자들의 소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더해 협의체의 동력이 약화되면서 청소년 성장지원의 목적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참여 주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하는 시점이다. 전보다 연계협력은 강화되었으나 실무자들 개개인

의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단으로 네트워크의 무게 추가 옮겨지면서 사업의 관점이 교육중심으로 획일화되는 경향으로, 청소년 시설의 역할과 실무자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작업 또한 시급하게 필요하다.

(2) 향후 과제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교육재단과의 관계 재설정 등에 대해 지역 내 여러 주체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우선 협의체가 정책사업으로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명시된 대로 청소년 성장지원혁신지역으로 지정되는 것, 또는 현재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에 참여하는 방식 등이 강구될 수 있다. 이러한 여가부 정책 연계는 협의체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줄 뿐 아니라 다부처 정책연계 추진체계사업에서 여성가족부 정책 영역으로의 역할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교육재단의 미래교육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여 본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된 청소년성장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역 내 연계협력을 방해하는 국가가 시행하는 평가체계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예컨대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시 협력사례에 대해 평가 항목을 추가한다거나,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배점도 고려될 수 있다.

곡성 지역에서는 네트워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성장지원 주체들의 네트워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협의체 구축 과정에서 기관 간 갈등과 신뢰 형성을 모두 경험하면서 참여하는 개개인이 네트워크로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때 협력의 지점이 더욱 빛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이라는 대의를 위해 뛰는 네트워크들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3. 유성구

1) 1, 2차년도 사업 추진 결과 요약⁹⁾

(1) 지역 현황: 청소년 인구가 많은 교육중심 광역도시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청소년 인구비율이 30%를 상회하며, 교육기관 및 청소년 시설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 관내 네트워크로는 청소년활동시설네트워크, 위기청소년네트워크,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네트워크, 마을교육공동체, 유성구행복네트워크 등이 있으며, 청소년 참여위원회 연합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연합회, 중·고교 학생회 연합회,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등 청소년 주도 네트워크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유성구청의 청소년담당부서는 교육과학과로, 마을자치과, 문화관광과와 함께 자치혁신본부에 속해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청소년 성장 지원정책이 교육 분야 및 마을자치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성구는 유성구청소년수련관의 주도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19년에는 총 세 차례의 시범사업 설명회를 통해 마을 단위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지역 내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모으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청소년 시설뿐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 ‘마중물’, 초·중·고·대학교, 학부모단체, 복지·보호 영역에 이르는 총 156개의 다양한 지역 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9) 1, 2차년도 연구보고서(최인재 외, 2019; 최인재 외, 2020)의 시범사업 추진 현황 자료 및 3차년도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유성구청소년수련관, 2021a)를 요약하여 제시하였음.

2020년에는 참여 기관이 8개 분야, 202개로 늘어났고,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들의 욕구 파악을 현실화하기 위해 청소년 공간, 교육 및 학습, 정서 및 상담, 진로 및 직업체험, 활동 등의 5개 분과 네트워크를 운영하였다. 또한 참여 주체들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 여러 주체들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협의체의 공적인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에 있어 시범사업기관인 유성구청소년수련관은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장대청소년문화의집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사업의 주축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분과별 네트워크의 운영 분담 및 활동·진학·상담복지 영역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로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상담복지센터가 시범사업 운영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청소년시설 간의 연계 및 역할분담이 강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3) 주요 추진 결과

2019년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협의체의 운영방향, 지원내용,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유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시한 청소년 현안 키워드를 중심으로 청소년 기관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들이 함께 분과 영역별로 토의를 진행하여,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공감대 속에서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2019년의 연계협력 성과는 학교-청소년기관-마을교육공동체를 잇는 연구모임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토론회 개최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의제 형성과 실천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관내 청소년시설 이용자 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요구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28명과 함께 분과 네트워크의 범주와 미션을 도출하였다. 또한 학교밖청소년, 어린이청소년의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청소년 요구사항을 수렴하였다.

2020년에 구축된 5개 분과 네트워크에는 청소년 1인 이상이 회의에 참여하고, 실무진이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여 분과 네트워크의 요구가 실제 관련 기관들에 전달되고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등, 운영 면에서 의사결정과 소통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청소년공간 분과에서 제안된 1인 미디어실 구축 안건은 유성구청과 협의를 통해 유성구청소년수련관에 설치가 결정되었다.

2) 유성구 3차년도 사업 추진 결과¹⁰⁾

(1) 추진 전략 및 계획

2021년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청소년 전용공간, 교육 및 학습, 진로 및 직업체험, 청소년활동, 정서 및 상담 등의 분과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의제 개발과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분과 네트워크들은 수행 기관에 의한 서비스 중심이 아닌 청소년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사업 거버넌스의 구축의 관점에서 운영되며, 따라서 고정적인 구조라기보다 청소년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변형될 수 있는 체계로 접근된다.

2021년에는 기존에 구축된 분과 네트워크와 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성장 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분과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 소속되어 활동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분과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청소년연합회는 유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1388포래지원단, 꿈드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등 지역 내 다양한 청소년 네트워크에 소속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청소년 정책 사업 간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10) 3차년도 최종 사업보고서(유성구청소년수련관, 2021b) 내용을 발췌·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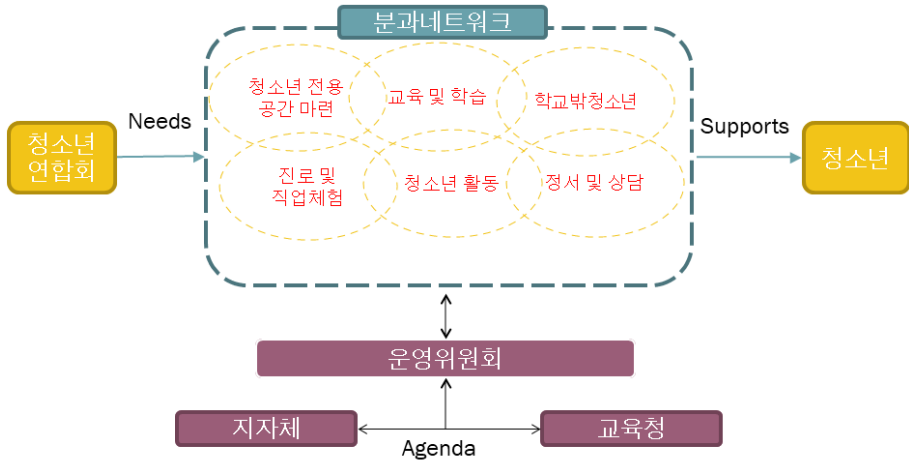


그림 Ⅲ-2.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구조(2021)

2021년 주요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 청소년 기관 중심 협의체 운영에서 나아가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과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둘째, 분과네트워크에서 발굴된 청소년 욕구를 의제화하기 위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 형성에 기여한다. 또한 이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조례 제정 및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 등 지역의 청소년정책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셋째, 분과네트워크의 운영체계 개선과 연계·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분과별 네트워크 교육, 청소년들의 사례 분석 및 사업 평가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매주 사례 연계 회의를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분과별 회의 및 활동을 추진한다.

① 협의체/실무협의체/분과 네트워크 운영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위원회

- 향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고, 그 결정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3차년도에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데 힘씀. 특히 3차년도에서 주요 추진해야 할 조례 제정을 위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의회에서의 역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함.

표 III-7. 유성구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현황

번호	소속 및 직위
1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2	유성구지역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3	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4	유성구청 교육과학과 과장
5	유성구행복네트워크 상임대표
6	유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7	도담도담대전맘카페 대표
8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9	유성구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0	유성구마을교육공동체 '모이다' 대표
11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12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13	유성구청소년수련관 관장

표 III-8. 유성구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현황

구분	일자	인원	주요안건
1	2021.06.30	10명	○ 2021 유성구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안내 및 추진 협조 사항 논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유성구행복네트워크, 도담도담대전맘카페, 대전광역시활동진흥센터, 유성구주민자치위원회, 유성구마을교육공동체모이다,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2	2021.11.03	-	○ 2021 유성구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결과 보고 및 향후 방향 논의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실무진 회의

- 본 사업의 수행 기관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총 16회 회의를 진행하였음. 유성구청소년수련관에서 본 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팀장 1인, 코디네이터 1인과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본 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팀장 1인과 상담원 1인, 총 4명으로 구성된 실무진 회의를 매주 개최함. 본 사업을 추진하는 유성구청소년수련관장, 사무국장과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으로 구성된 기관장 회의는 월 1회 진행하며, 분과네트워크 진행상황 공유 및 주요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표 III-9. 유성구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실무진 회의 현황

구분	일자	인원	주요안건
1	2021.03.23	3명	○ 사업 추진 방향 논의
2	2021.03.31	3명	○ 성장지원 코디네이터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방향 논의
3	2021.04.06	10명	○ 2021년 운영모델 및 3년차 사업내용 논의 등
4	2021.04.13	4명	○ 분과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논의 등
5	2021.04.20	7명	○ 운영위원회, 분과네트워크 관련 논의
6	2021.04.27	4명	○ 네트워크 교육 주제 선정 논의 등

구분	일자	인원	주요안건
7	2021.05.11	9명	○ 심포지엄 준비, 운영위원회, 네트워크 교육 논의
8	2021.05.18	6명	○ 운영위원 위촉, 학교 밖 분과 추가 논의
9	2021.06.01	10명	○ 심포지엄 준비, 운영위원회, 분과운영계획 논의
10	2021.06.15	3명	○ 분과네트워크 참여 청소년 모집, 운영위원회 논의 등
11	2021.06.22	6명	○ 1차 운영위원회 준비 논의, 7월 워크숍 등
12	2021.07.06	4명	○ 내부평가회의, 7월 워크숍, 분과 운영계획서 논의 등
13	2021.07.13	4명	○ 조례제정 관련 시의회 및 구청 협의사항 논의
14	2021.07.27	3명	○ 분과네트워크 운영계획서 논의
15	2021.08.03	4명	○ 사업 예산안 변경 및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대응논의
16	2021.08.10	9명	○ 분과네트워크 현황 및 분과 운영계획 논의
17	2021.08.30	4명	○ 분과네트워크 회의진행사항 관련 논의
18	2021.09.14	4명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예산관련 논의
19	2021.09.28	6명	○ 2차 운영위원회 일정 논의

○ 분과 네트워크

- 청소년 요구조사에 따라 주제별로 분과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함.

표 Ⅲ-10. 분과 네트워크 구성 현황

구분	내용	단체/기관/개인명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의 1인 미디어실 구축 추진 - 청소년공간(시설) 소외지역 청소년 설문조사 ○ 청소년 시설 홍보 및 설문지를 통한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청소년 공간(시설) 2곳 방문 - 지역 내 인쇄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시설 홍보 	대전광역시 교육과학과
		대전광역시 홍보실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유성구유스호스텔
		장대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구분	내용	단체/기관/개인명
교육 및 학습	○ 마을 중심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례화 마련 - 학마을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 중심의 청소년교육 지원 실현	대학생
		청소년참여위원회 3명
		또래지원단
		관평중학교
		유성초등학교
		유성구교육공동체연합'모이다'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
		(주)메이킹협동조합
		(사)참교육학부모회(대전)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대학생
청소년참여위원회		
또래지원단		
진로 및 직업 체험	○ 진로 플랫폼 기획 - 진로로드맵 필요성 제시 및 공론화 제안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진잠중학교
		대전솔로몬로파크
		코드디자인
		어라운드
		학교밖세상
		한컴인스페이스
		유성구마을교육공동체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대학생
		청소년참여위원회 2명
		또래지원단 4명
청소년 활동	○ 청소년과 어르신 세대 공감 사업 연계 - 동아리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통한 세대 공감 사업 연계 지원 ○ 지역 연계를 통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별마루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구분	내용	단체/기관/개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지원 - 유성구 대학생과 연계한 특성화 체험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구노인복지관 (주)초원미래나눔 유성구행복네트워크 아동청소년분과 유성구마을교육공동체 마중물 유성구지역공동체지원센터 대덕대학교 뷰티과 침례신학대학교 동아리 '그린나래'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동아리연합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유별난아이들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자원지도자 유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 해달별 유성구청소년의회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대학생 청소년참여위원회 3명
정서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서 지원에 대한 교육제도화 - 제도화 제언을 위한 온라인 수요 조사 실시 ○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안전보호 및 청소년 권리 강화,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캠페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유성경찰서 법무부법사랑위원회대전유성구지 구협의회 가인어린이집 보노보노어린이집 아기둥지어린이집 아이와나무어린이집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대학생 청소년참여위원회 또래지원단 3명

구분	내용	단체/기관/개인명
학교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정책 활성화 및 정책 제안 ○ 학교 밖 청소년 권익 활동을 통한 인식 개선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하임
		강지원뷰티아카데미
		대전검정고시학원
		느린나무공방
		학교밖 8명

- 운영 현황: 분과 네트워크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최종 3회 이상 대면·비대면으로 실시. 청소년운영위원회, 1388또래지원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중·고등학교 학생회 등 지역 내 청소년 네트워크에 소속된 청소년들을 분과에 1인 이상 배치하여, 각 회의에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권장함.

표 III-11. 분과 네트워크 회의 현황 -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번호	일자	인원	주요내용
1	2021.08.07.	6명	○ 분과운영계획 안내 및 참석자 소감
2	2021.08.27.	5명	○ 청소년, 어디까지? 설문지 작성 - 학마을 주토피아 및 멀티미디어실 인터뷰 문항 준비
3	2021.08.28.	6명	○ 청소년, 어디까지? 인터뷰 실시 (수련관 멀티미디어실, 학마을 주토피아)
4	2021.09.18.	4명	○ 청소년 공간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설문지 1차 2차 수정 및 인터뷰 관련 블로그 기사 공유

표 III-12. 교육 및 학습 분과

번호	일자	인원	주요내용
1	2021.06.26.	6명	○ 분과운영계획 안내
2	2021.08.27.	6명	○ 학마을교육공동체 중심 초등학교 마을 교육 실시 결과 공유 ○ 청소년성장지원 방향성 조율 (과학, 기술, 교육 분야별 현황 파악)
3	2021.09.23	8명	○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과학/기술 분야 체험 및 현황 공유

표 III-13. 정서 및 상담 분과

번호	일자	인원	주요내용
1	2021.06.18.	6명	○ 분과운영계획 안내 및 참석자 소감
2	2021.09.14.	13명	○ 상담 인식 개선 및 홍보 캠페인 ○ 안전보호활동 및 CCTV 등 주민자치예산 확보 추진 ○ 추후계획 - 학교 내 필요한 상담 유형 수요도 조사 실시 - 청소년 권리 강화 활동

표 III-14. 진로 및 직업체험 분과

번호	일자	인원	주요내용
1	2021.06.25.	8명	○ 분과운영계획 안내 및 참석자 소감
2	2021.08.20.	15명	○ 낭만진로 분과 활동 보고 및 지자체 내년 사업 반영에 대한 긍정적 반응

표 III-15. 청소년 활동 분과 <플레이>

번호	일자	인원	주요내용
1	2021.06.24.	11명	○ 분과운영계획 안내 및 참석자 소감 등
2	2021.08.11.	20명	○ 플레이 분과 활동 보고 및 소감 나눔, 추후 계획 공지 - 청소년 동아리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한 청소년과 어르신 이 함께 만드는 뮤지컬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어르신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로젝트 '드림캡처' 프로그램 운영 중임. 유성구노인복지관과 유성구마을교 육공동체, 그리고 청소년 등이 연합하여 진행 - 유성구장애인복지관 및 노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 계하여 청소년 봉사단 운영을 통해 어르신께 반찬 만들기 및 배달활동, 어르신과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활동 진행
3	2021.09.15.	11명	○ 플레이분과 활동보고 및 소감 나눔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명절 독거노인 방문 봉사활동 '청소년 드림까지' 운영 - 지역 연계협력을 통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장소 지원

표 III-16. 학교밖청소년 분과

번호	일자	인원	주요내용
1	2021.06.16.	9명	○ 학교밖 청소년 성장지원 주제 선정 ○ 첫 분과회의로 학교 밖 청소년 성장지원 요구 파악

② 주요 내용

가.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작년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미디어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2021년 6월 유성구청청소년수련관에 멀티미디어실이 시범 운영되고 있고, 8월부터는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또한 학마을주토피아와 청소년 멀티미디어실을 방문하여 두 곳의 특성과 정보를 알림으로써 지역 내 청소년 공간을 청소년들에게 홍보하고, 현재 관내에 있는 청소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 청소년들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성구청 홍보실 및 유성구 블로그 기자단과 연계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청소년 시설에 대한 홍보물이 게시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시설을 홍보하는 새로운 통로가 마련된 것이 의미가 있다.

청소년 시설이 죽동, 장대동, 계산동 등 유성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 외 지역 거주 청소년들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거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해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요구를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라는 안건을 제안하였고,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에서 최종 안건으로 선정되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제안한 안건을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공간

을 신설 혹은 대체하는 방향을 탐색할 예정이며, 이는 청소년 스스로가 지역 내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소년 상담·안전 관련 협력사업

상담교육이 제도화된다면 낙인으로 인한 어려움 없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작년 청소년 요구를 반영하여, 올해는 학교에서 필수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상담 유형을 조사하고, 상담서비스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학교에서 교과 과정으로 삽입이 되는 상담은 현재로서는 진행이 어려워 그 대안으로 상담 경험 유무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였다. 그 결과 실제 상담을 받아 본 청소년에 비해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게서 비밀보장, 상담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낙인을 우려함에 따라 상담을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를 이용한 상담(예, SNS 채팅, 전화 상담 등)을 활성화 시킬 것과 상담이용에 대한 정보를 QR코드를 만들어 청소년 밀집 지역(예. 학교나 학원가 등)에 홍보물로 부착하여 상담을 받고자 할 때 즉시적이고 편리하게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유성경찰서와 협력하여 주민참여예산 중 일정 부분을 확보하여 노은 1동에 여성안전귀가서비스 및 금연구역 등의 내용이 담긴 가로등 설치를 한 대 더 설치하였다.

그 밖에 청소년들의 인권 강화 활동을 10월 중에 지역에 있는 마을 단체와 함께 진행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바람직한 청소년 인권 형성을 이루는데 애쓰고자 한다.

다. 진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지자체, 교육청 협의

분과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 체험을 편리하게 청소년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진행되었으면 하는 요구를 지자체와 교육청에 공유하여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진로로드맵 제작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기존 꿈길과 같은 방식보다는 청소년 개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는 진로로드맵이 필요함에 따라 유성구에서 유성구 내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유성, 뭐하지도?’와 결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앱 개발 가능성을 적극 개진한다면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에 청소년의 요구가 반영된 진로로드맵이 구동된다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체험처, 장소, 시간 등을 선택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진로 및 직업 체험에 대한 동기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보였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의 입장에서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이러한 경험이 청소년을 성장시키는데 자신이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청소년 동아리·봉사활동 지역연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부합한 청소년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청소년·어르신 세대 공감 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주)초원미래나눔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 만드는 뮤지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유성구노인복지관과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 독거 또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 명절에 방문하여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드림까지’

행사를 진행하였다.

유성구노인복지관과 유성구마을교육공동체 마중물과 연계하여 청소년과 어르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어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성구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노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어르신께 반찬을 만들고 배달하며, 텃밭을 함께 가꾸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실현되는 경험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야 함을 경험했다. 청소년 활동에 있어 주체성을 띠도록 한 것은 본 사업에서 추구하는 ‘청소년성장지원’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 연계 협력을 통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자 관내 하기중학교, 가온누리학교 등 총 4개의 동아리에 장소를 지원하였다. 또한 침례신학대학교와 대덕대와 연계하여 천연비누를 만들어서 인근 지역의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청소년 축제 때 메이크업 재능기부를 받는 등, 연계협력을 강화하였다.

3)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¹¹⁾

(1) 자체 평가

3년간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의 폭과 인식 변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네트워크들과 네트워크를 구동시키는데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어른들이 각 분과네트워크에서 청소년들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지향점을 두었다. 이는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실현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보다 주체자로서, 그리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바로 청소년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올해에는

11) 3차년도 최종 사업보고서(유성구청소년수련관, 2021b) 내용을 발췌·재구성함

시범사업이 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한 발판으로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다. 조례 제정이 실현된다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내 모든 청소년들의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공론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전광역시 관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을 연합한 ‘대전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체’를 ‘대전광역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로 명칭을 변경·추진하였으며, 이는 유성구에서부터 시작된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확대되었음을 그리고 향후 확대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유성 지역의 경우 본 시범사업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청소년안전망과의 연계성을 통하여 활동과 상담복지 영역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로써 청소년 수련시설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 청소년 안전망을 파트너로 삼아 실질적인 지역 청소년의 삶 속에서도 운용될 수 있는 연계와 통합운영 모형을 제시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함께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모형은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크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에서 성장지원협의체의 역할을 확대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분과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주체자로서의 청소년이 분과네트워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청소년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청소년 현안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이루었다. 단순히 요구하는 청소년이 아니라 요구가 실현이 되는 과정에 주축이 되어 보는 경험들은 청소년의 자율과 참여 그리고 주체가 되는 청소년 정책을 펼치는데 초석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각 분과네트워크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고, 성인들은 그간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가에 대한 물음의 답을 찾는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청소년들의 요구와 그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은 수혜자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 실현을 평가하는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성과를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에는 유성구행복네트워크라는 민(民)에서부터 유성구청소
년안전망인 관(官)까지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네트워
크에 또 다른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보다는 기존에 형성되
어 있는 네트워크가 지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돕되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즉,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유성구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동하고 있는 주체 기관(자)들의 공유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
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자리에서 관내의 다양한 네트워크 현황을 공유함과 동시
에 서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봄으로써 관내의 청소년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기관 및 개인 정보를 공유하여 청소년의 성장에
필요한 수요가 있을 시 유기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3년간 본 시범 사업
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함과 동시에 따로 구동되는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로서의 성장지원협의체에 대해 알리고, 그 역할을 분과네트워크를 통해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2) 향후 과제

청소년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타사업과의 차별성을 갖는 것이며, 이러한 차별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 주체가 모든 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공공성과 명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역시 시급하다.

현재 유성구의 경우 기관이 주체가 되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다 보니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본 사업을 이끌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철학과 방향을 공유하며 체계적인 민·관·학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순 네트워크를 벗어나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다.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예산은 지자체, 교육 행정은 교육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마을 민간단체 등 각각이 역할과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긴 호흡을 갖고 청소년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자체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 및 중앙사업화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정책전달 체계를 통합하여 본 사업의 목적을 명료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 청소년안전망과의 차별성을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혁신교육지구사업 등 타부처 사업과의 차별화에 대한 명료한 방향성이 있어야 본 사업을 이해하고 추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부천시

1) 1, 2차년도 사업 추진 결과 요약¹²⁾

(1) 지역 현황: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청소년재단이 공존하는 수도권 도시

부천시는 유사한 조건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교육과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인프라가 적지 않은 편이다. 또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기관네

12) 1, 2차년도 연구보고서(최인재 외, 2019; 최인재 외, 2020)의 시범사업 추진 현황 자료 및 3차년도 시범사업 계획서(부천여성청소년재단, 2021a)를 요약하여 제시하였음.

트위크가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전담시설 중심 직무에 따라 기관장 회의와 중간관리자 회의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도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CYS-Net, 부천혁신교육포럼,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 민관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2015년 재단 출범보다 훨씬 이전인 1999년부터 ‘푸른모임’이라는 청소년 풀뿌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관 현황공유, 지역 현안 대응, 세미나와 워크숍 등이 운영되어 현장중심의 청소년 정책 개발의 경험이 축적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푸른모임을 중심으로 4년 주기로 청소년 정책을 점검하는 체제를 갖는 등, 현장 네트워크 중심의 독특한 거버넌스 구조를 경험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재단 출범 후 푸른모임이 해체되고 그 기능이 재단으로 이관되면서, 네트워크의 복원과 확장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 시범사업을 통해서 재단을 비롯한 청소년 시설 중심 협력구조에서 민간단체 및 다른 공공영역의 기관들의 연계·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부천 지역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주도로 청소년 주류화를 위한 성장지원 체계로서 ‘유스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2019년에는 관내 청소년 시설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청소년 자원 및 네트워크 간 연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시청 아동청소년과도 협의체에 참여함으로써 혁신교육과의 연계 지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9년 유스 거버넌스는 부천혁신교육포럼, 청소년주류화 기반조성, 청소년활동가 교육지원, 청소년 성인지교육, 청소년 건강·안전·돌봄, 청소년 진로지원 등의 영역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를 유스거버넌스의 청소년 참여단으로 연계하여, 부천 지역 내 청소년의 성장 욕구와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2020년에는 기존 공공 영역뿐 아니라 문화예술, 인권, 복지 등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의 단체들이 협의체에 참여함으로써 부천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이슈와 과제를 보다 폭넓게 파악하고 공통 의제를 도출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재단과 청소년 기관 등 기존 주체들은 청소년성장지원 실무협의체로서 전체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을 담당하고, 유스 거버넌스는 2020년의 주요 청소년 의제에 따라 혁신교육, 성인지교육, 청소년노동 분과로 운영되었다.

협의체 운영에 있어 시범사업기관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정책기획실을 중심으로 실장, 차장, 대리가 핵심 인력으로 참여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진행해 왔다. 또한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부천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관장들은 협의체의 핵심 주도자이면서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협의체 구성 초기부터 계속해서 청소년 의제의 발굴과 지역 내 연계·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3) 주요 추진 결과

2019년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시작은 수차례 모임을 거쳐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가시화되었다. 네트워크파티는 각 분야에서 청소년사업을 운영하는 청소년활동가들의 연대와 협력망 구축을 목표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기획되었다. 네트워크파티에서는 청소년주류화를 슬로건으로 강연, 원탁토론, 교류활동 등을 통해 1)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청소년 주도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참여단 추진, 2) 청소년 지원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팀 구성, 3) 교육지원청 연계를 통한 부천혁신교육포럼의 정기적 추진 등을 과제로 도출하였고, 이후 협의체의 주요 의제 및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밖에도 지역교육포럼, 거리청소년지원네트워크 지원 분과별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예컨대 2019년 거리청소년

지역교육공동체 포럼을 계기로 비형식 대안 교육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의제화되고, 2020년에는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작은 마을학교 사업이 운영되었다. 또한 성인지교육네트워크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도 활동가 교육 및 실태 조사 등의 형태로 협력이 이루어졌다.

청소년주류화와 관련하여 2020년에는 ‘100인의 부천에꿈’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청소년 이슈를 고민하는 부천시민 100인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20인의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송출하였다. 청소년참여단의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 명칭 공모와 버스정류장 및 도로표지판 등에 시설명칭 표기 추진 활동에 참여하였고,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아카이브 영상을 제작하여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의 날에 상영하였다. 2020년 네트워크 파티는 전년도에 이어 청소년활동가들의 소통의 장과 유스 거버넌스 성과 공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파티 추진에 앞서 연 9회의 회의가 추진되었고 총 179명이 참여하였다.

2) 3차년도 사업 추진 결과¹³⁾

(1) 추진 전략 및 계획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청소년 주류화’를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의 핵심 담론으로 삼고 있다. 이에 2021년 사업에서 청소년 자치활동 담당자 모임운영, 청소년참여단 운영, 의견수렴을 통한 의제 개발로 부천시 청소년 중장기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청소년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주도적 참여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과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당초(2019년) 6개의 유스거버넌스 계획에서 당해 연도 현안에 따라 집중하여 실행하는 유스거버넌스와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유스거버넌스를 구분하여 진행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명칭이 의제

13) 3차년도 최종 사업보고서(부천여성청소년재단, 2021b) 내용을 발췌·재구성함.

에 따라 변화하는 추이가 있었다. 올해는 부천교육네트워크, 이주배경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 거리청소년 네트워크를 지역 현안에 따라 집중해야 하는 유스거버넌스로 선정하여 의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민간, 공공, 행정(지자체 등)의 구성원들을 통해 분야별 현안을 공유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유스거버넌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며, 재단은 민관의 매개자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성장지원의 플랫폼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협의체 내 역할배분을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는 올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향후 지속적인 운영 방안 확립과 관련하여, 부천시 청소년의 성장지원 관련 조례 추진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체계를 공고히 하여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제도가 지역사회에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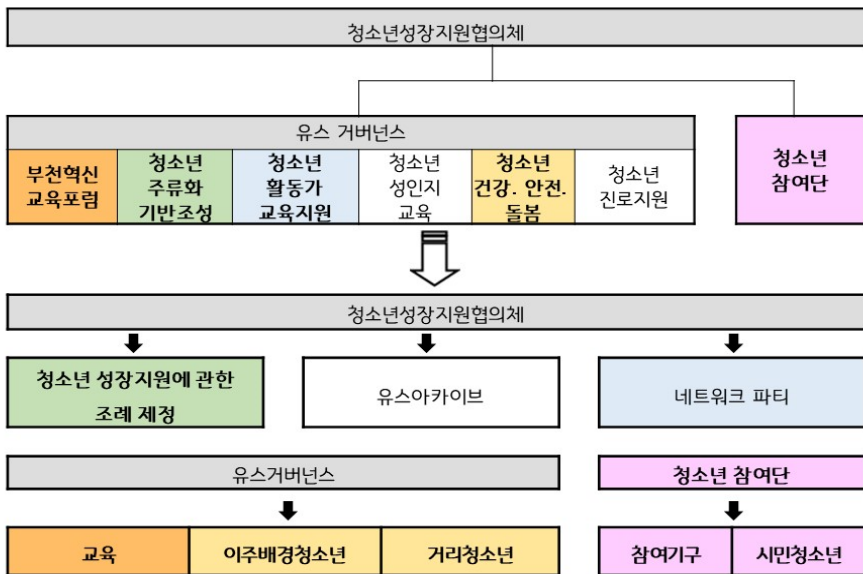


그림 Ⅲ-3.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구조(2021)

2021년 주요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사회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는 청소년 정책추진체제와 관련하여 지역 내 청소년들의 주도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활동 담당자 정기 모임에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그간 교육, 활동, 상담, 보호 영역 간 분절되었던 접근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연계를 시도한다. 청소년참여단 운영을 통해서도 부천시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 워크숍과 ‘시민청소년’ 참여교육을 추진한다. 그 밖에도 코로나19 대응 청소년 의제 개발, 연계 서비스 체계 강화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 청소년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통로로서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활동을 지원한다.

둘째, 지역 내 청소년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파티’와 ‘유스아카이브’를 추진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파티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 속 네트워크’로서 청소년활동가 간 교류활동 및 교육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3년째 추진되어 왔다. 올해는 작년 이어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스아카이브는 기 조사된 지역 자원조사 자료로서, 올해는 다양한 유관 기관들에 정기적으로 지역 자원 공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청소년 자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기관 간 교류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셋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하여 6개 분과 중 3개 분과 네트워크를 집중 가동할 계획이다. 먼저 부천교육네트워크에서는 부천시 미래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과 기능을 논의하고,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주배경청소년 인권 네트워크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 교사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의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의제와 과제를 선정해 나갈 것이다. 거리청소년지원네트워크에서는 코로나19상황 속에 거리로 나온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 청소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조례 제정 및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안정화 노력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그간 청소년참여단이 노력한 결실로 「부천시 청소년 기본조례」가 지난 4월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존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청소년상 등 3개의 조례로 각각 운영되던 청소년 관련 조례가 통합되고,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정례화와 재단형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모델 제시 등, 안정적인 기반 구축을 통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협의체/실무협의체/분과 네트워크 운영 결과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 2019년 공공 영역 중심으로 구성, 2020년 이후 민간 영역으로 확대

표 Ⅲ-17. 부천시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현황

구분	소속/직책	직위
공공	부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
공공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센터장
민간	뜰안에작은나무도서관	관장
공공	부천시지역아동연합회	대외협력부장
공공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공공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공공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
공공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민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민간	물푸레공동체	대표
민간	통합예술나눔터	대표
민간	부천희망교육	학부모대표

구분	소속/직책	직위
공공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장
공공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민간	(사)청소년 노동인권 '노랑'	대표
공공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	소장
공공	부천시아동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장
공공	부천일시청소년쉼터	소장

○ 실무협의체

- 공공청소년시설 중간관리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성장지원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상시적 논의 구조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분과로 활동

표 III-18. 실무협의체 구성 현황(2021.10.01.기준)

소속	직위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주무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대리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장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부장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부장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과장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대리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장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과장
부천시모퉁이청소년쉼터	상담사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장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팀장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차장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리

표 III-19. 실무협의체 운영 현황

구 분	일정	참석인원	주요내용
1	1.28.(목)	13	○ 기관현황 공유 ○ 실무회의 운영계획
2	2.24.(목)	10	○ 기관현황 공유 ○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지표 논의
3	3.19.(목)	8	○ 기관현황 공유 ○ 5월 청소년 행사 홍보 논의 ○ 위기청소년 현안 공유
4	4.24.(목)	10	○ 기관현황 공유
5	5.27.(목)	10	○ 기관현황 공유 ○ 청소년 의제개발 추진방향 논의
6	6.11.(금)	5	○ 시범사업 현황 공유 ○ 의제개발 현안 정리
7	6.24.(목)	12	○ 기관현황 공유 ○ 키워드 조사 추진 논의
8	7.15.(목)	12	○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문항 구성 ○ 기관현황공유, ○ 키워드조사 현안문제 관련 정리
9	7.22.(목)	15	○ 청소년 활동가 키워드 조사 공유, 간담회 운영방식 논의
10	8.19.(목)	16	○ [의제발굴 간담회] 돌봄, 보호기능 현황 파악, 주요이슈 정리
11	9.2.(목)	15	○ [의제 발굴 간담회] 후기청소년 현황 파악, 주요 이슈 정리 등
12	9.9.(목)	13	○ 의제개발 간담회 진행사항 공유 ○ 이야기손님 추천, 기관현황 공유
13	9.16.(목)	10	○ [의제발굴 간담회] 공동체문화조성 - 공동체문화조성 주요의견, 폭력 주요의견 포함
14	9.29.(수)	16	○ [의제발굴 간담회] 타지역 사례를 통한 후기청소년 지원방안

- 청소년 참여단 시의회 방문
 - 대상: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시의원 등 5명
 - 내용: 청소년 제안 정책 설명, 제안 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의견제시 등
- 유스거버넌스(분과 네트워크)
 - 2021년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정책분과와 문화분과로 확대·운영

표 III-20. 분과 네트워크 구성 현황

유스거버넌스	구성원 소속	비고
교육 네트워크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교육지원청	
이주배경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	부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문화분과
	부천교육지원청 학모지원전문가	문화분과
	부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	정책분과
	부천시의회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책분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정책분과
	경기글로벌센터	정책분과
	부천새날학교	문화분과
	부천교육문화재단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정책분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	정책분과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정책분과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정책분과
	부천시다문화지원센터	정책분과
	스마일어게인	정책분과
	거리청소년 네트워크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청소년 무지개카페 도당점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부천시여자단체청소년쉼터		

유스거버넌스	구성원 소속	비고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나는엄마도서관	
	부천역 청개구리	
	스마일어게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	

표 Ⅲ-21. 분과 네트워크 운영 현황

유스거버넌스	일정	참석 인원	주요내용
교육 네트워크	5.26.(수)	5	○ 교육청 학교밖 교육 연계요청 사항 공유
	6.4.(금)	7	○ 자율교육과정 등 협력방안 논의
	9.15.(수)	12	○ 교육청 정책방향 설명회
이주배경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	2.16.(화)	9	○ 이주청소년 상황과 지원현황 ○ 이주청소년 지원 필요성과 방안 ○ 모임 지속운영 방안
	3.18.(목)	12	○ 부천남초, 부천남중 다문화 현황 사례 공유
	4.15.(목)	12	○ 민간영역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사업 및 사례 공유 ○ 모임명칭 협의
	5.20.(목)	12	○ 부천혁신포럼 민주시민분과 병행 ○ 부천의 다문화 교육
	6.24.(목)	7	○ 부천 다문화자원지도 검수 ○ 분과구성 논의
	7.28.(수)	6	○ 정책분과 운영방향, 자료조사 논의
	8.11.(수)	8	○ 이주배경 청소년 현황자료 확인, 인터뷰 방식논의
	8.26.(목)	6	○ 정책분과 모임 - 학교 지원현황 공유, 인터뷰 오리엔테이션
	9.23.(목)	5	○ 부천혁신포럼 민주시민분과 병행 ○ 부천의 다문화 교육 정책제안 논의
	10.7.(목)	8	○ 정책분과 모임 - 혁신포럼 정책제안 상황 공유, 인터뷰 추진경과 공유, 정책분과 향후 방향
	10.20.(수)	15	○ 부천혁신포럼 참여 - 다문화 교육정책
10.21.(목)	11	○ 정책분과 모임 - 현안 제안서 작성, 향구 방향 논의	

유스거버넌스	일정	참석 인원	주요내용
	10.28.(목)	15	○ 분과별 운영경과 공유, 향후방양 논의
거리청소년 네트워크	7.21.(화)	7	○ 거리청소년 관련 현안 공유
	7.23.(금)	9	○ 거리청소년 관련 현안 도출
	8.27.(금)	6	○ 거리청소년 관련 현안 도출
	9.17.(금)	10	○ 거리청소년 관련 현안 도출
	10.6.(수)	9	○ 거리청소년 관련 현안 도출

(3) 연계협력의 주요 내용

① 청소년 의제개발 모임 운영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가 대상 키워드 분석, 의제별 팀구성, 이야기 손님 선정,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의제 개발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나갔다. 먼저 키워드 분석을 통해 청소년 의제의 주요 분야를 돌봄·보호, 후기청소년, 공동체문화조성,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도출하였다. 이후 실무협의체 내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담당 의제를 선정하고, 간담회 기획 및 주요 의견 정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간담회는 총 4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간담회에서는 돌봄 및 보호를 주제로 여러 관련 시설과 단체에서의 아동·청소년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돌봄 사각지대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2차, 4차 간담회에서는 청년정책을 주제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자립과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였다. 3차 간담회에서는 공동체문화조성을 주제로 사회부적응, 거리청소년, 성폭력, 학교폭력, 이주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포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문화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주제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시설·단체 활동과 사업 여건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표 III-22. 연계협력 논의내용

분야	주요 논의사항
<p>돌봄, 보호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복지관, 청개구리식당(거리청소년), 어린이식당, 청소년 카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등 운영 현황 공유 ○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밖청소년 증가, 위기청소년 증가(정서, 돌봄 등) -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 돌봄격차 ○ 지원/ 돌봄과 보호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밖청소년에 대한 위기지원 강화 - 청소년 마음돌봄(자살 자해 위기문제 불안 등) 강화 ○ 보호영역(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영역 부족, 청소년 안전공간 부족(쉼터부족) - 긴급 돌봄이 아닌 상시적 청소년 돌봄시설 지원 ○ 건강권
<p>후기 청소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시설에서의 청년커뮤니티 등 청년사업, 가정밖청소년 자립지원 및 청소년자립관, 부천 희망플랜사업, 부천청년희망사업단, 부천시 청년지원정책, 성남시청소년재단 청년활동, 청소년자립관, 청년창업지원 등 현황 공유 ○ 후기청소년 정책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청소년(20세 이상)의 자립과 관련된 정책 부족 - 니트 후기청소년 지원정책 ○ 후기청소년의 자립기반 부족 ○ 후기청소년들의 자립(기본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소득(청년, 청소년), 20살 청년기본소득 보장
<p>공동체 문화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이성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정책 ○ 이주배경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 증가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부족, 증가하는 이주배경청소년 대응 ○ 정서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관계경험의 부족(가족, 친구 등) ○ 공동체문화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맺기의 어려움 - 청소년 성별갈등 - 청소년 공동체문화 형성 : 폭증하는 학폭신고, 고립, 우울로 인한 자해 등 ○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폭력 : 언어, 성폭력, 성착취(성매매) 등 - SNS 및 사이버 폭력, SNS를 통한 갈등 및 범죄

분야	주요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를 통한 범죄에 취약한 청소년 - 폭력문제 (학교, 가정 포함)
코로나19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교육의 빈부 격차,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교육 격차 - 학습공백 ○ 코로나상황에 따라 정서적 고립감, 심리, 정서적 어려움 ○ 돌봄의 문제 ○ 활동참여영역 축소 (단절) 생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회복, 무기력감 극복 ○ 청소년 시설의 역할 : 청소년 주도적 정책/사회참여

② 청소년참여단 활동 및 지원: 시의회 방문, 조례제정, 노동인권

청소년참여단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이외 다양한 자치조직과 연계 운영되었으나, 2021년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박찬희 시의원의 요청에 따라 청소년참여단이 시의회를 방문하여 「부천시 청소년 보건·위생 개선을 위한 정책」의 제안 배경, 2017년~2020년 진행과정, 2020년도에 추진한 조례안(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날)과 청소년수련시설 명칭변경 등의 주요 이슈, 제안 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이는 제안 정책 실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써 그동안의 정책 제안서 발간에서 나아가 제안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높은 만족도가 있었다. 즉,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제안 정책에 대해 수용적·긍정적으로 피드백하고 함께 고민해준 시의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시의원은 청소년에 정책 이슈에 민감하게 고민하고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해 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추진력과 지속력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 관련 자료,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정책 실현을 위한 첫 출발이 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거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후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의결(2021.04.28.)됨으로써, 청소년참여단의 활동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청.재.지.변(청소년의 재능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에서 청소년 자유발언대를 통해 청소년 정책제안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 내용을 청소년 정책제안 반영 활동으로 하반기에 후속활동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 내 청소년 자치활동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주도적 참여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재단 운영에 있어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인권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참여단이 노동인권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소양교육부터 프로젝트 활동까지 진행하여 청소년노동네트워크 활동에 협력적으로 참여하였다.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을 청소년들의 언어로 쉽게 재해석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작하여 공유하였다.

③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부천교육 네트워크는 혁신교육 시즌3,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부천교육지원청과 지역의 출연기관(재단)간 연계에 대한 요구들로 시작되었다. 이에 여성청소년재단을 비롯하여 부천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에서는 상반기 중 부천교육지원청의 고교학점제 관련 학교밖 학습장 지정, 자율교육과정 연계과정에서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마을자원 연계방안 모색 등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며, 출연재단들이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매개자로서 역할모색을 위한 모임을 추진 예정이다. 또한 여성청소년재단 내 부천시미래교육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매개자로서 재단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④ 이주배경 청소년 의제화 및 지속적인 활동 추진

이주배경 청소년 문제는 2020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시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이주배경청소년 현안에 대한 이슈를 공유하였고, 교육지원청에서 현안 대응에 적극 동참하여 이후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는 상반기 동안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의, 현황 등 서로의 용어를 이해하고 필요한 역할을 모색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이후 문화분과, 정책분과 2팀으로 나누어 7월~9월간 현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문화분과는 인식개선 등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교육활동, 정책분과는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제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분과는 교육청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대상 구분을 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등 세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후 부천새날학교 등 중도입국청소년 활동기관들과 함께 중도입국청소년의 이주와 사회적응 관련 심층인터뷰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 인권네트워크를 부천혁신교육포럼 민주시민교육분과에 포함시켜 관련의제에 대한 논의구조를 마련하였다. 10월 20일에 개최되는 부천혁신교육포럼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제안'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⑤ 코로나19이후 거리청소년 증가에 따른 대처 활동

거리청소년네트워크는 올해 초, 청소년활동가 단체 카톡방에 물푸레나무공동체에서 지역 청소년 현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를 배회하거나 가정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활동가 모임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청개구리,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1차 프로젝트 활동이

마무리 되었지만, 거리청소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리청소년네트워크 모임은 예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지속적이지 못하던 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분과(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실무분과) 모임에서 거론되고 모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네트워크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이를 통해 청개구리 밥차 활동과 아웃리치 활동을 중심으로 거리 청소년 현안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 활동가들도 함께 거리청소년 현안과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거리청소년 현안에 대해 공유 중이며 단기과제와 장기과제 정리 등 모임의 방향성을 정비하고 있다.

⑥ 네트워크 파티 3.0

2019년부터 추진했던 청소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파티를 올해도 추진할 계획이다. 7월에는 네트워크 파티 기획단이 모집되었고, 지난 파티 평가의견 등을 반영한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온라인(게더타운 활용)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추진될 계획이다. 행사 일시는 10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향후에는 청소년참여단 중심의 청소년 버전 네트워크 파티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⑦ 유스아카이브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자원공유 온라인 구축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는 등, 유스아카이브 구축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청소년 연계자원 현황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과거 지역에서 발간된 청소년 관련 자료를 취합하였다. 유스아카이브는 연간 활동으로 계속해서 추진될 예정이다.

(4)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¹⁴⁾

① 자체 평가

‘청소년 부천에꿈’의 목적은 ‘청소년 주류화를 위한 성장지원 체계 확립과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 구축’을 위해 부천시 지역 네트워크를 ‘유스 거버넌스’로 체계화하고, 지자체-교육청-기관-민간이 협업하는 지역사회 연계망을 확대, 운영하며, 제도화를 주도하는 청소년의 참여 확대로 지역의 주류 세력으로 성장함으로써,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비롯한 지역 자원들과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제시하는 것이었다.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성장지원추진체계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 경험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이 지역의 NPO로서 역할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재단은 청소년활동가의 교육과 교류 지원, 청소년 의제발굴과 정책제안 등 민-관-학(교육청)의 매개자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천시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지역 차원에서 청소년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협의구조로 안착시키고, 그로 인한 성공 경험을 축적하여 지역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실무협의체는 공공청소년시설 중간관리자 모임으로 운영되었고, 이 모임은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분화 실무협의체의 기능을 병행하는 것으로 지역 내에서 합의되었다. 2016년 재단 출범이후 공공청소년시설의 증가에 따라 새로 유입된 구성원, 타 지역 또는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다 부천의 청소년시설 중간관리자로 함께하게 된 구성원, 재단 소속시설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구성원 변동 등으로 모임의 구성원 변동이 과거에 비해 빈번히,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중간관리자 모임에 대한 역할, 각 시설의 입장이 아닌 부천 지역의 공동 의제에 대한 고민 등 모임 정체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단 정책기획실에서는 정책변화, 환경변화에 따른 이슈전파와 동기부여,

14) 3차년도 최종 사업보고서(부천여성청소년재단, 2021b) 내용을 발췌·재구성함.

공동의제대응 지원 등 NPO지원을 위한 역할수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난 3년간 부천 지역에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은 교육네트워크, 이주배경 청소년 인권네트워크 현안 이슈에 따라 민-관-학과의 소통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정책기획실은 청소년 거버넌스의 플랫폼이어야 하며, 청소년활동가 네트워크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여기에 3년 동안 주요 구성원이 총괄코디네이터 등 핵심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운영의 일관된 방향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부천 지역에서 유스거버넌스는 지속적인 운영과 실천이 되도록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영역의 유스거버넌스가 사회변화에 적절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재단의 플랫폼 기능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현안 의제별로 네트워크의 생성과 해체, 재구조화 등 네트워크의 변화양태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된다.

청소년 주류화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참여단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직화에 한계가 있었다. 재단 내 청소년 이사제 도입 등 제도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일반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만든 정책 제안이 실제로 현실화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실현화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부천의 청소년 주류화는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청소년시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지역의 환경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의 관점을 바뀌게 하는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향후 과제

청소년성장지원체계의 지속적 논의 구조와 유동적인 유스거버넌스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코디네이터의 발굴과 활동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청소년성장지원체계 운영(청소년 거버넌스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각 단위시설 및 단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노력해야 한다면 정책,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의 현안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 행정환경변화, 정책변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줄 수 있는 인력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 거버넌스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 유지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활동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인력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천시청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2019년 개편하여 실질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목적이 유사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하기 보다는 민간단체 등에서 청소년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천받아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민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청소년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대표 기구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로 구성·운영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재단 정책기획실 사업을 기획하면서 지역자원 통합 성장지원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시 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예산에는 청소년네트워크 코디네이터(기간제 인건비), 협의체 회의수당, 프로젝트 활동비, 워크숍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간영역까지 포함한 청소년성장지원체계의 협력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 또는 시민활동가의 참여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시범사업 예산을 통해 활동비를 약간이나마 지급해 왔는데,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시설의 경우 직원으로 사업으로 결합될 수 있으나, 민간영역과 시민은 개인의 시간과 역량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황에 따른 보상방안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5. 소결

1) 지역별 시범사업 특징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3년간의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시범사업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표 III-23>과 같다.

첫째, 세 지역은 지역 내 청소년 현황, 정책적 요구, 네트워크 현황 등의 측면에서 상이한 기반을 가지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곡성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 발전 전략이 크게 대두된 상황에서 청소년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역시 높은 상태에서 본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 차원의 관심이 높았다. 유성은 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지역에 다양한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 사업에 대한 지역 내 지지를 유도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부친은 재단 설립과 더불어 청소년 활동가 중심 네트워크인 푸른모임이 해체된 후 지역의 네트워크 문화 복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태였다.

둘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구조와 참여 주체면에서 세 지역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곡성의 경우 미래교육협력센터(이후 재단)의 출범과 더불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적극 참여 속에 지역 내 청소년 자원을 모으는 시도로서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졌다. 유성은 청소년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시설 간 협력 모델을 보여주었고, 청소년들의 직접 참여 속에 분과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부친은 초기에는 재단과 공공시설 중심에서 점차 민간 영역으로 참여가 확대되면서 지역 내 청소년 현안 중심으로 논의구조를 형성해 나갔다.

셋째, 지역 내 연계협력의 양상과 내용 측면에서도 세 지역의 차이가 나타났다. 곡성은 재단과 중앙부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네트워크의 힘을 십분 활용하였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청소년 시설 실무자들의 소진 문제도 나타났다. 유성은 청소년들의 제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분과 활동이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었다. 부천은 이슈 중심으로 관련 주체들과 연계협력을 진행해 나감으로써 지역 내 청소년 의제 발굴과 추진력을 강화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3년간의 시범사업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 곡성은 재단과 협의체 간의 관계설정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협의 기구의 공식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정책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 부처 차원의 연계협력이 요구된다. 유성은 청소년 안전망, 마을교육공동체 등 기존 네트워크와 협의체 간 관계 설정과 관련 조례에 대한 지역 내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협의체의 논의사항과 청소년 제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부천은 협의체 구조를 재단 내 기구로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영역의 참여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III-23. 지역별 시범사업 주요 특징 요약

	곡성군	유성구	부천시
시범 사업 전 현황	인구감소, 청소년자원부족, 청소년 성장 지원에 대한 지역 내 관심 고조	청소년 인구 많음. 지역 내 다양한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 존재	청소년활동가 네트워크 푸른모임 등 풀뿌리 네트워크 문화 존재
협업체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체: 청소년시설, 군청, 교육지원청, 학교, 민간 등 참여. 재단 출범 후 재단 중심 의사결정 진행 분과실무자네트워크(활동참여, 진로직업, 보호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체 운영위원회: 청소년시설, 마을교육공동체, 학교 등 전용공간, 교육학습, 정서상담, 진로직업체험, 청소년활동, 학교밖 청소년 분과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의 공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체: 재단, 청소년시설, 교육지원청, 시청. 공공 중심에서 민간 참여 확대 실무협업체(청소년 관련 기관실무자, 혁신교육, 청소년주류화, 청소년활동가, 성인지, 건강·안전·돌봄, 진로) 구성
연계 협력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여러 사업 추진: 곡성군청,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재단, 교육부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 행안부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구축사업, 여성가족부 방과후아카데미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연계협력의 의제를 설정하고, 진행과정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청소년 의제 발굴 및 추진력 강화: 분과 중심 의제 추진(이주배경, 노동, 거리청소년 등), 의제발굴 간담회, 유스 아카이브 등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교육재단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간 관계 재설정 필요 지역 정책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중앙부처 간 연계협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네트워크(청소년안전망, 마을교육공동체 등)와의 차별성 및 유기적 관련성 확보 필요 여성가족부 지원, 지자체, 교육지원청의 협조, 조례 제정 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재단 내 기구화, 이와 관련 인력 및 지자체 예산 확보 등 지속적인 운영 장치 필요 민간 영역의 네트워크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상책 마련 필요 재단 내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이후 교육지원청-지자체-재단 간 파트너십 정립 필요

2) 종합성과분석 고려사항

이와 같이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시범사업의 종합성과분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그 성과에 있어 표준적인 모델이 아닌 지역적 특성과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세 지역은 지역적 기반, 협의체 구조와 참여, 연계협력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다양한 모델과 거버넌스 구조의 토대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관점으로 성과분석을 시도하되 연계협력의 최종 결과물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의 조건, 과정, 주체들의 인식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한다.

둘째, 3년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은 네트워크의 구축과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첫 단계로서 접근되어야 한다. 네트워크는 사업을 위해 단번에 구축되지 않으며, 지역 내 청소년 의제를 위한 여러 주체들 간의 합의와 끊임없는 조정과 타협을 통해 성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종합성과분석은 시범사업의 종료 이후에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조건과 지원방안에도 초점을 두고자 한다.

셋째, 본 사업의 성과는 연구원의 시범사업 운영의 틀 안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과 달리 본 과제는 지자체의 참여가 의무적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협력 여건에 따라 협의체 운영과 연계협력의 실질적인 성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시범사업 예산의 경우 비교적 자율적인 예산 구조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은 규모로 한정되어(1차년도: 1800만원, 2, 3차년도: 2000만원)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되기에는 부족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한 측면은 향후 여성가족부 사업의 발전 전략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시범사업 기간 중 지역별로 협의체가 구성되고 구체적인 연계협력이 논의되어야 할 2년차 시점에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하여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였다. 기관 운영의 어려움 및 대면 교류의 악조건 속에도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의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향후 지역 네트워크 활동과 청소년 시설의 기능 측면에서 가치있는 경험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제4장 시범사업 종합성과 분석: 양적 조사 결과

- 1. 종합성과분석 개요 및 방법
- 2. 양적 조사 개요 및 방법
- 3. 양적 분석 결과

1. 종합성과분석 개요 및 방법

3장에서는 지역별로 시범사업 운영 내용과 주요 결과를 살펴보았다. 세 지역은 서로 다른 배경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참여 주체 간 역동에 따라 운영과 연계협력의 특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지역별 운영 사례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즉, 3년의 시간동안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과정 그리고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1, 2차년도에 성과분석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연구모형을 개발하였고, 양적·질적 조사에 있어서도 올해 사업에 대한 성과뿐 아니라 3년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종합성과 분석은 네트워크 운영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운영과정상의 중요요소와 향후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중간 점검의 성격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4장과 5장에 걸쳐 시범사업의 종합성과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4장에서는 우선 네트워크 분석과 설문조사를 포함한 양적 조사의 설계 및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이어 5장에서 질적 조사 설계 및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운영과 확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5) 이 장의 2절과 3절 1), 2)는 이경상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고, 1절과 3절 3)은 황세영 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표 IV-1. 1~3차년도 연구 성과분석 개요

	1차년도(2019년)	2차년도(2020년)	3차년도(2021년)
분석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기관 간 상호작용의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 심화 정도, 사업참여자의 인식과 역량 변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3년간의 종합성과분석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 분석(기관 간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 분석(지리적 분포, 기관 간 상호작용, 밀집도) 사업참여 효과성 검증(성인, 청소년): 양적 조사설계(참여집단, 비교집단),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 분석: 포괄성, 밀도,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 및 3년간의 변화 설문조사(성인, 청소년): 운영배경, 과정, 효과 전반 및 3년간의 변화 정도에 대한 인식 질적조사(성인, 청소년): 네트워크의 의미, 연계협력 경험, 주체의 성장 등

* 출처: 최인재 외. (2019).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9-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 외. (202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연구보고 20-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양적 조사 개요 및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앞의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살펴 본 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양적 조사 설계안을 구성하였다. 독립변수인 운영요소 부분에 추진 배경 및 조건, 과정적 운영요소로서의 목표설정, 신뢰관계, 의사결정규범, 참여자 책무성, 운영구조의 효율성,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배치하였고, 종속변수인 운영효과 부분에 서비스 제공의 효과, 담당자 연계협력 역량 제고, 성장지원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개선 등과 같은 변수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운영요소(독립변수)

- ◎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 배경 및 조건
 - 지역사회 내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 지역사회 내 연계가능한 관련기관 분포의 충분성
 - 네트워크 구성과정에서 관련기관 참여제약/자율의 정도
 - 네트워크 구성과정에서 관련기관 간 갈등/신뢰의 정도
 - 교육지원청/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의 무유/충분성
 - 교육지원청/지자체 내 전담인력의 무유/충분성
 - 지자체 내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의 정도
- ◎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의 과정
 - ▶ 목표설정
 - 네트워크 기관들의 공동 현안발굴역량의 정도
 - 네트워크 기관들의 공동 목표설정의 명확성의 정도
 - ▶ 신뢰관계
 - 네트워크 기관들의 탈퇴/참여의 자율성의 정도
 - 네트워크 기관들이 가진 책임감의 정도
 - 네트워크 기관들 간 관계의 수평적인 정도
 - 네트워크 기관들 간 협력적 의사소통의 정도
 - 네트워크 기관들 간 갈등/신뢰의 정도
 - ▶ 의사결정 규범
 - 네트워크 운영관련 규정/기본계획/담당자역할규정의 무유/충분성
 - 네트워크 운영의 투명성의 정도
 -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의 민주적/속의적/합의적인 정도
 -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수요자 중심적인 정도
 -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명확한 정도
 -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정도
 - ▶ 참여자 책무성
 - 네트워크 기관들의 자원 동원/지원의 내용/방법의 충분성
 - 네트워크 기관들의 자원 동원/지원의 호혜성의 정도
 - 네트워크 기관 대표자들의 연계협력에 대한 관심의 정도
 - 네트워크 기관 담당자들의 목표달성의지의 정도
 - 네트워크 기관 담당자들의 연계협력역량의 정도
 - 네트워크 기관들의 담당자 연계협력역량 강화 지원 정도
 - 네트워크 기관 간 성과/책임 공유의 정도
 - ▶ 운영구조의 효율성
 - 운영주관기관의 네트워크 운영이 효율적인 정도
 - 협의체/실무/분과네트워크 등 운영구조가 체계적인 정도
 - 네트워크 전담인력의 무유/충분성
 - 네트워크 운영 예산지원의 충분성
- ◎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
 - 밀도/중심성 등
- ◎ 배경 요인
 - 소속기관의 기관유형, 네트워크 참여유형
 - 본인의 네트워크 사업 참여형태, 사업 참여기간, 사는 지역, 성별, 소속분야 근무경력

운영효과(종속변수)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제공:
 - *비용 감소
 - *시간 단축
 - *불확실성 감소
 - *다양성 증대
 - *통합적 문제해결 가능성 증대
- 담당자 연계협력 역량 제고
- 성장지원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개선
- 성장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증대
- 성장지원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인식 및 참여 증대
- 성장지원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접근성 확대
-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의 자생성 증대
-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기존 네트워크와의 차별화된 역할확보의 정도
- 성장지원 서비스 기관 간 연계협력 사업 증가
- 성장지원 서비스 공동기획사업에 대한 참여 증가
- 네트워크 사업의 전반적 성과

그림 IV-1.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 성과 양적 조사 설계

이러한 양적 조사 설계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성인 담당자 설문조사, 기관 네트워크 조사, 청소년 참여자 설문조사의 3가지 양적 조사를 기획하였다.

먼저 조사내용은 3가지 양적 조사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성인 담당자 설문조사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추진 배경 및 조건(지역사회 내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등), 목표설정(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현안발굴역량의 정도 등), 신뢰관계(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탈퇴/참여의 자율성의 정도 등), 의사결정규범(네트워크 사업 운영의 투명성의 정도 등), 참여자책무성(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자원 동원/지원 내용이 충분한 정도 등), 운영구조의 효율성(운영주관기관의 네트워크 운영이 효율적인 정도 등), 운영효과(개별기관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에서 부담하는 비용감소의 정도 등) 관련 내용의 3차년도(2021년) 실태 및 1~3차년도(2019~2021년) 변화에 대한 인식, 배경요인을 조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성과분석 관련 내용과는 별개로 향후 지속참여 의향 여부, 향후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문항도 추가로 살펴보기 위해 조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기관 네트워크 조사는 1~2차년도(2019~2020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최인재 외, 2019; 최인재 외, 2020), 기관명, 상호작용기관명, 상호작용유형(기관 정보공유, 인적자원, 물적자원, 프로그램협력, 기타), 날짜 등 협의체 기관 간 상호작용 관련 내용의 3차년도(2021년) 실태를 조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청소년 참여자 설문조사는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참조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참여활동의 참여과정 및 만족(임희진 외, 2018), 활동 참여전후 본인의 인식변화(모상현, 2019; 최용환 외, 2020; 황세영, 김남수, 2016) 관련 내용의 3차년도(2021년) 실태, 지역에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임희진 외, 2018), 지역에서 활동참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임희진 외, 2018), 배경요인을 조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IV-2. 양적 조사 유형별 조사내용의 구성

구분	조사내용		문항		
			문항 수	문항 번호	
성인 담당자 설문조사	추진배경 및 조건	추진배경 및 조건 관련 3차(2021)년도 실태	11	1-1	
		추진배경 및 조건 관련 1-3차(2019-2021)년도 변화	6	1-2	
	운영과정	목표설정 관련 3차(2021)년도 실태	2	2-1	
		목표설정 관련 1-3차(2019-2021)년도 변화	2	2-2	
		신뢰관계 관련 3차(2021)년도 실태	6	3-1	
		신뢰관계 관련 1-3차(2019-2021)년도 변화	6	3-2	
		의사결정규범 관련 3차(2021)년도 실태	8	4-1	
		의사결정규범 관련 1-3차(2019-2021)년도 변화	5	4-2	
		참여자책무성 관련 3차(2021)년도 실태	8	5-1	
		참여자책무성 관련 1-3차(2019-2021)년도 변화	8	5-2	
		운영구조의 효율성 관련 3차(2021)년도 실태	4	6-1	
		운영구조의 효율성 관련 1-3차(2019-2021)년도 변화	2	6-2	
	운영효과	운영효과 관련 3차(2021)년도 실태	16	7-1	
		운영효과 관련 1-3차(2019-2021)년도 변화	16	7-2	
		향후 지속참여 의향 여부	1	8	
		향후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6	9	
	배경요인	소속기관의 기관유형, 네트워크 참여유형, 본인의 네트워크 참여형태, 사업 참여기간, 지역, 성별, 근무경력	7	10	
	기관 네트워크 조사	협의체 기관간 상호작용	기관명, 상호작용기관명, 상호작용유형(기관정보공유, 인적자원, 물적자원, 프로그램협력, 기타), 날짜 등	-	-
	청소년 참여자 설문조사	참여과정	본인이 참여한 활동의 참여과정 및 만족	7	1
인식변화		활동 참여전후 본인의 인식변화	5	2	
어려움		지역에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1	3	
필요한것		지역에서 활동참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8	4	
배경요인		지역, 성별, 출생연도, 현재 학교재학여부	4	5	

개발된 설문 항목에 대해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고, 조사수행에 관한 기관 IRB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 202104-HR-고유-001)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첫째, 성인 담당자 설문조사는 올해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담당자들 중 협의체 회의에 1회 이상 참여하신 분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한 후, 2021년 8월 1일 ~ 9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시스템 상의 설문지에 자기기입식(self-reported)으로 응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검수과정을 거쳐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159명 중 33명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126명이 조사동의 후 조사에 참여하여 79.2%의 높은 조사성공률을 기록하였다. 조사참여자 126명 중 1~3차년도 사업 모두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82명으로 65.0%였다. 설문응답자의 주요 구성적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부천시 45.2%, 유성구 30.2%, 곡성군 24.6%, 성별로는 여성 59.5%, 남성 40.5%, 사업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17.6%, 실무/분과/일반 참여 8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관 네트워크 조사는 올해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15일 ~ 9월 30일까지 엑셀로 만든 간단한 조사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 자기기입식(self-reported)으로 기재한 후 회신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검수, 코딩 등의 과정을 거쳐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시범사업 기간 3년 내내 네트워크에 다수가 참여한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은 해마다 참가자가 바뀌는 특성이 있어 3차년도 참여자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올해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13세 이상 청소년들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한 후, 성인 담당자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2021년 8월 1일 ~ 9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시스템 상의 설문지에 자기기입식(self-reported)으로 기재하게 하는 방식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검수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76명 중 18명이 개인사유 등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58명이 보호자 및 본인 동의 후 조사에 참여하여 76.3%의 높은 조사성공률을 나타냈다. 설문응답 청소년의 주요 구성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부천시 29.3%, 유성구 39.7%, 곡성군 31.0%, 성별로는 여성 60.3%, 남성 39.7%, 현재 학교재학여부별로는 학교에 다니고 있음 89.7%, 학교에 다니지 않음 10.3%의 분포를 보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3가지 양적 조사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성인 담당자 설문조사 데이터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운영성과의 3차년도(2021년) 실태와 1~3차년도(2019~2021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추진 배경 및 조건, 목표설정, 신뢰관계, 의사결정규범, 참여자책무성, 운영구조의 효율성, 운영효과의 개별 문항별로,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체 평균분석, 빈도분석, 지역별(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평균차이분석, 사업 참여형태별(협의체 참여, 실무/분과/일반 참여)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향후 지속참여 의향 여부, 향후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의 개별 문항별로 전체 평균분석, 빈도분석, 지역별(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평균차이분석, 교차분석, 사업 참여형태별(협의체 참여, 실무/분과/일반 참여) 평균차이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3차년도 사업의 목표설정, 신뢰관계, 의사결정규범, 참여자책무성, 운영구조의 효율성과 같은 과정적 운영요소들이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기관 네트워크 조사 데이터는 협의체 기관 간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의 3차년도(2021년) 실태와 1~3차년도(2019~2021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에 새로 수집한 3차년도(2021년) 자료와 지난 2년간 기 수집한 1~2차

년도(2019~2020년) 자료(최인재 외, 2019; 최인재 외, 2020) 모두를 분석목적에 맞게 코딩 및 재코딩한 후, UCINET 6.689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별(부천시, 유성구, 곡성군)로 포괄성 분석, 밀도 분석, 아이젠벡터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NetDraw 2.17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협의체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에 대한 그래픽 분석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 참여자 설문조사 데이터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운영성과의 3차년도(2021년)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참여활동의 참여과정 및 만족, 활동 참여전후 본인의 인식변화, 지역에서 활동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 등의 문항별로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체 평균분석, 지역별(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평균차이분석, 성별(여성, 남성)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문항에 대해 전체 빈도분석, 지역별(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교차분석, 성별(여성, 남성)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양적 분석 결과

1) 성인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차년도 시범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1)에 대한 인식을 6개의 각 하위문항(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연계가능한 관련기관의 분포, 관련기관의 참여제약의 정도, 관련기관의 참여자율성의 정도, 관련기관 간 갈등의 정도, 관련기관 간 신뢰의 정도)별로 7점 척도(구축의 필요성 문항은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 ⑦ 매우 동의함/관련기관의 분포 문항은 ① 매우 부족 ~ ⑦ 매우 충분/나머지 문항은 ① 매우 작음 ~ ⑦ 매우 큼)로 측정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 지역사회 내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6.16점으로 매우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6.23점, 곡성군 6.13점, 유성구 6.08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6.25점, 협의체 참여 5.73점의 순이었다. ‘(2) 지역사회 내 연계가능한 관련기관의 분포’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97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16점, 부천시 4.96점, 유성구 4.82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06점, 협의체 참여 4.64점의 순이었다. ‘(3)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참여제약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3.78점으로 약간 낮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4.10점, 유성구 3.89점, 부천시 3.54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3.85점, 협의체 참여 3.50점의 순이었다. ‘(4)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참여자율성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87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4.94점, 유성구 4.89점, 부천시 4.81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4.91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4.86점의 순이었다. ‘(5)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 간 갈등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3.10점으로 약간 낮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3.94점, 유성구 2.87점, 부천시 2.81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3.14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3.08점의 순이었다. ‘(6)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 간 신뢰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18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42점, 부천시 5.14점, 유성구 5.05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29점, 협의체 참여 4.73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3차년도 시범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1)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필요하고, 지역사회 내 연계가능한 관련기관의 분포도 약간 충분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네트워크 구성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참여제약은 약간 작고, 참여자율성은 약간 큰 정도이고, 관련기관 간 갈등은 약간 작고, 신뢰는 많이 큰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3.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 (1)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1) 지역사회 내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6.16	6.23	6.08	6.13	5.73	6.25
(2) 지역사회 내 연계가능한 관련기관의 분포	4.97	4.96	4.82	5.16	4.64	5.06
(3)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참여제약의 정도	3.78	3.54	3.89	4.10	3.50	3.85
(4)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참여자율성의 정도	4.87	4.81	4.89	4.94	4.91	4.86
(5)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간 갈등의 정도	3.10	2.81	2.87	3.94	3.14	3.08
(6)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간 신뢰의 정도	5.18	5.14	5.05	5.42	4.73	5.29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차년도 시범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 (2, 3)에 대한 인식을 5개의 각 하위문항(교육지원청과의 연계협력의 무유/충분성,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의 무유/충분성, 교육지원청내 전담인력(지역사회협력전담장학사 등)의 무유/충분성, 지자체 내 전담인력(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등)의 무유/충분성, 지자체내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의 정도)별로 5~7점 척도(앞의 4개 문항은 모름을 제외하고 무유 측정 후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① 매우 부족 ~ ⑤ 매우 충분으로 측정/마지막 1개 지자체내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의 정도 문항은 모름을 제외한 후 ① 매우 작음 ~ ⑦ 매우 큼으로 측정)로 측정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7)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협력의 무유/충분성’ 문항은 87.2%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충분성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40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4.16점, 유성구 3.39점, 부천시 2.85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3.50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3.38점의 순이었다. ‘(8)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의 무유/충분성’ 문항은 91.9%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충분성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44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4.15점, 유성구 3.46점, 부천시 2.92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3.73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3.39점의 순이었다. ‘(9) 교육지원청 내 전담인력(지역사회협력전담장학사 등)의 무유/충분성’ 문항은 89.8%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충분성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34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3.88점, 유성구 3.35점, 부천시 2.90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3.54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3.28점의 순이었다. ‘(10) 지자체내 전담인력(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등)의 무유/충분성’ 문항은 62.2%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충분성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16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3.75점, 유성구 3.18점, 부천시 2.75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3.42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3.08점의 순이었다. ‘(11) 지자체내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의 정도’ 문항의 모름을 제외한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3.89점으로 약간 낮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4.19점, 유성구 3.91점, 부천시 3.68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3.99점, 협의체 참여 3.50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3차년도 시범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2, 3)과 관련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이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약간 충분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곡성군과 유성구는 매우 충분하거나 약간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부천시

는 약간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교육지원청내 전담인력(지역 사회협력전담장학사 등) 및 지자체내 전담인력(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등)도 많이 있으며 약간 충분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곡성군과 유성구는 약간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부천시는 약간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지자체내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의 정도는 약간 작은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곡성군은 약간 큰 상태라고 응답한 반면 부천시와 유성구는 약간 작은 상태라고 응답하여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4.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 (2)

(단위: %, 평균/5점)

항목	무유	충분성(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만 응답)					
	있음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업체	실무/분과/일반
(7)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교육 지원청과의 연계협력의 무유/충분성	87.2	3.40	2.85	3.39	4.16	3.50	3.38
(8)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의 무유/충분성	91.9	3.44	2.92	3.46	4.15	3.73	3.39
(9) 교육지원청내 전담인력(지역사회 협력전담장학사 등)의 무유/충분성	89.8	3.34	2.90	3.35	3.88	3.54	3.28
(10) 지자체내 전담인력(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등)의 무유/충분성	62.2	3.16	2.75	3.18	3.75	3.42	3.08

표 IV-5.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 (3)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업체	실무/분과/일반
(11) 지자체내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의 정도	3.89	3.68	3.91	4.19	3.50	3.99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인 1~3차년도(2019년~2021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 관련 1~3차년도 변화에 대한 인식을 6개의 각 하위문항(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연계가능한 관련기관의 분포, 관련기관의 참여제약의 정도, 관련기관의 참여자율성의 정도, 관련기관 간 갈등의 정도, 관련기관 간 신뢰의 정도)별로 7점 척도(① 매우 감소 ~ ⑦ 매우 증가)로 측정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 지역사회 내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66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92점, 부천시 5.79점, 유성구 5.31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5.88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5.59점의 순이었다. ‘(2) 지역사회 내 연계가능한 관련기관의 분포’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21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40점, 부천시 5.18점, 유성구 5.07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19점, 협의체 참여 5.18점의 순이었다. ‘(3)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참여제약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01점으로 낮지도 높지도 않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4.56점, 유성구 4.03점, 부천시 3.50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4.11점, 협의체 참여 3.71점의 순이었다. ‘(4)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참여자율성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88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04점, 부천시 5.04점, 유성구 4.59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4.92점, 협의체 참여 4.82점의 순이었다. ‘(5)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 간 갈등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04점으로 낮지도 높지도 않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4.46점, 유성구 4.10점, 부천시 3.61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4.10점, 협의체 참여 3.76점의 순이었다. ‘(6)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 간 신뢰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

수는 7점 만점에 5.29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54점, 유성구 5.19점, 부천시 5.18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5.53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5.25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1~3차년도(2019년~2021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은 시범사업 추진배경 및 조건의 지난 3년간의 변화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은 많이 증가하였고, 지역사회 내 연계가능한 관련기관의 분포도 많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네트워크 구성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참여계약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역별로는 곡성군은 약간 증가, 유성구는 변화 없음, 부천시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차이를 보였고, 참여형태별로도 실무/분과/일반 참여자는 약간 증가, 협의체 참여자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차이를 보였다. 관련기관의 참여자율성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관련기관 간 갈등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역별로는 곡성군과 유성구는 약간 증가, 부천시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차이를 보였고, 참여형태별로도 실무/분과/일반 참여자는 약간 증가, 협의체 참여자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차이를 보였다. 관련기관 간 신뢰는 많이 증가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6.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 관련 3년간의 변화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1) 지역사회 내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5.66	5.79	5.31	5.92	5.88	5.59
(2) 지역사회 내 연계가능한 관련기관의 분포	5.21	5.18	5.07	5.40	5.18	5.19
(3)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참여계약의 정도	4.01	3.50	4.03	4.56	3.71	4.11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업체	실무/분과/일반
(4)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참여자율성의 정도	4.88	5.04	4.59	5.04	4.82	4.92
(5)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간 갈등의 정도	4.04	3.61	4.10	4.46	3.76	4.10
(6)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간 신뢰의 정도	5.29	5.18	5.19	5.54	5.53	5.25

(2)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차년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목표설정)에 대한 인식을 2개의 각 하위문항(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현안발굴역량의 정도, 공동 목표설정의 명확성의 정도)별로 7점 척도(① 매우 작음 ~ ⑦ 매우 큼)로 측정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현안발굴역량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93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10점, 유성구 4.95점, 부천시 4.81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4.98점, 협업체 참여 4.71점의 순이었다.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목표설정의 명확성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83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23점, 유성구 4.74점, 부천시 4.67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4.92점, 협업체 참여 4.52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3차년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목표설정)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현안발굴역량과 공동 목표설정의 명확성의 정도는 약간 높은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7.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목표설정)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업체	실무/분과/일반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현안발굴 역량의 정도	4.93	4.81	4.95	5.10	4.71	4.98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목표설정의 명확성의 정도	4.83	4.67	4.74	5.23	4.52	4.92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인 1~3차년도(2019년~2021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목표설정) 관련 1~3차년도 변화에 대한 인식을 2개의 각 하위문항(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현안발굴역량의 정도, 공동 목표설정의 명확성의 정도)별로 7점 척도(① 매우 감소 ~ ⑦ 매우 증가)로 측정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현안발굴역량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41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56점, 부천시 5.36점, 유성구 5.34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47점, 협업체 참여 5.29점의 순이었다.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목표설정의 명확성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27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52점, 유성구 5.24점, 부천시 5.07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41점, 협업체 참여 4.88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1~3차년도(2019년~2021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은 시범사업 과정적 운영요소(목표설정)의 지난 3년간의 변화와 관련해서,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현안발굴역량과 공동 목표설정의 명확성의 정도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8.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목표설정) 관련 3년간의 변화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현안발굴 역량의 정도	5.41	5.36	5.34	5.56	5.29	5.47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목표설정의 명확성의 정도	5.27	5.07	5.24	5.52	4.88	5.41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차년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신뢰관계)에 대한 인식을 6개의 각 하위문항(탈퇴/참여의 자율성의 정도, 책임감의 정도, 관계의 수평적인 정도, 협력적 의사소통의 정도, 갈등의 정도, 신뢰의 정도)별로 7점 척도(① 매우 작음 ~ ⑦ 매우 큼)로 측정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탈퇴/참여의 자율성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82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13점, 부천시 4.73점, 유성구 4.71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5.32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4.73점의 순이었다.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이 가진 책임감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86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26점, 유성구 4.82점, 부천시 4.66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4.97점, 협의체 참여 4.32점의 순이었다. ‘(3)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관계의 수평적인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4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5.45점, 유성구 5.29점, 곡성군 5.19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38점, 협의체 참여 5.18점의 순이었다. ‘(4)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협력적 의사소통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13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29점, 부천시 5.13점, 유성

구 5.00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23점, 협의체 참여 4.73점의 순이었다. ‘(5)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갈등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3.16점으로 약간 낮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3.90점, 부천시 3.00점, 유성구 2.79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3.59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3.06점의 순이었다. ‘(6)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신뢰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16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45점, 유성구 5.13점, 부천시 5.02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21점, 협의체 참여 5.00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3차년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신뢰관계)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탈퇴/참여의 자율성의 정도, 책임감의 정도, 관계의 수평적인 정도, 협력적 의사소통의 정도, 신뢰의 정도는 모두 약간 높거나 많이 높은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갈등의 정도는 약간 낮은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9.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신뢰관계)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탈퇴/참여의 자율성의 정도	4.82	4.73	4.71	5.13	5.32	4.73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이 가진 책임감의 정도	4.86	4.66	4.82	5.26	4.32	4.97
(3)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관계의 수평적인 정도	5.34	5.45	5.29	5.19	5.18	5.38
(4)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협력적 의사소통의 정도	5.13	5.13	5.00	5.29	4.73	5.23
(5)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갈등의 정도	3.16	3.00	2.79	3.90	3.59	3.06
(6)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신뢰의 정도	5.16	5.02	5.13	5.45	5.00	5.21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인 1~3차년도(2019년~2021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신뢰관계) 관련 1~3차년도 변화에 대한 인식을 6개의 각 하위문항(탈퇴/참여의 자율성의 정도, 책임감의 정도, 관계의 수평적인 정도, 협력적 의사소통의 정도, 갈등의 정도, 신뢰의 정도)별로 7점 척도(① 매우 감소 ~ ⑦ 매우 증가)로 측정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탈퇴/참여의 자율성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92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4.93점, 유성구 4.93점, 곡성군 4.91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5.06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4.90점의 순이었다.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이 가진 책임감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40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50점, 부천시 5.37점, 곡성군 5.32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47점, 협의체 참여 5.24점의 순이었다. ‘(3)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관계의 수평적인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40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62점, 부천시 5.33점, 곡성군 5.23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54점, 협의체 참여 5.00점의 순이었다. ‘(4)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협력적 의사소통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54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64점, 유성구 5.56점, 부천시 5.44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60점, 협의체 참여 5.41점의 순이었다. ‘(5)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갈등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3.52점으로 약간 낮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4.00점, 부천시 3.58점, 유성구 3.07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3.59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3.49점의 순이었다. ‘(6)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신뢰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43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56점, 곡성군 5.41점, 부천시 5.33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52점, 협의체 참여 5.24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1~3차년도(2019년~2021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은 시범사업 과정적 운영요소(신뢰관계)의 지난 3년간의 변화와 관련해서,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탈퇴/참여의 자율성의 정도, 책임감의 정도, 관계의 수평적인 정도, 협력적 의사소통의 정도, 신뢰의 정도는 모두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갈등의 정도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0.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신뢰관계) 관련 3년간의 변화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탈퇴/참여의 자율성의 정도	4.92	4.93	4.93	4.91	5.06	4.90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이 가진 책임감의 정도	5.40	5.37	5.50	5.32	5.24	5.47
(3)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관계의 수평적인 정도	5.40	5.33	5.62	5.23	5.00	5.54
(4)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협력적 의사소통의 정도	5.54	5.44	5.56	5.64	5.41	5.60
(5)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갈등의 정도	3.52	3.58	3.07	4.00	3.59	3.49
(6)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신뢰의 정도	5.43	5.33	5.56	5.41	5.24	5.52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차년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의사결정규범)(1)에 대한 인식을 3개의 각 하위문항(네트워크 운영관련 규정/지침의 무유/충분성, 기본계획의 무유/충분성, 담당자(코디네이터, 기관별담당자 모두 포함) 역할규정의 무유/충분성)별로 5점 척도(모름을 제외하고 무유 측정 후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① 매우 부족 ~ ⑤ 매우 충분으로 측정)로 측정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 네트워크 운영관련 규정/지침의 무유/충분성’ 문항은 59.4%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충분성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61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3.91점, 유성구 3.75점, 부천시 3.21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3.61점, 협의체 참여 3.50점의 순이었다. ‘(2) 네트워크 운영관련 기본계획의 무유/충분성’ 문항은 88.9%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충분성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72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3.85점, 유성구 3.73점, 부천시 3.62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3.73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3.73점으로 같았다. ‘(3) 네트워크 운영관련 담당자(코디네이터, 기관별담당자 모두 포함) 역할규정의 무유/충분성’ 문항은 85.2%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충분성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81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4.31점, 유성구 3.89점, 부천시 3.40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3.85점, 협의체 참여 3.69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3차년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의사결정규범)(1)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운영관련 규정/지침, 기본계획, 담당자(코디네이터, 기관별담당자 모두 포함) 역할규정이 많이 있으며 약간 충분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1.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의사결정규범) (1)

(단위: %, 평균/5점)

항목	무유		충분성(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만 응답)				
	있음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1) 네트워크 운영관련 규정/지침의 무유/충분성	59.4	3.61	3.21	3.75	3.91	3.50	3.61
(2) 네트워크 운영관련 기본계획의 무유/충분성	88.9	3.72	3.62	3.73	3.85	3.73	3.73
(3) 네트워크 운영관련 담당자(코디네이터, 기관별담당자 모두 포함) 역할규정의 무유/충분성	85.2	3.81	3.40	3.89	4.31	3.69	3.85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차년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의사결정규범)(2)에 대한 인식을 5개의 각 하위문항(운영의 투명성(예산집행, 사업내용공개 등)의 정도, 의사결정의 민주적/숙의적/합의적인 정도, 의사결정이 수요자(지역사회 청소년) 중심적인 정도,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명확한 정도,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정도)별로 7점 척도(① 매우 작음 ~ ⑦ 매우 큼)로 측정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6) 네트워크사업 운영의 투명성(예산집행, 사업내용공개 등)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21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42점, 곡성군 5.32점, 부천시 5.02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5.23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5.22점의 순이었다. ‘(7)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의 민주적/숙의적/합의적인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0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37점, 부천시 5.35점, 곡성군 5.13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33점, 협의체 참여 5.23점의

순이었다. ‘(8)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수요자(지역사회 청소년) 중심적인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06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29점, 곡성군 5.29점, 부천시 4.79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5.14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5.05점의 순이었다. ‘(9)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명확한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99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13점, 유성구 5.08점, 부천시 4.86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5.05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4.99점의 순이었다. ‘(10)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94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22점, 곡성군 5.13점, 부천시 4.65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4.94점, 협의체 참여 4.91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3차년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의사결정규범)(2)와 관련하여, 네트워크사업 운영의 투명성(예산집행, 사업내용공개 등)의 정도,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의 민주적/숙의적/합의적인 정도, 의사결정이 수요자(지역사회 청소년) 중심적인 정도, 의사결정이 명확한 정도,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정도는 모두 약간 높거나 많이 높은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2.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의사결정규범) (2)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6) 네트워크사업 운영의 투명성(예산집행, 사업내용공개 등)의 정도	5.21	5.02	5.42	5.32	5.23	5.22
(7)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의 민주적/숙의적/합의적인 정도	5.30	5.35	5.37	5.13	5.23	5.33
(8)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수요자(지역사회 청소년) 중심적인 정도	5.06	4.79	5.29	5.29	5.14	5.05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9)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명확한 정도	4.99	4.86	5.08	5.13	5.05	4.99
(10)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정도	4.94	4.65	5.22	5.13	4.91	4.94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인 1~3차년도(2019년~2021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의사결정규범) 관련 1~3차년도 변화에 대한 인식을 5개의 각 하위문항(운영의 투명성(예산집행, 사업내용공개 등)의 정도, 의사결정의 민주적/숙의적/합의적인 정도, 의사결정이 수요자(지역사회 청소년) 중심적인 정도,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명확한 정도,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정도)별로 7점 척도(① 매우 감소 ~ ⑦ 매우 증가)로 측정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 네트워크사업 운영의 투명성(예산집행, 사업내용공개 등)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40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78점, 곡성군 5.27점, 부천시 5.14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5.59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5.37점의 순이었다. ‘(2)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의 민주적/숙의적/합의적인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42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74점, 부천시 5.25점, 곡성군 5.23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5.59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5.39점의 순이었다. ‘(3)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수요자(지역사회 청소년) 중심적인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8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74점, 곡성군 5.32점, 부천시 5.07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42점, 협의체 참여 5.35점의 순이었다. ‘(4)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명확한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43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74점, 곡성군 5.32점, 부천시 5.21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5.47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5.42점의 순이었다. ‘(5) 네트워크 내 의사

결정이 효율적인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40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74점, 곡성군 5.36점, 부천시 5.11점 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42점, 협의체 참여 5.35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1~3차년도(2019년~2021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은 시범사업 과정적 운영요소(의사결정규범)의 지난 3년간의 변화와 관련해서, 네트워크사업 운영의 투명성(예산집행, 사업내용공개 등)의 정도,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의 민주적/숙의적/합의적인 정도, 의사결정이 수요자(지역사회 청소년) 중심적인 정도, 의사결정이 명확한 정도,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정도는 모두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3.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의사결정규범) 관련 3년간의 변화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1) 네트워크사업 운영의 투명성(예산집행, 사업내용공개 등)의 정도	5.40	5.14	5.78	5.27	5.59	5.37
(2)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의 민주적/숙의적/합의적인 정도	5.42	5.25	5.74	5.23	5.59	5.39
(3)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수요자(지역사회 청소년) 중심적인 정도	5.38	5.07	5.74	5.32	5.35	5.42
(4)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명확한 정도	5.43	5.21	5.74	5.32	5.47	5.42
(5)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정도	5.40	5.11	5.74	5.36	5.35	5.42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차년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참여자책임)에 대한 인식을 8개의 각 하위문항(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자원 동원/지원 내용 및 방법이 충분한 정도, 자원 동원/지원의 호혜성(서로 혜택을 베풀)의

정도, 전체 대표자들의 연계협력에 대한 관심의 정도, 전체 담당자들의 목표달성의지의 정도, 담당자들의 연계협력역량의 정도, 담당자 연계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도, 참여기관 간 연계협력 성과 공유의 정도, 참여기관 간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공유의 정도)별로 7점 척도(첫 번째 문항인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자원 동원/지원 내용 및 방법이 충분한 정도는 ① 매우 부족 ~ ⑦ 매우 충분으로 측정/나머지 7개 문항은 ① 매우 작음 ~ ⑦ 매우 큼으로 측정)로 측정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자원 동원/지원 내용(기관정보, 물적자원, 인적자원, 프로그램 등) 및 방법(제공, 교류, 공유 등)이 충분한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72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00점, 유성구 4.79점, 부천시 4.50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5.00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4.68점의 순이었다.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자원 동원/지원의 호혜성(서로 혜택을 베풀)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96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19점, 유성구 5.00점, 부천시 4.79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5.10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4.94점의 순이었다. ‘(3) 네트워크 참여기관 전체 대표자들의 연계협력에 대한 관심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06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42점, 유성구 4.97점, 부천시 4.90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12점, 협의체 참여 4.81점의 순이었다. ‘(4) 네트워크 참여기관 전체 담당자들의 목표달성의지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05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29점, 유성구 5.00점, 부천시 4.94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09점, 협의체 참여 4.86점의 순이었다. ‘(5) 네트워크 참여기관 담당자들의 연계협력역량(공동기획, 의사소통, 협업,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등)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13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45점, 유성구 5.13점, 부천시 4.94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18점, 협의체 참여

4.95점의 순이었다. ‘(6)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담당자 연계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94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29점, 유성구 5.00점, 부천시 4.69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4.98점, 협의체 참여 4.76점의 순이었다. ‘(7)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연계협력 성과 공유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07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35점, 유성구 5.08점, 부천시 4.90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12점, 협의체 참여 4.90점의 순이었다. ‘(8)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공유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88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23점, 유성구 4.97점, 부천시 4.60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4.94점, 협의체 참여 4.62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3차년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참여자책임)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자원 동원/지원 내용 및 방법이 충분한 정도, 자원 동원/지원의 호혜성(서로 혜택을 베풀)의 정도, 전체 대표자들의 연계협력에 대한 관심의 정도, 전체 담당자들의 목표달성의지의 정도, 담당자들의 연계협력역량의 정도, 담당자 연계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도, 참여기관 간 연계협력 성과 공유의 정도, 참여기관 간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공유의 정도 모두 약간 높거나 많이 높은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4.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참여자책임무성)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자원 동원/지원 내용(기관정보, 물적자원, 인적자원, 프로그램 등) 및 방법(제공, 교류, 공유 등)이 충분한 정도	4.72	4.50	4.79	5.00	5.00	4.68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자원 동원/지원의 호혜성(서로 혜택을 베풀)의 정도	4.96	4.79	5.00	5.19	5.10	4.94
(3) 네트워크 참여기관 전체 대표자들의 연계협력에 대한 관심의 정도	5.06	4.90	4.97	5.42	4.81	5.12
(4) 네트워크 참여기관 전체 담당자들의 목표달성의지의 정도	5.05	4.94	5.00	5.29	4.86	5.09
(5) 네트워크 참여기관 담당자들의 연계협력 역량(공동기획, 의사소통, 협업,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등)의 정도	5.13	4.94	5.13	5.45	4.95	5.18
(6)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담당자 연계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도	4.94	4.69	5.00	5.29	4.76	4.98
(7)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연계협력 성과 공유의 정도	5.07	4.90	5.08	5.35	4.90	5.12
(8)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공유의 정도	4.88	4.60	4.97	5.23	4.62	4.94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인 1~3차년도(2019년~2021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참여자책임무성) 관련 1~3차년도 변화에 대한 인식을 8개의 각 하위문항(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자원 동원/지원 내용 및 방법이 충분한 정도, 자원 동원/지원의 호혜성(서로 혜택을 베풀)의 정도, 전체 대표자들의 연계협력에 대한 관심의 정도, 전체 담당자들의 목표달성의지의 정도, 담당자들의 연계협력역량의 정도, 담당자 연계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도, 참여기관 간 연계협력

성과 공유의 정도, 참여기관 간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공유의 정도)별로 7점 척도 (① 매우 감소 ~ ⑦ 매우 증가)로 측정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자원 동원/지원 내용(기관정보, 물적자원, 인적자원, 프로그램 등) 및 방법(제공, 교류, 공유 등)이 충분한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18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33점, 곡성군 5.23점, 부천시 5.00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20점, 협의체 참여 5.18점의 순이었다.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자원 동원/지원의 호혜성(서로 혜택을 베풀)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8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50점, 유성구 5.48점, 부천시 5.18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44점, 협의체 참여 5.18점의 순이었다. ‘(3) 네트워크 참여기관 전체 대표자들의 연계협력에 대한 관심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45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59점, 곡성군 5.41점, 부천시 5.36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47점, 협의체 참여 5.47점으로 같았다. ‘(4) 네트워크 참여기관 전체 담당자들의 목표달성의지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42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67점, 곡성군 5.41점, 부천시 5.18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47점, 협의체 참여 5.29점의 순이었다. ‘(5) 네트워크 참여기관 담당자들의 연계협력역량(공동기획, 의사소통, 협업,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등)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8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56점, 곡성군 5.29점, 부천시 5.29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43점, 협의체 참여 5.24점의 순이었다. ‘(6)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담당자 연계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28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44점, 곡성군 5.29점, 부천시 5.11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31점, 협의체 참여 5.24점의 순이었다. ‘(7)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연계협력 성과 공유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5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52점, 곡성군 5.29점, 부천시 5.22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40점, 협의체 참여 5.29점의 순이었다. ‘(8)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공유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0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48점, 곡성군 5.29점, 부천시 5.14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36점, 협의체 참여 5.24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1~3차년도(2019년~2021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은 시범사업 과정적 운영요소(참여자책무성)의 지난 3년간의 변화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자원 동원/지원 내용 및 방법이 충분한 정도, 자원 동원/지원의 호혜성(서로 혜택을 베푸는) 정도, 전체 대표자들의 연계협력에 대한 관심의 정도, 전체 담당자들의 목표달성의지의 정도, 담당자들의 연계협력역량의 정도, 담당자 연계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도, 참여기관 간 연계협력 성과 공유의 정도, 참여기관 간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공유의 정도는 모두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5.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참여자책무성) 관련 3년간의 변화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자원 동원/지원 내용(기관정보, 물적자원, 인적자원, 프로그램 등) 및 방법(제공, 교류, 공유 등)이 충분한 정도	5.18	5.00	5.33	5.23	5.18	5.20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자원 동원/지원의 호혜성(서로 혜택을 베푸는)의 정도	5.38	5.18	5.48	5.50	5.18	5.44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3) 네트워크 참여기관 전체 대표자들의 연계 협력에 대한 관심의 정도	5.45	5.36	5.59	5.41	5.47	5.47
(4) 네트워크 참여기관 전체 담당자들의 목표 달성여지의 정도	5.42	5.18	5.67	5.41	5.29	5.47
(5) 네트워크 참여기관 담당자들의 연계협력 역량(공동기획, 의사소통, 협업,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등)의 정도	5.38	5.29	5.56	5.29	5.24	5.43
(6)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담당자 연계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도	5.28	5.11	5.44	5.29	5.24	5.31
(7)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연계협력 성과 공유의 정도	5.35	5.22	5.52	5.29	5.29	5.40
(8)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공유의 정도	5.30	5.14	5.48	5.29	5.24	5.36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차년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운영구조의 효율성)(1)에 대한 인식을 2개의 각 하위문항(운영주관기관의 네트워크 운영이 효율적인 정도, 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네트워크 등 운영 구조가 체계적인 정도)별로 7점 척도(① 매우 작음 ~ ⑦ 매우 큼으로 측정)로 측정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 운영주관기관(곡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네트워크 운영이 효율적인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17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35점, 유성구 5.13점, 부천시 5.09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21점, 협의체 참여 5.05점의 순이었다. ‘(2) 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네트워크 등 운영 구조가 체계적인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15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42점, 유성구 5.16점, 부천시 4.98점의 순이었고, 참여

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19점, 협의체 참여 5.00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3차년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운영구조의 효율성)(1)과 관련해서, 운영주관기관의 네트워크 운영이 효율적인 정도, 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네트워크 등 운영 구조가 체계적인 정도가 모두 많이 높은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6.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운영구조의 효율성) (1)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1) 운영주관기관(곡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네트워크 운영이 효율적인 정도	5.17	5.09	5.13	5.35	5.05	5.21
(2) 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네트워크 등 운영 구조가 체계적인 정도	5.15	4.98	5.16	5.42	5.00	5.19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차년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운영구조의 효율성)(2, 3)에 대한 인식을 2개의 각 하위문항(사업 전담인력(전담코디네이터)의 무유/충분성, 사업 운영 예산지원의 충분성)별로 5~7점 척도(첫 번째 문항은 모름을 제외하고 무유 측정 후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① 매우 부족 ~ ⑤ 매우 충분으로 측정/두 번째 문항은 모름을 제외한 후 ① 매우 부족 ~ ⑦ 매우 충분으로 측정)로 측정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3) 네트워크 사업 전담인력(전담코디네이터)의 무유/충분성’ 문항은 88.5%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충분성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58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4.28점, 유성구 3.81점, 부천시 3.03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3.71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3.55점의

순이었다. ‘(4) 네트워크 사업 운영 예산지원의 충분성’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3.94점으로 약간 낮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4.50점, 부천시 3.74점, 유성구 3.72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4.00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3.93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3차년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운영구조의 효율성)(2, 3)과 관련하여, 사업 전담인력(전담 코디네이터)의 무유/충분성에 대해서는 사업전담인력이 많이 있으며 약간 충분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업 운영 예산지원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역별로는 곡성군은 약간 충분한 것으로, 부천시, 유성구는 약간 부족한 것으로 차이를 보였다.

표 IV-17.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운영구조의 효율성) (2)

(단위: %, 평균/5점)

항목	무유	충분성(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만 응답)					
	있음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3) 네트워크 사업 전담인력(전담코디네이터)의 무유/충분성	88.5	3.58	3.03	3.81	4.28	3.71	3.55

표 IV-18.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운영구조의 효율성) (3)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4) 네트워크 사업 운영 예산지원의 충분성	3.94	3.74	3.72	4.50	4.00	3.93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인 1~3차년도(2019년~2021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운영구조의 효율성) 관련 1~3차년도 변화에 대한 인식을 2개의 각 하위문항(운영주관기관의 네트워크 운영이 효율적인 정도, 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네트워크 등 운영 구조가 체계적인 정도)별로 7점 척도(① 매우 감소 ~ ⑦ 매우 증가)로 측정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 운영주관기관(곡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네트워크 운영이 효율적인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8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59점, 곡성군 5.33점, 부천시 5.21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47점, 협의체 참여 5.18점의 순이었다. ‘(2) 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네트워크 등 운영 구조가 체계적인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42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63점, 곡성군 5.43점, 부천시 5.21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48점, 협의체 참여 5.24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1~3차년도(2019년~2021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은 시범사업 과정적 운영요소(운영구조의 효율성)의 지난 3년간의 변화와 관련하여, 운영주관기관의 네트워크 운영이 효율적인 정도, 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네트워크 등 운영 구조가 체계적인 정도 모두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9.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운영구조의 효율성) 관련 3년간의 변화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1) 운영주관기관(곡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네트워크 운영이 효율적인 정도	5.38	5.21	5.59	5.33	5.18	5.47
(2) 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네트워크 등 운영 구조가 체계적인 정도	5.42	5.21	5.63	5.43	5.24	5.48

(3)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및 변화

여기에서는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소속 기관들의 상호 작용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크기, 포괄성, 밀도, 중심성 지표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의 3차년도 구조적 특성과 3년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과네트워크 사업추진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관들은 제외하고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소속 기관들만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새롭게 추가된 기관들이 성장지원협의체 소속 기관들처럼 기획, 성과 및 책임까지 공유하지 않고, 1차년도에는 분과네트워크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종단 분석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비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의 사업보고서에 담긴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소속 기관들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데이터만 분석하였다.

지역 네트워크의 크기부터 살펴보면, 올해 3차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천시는 18개 기관, 곡성군은 18개 기관, 유성구는 14개 기관이 협의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1차년도 14개에서 2, 3차년도 18개로 네트워크의 크기가 약간 증가하였고, 곡성군은 1차년도 16개, 2차년도 17개,

3차년도 18개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유성구는 1차년도 30개에서 2차년도 15개, 3차년도 14개로 2차년도 사업에 임하면서 네트워크의 크기를 대폭 줄였다.

지역 네트워크 참여기관의 네트워크 상호작용 참가율을 의미하는 포괄성은 3차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곡성군 0.89, 유성구 0.86, 부천시 0.78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세 기관 모두 80% 안팎의 높은 상호작용 참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곡성군은 1차년도 0.81에서 2차년도 0.47로 대폭 낮아졌다가 3차년도에 다시 0.89의 높은 참가율을 나타냈고, 유성구는 1차년도 0.63, 2차년도 0.80, 3차년도 0.86으로 상호작용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부천시는 1차년도에는 1.00으로 100% 상호작용에 참가했으나 2차 0.78, 3차 0.78로 약간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지역 네트워크에서 참여기관 간의 상호작용이 실제 이뤄진 비율을 의미하는 밀도는 3차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곡성군 0.203, 유성구 0.110, 부천시 0.085의 순으로, 곡성군의 밀도가 20.3%로 다른 두 기관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곡성군은 1차년도 0.221에서 2차년도 0.132로 대폭 낮아졌다가 3차년도에 다시 0.203으로 높아졌고, 유성구는 1차년도 0.072, 2차년도 0.076, 3차년도 0.110으로 계속 높아졌고, 부천시는 1차년도 0.549로 높은 밀도를 보였다가 2차년도 0.180, 3차년도 0.085로 대폭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부천시의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석대상인 협의체 소속 기관들과의 상호작용보다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추진과정에서 분과별로 필요한 상황에 따라 민간단체 등 새롭게 추가된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역의 운영주관기관이 지역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위세중심성인 아이겐벡터중심성 지표 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3차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성구, 부천시, 곡성군 모두 운영주관기관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성구는 운영주관기관인 유성구청소년수련관이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타 기관들에 비해 높은 중심성을 보이며 1위를 나타냈다.

공동운영주관기관인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위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운영주관기관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1차년도에는 다른 3개 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1위였으나 2차년도에 근소하게 1위에 오른 후 3차년도에는 약간 높은 1위를 나타냈다. 곡성군은 운영주관기관인 곡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차년도에는 곡성군청, 곡성교육지원청 등에 이어 5위를 나타냈으나 2, 3차년도에 근소하게 1위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곡성군, 유성구, 부천시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소속 기관들은 80% 내외의 높은 상호작용 참가율을 유지하고 있었고, 부천시의 상호작용 밀도가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곡성군과 유성구는 회복되거나 서서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유성구, 부천시, 곡성군 모두 운영주관기관의 중심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나타냈다.

표 IV-20. 1-3차년도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및 변화

(단위: 개수, 비율, 순위별 기관명)

지역별	항목	사업차수			
		1차	2차	3차	
(1) 부천시	크기(개수)	14	18	18	
	포괄성(비율)	1.00	0.78	0.78	
	밀도(비율)	0.549	0.180	0.085	
	아이젠벡터 중심성 (순위별 기관명)	1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동1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2위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공동1위)	고리울청소년 문화의집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위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공동1위)	송내동청소년 문화의집	부천일시청소년쉼터 (공동3위)
		4위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공동1위)	부천일시청소년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공동3위)
5위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공동3위)	

지역별	항목	사업차수			
		1차	2차	3차	
(2) 유성구	크기(개수)	30	15	14	
	포괄성(비율)	0.63	0.80	0.86	
	밀도(비율)	0.072	0.076	0.110	
	아이겐벡터 중심성 (순위별 기관명)	1위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청소년수련관
		2위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위	장대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청	유성구청(공동3위)
		4위	유성구청	유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공동4위)	유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공동3위)
		5위	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유성경찰서(공동4위)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3) 곡성군	크기(개수)	16	17	18
		포괄성(비율)	0.81	0.47	0.89
밀도(비율)		0.221	0.132	0.203	
아이겐벡터 중심성 (순위별 기관명)		1위	곡성구청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위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공동2위)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3위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공동2위)	진로체험지원센터
		4위	옥과청소년문화의집	옥과청소년문화의집(공동2위)	옥과청소년문화의집
		5위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공동2위)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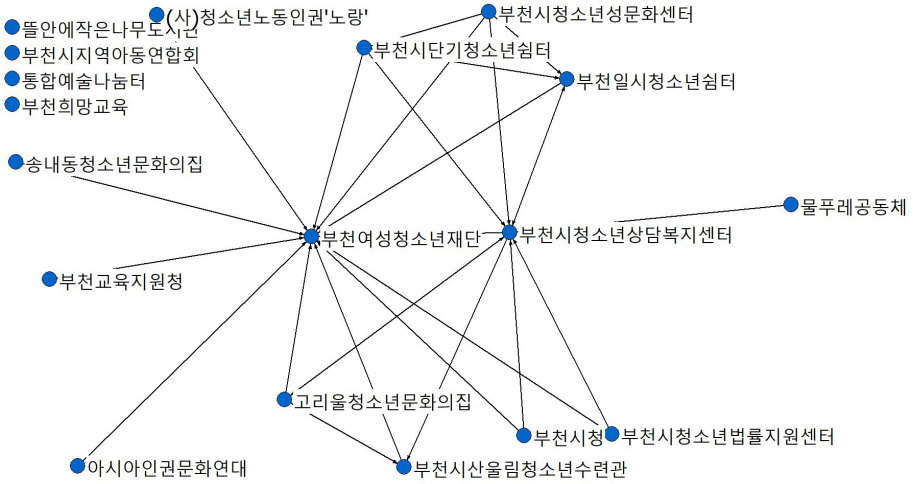


그림 IV-2. 부천시 3차년도 협의체 네트워크 상호작용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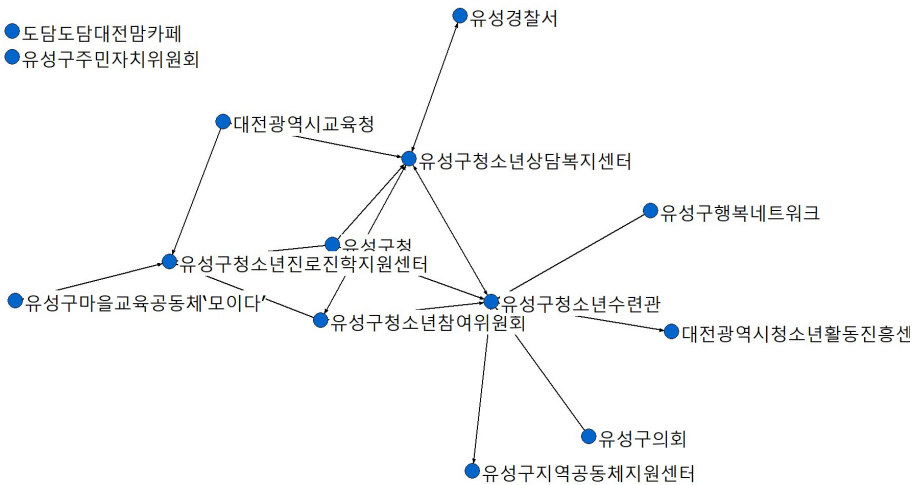


그림 IV-3. 유성구 3차년도 협의체 네트워크 상호작용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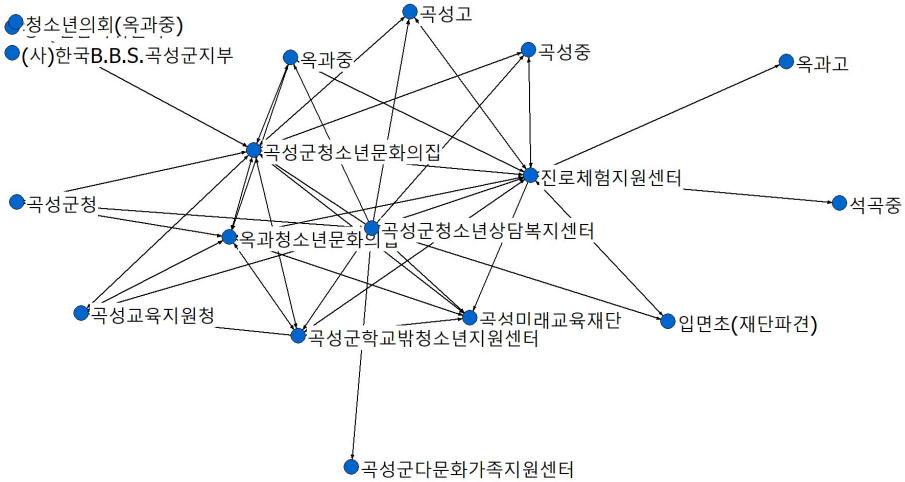


그림 IV-4. 곡성군 3차년도 협의체 네트워크 상호작용 그래프

(4)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운영효과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차년도 시범사업의 운영효과(1)에 대한 인식을 8개의 각 하위문항(개별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감소의 정도, 서비스 준비 및 제공 시간 단축의 정도, 서비스 지원가능성의 불확실성 감소의 정도, 서비스의 다양성 증대의 정도, 서비스의 통합적 문제해결 가능성 증대의 정도, 기관 담당자의 연계협력 역량 제고의 정도, 성장지원 서비스 전반에서의 양적, 질적 제고의 정도,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정도)별로 7점 척도(① 매우 작음 ~ ⑦ 매우 큼으로 측정)로 측정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 개별기관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에서 부담하는 비용 감소(중복지원비용 감소 등)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15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4.68점, 유성구 4.18점, 부천시 3.81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4.19점, 협의체 참여

3.91점의 순이었다.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준비 및 제공 시간 단축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42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13점, 유성구 4.24점, 부천시 4.15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4.49점, 협의체 참여 4.14점의 순이었다.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지원가능성(계획수립부터 실행까지)의 불확실성 감소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51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13점, 부천시 4.35점, 유성구 4.24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4.54점, 협의체 참여 4.41점의 순이었다.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다양성 증대(새로운 서비스 발굴, 맞춤형 서비스 발굴, 서비스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85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23점, 부천시 4.74점, 유성구 4.68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4.87점, 협의체 참여 4.77점의 순이었다. ‘(5)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통합적 문제해결 가능성 증대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98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19점, 유성구 4.97점, 부천시 4.87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03점, 협의체 참여 4.77점의 순이었다. ‘(6) 기관 담당자의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자원 간 연계협력 역량 제고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20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52점, 유성구 5.18점, 부천시 5.02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21점, 협의체 참여 5.18점의 순이었다. ‘(7)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전반에서의 양적, 질적 제고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02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39점, 부천시 4.91점, 유성구 4.89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05점, 협의체 참여 4.95점의 순이었다. ‘(8)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95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29점, 부천시 4.85점, 유성구 4.82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4.99점, 협의체 참여 4.77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3차년도 시범사업의 운영효과(1)과 관련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서 개별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감소, 서비스 준비 및 제공 시간 단축, 서비스 지원가능성의 불확실성 감소, 서비스의 다양성 증대, 서비스의 통합적 문제해결 가능성 증대, 기관 담당자의 연계협력 역량 제고, 성장지원 서비스 전반에서의 양적, 질적 제고,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효과가 약간 혹은 많이 큰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21.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운영효과 (1)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1) 개별기관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에서 부담하는 비용 감소(중복지원비용 감소 등)의 정도	4.15	3.81	4.18	4.68	3.91	4.19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준비 및 제공 시간 단축의 정도	4.42	4.15	4.24	5.13	4.14	4.49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지원가능성(계획수립부터 실행까지)의 불확실성 감소의 정도	4.51	4.35	4.24	5.13	4.41	4.54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다양성 증대(새로운 서비스 발굴, 맞춤형 서비스 발굴, 서비스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도	4.85	4.74	4.68	5.23	4.77	4.87
(5)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통합적 문제해결 가능성 증대의 정도	4.98	4.87	4.97	5.19	4.77	5.03
(6) 기관 담당자의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자원 간 연계협력 역량 제고의 정도	5.20	5.02	5.18	5.52	5.18	5.21
(7)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전반에서의 양적, 질적 제고의 정도	5.02	4.91	4.89	5.39	4.95	5.05
(8)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정도	4.95	4.85	4.82	5.29	4.77	4.99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차년도 시범사업의 운영효과(2)에 대한 인식을 8개의 각 하위문항(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증대의 정도,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식 및 참여 증대의 정도, 청소년의 접근성 확대의 정도, 네트워크 운영의 자생성 증대의 정도,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협의체, 기구 등)와의 차별화된 역할 확보의 정도,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 사업 증가의 정도, 공동 기획 사업에 대한 기관 참여도 증가 정도, 본 네트워크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의 정도)별로 7점 척도(① 매우 작음 ~ ⑦ 매우 큼으로 측정)로 측정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9)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증대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10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39점, 부천시 5.04점, 유성구 4.95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16점, 협의체 참여 4.86점의 순이었다. ‘(1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식 및 참여 증대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99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42점, 유성구 4.95점, 부천시 4.78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08점, 협의체 참여 4.59점의 순이었다. ‘(1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확대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90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42점, 유성구 4.92점, 부천시 4.59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4.94점, 협의체 참여 4.73점의 순이었다. ‘(1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의 자생성 증대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81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39점, 유성구 4.63점, 부천시 4.61점의 순이었고, 참여 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4.94점, 협의체 참여 4.32점의 순이었다. ‘(1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협의체, 기구 등)

와의 차별화된 역할 확보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67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10점, 부천시 4.56점, 유성구 4.50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4.75점, 협의체 참여 4.32점의 순이었다. '(14)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 사업 증가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10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58점, 유성구 4.97점, 부천시 4.91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16점, 협의체 참여 4.82점의 순이었다. '(15)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공동 기획 사업에 대한 기관 참여도 증가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97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42점, 유성구 4.95점, 부천시 4.72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02점, 협의체 참여 4.73점의 순이었다. '(16) 본 네트워크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05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32점, 부천시 5.00점, 유성구 4.89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11점, 협의체 참여 4.77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3차년도 시범사업의 운영효과(2)와 관련해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증대,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식 및 참여 증대, 청소년의 접근성 확대, 네트워크 운영의 자생성 증대,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협의체, 기구 등)와의 차별화된 역할 확보,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 사업 증가, 공동 기획 사업에 대한 기관 참여도 증가, 본 네트워크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효과가 약간 혹은 많이 큰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22.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운영효과 (2)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9)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증대의 정도	5.10	5.04	4.95	5.39	4.86	5.16
(1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식 및 참여 증대의 정도	4.99	4.78	4.95	5.42	4.59	5.08
(1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확대의 정도	4.90	4.59	4.92	5.42	4.73	4.94
(1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의 자생성 증대의 정도	4.81	4.61	4.63	5.39	4.32	4.94
(1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협의체, 기구 등)와의 차별화된 역할 확보의 정도	4.67	4.56	4.50	5.10	4.32	4.75
(14)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 사업 증가의 정도	5.10	4.91	4.97	5.58	4.82	5.16
(15)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공동 기획 사업에 대한 기관 참여도 증가 정도	4.97	4.72	4.95	5.42	4.73	5.02
(16) 본 네트워크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의 정도	5.05	5.00	4.89	5.32	4.77	5.11

이어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3차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들이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들(목표설정, 신뢰관계, 의사결정규범, 참여자 책무성, 운영구조의 효율성)이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독립변수인 3차년도 목표설정 변수는 하위 변수인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현안발굴역량의 정도와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목표설정의 명확

성의 정도의 2개 변수를 더한 후 2로 나누어 구성하였다(Chronbach's $\alpha=.881$).

3차년도 신뢰관계 변수는 하위 변수인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탈퇴/참여의 자율성의 정도 ~ (6)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신뢰의 정도((5)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갈등의 정도 변수는 역코딩)의 6개 변수를 더한 후 6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Chronbach's $\alpha=.809$).

3차년도 의사결정규범 변수는 하위 변수인 (6) 네트워크사업 운영의 투명성(예산집행, 사업내용 공개 등)의 정도 ~ (10)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정도의 5개 변수를 더한 후 5로 나누어 구성하였다(Chronbach's $\alpha=.886$).

3차년도 참여자 책무성 변수는, 하위 변수들 중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자원 동원/지원 내용(기관정보, 물적자원, 인적자원, 프로그램 등) 및 방법(제공, 교류, 공유 등)이 충분한 정도는 내용 및 척도가 다른 하위 변수들과 약간 달라 묶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외하고,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자원 동원/지원의 호혜성(서로 혜택을 베풀)의 정도 ~ (8)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공유의 정도의 7개 변수를 더한 후 7로 나누어 구성하였다(Chronbach's $\alpha=.955$).

3차년도 운영구조의 효율성 변수는 하위 변수인 (1) 운영주관기관(곡성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네트워크 운영이 효율적인 정도와 (2) 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네트워크 등 운영구조가 체계적인 정도의 2개 변수를 더한 후 2로 나누어 구성하였다(Chronbach's $\alpha=.875$).

또한 종속변수인 3차년도 운영효과 변수는 하위 변수인 (1) 개별기관이 지역 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에서 부담하는 비용 감소(중복지원비용 감소 등)의 정도 ~ (16) 본 네트워크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의 정도의 16개 변수를 더한 후 16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Chronbach's $\alpha=.972$).

그리고 통제변수로 남성더미(여성기준) 변수와 실무/분과/일반 참여더미(협의체 참여기준)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통제변수(남성더미, 실무/분과/일반 참여더미)와 독립변수들(목

표설정, 신뢰관계, 의사결정규범, 참여자 책무성, 운영구조의 효율성)을 투입하여 종속변수(운영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Adjusted R²=.740***),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들 중 목표설정, 신뢰관계, 의사결정규범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참여자 책무성과 운영구조의 효율성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들 중 참여자 책무성이 높을수록($\beta=.522^{***}$), 운영구조의 효율성이 높을수록($\beta=.290^{**}$) 3차년도 사업의 운영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효과 제고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과정적 운영요소들 중 참여자 책무성과 운영구조의 효율성이 특히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IV-23.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가 운영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N=114)

구분	B	β	t	p	VIF
(상수)	.116		.370	.712	
남성더미(여성기준)	.181	.082	1.676	.097	1.043
실무/분과/일반참여더미(협의체참여기준)	.125	.045	.925	.357	1.033
목표설정	.071	.078	1.030	.305	2.477
신뢰관계	-.010	-.008	-.097	.923	3.083
의사결정규범	.045	.043	.468	.641	3.722
참여자 책무성	.519***	.522	5.424	.000	4.020
운영구조의 효율성	.275**	.290	3.471	.001	3.023
Adjusted R ² =.740***					

* 주: *p<.05, **p<.01, ***p<.001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인 1~3차년도(2019년~2021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운영효과(1) 관련 1~3차년도 변화에 대한 인식을 8개의 각 하위문항(개별기

관이 부담하는 비용 감소의 정도, 서비스 준비 및 제공 시간 단축의 정도, 서비스 지원가능성의 불확실성 감소의 정도, 서비스의 다양성 증대의 정도, 서비스의 통합적 문제해결 가능성 증대의 정도, 기관 담당자의 연계협력 역량 제고의 정도, 성장지원 서비스 전반에서의 양적, 질적 제고의 정도,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정도) 별로 7점 척도(① 매우 감소 ~ ⑦ 매우 증가)로 측정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 개별기관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에서 부담하는 비용 감소(중복지원비용 감소 등)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51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4.76점, 유성구 4.50점, 부천시 4.32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4.51점, 협의체 참여 4.47점의 순이었다.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준비 및 제공 시간 단축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53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4.76점, 유성구 4.46점, 부천시 4.43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4.59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4.53점의 순이었다.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지원가능성(계획수립부터 실행까지)의 불확실성 감소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4.64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4.76점, 부천시 4.68점, 유성구 4.50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4.71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4.63점의 순이었다.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다양성 증대(새로운 서비스 발굴, 맞춤형 서비스 발굴, 서비스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0점으로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5.46점, 곡성군 5.29점, 유성구 5.12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5.35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5.29점의 순이었다. ‘(5)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통합적 문제해결 가능성 증대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8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5.46점, 곡성군 5.38점, 유성구 5.28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46점, 협의체 참여 5.18점의 순이었다. ‘(6) 기관 담당자의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자원 간 연계협

력 역량 제고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44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5.61점, 곡성군 5.43점, 유성구 5.27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5.47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5.46점의 순이었다. '(7)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전반에서의 양적, 질적 제고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5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48점, 부천시 5.36점, 유성구 5.23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40점, 협의체 참여 5.24점의 순이었다. '(8)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3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57점, 부천시 5.29점, 유성구 5.19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39점, 협의체 참여 5.18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1~3차년도(2019년~2021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은 시범사업 운영효과(1)의 지난 3년간의 변화와 관련해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서 개별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감소, 서비스 준비 및 제공 시간 단축, 서비스 지원가능성의 불확실성 감소, 서비스의 다양성 증대, 서비스의 통합적 문제해결 가능성 증대, 기관 담당자의 연계협력 역량 제고, 성장지원 서비스 전반에서의 양적, 질적 제고,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효과가 약간 혹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24.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효과 관련 3년간의 변화 (1)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1) 개별기관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에서 부담하는 비용 감소(중복지원비용 감소 등)의 정도	4.51	4.32	4.50	4.76	4.47	4.51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준비 및 제공 시간 단축의 정도	4.53	4.43	4.46	4.76	4.59	4.53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지원가능성(계획수립부터 실행까지)의 불확실성 감소의 정도	4.64	4.68	4.50	4.76	4.71	4.63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다양성 증대(새로운 서비스 발굴, 맞춤형 서비스 발굴, 서비스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도	5.30	5.46	5.12	5.29	5.35	5.29
(5)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통합적 문제해결 가능성 증대의 정도	5.38	5.46	5.28	5.38	5.18	5.46
(6) 기관 담당자의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자원 간 연계협력 역량 제고의 정도	5.44	5.61	5.27	5.43	5.47	5.46
(7)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전반에서의 양적, 질적 제고의 정도	5.35	5.36	5.23	5.48	5.24	5.40
(8)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정도	5.33	5.29	5.19	5.57	5.18	5.39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인 1~3차년도(2019년~2021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운영효과(2) 관련 1~3차년도 변화에 대한 인식을 8개의 각 하위문항(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증대의 정도,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식 및 참여 증대의 정도, 청소년의 접근성 확대의 정도, 네트워크 운영의 자생성 증대의 정도,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협의체, 기구 등)와의 차별화된 역할 확보의 정도,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 사업 증가의 정도, 공동 기획 사업에 대한 기관 참여도 증가 정도, 본 네트워크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의 정도)별로 7점 척도(① 매우 감소 ~ ⑦ 매우 증가)로 측정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9)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증대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3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57점, 부천시 5.32점, 유성구 5.15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5.35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5.33점의 순이었다. ‘(1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식 및 참여 증대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51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86점, 유성구 5.46점, 부천시 5.29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58점, 협의체 참여 5.35점의 순이었다. ‘(1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확대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7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58점, 곡성군 5.48점, 부천시 5.11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44점, 협의체 참여 5.18점의 순이었다. ‘(1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의 자생성 증대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2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50점, 유성구 5.35점, 부천시 5.18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47점, 협의체 참여 4.81점의 순이었다. ‘(1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협의체, 기구 등)와의 차별화된 역할 확보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1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43점, 유성구 5.35점, 부천시 5.18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37점, 협의체 참여 5.12점의 순이었다. ‘(14)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 사업 증가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38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5.43점, 유성구 5.36점, 곡성군 5.35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44점, 협의체 참여 5.29점의 순이었다. ‘(15)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공동 기획 사업에 대한 기관 참여도 증가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46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90점, 유성구 5.32점, 부천시 5.25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5.59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5.46점의 순이었다. ‘(16) 본 네트워크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의 정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54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62

점, 유성구 5.60점, 부천시 5.43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5.57점, 협의체 참여 5.47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1~3차년도(2019년~2021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은 시범사업 운영효과(2)의 지난 3년간의 변화와 관련해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증대,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식 및 참여 증대, 청소년의 접근성 확대, 네트워크 운영의 자생성 증대,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협의체, 기구 등)와의 차별화된 역할 확보,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 사업 증가, 공동 기획 사업에 대한 기관 참여도 증가, 본 네트워크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효과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25.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효과 관련 3년간의 변화 (2)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9)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증대의 정도	5.33	5.32	5.15	5.57	5.35	5.33
(1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식 및 참여 증대의 정도	5.51	5.29	5.46	5.86	5.35	5.58
(1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확대의 정도	5.37	5.11	5.58	5.48	5.18	5.44
(1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의 자생성 증대의 정도	5.32	5.18	5.35	5.50	4.81	5.47
(1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협의체, 기구 등)와의 차별화된 역할 확보의 정도	5.31	5.18	5.35	5.43	5.12	5.37
(14)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 사업 증가의 정도	5.38	5.43	5.36	5.35	5.29	5.44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업체	실무/분과/일반
(15)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공동 기획 사업에 대한 기관 참여도 증가 정도	5.46	5.25	5.32	5.90	5.59	5.46
(16) 본 네트워크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의 정도	5.54	5.43	5.60	5.62	5.47	5.57

(5)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지속참여 의향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본 네트워크 사업 종료(2021년 10월) 이후에도 현재의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지, 참여 의향 여부를 묻은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네트워크 사업 종료(2021년 10월) 이후에도 현재의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0.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94.6%, 유성구 92.1%, 곡성군 80.6%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실무/분과/일반 참여 91.2%, 협업체 참여 86.4%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본 네트워크 사업 종료(2021년 10월) 이후에도 현재의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지속참여 의향

(단위: %)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업체	실무/분과/일반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1) 본 네트워크 사업 종료(2021년 10월) 이후에도 현재 네트워크에 지속 참여의향 여부	90.4	94.6	92.1	80.6	86.4	91.2

(6)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지원의 필요성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적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6개의 각 하위문항(관련 법률 제·개정, 관련 조례 제·개정, 코디네이터 인건비 확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여성가족부의 네트워크사업 지원 및 확대, 관련 중앙부처(교육, 복지, 행정 등) 간 연계협력 확대)별로 7점 척도(① 전혀 필요없음 ~ ⑦ 매우 필요함)로 측정한 것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 관련 법률 제·개정’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62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84점, 유성구 5.71점, 부천시 5.44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5.86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5.57점의 순이었다. ‘(2) 관련 조례 제·개정’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65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5.71점, 유성구 5.68점, 부천시 5.60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5.91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5.59점의 순이었다. ‘(3) 코디네이터 인건비 확보’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5.98점으로 많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6.04점, 곡성군 5.94점, 유성구 5.92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6.18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5.94점의 순이었다. ‘(4)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6.33점으로 매우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6.40점, 유성구 6.39점, 곡성군 6.10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6.41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6.30점의 순이었다. ‘(5) 여성가족부의 네트워크사업 지원 및 확대’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6.10점으로 매우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6.14점, 유성구 6.13점, 곡성군 5.97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6.41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6.04점의 순이었다. ‘(6) 관련 중앙부처(교육, 복지, 행정 등) 간 연계협력 확대’

문항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에 6.42점으로 매우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6.47 점, 유성구 6.42점, 곡성군 6.30점의 순이었고, 참여형태별로는 협의체 참여 6.64 점, 실무/분과/일반 참여 6.36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향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적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관련 법률 제·개정, 관련 조례 제·개정, 코디네이터 인건비 확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여성가족부의 네트워크사업 지원 및 확대, 관련 중앙부처(교육, 복지, 행정 등) 간 연계협력 확대 모두 많이 혹은 매우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27.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운영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

(단위: 평균/7점)

항목	전체	지역별			참여형태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협의체	실무/분과/일반
(1) 관련 법률 제·개정	5.62	5.44	5.71	5.84	5.86	5.57
(2) 관련 조례 제·개정	5.65	5.60	5.68	5.71	5.91	5.59
(3) 코디네이터 인건비 확보	5.98	6.04	5.92	5.94	6.18	5.94
(4)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6.33	6.40	6.39	6.10	6.41	6.30
(5) 여성가족부의 네트워크사업 지원 및 확대	6.10	6.14	6.13	5.97	6.41	6.04
(6) 관련 중앙부처(교육, 복지, 행정 등) 간 연계협력 확대	6.42	6.47	6.42	6.30	6.64	6.36

(7) 소결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사업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차년도 시범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 과정적 운영요소(목표설정, 신뢰관계, 의사결정규범, 참여자 책무성, 운영구

조의 효율성), 운영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1~3차년도(2019년~2021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3차년도 시범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 과정적 운영요소(목표설정, 신뢰관계, 의사결정규범, 참여자 책무성, 운영구조의 효율성), 운영효과의 지난 3년간의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첫째, 3차년도(2021년) 시범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과 관련해서,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필요하고, 연계가능한 관련기관의 분포도 약간 충분하며, 네트워크 구성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참여계약은 약간 작고, 참여자율성은 약간 큰 정도이며, 갈등은 약간 작고, 신뢰는 많이 큰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약간 충분한 상태이고,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내 전담인력도 많이 있고 약간 충분한 상태이며, 지자체내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의 정도는 약간 작은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3차년도(2019년~2021년) 시범사업 추진배경 및 조건의 변화와 관련해서, 1~3차년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연계가능한 관련기관의 분포는 많이 증가하였고, 네트워크 구성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참여계약은 거의 변화가 없고 참여자율성은 약간 증가하였으며, 관련기관 간 갈등은 거의 변화가 없고 신뢰는 많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3차년도(2021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목표설정)와 관련해서,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현안발굴역량과 공동 목표설정의 명확성의 정도는 약간 높은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3차년도(2019년~2021년) 시범사업 과정적 운영요소(목표설정)의 변화와 관련해서, 1~3차년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은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현안발굴역량과 공동 목표설정의 명확성의 정도는 많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3차년도(2021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신뢰관계)와 관련해서,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탈퇴/참여의 자율성의 정도, 책임감의 정도, 관계의 수평적인 정도, 협력적 의사소통의 정도, 신뢰의 정도는 약간 혹은 많이 높은 상태이고,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갈등의 정도는 약간 낮은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3차년도(2019년~2021년) 시범사업 과정적 운영요소(신뢰관계)의 변화와 관련해서, 1~3차년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은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탈퇴/참여의 자율성의 정도, 책임감의 정도, 관계의 수평적인 정도, 협력적 의사소통의 정도, 신뢰의 정도는 모두 많이 증가하였고,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갈등의 정도는 약간 감소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3차년도(2021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의사결정규범)과 관련해서,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네트워크 운영관련 규정/지침, 기본계획, 담당자 역할규정이 많이 있고 약간 충분한 상태이며, 네트워크사업 운영의 투명성(예산 집행, 사업내용공개 등)의 정도,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의 민주적/숙의적/합의적인 정도, 의사결정이 수요자(지역사회 청소년) 중심적인 정도, 의사결정이 명확한 정도,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정도는 약간 혹은 많이 높은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3차년도(2019년~2021년) 시범사업 과정적 운영요소(의사결정규범)의 변화와 관련해서, 1~3차년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은 네트워크사업 운영의 투명성(예산집행, 사업내용공개 등)의 정도,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의 민주적/숙의적/합의적인 정도, 의사결정이 수요자(지역사회 청소년) 중심적인 정도, 의사결정이 명확한 정도,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정도는 모두 많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3차년도(2021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참여자책무성)와 관련해서,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자원 동원/지원 내용 및 방법이 충분한 정도, 자원 동원/지원의 호혜성(서로 혜택을 베풀)의 정도, 전체 대표자들의 연계협력에 대한 관심의 정도, 전체 담당자들의 목표달성의지의

정도, 담당자들의 연계협력역량의 정도, 담당자 연계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도, 참여기관 간 연계협력 성과 공유의 정도, 참여기관 간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공유의 정도 모두 약간 혹은 많이 높은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3차년도(2019년~2021년) 시범사업 과정적 운영요소(참여자책무성)의 변화와 관련해서, 1~3차년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은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자원 동원/지원 내용 및 방법이 충분한 정도, 자원 동원/지원의 호혜성(서로 혜택을 베풀)의 정도, 전체 대표자들의 연계협력에 대한 관심의 정도, 전체 담당자들의 목표달성의지의 정도, 담당자들의 연계협력역량의 정도, 담당자 연계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도, 참여기관 간 연계협력 성과 공유의 정도, 참여기관 간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공유의 정도는 모두 많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3차년도(2021년) 시범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운영구조의 효율성)와 관련해서,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운영주관기관의 네트워크 운영이 효율적인 정도, 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네트워크 등 운영 구조가 체계적인 정도가 많이 높은 상태이고, 사업전담인력이 많이 있고 약간 충분한 상태이며, 사업운영의 예산지원도 약간 부족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3차년도(2019년~2021년) 시범사업 과정적 운영요소(운영구조의 효율성)의 변화와 관련해서, 1~3차년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은 운영주관기관의 네트워크 운영이 효율적인 정도, 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네트워크 등 운영 구조가 체계적인 정도 모두 많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곱째,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상호작용 네트워크 분석결과, 상호작용 참가율은 약간의 기복이 있긴 했으나 곡성군, 유성구, 부천시 협의체 네트워크 소속 기관들이 80% 내외의 높은 참가율로 네트워크 상호작용에 참가하고 있었다. 상호작용 밀도는 부천시의 경우 많이 낮아지고 있었고 곡성군과 유성구는 회복되거나 서서히 증가하고 있었다. 상호작용의 중심성은 유성구, 부천시, 곡성군 모두 운영주관기관의 중심성이 높아지고 있는 특성을 보였다.

여덟째, 3차년도(2021년) 시범사업의 운영효과와 관련해서,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서 개별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감소, 서비스 준비 및 제공 시간 단축, 서비스 지원가능성의 불확실성 감소, 서비스의 다양성 증대, 서비스의 통합적 문제해결 가능성 증대, 기관 담당자의 연계협력 역량 제고, 성장지원 서비스 전반에서의 양적, 질적 제고,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효과가 약간 혹은 많이 큰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증대,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식 및 참여 증대, 청소년의 접근성 확대, 네트워크 운영의 자생성 증대,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협의체, 기구 등)와의 차별화된 역할 확보,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 사업 증가, 공동 기획 사업에 대한 기관 참여도 증가, 본 네트워크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효과도 약간 혹은 많이 큰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3차년도(2019년~2021년) 시범사업 운영효과의 변화와 관련해서, 1~3차년도 사업 모두에 참여한 성인 담당자들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서 개별 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감소, 서비스 준비 및 제공 시간 단축, 서비스 지원가능성의 불확실성 감소, 서비스의 다양성 증대, 서비스의 통합적 문제해결 가능성 증대, 기관 담당자의 연계협력 역량 제고, 성장지원 서비스 전반에서의 양적, 질적 제고,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효과가 약간 혹은 많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증대,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식 및 참여 증대, 청소년의 접근성 확대, 네트워크 운영의 자생성 증대,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협의체, 기구 등)와의 차별화된 역할 확보,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 사업 증가, 공동 기획 사업에 대한 기관 참여도 증가, 본 네트워크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효과도 많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홉째, 본 네트워크 사업 종료(2021년 10월) 이후에도 현재의 네트워크에 지

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대부분 본 네트워크 사업 종료(2021년 10월) 이후에도 현재의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열째,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적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3차년도 사업 참여 성인 담당자들은 관련 법률 제·개정, 관련 조례 제·개정, 코디네이터 인건비 확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여성가족부의 네트워크사업 지원 및 확대, 관련 중앙부처(교육, 복지, 행정 등) 간 연계협력 확대 모두 많이 혹은 매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28. 성인 담당자 설문조사 및 기관 네트워크 조사 주요 분석결과 요약

구분	주요 분석결과
추진배경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음. 특히 구축 필요성이 높았음. 지자체 청소년 육성위원회 내실화는 약간 부정적이었음. 지난 3년간의 변화는 구축 필요성, 연계기관의 분포, 기관 간 신뢰의 정도가 많이 증가했음. - 지역별 : 구성과정에서의 갈등은 곡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은 곡성이 매우 충분, 유성이 약간 충분인 반면, 부천은 약간 부족으로 응답했음. 지자체 청소년 육성위원회 내실화는 곡성이 약간 큼인 반면 부천, 유성은 약간 작음으로 응답했음. - 참여형태별 : 구축 필요성과 연계기관의 분포는 실무/분과/일반 참여가 약간 높았음.
목표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전반적으로 약간 긍정적이었음. 지난 3년간의 변화도 많이 긍정적으로 증가했음. - 지역별 : 공동 현안발굴역량, 목표설정의 명확성 모두 곡성은 많이 높게 부천, 유성은 약간 높게 나타났음. - 참여형태별 :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음.
신뢰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전반적으로 많이 긍정적이었음. 지난 3년간의 변화도 많이 긍정적으로 증가했음. - 지역별 : 탈퇴/참여의 자율성, 책임감의 정도는 곡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갈등도 곡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참여형태별 : 탈퇴/참여의 자율성은 협의체 참여가 약간 높았음. 협력적 의사소통은 실무/분과/일반 참여가 약간 높았음.
의사결정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전반적으로 많이 긍정적이었음. 지난 3년간의 변화도 많이 긍정적

구분	주요 분석결과
	<p>으로 증가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 규정/계획/역할규정의 충분성은 곡성이 약간 높았음. 수요자 중심성, 의사결정의 효율성은 유성, 곡성이 약간 높았음. - 참여형태별 :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음.
참여자책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전반적으로 많이 긍정적이었음. 지난 3년간의 변화도 많이 긍정적으로 증가했음. - 지역별 : 전 항목 모두 곡성 > 유성 > 부천의 순으로 나타났음. - 참여형태별 :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음.
운영구조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전반적으로 많이 긍정적이었음. 예산지원의 충분성은 약간 부족하다고 응답했음. 지난 3년간의 변화도 많이 긍정적으로 증가했음. - 지역별 : 주관기관의 효율성, 운영구조의 체계성, 전담인력의 충분성 모두 곡성 > 유성 > 부천의 순으로 나타났음. 예산지원의 충분성도 곡성이 높았음. - 참여형태별 :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음.
네트워크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협의체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참가율은 80% 내외로 높았음. 운영 주관기관의 중심성도 높았음. - 지역별 : 상호작용의 밀도는 곡성 > 유성 > 부천의 순으로 나타났음. 지난 3년간 부천의 밀도는 작아졌음.
운영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운영효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음. 회귀분석결과 참여자 책무성과 운영구조의 효율성이 운영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3년간의 변화도 많이 긍정적으로 증가했음. - 지역별 : 운영효과 전 항목 모두 곡성이 높게 나타났음. - 참여형태별 : 운영효과 전 항목 모두 실무/분과/일반 참여가 약간 높게 나타났음.
향후 지속참여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향후 지속참여의향이 매우 높았음. - 지역별 : 부천, 유성이 곡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참여형태별 : 실무/분과/일반 참여가 약간 높게 나타났음.
향후 지원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지역별 :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음. - 참여형태별 : 전 항목 모두 협의체 참여가 높게 나타났음.

2) 청소년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시범사업 활동에의 청소년 참여과정 및 만족도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동에의 참여과정 및 만족도를 7개의 각 하위문항(성장기대, 주체적 참여, 적극적 참여, 친구와의 협력, 주변사람들의 도움, 청소년의견 반영, 결과 만족)별로 5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 자신의 성장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였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17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4.47점, 유성구 4.09점, 곡성군 4.00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4.26점, 여성 4.11점의 순이었다. ‘(2) 활동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24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4.47점, 곡성군 4.39점, 유성구 3.96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4.39점, 여성 4.14점의 순이었다. ‘(3) 활동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33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4.56점, 부천시 4.41점, 유성구 4.09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4.43점, 여성 4.26점의 순이었다. ‘(4)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00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4.17점, 부천시 3.94점, 유성구 3.91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4.17점, 여성 3.89점의 순이었다. ‘(5)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변사람들(지도자 또는 전문가)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16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4.17점, 곡성군 4.17점, 부천시 4.12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여성 4.17점, 남성 4.13점의 순이었다. ‘(6) 활동 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16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

군 4.28점, 유성구 4.13점, 부천시 4.06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4.17점, 여성 4.14점의 순이었다. '(7) 활동 결과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였다' 문항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16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4.29점, 곡성군 4.22점, 유성구 4.00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4.26점, 여성 4.09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올해(2021년) 3차년도 활동 참여 청소년들의 활동에의 참여과정 및 만족도는 성장기대, 주체적 참여, 적극적 참여, 친구와의 협력, 주변사람들의 도움, 청소년의견 반영, 결과 만족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29.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 활동에의 청소년 참여과정 및 만족도

(단위: 평균/5점)

항목	전체	지역별			성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여성	남성
(1)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 자신의 성장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였다.	4.17	4.47	4.09	4.00	4.11	4.26
(2) 활동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	4.24	4.47	3.96	4.39	4.14	4.39
(3) 활동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4.33	4.41	4.09	4.56	4.26	4.43
(4)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	4.00	3.94	3.91	4.17	3.89	4.17
(5)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변사람들(지도자 또는 전문가)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4.16	4.12	4.17	4.17	4.17	4.13
(6) 활동 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	4.16	4.06	4.13	4.28	4.14	4.17
(7) 활동 결과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였다.	4.16	4.29	4.00	4.22	4.09	4.26

(2) 시범사업 활동 참여전후 청소년의 인식변화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동 참여전후의 인식변화를 5개의 각 하위문항(지역 기관 및 전문가들의 도움 정도, 지역 청소년 욕구 및 문제 파악 노력의 충분성, 지역 청소년 지원의 충분성,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청소년의 영향력 정도)별로 5점 척도(① 매우 감소하였다 ~ ⑤ 매우 증가하였다)로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있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95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4.09점, 곡성군 3.89점, 부천시 3.82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4.13점, 여성 3.83점의 순이었다. ‘(2)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진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09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4.13점, 부천시 4.12점, 곡성군 4.00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4.17점, 여성 4.03점의 순이었다. ‘(3)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의 필요에 맞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93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4.06점, 곡성군 4.06점, 유성구 3.74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4.04점, 여성 3.86점의 순이었다. ‘(4)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26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4.47점, 유성구 4.30점, 곡성군 4.00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4.26점, 여성 4.26점으로 같았다. ‘(5)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청소년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16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4.53점, 유성구 4.09점, 곡성군 3.89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4.22점, 여성 4.11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올해(2021년) 3차년도 활동 참여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전후의 인식변화는 지역 기관 및 전문가들의 도움 정도, 지역 청소년 욕구 및 문제 파악 노력의 충분성, 지역 청소년 지원의 충분성,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청소년의 영향력 정도에 대한 인식 모두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0.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3차년도 사업 활동 참여전후 청소년의 인식변화

(단위: 평균/5점)

항목	전체	지역별			성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여성	남성
(1)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있다.	3.95	3.82	4.09	3.89	3.83	4.13
(2)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진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4.09	4.12	4.13	4.00	4.03	4.17
(3)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의 필요에 맞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3.93	4.06	3.74	4.06	3.86	4.04
(4)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4.26	4.47	4.30	4.00	4.26	4.26
(5)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청소년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4.16	4.53	4.09	3.89	4.11	4.22

(3)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가 24.1%, ‘(2)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가 22.4%, ‘(6)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가 20.7%,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가 13.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천시의 경우 ‘(6)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가 35.3%, ‘(3)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가 17.6%, ‘(2)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가 17.6%, ‘(7)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가 11.8%의 순이었고, 유성구의 경우 ‘(3)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가 26.1%, ‘(2)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가 26.1%, ‘(6)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가 17.4%,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가 17.4%의 순이었으며, 곡성군의 경우 '(3)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가 27.8%, '(2)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가 22.2%,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가 16.7%, '(6)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가 11.1%, '(4)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11.1%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2)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가 31.4%, '(6)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가 25.7%, '(3)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가 22.9%,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가 11.4%의 순이었고, 남성의 경우 '(3)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가 26.1%,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가 17.4%, '(6)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가 13.0%, '(7)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가 13.0%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활동 참여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3)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2)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6)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

항목	전체	지역별			성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여성	남성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13.8	5.9	17.4	16.7	11.4	17.4
(2)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22.4	17.6	26.1	22.2	31.4	8.7
(3)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24.1	17.6	26.1	27.8	22.9	26.1
(4)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6.9	5.9	4.3	11.1	5.7	8.7

항목	전체	지역별			성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여성	남성
(5)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3.4	0.0	4.3	5.6	0.0	8.7
(6)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	20.7	35.3	17.4	11.1	25.7	13.0
(7)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6.9	11.8	4.3	5.6	2.9	13.0
(8)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1.7	5.9	0.0	0.0	0.0	4.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더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8개의 각 하위문항(더 흥미로운 구성, 청소년 의견 적극 반영,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아져야 함, 주제 선정 시 청소년 생각 반영, 활동정보 취득 용이, 학교홍보 필요, 활동참여시간 확보, 학교와 학교밖 기관 간 협력 강화)별로 5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 활동이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24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곡성군 4.44점, 부천시 4.24점, 유성구 4.09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여성 4.31점, 남성 4.13점의 순이었다. ‘(2) 활동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38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4.65점, 유성구 4.43점, 곡성군 4.06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4.52점, 여성 4.29점의 순이었다. ‘(3)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아져야 한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29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4.35점, 부천시 4.29점, 곡성군 4.22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4.39점, 여성 4.23점의 순이었다. ‘(4) 주제를 선정할 때 더 많은

청소년들의 생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34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4.47점, 유성구 4.30점, 곡성군 4.28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4.48점, 여성 4.26점의 순이었다. '(5) 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52점으로 매우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4.74점, 곡성군 4.44점, 부천시 4.29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4.52점, 여성 4.51점의 순이었다. '(6) 더 많은 청소년들이 알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67점으로 매우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4.78점, 부천시 4.76점, 곡성군 4.44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여성 4.74점, 남성 4.57점의 순이었다. '(7)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43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4.71점, 유성구 4.35점, 곡성군 4.28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4.57점, 여성 4.34점의 순이었다. '(8) 효율적인 시간, 공간 활용을 위한 학교와 학교밖 기관(청소년기관 등)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문항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36점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 4.59점, 유성구 4.35점, 곡성군 4.17점의 순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4.61점, 여성 4.20점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올해(2021년) 3차년도 활동 참여 청소년들의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인식은 더 흥미로운 구성, 청소년 의견 적극 반영,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아져야 함, 주제 선정 시 청소년 생각 반영, 활동정보 취득 용이, 학교홍보 필요, 활동참여시간 확보, 학교와 학교밖 기관 간 협력 강화 모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단위: 평균/5점)

항목	전체	지역별			성별	
		부천시	유성구	곡성군	여성	남성
(1) 활동이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4.24	4.24	4.09	4.44	4.31	4.13
(2) 활동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4.38	4.65	4.43	4.06	4.29	4.52
(3)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아져야 한다.	4.29	4.29	4.35	4.22	4.23	4.39
(4) 주제를 선정할 때 더 많은 청소년들의 생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4.34	4.47	4.30	4.28	4.26	4.48
(5) 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4.52	4.29	4.74	4.44	4.51	4.52
(6) 더 많은 청소년들이 알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4.67	4.76	4.78	4.44	4.74	4.57
(7)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4.43	4.71	4.35	4.28	4.34	4.57
(8) 효율적인 시간, 공간 활용을 위한 학교와 학교 밖 기관(청소년기관 등)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4.36	4.59	4.35	4.17	4.20	4.61

(5) 소결

여기에서는 올해(3차년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동 참여과정 및 만족도, 활동 참여전후의 인식변화,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3차년도(2021년) 시범사업에서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과정 및 만족도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은 성장기대, 주체적 참여, 적극적 참여, 친구와의 협력, 주변 사람들의 도움, 청소년의견 반영, 결과 만족 모두에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

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성장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주체적,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친구, 주변사람들과의 상호작용도 원활하였으며, 활동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활동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참여 전후의 인식변화에 대해 청소년들은 지역 기관 및 전문가들의 도움 정도, 지역 청소년 욕구 및 문제 파악 노력의 충분성, 지역 청소년 지원의 충분성,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청소년의 영향력 정도에 대한 인식 모두 매우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 후에 지역에서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는 정도,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는 노력이 충분한 정도, 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이뤄지는 지원이 충분한 정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고,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청소년 영향력의 정도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셋째,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3)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2)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6)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부족하고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넷째,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은 더 흥미로운 구성, 청소년 의견 적극 반영,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아져야 함, 주제 선정 시 청소년 생각 반영, 활동정보 취득 용이, 학교홍보 필요, 활동참여시간 확보, 학교와 학교밖 기관 간 협력 강화 모두 매우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활동이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아져야 하며, 주제선정 및 활동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하고, 학교를 통한 홍보 등 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시공간 활용을 위해 학교와 청소년기관 등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IV-33. 청소년 참여자 설문조사 주요 분석결과 요약

구분	주요 분석결과
참여과정 및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 청소년들의 의견반영은 곡성 > 유성 > 부천의 순이었음. 만족도는 부천 > 곡성 > 유성의 순이었음.
참여전후 인식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 지역의 도움에 대한 인식변화는 유성구가 약간 높았음.
활동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지역에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3)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2)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6)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의 순이었음. - 지역별 : 부천시는 '(6)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가, 유성구는 '(3)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2)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가, 곡성군은 '(3)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가 제일 높았음.
활동 참여에 필요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 청소년들의 의견반영 필요성은 부천 > 유성 > 곡성의 순이었음.

3) 시사점

이러한 결과는 시범사업의 종합성과분석의 해석과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구축·확산 논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참여자들은 본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5.66점), 공동

현안발굴역량(5.41점), 협력적 의사소통 정도(5.54점), 의사결정의 명확성(5.43점), 기관대표자들의 관심 정도(5.45점), 운영구조의 체계성(5.42점), 담당자의 연계협력 역량 제고(5.44점), 전반적인 성과(5.54점) 측면에서 지난 3년간 높은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참여의 중요성(4.26점, 5점 척도)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어 네트워크의 주체로서의 성장을 보여준다. 이는 3년간의 시범사업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 성장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와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체계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본 네트워크 사업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현재의 네트워크에 참여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나, 지역별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시범사업과 같은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을 높여준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사업주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체(실무/분과 등) 구조의 효율성 등, 운영 구조의 마련이 운영효과에 미치는 요소로 나타난 것은 본 시범사업에서 청소년 재단 및 청소년시설의 역할과 협의체의 구조적인 체계마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네트워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네트워크운영에 대한 지원요구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내 전담인력(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등)의 충분성(3.16점, 5점 척도)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고, 네트워크의 지속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6.33점)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부처 간 연계협력 확대(6.42점)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이르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역할 및 제도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네트워크 참여과정에서의 역동과 행정기관의 지원 측면에서 지역별 차이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곡성의 경우 운영효과 관련 다수의 항목에서 세 지역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3년간 기관 간 신뢰의 정도(5.54 점)가 가장 높게 형성된 동시에, 갈등의 정도도(4.46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 주체들 간 높은 수준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연계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 하면서 신뢰 경험을 축적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성의 경우 운영의 투명성(5.78점), 민주적 의사결정(5.74점), 수요자 중심성 (5.74점) 등을 포함한 의사결정규범, 그리고 운영주관기관 운영효율성(5.59점), 운영체계성(5.63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가 이루어졌다. 반면 지자체 전담인력 충분성(3.18점, 5점 척도)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타당성을 높여가고 있지만 향후 지속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천의 경우 운영효과 항목 가운데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다양성(5.46점)과 통합성(5.46점) 증대, 기관 담당자의 연계협력 역량 제고(5.61점) 측면에서 가장 좋은 평가가 이루어졌다. 반면 세 지역 가운데 지자체 연계협력 충분성(2.92점)과 전담인력 충분성(2.75점), 교육지원청 연계 협력 충분성(2.85점)과 네트워크 전담인력의 충분성(2.90점) 가장 낮게 나타나 행정기관의 책무성 강화 및 인력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 지역에서 각기 다른 색채를 가지고 네트워크의 구조를 마련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네트워크 운영모델 논의에 있어서도 관-관, 민-관, 민-민 협력관계 등 다양한 참여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 시범사업 종합성과 분석: 질적 조사 결과

- 1. 질적 조사 개요 및 방법
- 2. 질적 분석 결과
- 3. 결론 및 시사점

1. 질적 조사 개요 및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시범사업 종합성과분석에서 양적 연구는 네트워크 운영의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질적 연구는 네트워크 운영 과정에 대한 참여 주체들의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질적 연구는 세 명의 연구자가 함께 수행하며, 자료 수집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지역별로 네트워크 참여주체들에 대한 개별 면담 또는 FGI 형태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의 목적은 네트워크 참여주체들의 주관성을 바탕으로 협력 과정의 역동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출하는데 있다. 즉, 양적 연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별 네트워크 운영의 실질적 경험을 참여 주체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면담 대상은 시범사업추진기관의 사업담당자, 네트워크 참여기관의 담당자 그리고 청소년들이며, 세 명의 연구자들이 각각 한 개 지역을 전담하여 면담 자료 수집 및 분석 전 과정을 맡아 수행하였다. 먼저 시범사업추진기관의 면담 참여자 범위에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본 사업 참여 인력, 유성구청소년수련관과 곡성

16) 이 장의 1절, 2절 3)은 황세영 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2절 1)은 조윤정 박사(경기도교육연구원), 2)는 송민경 교수(경기대학교)가 작성하였고, 3절은 세 연구자가 공동 작성하였음.

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청소년기관들의 센터장 및 실무자 등이 포함된다. 면담 주요 내용은 네트워크사업의 추진 배경과 지역사회의 요구, 네트워크의 목표와 청소년 성장지원의 의미, 연계·협력의 주요성과와 요인, 연계·협력 과정에서 어려움, 네트워크 운영 경험을 통한 학습 경험, 지역 청소년 추진체계강화 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네트워크 참여기관 담당자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참여 기관 담당자 중 청소년 기관, 교육 및 복지 기관, 기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성격의 기관들이 포함되며, 시범사업 수행기간 중 의미있는 연계·협력이 시도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면담 주요 내용은 연계·협력의 동기, 주요 성과와 요인, 기관별 고유 영역과 협력의 범위 설정 및 소통의 어려움,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학습 경험,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밖에도 지자체 공무원 및 교육(지원)청 장학사와의 면담도 추진하여 지역의 청소년추진체계와 교육 분야 연계협력과 관련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추진기관 및 네트워크 참여자에 대한 면담은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대상으로 확인받았으며(202104-HR-고유-001), 면담 질문은 <부록 2>에 첨부되어 있다. 연구자들은 지역별로 시범사업추진기관 및 컨소시엄 기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간 시범사업 운영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면담계획을 수립하여 6~8월 중에 면담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세 지역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청소년 참여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섭외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네트워크 활동에서 청소년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였다. 면담 계획 및 질문지에 대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202104-HR-고유-001).

면담 일정 가운데 3~6월까지의 연구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7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대면 출장이 금지되어 부득이하게 온라인 화상회의(ZOOM)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세 명의 연구자들은 공통의 조사지를 토대로 각자 해당 지역의 면담을 수행하고, 짧게 해당 내용을 정리한 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유하고, 지역별 특징적인 쟁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심층 면담이 주로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협력 경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에서 동기, 이해관계, 긴장, 신뢰, 어려움 등을 포착함으로써 협력 과정의 역동성을 드러낸다면, 워크숍에서는 실제 연계·협력의 성과 사례를 중심으로 세 지역 간 공유 작업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공통의 의미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1차 워크숍을 통해 세부 주제로 설정된 주제는 ‘시범사업기관의 미션과 역할’(2차), ‘연계·협력의 성공 사례와 학습경험’(3차),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지역에 안착하기’(4차)이다. 워크숍은 먼저 해당 주제들에 대해 세 지역에서 시범사업추진기관 담당자들이 간단히 발제하고, 이후에는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학계, 현장)들과 함께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본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 온라인 화상회의(ZOOM)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녹음되어 녹취록으로 작성·보관하였다. 질적 자료 및 분석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코딩 과정에서 연구자 간의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쳤으며,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를 대상화하기보다는 사업의 의미를 논의하는 공동주체로서 신뢰 형성, 분석 내용에 대한 참여자 확인(member check)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질적 연구 자료수집 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V-1> 및 <표 V-2>와 같다.

표 V-1. 심층 면담 추진 내용

<p>목적</p>	<p>네트워크 참여주체들의 주관성을 바탕으로 협력 과정의 역동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p>		
<p>참여자</p>	<p>지역별 시범사업운영기관 담당자, 네트워크 참여기관 담당자(지자체, 교육청, 청소년·교육·복지 기관, 기타 민간단체), 청소년 등</p>		
<p>일정</p>	<p>곡성(총 17명)</p>	<p>유성(총 18명)</p>	<p>부천(총 25명)</p>
	<p>◎ 간담회 - 상담복지센터(2명), 진로체험지원센터(1명), 문화의집(2명), 미래교육재단(1명), 지자체공무원(1명) (2021.3.16.) ◎ 심층면담 - 상담복지센터(2명), 문화의집(2명), 미래교육재단(3명), 지자체 공무원(2명), 교육지원청(1명) (2021.7.21.) - 청소년(6명) (2021.8.6.)</p>	<p>◎ 간담회 - 수련관(3명), 상담복지센터(2명) (2021.3.26.) ◎ 심층면담 - 수련관(6명), 상담복지센터(2명), 진로센터지원센터(1명) 청소년(3명) (2021.8.11.) - 지자체 공무원(1명), 교육청(1명) 민간단체(4명) (2021.7.29.)</p>	<p>◎ 간담회 - 재단 담당자(3명) 2021.3.15.) ◎ 심층면담 - 재단 담당자(3명), 협의체(청소년시설장) (3명)(2021.6.16.) - 실무협의체(9명) (2021.6.24.) - 이주배경 분과 (3명)(2021.6.24, 2021.8.4.) - 노동 분과(1명) (2021.8.4.) - 지자체 공무원(1명) (2021.7.28.) - 교육청 담당자 (1명)(2021.7.28) - 청소년(3명) (2021.8.3.)</p>

표 V-2. 성과공유 워크숍 추진 내용

목적	지역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의미와 성과를 주제별로 논의
참여자	연구진, 시범사업추진기관 담당자, 자문위원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워크숍(2021.4.27., 화상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청소년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 공유 목적과 방법 ◎ 2차 워크숍(2021.6.1., 화상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시범사업추진기관의 미션과 역할 ◎ 3차 워크숍(2021.7.7., 화상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연계협력의 성공사례와 학습경험 ◎ 4차 중간보고회 겸 워크숍(2021.8.25., 화상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지역에 정착하기

2) 자료 분석 방법

질적 자료의 분석 방법은 해당 연구가 기반으로 하는 철학적 전통에 따라 다르지만 그 과정은 대체로 나선형으로 진행된다(조흥식 외, 2010). 즉, 질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별개의 과정이라기보다 연결되어 있고, 자료가 축적되고 자료를 해석하는 연구자의 통찰력이 생기면서 점차 기술, 분류, 해석의 단계로 나아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면담 진행에 있어 지역적 특성과 맥락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1, 2차년도 시범사업보고서 및 연구보고서를 비롯하여 지역별로 네트워크 추진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양한 기록물(회의록, 계획서, 결과보고서, 행사 영상 등) 등의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연차별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핵심 활동과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된 연계·협력 활동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자료 코딩 과정에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 관련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개념적 용어를 그대로 분석 단위로 사용하기 보다는 시범사업의 맥락에 맞게 개념화, 범주화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3년간의 성과와 의미를 다양한 사례로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지역별로 이 사업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 무엇을 ‘성과’로서 제시할 수 있는지를 워크숍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로서 여러 가지 사례를 공유하였다. 사례는 성공적인 사례에 국한하지 않으며, 실패했지만 의미있는 시도, 작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도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는 연계·협력 경험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례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성과 사례를 일반화하려는데 있지 않으며, 사례별로 세부적인 기술을 제시하고(사례 내 분석) 나아가 사례들에 걸쳐 있는 주제를 분석(사례 간 분석)을 통해 본 시범사업의 ‘성과’의 의미성을 풍부하게 제시하려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질적 자료의 종합분석의 결과로서 3년간의 학습과 성장의 이야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경험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3년간 세 지역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고 신뢰 경험을 쌓아온 학습과 성장의 여정이기도 하다. 특히 시범사업추진기관 및 네트워크의 핵심 참여자들에게는 이전에는 없었던 ‘네트워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개인별로 또는 기관별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성장담으로서 본 사업의 의미를 정리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별로 질적 분석 결과는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의미, 2) 실질적인 연계·협력의 경험, 3) 각 주체의 성장이라는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세 지역에서의 경험과 주체들 간의 역동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2. 질적 분석 결과

1) 곡성군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의미

① 청소년 육성에서 성장지원의 관점으로 전환하기

곡성군은 농어촌의 전형적인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청소년의 성장보다는 노인의 복지를 더 중시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고 이는 전형적인 농어촌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성장을 중심에 두지 않고 어른 중심의 질서 체계 속에서 청소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장을 ‘자란다’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키운다’는 육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의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것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시범사업 이전에도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존재하고 청소년 안전망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의 차원을 넘어서 보통의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담보한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 의견은 뭐였냐면 성장지원 네트워크 자체가 곡성에 없었다는 거예요. 청소년 성장을 위한. 성장이라는 정의 자체가 청소년 육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키운다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걸 예전의 관점이잖아요. 지금은 키운다기보다 자란다는 관점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육성이라는 관점 자체가 좀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도 좀 있고, 청소년 성장이라는 모든 것 안에 복지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일들이 포함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상담복지센터-A)

안전망하고 성장지원 협의체하고. 저는 안전망의 간사를 하면서 성장 사업의 실무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확연한 차이점은 포커스가 다른 거잖아요? 안전망 같은 경우에는 위기 청

소년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성장지원은 모든 청소년이죠. 그다음에 개입 시기도 안전망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동되는 시스템이죠. 성장은 항상, 상시적으로 가동되어야만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안전망 같은 경우는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으로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성장은 오픈형이고 개방적이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상담복지센터-B)

이처럼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한 청소년성장네트워크는 청소년의 성장을 ‘자란다’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청소년을 대상화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주체로 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청소년성장네트워크의 형성은 지역사회 산발적인 자원과 연계망을 통합하고 중복적인 지원은 없애면서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저희 철학적 비전이나 목표가 된 거죠. 어떻게 이 청소년들이 성장을 하고 각자 개별의 개성을 살려서 성장할 수 있게끔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교육 행정팀만 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청소년들이 성장하는데 어떤 문화적으로든 축제로든. 의회 쪽에서도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의 개성을 살려서 저희가 이제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지자체-A)

② 새로운 국면의 전개: 곡성미래교육 재단 설립

시범사업 1차년도인 2019년에 구축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2021년에 곡성미래교육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곡성군과 곡성교육지원청 간, 즉 관-관 협력체계 속에서 청소년기관은 곡성군의 교육관련 청소년 정책의 실행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중심기관은 청소년기관이 아니라 미래교육재단이 된 것이다. 청소년기관의 관점에서 좁게 보자면 무게추가 재단으로 옮겨가면서 주도권을 잃게 되었고 볼 수도 있지만 곡성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형성, 안착시키는 과제를

중심으로 바라보자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재단설립은 탄탄한 바탕을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기관에서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미래교육재단의 전신인 미래교육협력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미래교육협력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 지역의 의견들이 모아졌을 때, 저희 청소년기관에서 강하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 필요성 자체를 이야기할 때, 같이 한 번 해봅시다. 협치라는 것을 할 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군이나 교육청 밖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밖에서 이야기했었고, 그 이야기가 성장지원 사업의 시작과 시점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갔어요. (상담복지센터-A)

그 이유는 미래교육재단이나 재단의 전신인 미래교육협력센터가 설립되면 청소년기관 네트워크의 범위가 확장되고 예산이 확대되면서 역할과 권한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곡성지역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 교육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그것은 재단의 설립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래교육재단에 파견된 군청 공무원은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미래교육재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확장된 네트워크 형성을 제시하였다.

성공의 원인은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교육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야만 했어요. 학교하고 교육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게 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재단 전신이 미래교육 협력센터라고 중간지원조직을 태동했던 그런 모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파견나왔던 인력하고 저희 군에서 파견나왔던 인력들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 네트워크링.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던 그 네트워크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중략) 재단을 통해서 군에서 파견나온 인력들, 교육기관에서 파견나온 선생님, 장학사님, 교육 행정직, 재단에서 직접 채용된 인력들, 인력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배경들이 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능이 저희가 가진 가장 큰 자원이자 잠재력인 거 같아요. (재단-A)

미래교육재단을 중심으로 구축된 네트워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재단에 소속된 행정기구(팀)가 그 자체로 네트워크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교육 지원청을 대표하는 장학사, 군청의 행정직 공무원, 학교를 대표하는 교사, 민간을 대표하는 청소년기관 전 관장 등이 각 팀의 팀장을 맡고,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즉 재단이라는 조직 자체가 실무차원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다른 입장과 비전을 가진 다양한 기관의 담당자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극대화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단이라는 조직에서 1팀장님이 장학사예요. 2팀장님이 교사구요. 3팀장님이 행정직 6급 팀장님이구요. 제가 4팀장으로 민간채용이다 보니까 그냥 저희 재단 자체가 네트워크인 거죠. 교육청 장학사님들하고 네트워크는 장학사님 거치지 않고 바로 이뤄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쪽 전문가로서 관장님과 소장님까지 바로 이뤄지는 네트워크예요. 이게 이제 굳이 네트워크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신속하게 전화 한 통화로 다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조직인거고. 실무자들의 네트워크는 굳이 네트워크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팀장회의 한 번하면 모든 조직이 이어질 수 있는, 재단이 갖고 있는 극대화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재단-B)

미래교육재단이 설립되면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재단에 소속된 4개의 팀 중 한 팀이 청소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옥과문화의집 전 관장이 재단 내 청소년지원팀장을 맡으면서 청소년 기관과 재단 간의 연계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에 청소년 기관 인력이 포함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곡성의 사례는 성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관이 군청과 교육지원청의 완충 기관으로서 민·관·학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이 사업을 하는데, 안에 네 개의 팀이 있고, 그 중에 청소년 파트 사업을 저희하고 협업해서 하고, 청소년 기관이랑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재단의 청소년 팀장이 문화의 집 관장이었던 선생님이 겸직을 하면서 가운데서 중간에 조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략) 군과 교육청과 저희 청소년기관이 같이 협력센터 안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협력 속 성장의 관점이 지역사회에 조금씩 확장된 시기였어요. 작년은 곡성과 교육지원청의 완충 기관으로서 청소년 기관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공·민 또는 민·관·학 네트워크 가운데서 협력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중간에서 실행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담복지센터-A)

그러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사업시기나 문화의 차이, 각 기관에서 가지는 권한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는 다름과 이해 부족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서로 잘 모른다는 건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 교과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하고자하는 일련의 사업 계획이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사전에 소통이 되고 조율이 됐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을 타이밍을 놓친다든가 그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쌓이고 있어요. 같이 협력 사업을 하다보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군에서 예산 성립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언제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교육기관이랑 다른 기관이랑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알아탈까.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쌓여야 그런 경험, 공동된 경험이 좀 있어야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재단-A)

아직 청소년 유관기관 관련해서 협업경험이 많지 않아서. 재단에서 보니까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이 함께 회의나 의사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권한의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지자체는 자치 단체라서 인사나 예산의 권한이 있는 반면에 지원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저희 같은 경우 도의 입장을 항상 물어봐야하는 상황이고 지자체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기를 원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인데, 저희랑 차이가 있는 거 같고. (재단-B)

중심축이 재단으로 옮겨가면서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는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민관학 협의체인 미래교육협의회와 역할이 중복되어, 그 결과 청소년기관이 청소년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관에서는 청소년기관의 정체성, 고유성만을 강조하기보다 보다 큰 차원에서 기존의 청소년기관 중심의 네트워크를 확장

하여 미래교육협의회가 성장지원협의체의 역할을 돈독하게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중심축이 재단으로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충돌과 논의를 통해 볼 때 재단이 성장지원협의체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의 확장성, 교육기관과의 협력이 용이성 등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군청)-관(교육청) 간의 협력에 청소년기관을 포함한 민간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단과 청소년기관 간 역할 분담이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관 중심으로부터 민 주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곡성이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의 협력을 넘어서서 민이라고 하는 지역 사회의 부분까지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태 잘 어려운 부분들을 헤쳐 온 것처럼 또 다른 과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역사회가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재단-C)

마지막으로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네트워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곡성 지역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관련 사업을 재단의 사업으로 바라보는 것을 경계하고 청소년의 목소리(voice)와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장(場)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재단과 청소년기관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의제를 발굴하고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 연계협력의 실질적 경험 확대

①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 청소년 목소리를 내는 창구 형성의 기회

곡성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를 통해서였다. 네트워크 내 협력이 무형에서 유형의 결과로 지역사회에 비춰지게 되었고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는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에는 곡성군, 곡성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등의 청소년 유관기관이 참여하였다. 청소년박람회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은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며, 예산은 곡성군과 곡성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였고, 곡성청소년문화의집과 옥곡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박람회를 운영하였다. 또한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각급학교, 마을학교, 읍면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기관, 지역아동센터협의회, 곡성교육희망연대 등에서 박람회를 지원하였다. 이처럼 청소년과 관련한 대부분의 주체가 박람회에 참여하고 박람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성장 지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아울러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연계망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일단 성장 박람회를 한 꼭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공통의 관심사가 통했다는 거죠. 지역의 군청,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마을학교, 청소년 기관들, 학부모, 미래 재단,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제일 중요했던 모든 학생들이 4, 5개월 동안 성장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것들을 어떻게 꾸려갈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웃풋으로 나왔죠. (상담복지센터-B)

2019년도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는 곡성에서 성장지원네트워크가 정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청소년기관과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성장을 이끌어내고 청소년 성장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성장이라는 것들이 박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박람회를 진행했던 이유는 성장이라는 것 자체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체성 자체를 확보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해주고, 청소년들이 자치와 협치를 같이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장 박람회를 통해서 그걸 전시해내자, 박람해내자라고 했던 거예요. 자치와 협치는 저희 성장지원 사업의 가장 키워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상담복지센터-A)

저희 곡성군은 초등학교가 8개,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4개있고, 되게 작은 곳이에요. 인구가 3만이 안되는데, 이런 시군 단위에서 개별 학교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의 규모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 규모의 한계가 있는데, 지역의 청소년 전 연령층이 한 장소에서 축제, 자기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지역에서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면이고요. (재단-A)

② 청소년정책실험(분절에서 협력으로): 석곡중학교(교육부) 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 사업 운영

2019년에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얻게 되었고 청소년성장과 관련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019년의 대표적인 정책실험이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였다면 2020년 청소년성장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정책실험으로는 곡성교육지원청과 곡성군의 협력을 통해 석곡중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공립학교 안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최초의 모델이다.

석곡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배경을 살펴보면, 2019년에 성장지원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곡성군 내 3개 지역인 곡성읍 권역, 옥과면 권역, 석곡면 권역 중 석곡면에만 청소년시설(문화의 집)이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지역사회외의 요구에 따라 2020년에 접어들면서 석곡중학교 내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설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곡성읍과 옥곡권역에는 청소년시설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누구나 체험하고 아이들이 갈 장소가 있는데, 석곡지역에는 그게 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석곡방과후아카데미를 일단은 외부 기관자체가,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학교 내의 방과후아카데미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성장지원협의체도 우리가 왜 그 이야기가 나왔냐면, 성장지원협의체 1차년도 때 굉장히 많은 만남들을 가졌었잖아요. 그때 권역 별 소외된 석곡권역 이야기가 나왔죠. (상담복지센터-B)

이 사업은 2020년도가 되면서 분과별 정책실험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평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되도록 많은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분과별 정책실험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분과 네트워크는 활동참여분과(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자기주도동아리 등), 진로직업 분과(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함께하는 진로교육 등), 보호복지 분과(학교밖청소년협동조합 다얼, 천천히 배우는 학생지원, 석곡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다부처 정책연계 등)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석곡중학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문화적으로 열악하고 청소년성장자원이 부족한 석곡면 지역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공감하면서 상호연계를 통해 청소년성장을 지원하게 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 학교와의 협력지점은 교원들의 업무 경감이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일부 교과수업도 열심히 하시는데 방과후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방카(방과후 아카데미) 선생님들이 그 일을 해주겠다. 그래서 감사 섭외하고 프로그램 짜고 애들 데리고 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협력자로 들어가는 거다. 선생님들의 업무를 덜어드리는. 이렇게 간다는 의무로 들어갔죠. 우리가 설정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었고. 곡성군청의 노력이 있었고,

교육청의 장학사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상담복지센터가 할래요, 한다고 해라 할 수는 없죠. 여러 기관들이 함께 학부모님들에게 설명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방카를 들일지 말지. 동의를 해주셔서 들어간 거거든요.(상담복지센터-B)

이 과정에서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추진하는 총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상담복지센터가 총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지역의 주민이고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참여주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기관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활동과 상담의 '분절'을 '통합과 협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왜 우리가 해야 하는가, 교육청과 복지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청소년 기관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청소년 기관 안에서도 분절돼 있잖아요. 상담과 활동이 분절 돼 있어요. 부처를 넘어서면 분절은 너무 크죠. 그래서 분절 때문에 청소년이 어떻게 손해 보고 있는지 인식하는 게 필요하겠단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한 발짝씩 청소년 중심으로 나아가 보자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상담복지센터-A)

석곡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기관 내 상담과 활동이라는 영역의 통합뿐 아니라 교육의 영역과 돌봄의 영역 등 유관사업을 연계하여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보호복지 분과 네트워크라는 분과별 정책실험을 통해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제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움직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방과후 아카데미가 지니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한계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방과후 아카데미를 학교 내에 설치하기 위해 노력할 당시의 학교구성원이 바뀌게 되자, 학교 교유의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이 나타나면서 청소년기관에서 학교를 출입하는 것에 대해 달갑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아울러 방과후 아카데미를 바라보는 청소년기관과 학부모 및 교사 간의 시선의 차이도 갈등을 야기하였다.

석곡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히스토리가 있었죠. 학교에서는 너무 외부에서 오는 걸 힘들어했고. 또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방과후전체를 관장해 주니까. 그러니까 양면성이 다 있는 거죠. 학교에선 좋기도 하면서 불편해. 외부인이니까. (중략)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지만 소수 학력을 우려하시는 학부모님도 몇 분. 우리애 공부해야 하는데, 쓸데없이 시간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죠. 자기 주도는 나중에 해. 지금은 공부할 때야.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회의자리를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니즈가 우리 애는 공부할 애다. 그래서 방카를 좀 빼줘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답답한 거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 학원 돌리고 과외시키고. 애가 피곤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애는 피곤하니까 방카를 빼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과를 거기 시간에 좀 넣고 싶으신 거예요. (상담복지센터-B)

이처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편함은 2021년도에 다부처 정책연계를 통해 청소년성장 사업의 영역과 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③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넘어 확대된 부처 간 협력 실험

2021년도의 정책실험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넘어 다부처 정책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2020년도에 석곡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개별학교 안에서 청소년 성장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보다 확장된 차원에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넘어서 청소년성장자원이 가장 부족한 석곡면의 청소년성장자원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다부처 정책연계를 통해 석곡어울림센터를 건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어울림센터 공간의 일부를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현재는 석곡청년회 소유부지 기부체납을 통해 어울림센터를 청소년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어울림 센터를 건립하는 그 기준들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냥 한 귀퉁이만 청소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전체를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석곡면 청년회분들이 또 애써주셔서 석곡청년회 소유부지 기부체납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다보니까 왜 곡성읍과 옥곡면에 다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오셔서 오시는데 석곡에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공감을 하신 거 같아요. (상담복지센터-B)

또한 어울림센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소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어울림센터가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공간인 만큼 청소년의 수요조사를 통해 공간을 설계하고 있는 중이다.

곡성의 정책추진체계의 변천과정을 보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기관이 청소년기관에서 곡성미래교육재단으로 이행하면서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석곡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서 나타나듯이 교육부(석곡중)와의 연계협력도 가능할 수 있었다. 나아가 곡성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는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서 네트워크의 범위를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협력사업까지 확장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 내의 연계협력에 머물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청소년의 성장자원을 확대하고 풍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곡성의 청소년성장지원 네트워크가 국가 수준의 다부처 정책연계 사업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기관에서 어떤 사업이든 그것이 청소년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지원 협의체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성장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청소년들한테는 교육청에서 하든, 지자체에서 하든, 환경부에서 하든 아무 관계없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국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들이 그 당시의 분위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상담복지센터-A)

또한 2019년도에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청소년 성장을 이끌어내는 기제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2020년도에

열악한 석곡지역의 청소년성장을 위해 석곡중학교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 바탕으로 작용하였다. 즉 그간의 정책실험과 노력, 청소년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진심어린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성장지원협의체 1차년도 때 굉장히 많은 만남들을 가졌었잖아요. 그때 권역별 소외된 석곡 권역 이야기가 나왔죠. 도시재생사업과 다부처 정책연계 사업이 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교두보가 된 거죠. 다른 지역의 그동안 소외됐던 석곡지역 청소년에 대한 지역어른들의 관심과 마음씀들이 결과물로 어울림센터의 건립으로 드러나고, 방과후아카데미 건립도 연계선상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석곡권역의 지소를 설립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상담복지센터-B)

(3)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에서 청소년 재단/기관/지도자의 역할 재정립(각 주체의 성장)

① 청소년 시설·기관의 관점변화: ‘청소년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한다’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중심점이 청소년기관에서 미래교육재단으로 옮겨갔지만 청소년기관은 청소년성장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수행기관이면서 동시에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청소년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 곡성의 성과라고 하면요, 성장지원사업과 미래형교육자치사업(교육부)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계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불편했고.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평가를 받지 못하니까. 그걸 제외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이제는 설계를 할 때 ‘이 센터랑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군청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재단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업이 예전에는 청소년 기관끼리만 사업을 공유하고 같이 시작했던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시작하든 군에서 시작하든 재단에서 집행하든 저희는 참여한다는 거죠. 그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교육청과 군청과... 그래서 반발이 엄청 심하기도 합니다. (상담복지센터-A)

청소년기관이 주최기관으로서 각광을 받지 못하더라도 청소년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사업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마이크를 넘겼고, 주최기관도, 실무는 청소년 기관에서 했지만, 저희들은 정말 민망했어요. 드러난 것은 교육청, 그리고 군청. 마이크를 넘겨드렸더니 같등이나 그런 것들이 적어졌고 기쁨으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계협력의 성공 사례가 아닌가. 누군가 머슴처럼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 우리의 목소리나 '우리가 했어요'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리를 깔아 주고 마이크를 주고, 예산 관련이나 큰 흐름을 짤 때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정말로 하고 싶게 만드는. 그렇게 소스를 제공해드리고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판을 열어드리고. 그래서 아마 성공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상담복지센터-B)

② 농촌 지역에서 청소년의 위치 찾기: 박람회와 협동조합

곡성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를 개최한 것은 청소년성장박람회가 처음이었는데 성장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었고 자신들이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다.

청소년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은 2019년에 있었던 청소년 성장박람회가 처음이었고요. 사실 심청 축제는 국민하고 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 거였고, 장미축제나 이런 것들은 관광객의 축제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의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축제가 필요했구요. 청소년 축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였고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유능감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자연스러워졌어요. 뭐가 자연스러워졌냐면, 요구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들을... 지역의 청소년들이 할 창구도 없었고 채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박람회를 매개로 해서,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게 된 거죠. 그게 또 성과입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창구를 만든 것. (상담복지센터-A)

청소년 성장박람회에 참여한 학생은 그 경험을 통해 자신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이며 곡성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른들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으면서 청소년들도 무언가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성장박람회를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박람회’로 정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보면 곡성 희망연대라든지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런 곳의 주축을 이룬 게 어른들인데 어른들이 해왔다면 이번 성장박람회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이 원하는 박람회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다보니 좀 더 청소년이 내가 이야기를 해도 실현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사회의 일원이구나 하는 감정을 끌어낼 수도 있었어요. (청소년-A)

청소년 성장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청소년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꼈고, 청소년들도 시민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하게 되었다. 자신들이 수동적이고 미숙한 존재가 아니며,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은 청소년들로부터 주도성을 발현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곡성을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주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사고방식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미숙하다는 이미지가 큰데 제가 그런 활동을 하고 나서 보니 이 아이들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더 크게 느껴져요. 청소년이라고 해서 마냥 어리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더 들 것 같고 같은 시민으로써 존중하는 문화가 더 생기지 않을까 해요. (청소년-A)

성장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도성을 발현하고 자신들도 곡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곡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다얼 학교밖청소년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체험 중심의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협동조합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의 실제적인 자립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들은 지역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수요자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목표로 삼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자립을 위한 기반을 닦게 되었다.

다얼 학교 밖 청소년 협동조합의 대표로 활동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원두 로스팅과 판매, 카페 운영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자립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규정하였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 경험을 쌓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곡성 지역의 특성상 다얼 협동조합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에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자립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곡성 지역은 지역 특성상 뭔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 경험을 쌓거나 경제 경험을 쌓기에는 인프라가 너무나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 특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조금 더 편하게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이렇게 설립이 되었고요. (학교 밖 청소년-A)

학교 밖 청소년은 협동조합을 통해 자신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지니고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교 내에서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부활동이라든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결핍을 저희가 다얼이라는.. 어찌보면 동아리랑 비슷한 성격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꾸려나가면서 조금 더 자율성과 책임감을 지니고 꾸려나가 볼 수 있다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큰 이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 밖 청소년-A)

이처럼 다얼 협동조합은 곡성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 바로 서고 사회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이 되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얼 학교밖 청소년 협동조합이 무엇보다도 의미있는 부분은 동아리 수준에서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를 바탕으로 취미 차원의 활동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홍보와 판매를 통해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세계와 맞닥뜨려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함께 깨달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③ 관 주도 체계 속의 청소년기관의 역할 모색: 육체적, 정서적 소진을 넘어 네트워크 되기

이처럼 곡성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들이 괄목한 만한 성장을 하였지만, 공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 돌리게 되고 자신들의 역할과 그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청소년기관 실무자는 정서적, 육체적 소진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곡성의 청소년기관 담당자들은 네트워크의 동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사실상 청소년기관은 미래교육재단의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담당자들은 사업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중요한 실행기관이자 네트워크 참여자인 청소년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육청과 군청에 저희 청소년 기관이 우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위탁기관의 한계이기도 하고. 위탁기관이 아니라 직영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나마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약간의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곡성에서는 그런 부분이 협력센터를 통해 어느 정도 교정이 되었습니다. (상담복지센터-A)

고무적인 부분은 청소년기관에서 성장지원네트워크의 방향성을 사업 중심, 실적 중심에 두지 않고 청소년 자치 및 성장, 지역사회 중심의 관계력을 회복하는 것에 두면서 네트워크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업은 사람이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네트워크의 수준과 질이 네트워크의 지향점과 철학에 달려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3차년

도에 네트워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는데 그 핵심내용은 네트워크가 수용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가 비판과 비난을 멈추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집중하며 수용적 태도를 지녔을 때 참여자들이 신뢰경험을 쌓게 되고 신뢰경험의 연속적 재구성을 통해 네트워크가 지속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인데 저희 곡성에서는 의제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군청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할 때 서로 간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압력이 높아지는데 아젠다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네트워크가 해줘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용적 태도가 없으면 같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참여자들의 신뢰 경험을 누적 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상담복지센터-A)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기관에서는 청소년 중심의 성장지원네트워크를 질적으로 심화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러한 인식이 시범사업의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협치(governance)의 전제조건은 신뢰이며 성장지원 네트워크는 신뢰경험의 연속적 재구성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일 것이다.

2) 유성구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의미

① 청소년 주도의 성장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성구청 소년수련관과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본 시범사업을 착수한 2019년도에는 창립한 지 5년 이내의 신생 기관이었다. 따라서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내 여타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본 시범사업을 시작하

였다. 유성구는 청소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학군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주변 시군과는 다르게 청소년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며, 학구열이나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함에 따라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 역시 여타 지역사회와 비교하여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신생 기관인 유성구청소년수련관이나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축이 되어 유성구 전 지역을 아우르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주도하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에는 지역사회 내 기관 인지도나 영향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기존의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전 지역을 아우르는 수준의 거대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통합하기보다 전략적으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서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간의 소통과 공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성구 내 대표적인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로 청소년 상담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안전망’과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진로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소년지원망’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로 결합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를 유성구청소년수련관과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축이 되어 1차년도와 2, 3차년도 사업의 주요 목적과 방향, 성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변화시키면서 개방형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의 주요한 운영 목적이 청소년의 성장지원인 것은 동일하지만, 청소년을 서비스 대상자 내지 수혜자로만 접근하였던 한계를 인지하여 본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에서 ‘청소년 주도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인지하면서 청소년 자신들의 요구를 정책으로, 서비스로 개발해보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분과네트워크를 통해 실행하고자 하였다. 시범사업 이전에도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가 이미 유성구에 다수 있었지만 이를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청소년

년정책이나 청소년사업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모두 지자체 공무원, 학교의 교사, 학부모, 어른 등으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은 단순히 대상으로만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이번의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의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 조직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청, 지자체, 학부모단체 등에서 청소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선명하게 알게 되었으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표면적인,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실체가 있는 협의체로서 지역사회 내 인지도를 높이게 되었다.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오시고서는 자치분과에 대한 공약도 되게 많으셨고,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지역에서 지원을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저희 수련관이 항상 마을공동체나 지역 사업에서 조금 소외되었다고 해야 하나?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청소년기관-A)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을 사실 유성구청소녀수련관에서 이번에 추진했던 청소년성장지원정책이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학교에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는, 그러니까 학교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당위성을 주장했는데, 이번에 이 성장지원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유성구청소녀수련관에 학생들의 의견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일단 청소년성장지원체계는 교육청에서는 주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그게 다 똑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특별하다고는 않아요. (교육청-A)

② 분과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활동가와 청소년의 소통창구 마련

2019년 1차 시범사업을 착수할 시점에 유성구 내 각각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은 청소년 교육, 활동, 보호,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네트워크'와 '청소년지도자네트워크'가 별도로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지역교육청과 지자체가 따로따로 주축이 되어 '교육혁신지구사업'이나 '마을공동체지원단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 단위로 주민

자치위원회, 유성구행복네트워크 등으로 구분되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상호 별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유성구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 간 상호 소통의 기회를 거의 갖기 어려웠다. 따라서 청소년 교육, 활동, 보호, 복지 분야의 유성구 내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형식적으로는 잘 갖추어져 있었으나, 각 분야별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성과를 공유하거나 협력 사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유성구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의 특징으로 2019년 1차년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단일한 지역사회협의체 형식으로 공동의 목표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을 시도하고자 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맥락과도 연결된다.

일단은 1차년도를 진행을 했을 때, 뭔가 되게 영역이 다양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기관에서 참여는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례를 도출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들만 오가고 있더라고요. 1년 동안 계속. 그렇다보니까 좀 뭔가 실질적인 연계를 하려면 영역이 나누어져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방향을 도출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관-A)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20년도 2차년도부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체계를 영역별 네트워크로 분화하여 분과별로 전문화된 지역 활동가와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포괄하고, 분과별 참여자 모집, 홍보를 위해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구분하지 않고 분과네트워크의 위원으로 모두 조직하면서 분과별 네트워크의 장점과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참여할 청소년의 모집 역시 분과네트워크별로 진행하였으며, 각 분과별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실행하였다. 또한 분과 운영계획과 전체 운영위원회 사업추진계획과는 별도로 추진하였으며, 3차년도 사업추진 방향에서 이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같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장단기 계획의 방향 설정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공유는 분과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활동가의 참여는 분과네트워크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과제 현안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분과 내 청소년과 지역 활동가의 역할과 참여가 실질적으로 가능했으며, 이들 간의 성과공유 및 소통이 모두 분과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 지역 특색이든 전국적인 현상이든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진학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그래도 2년차 때 저희가 실제적인 청소년들의 요구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니 ‘청소년들의 요구는 이런 거구나’ 하는 인식 개선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들이 주창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청소년기관-C)

성장지원협의체가 유성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청소년들의 요구를 받아서 지역에서 움직여주는 것을 생각하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공통의 방향성을 가지고 각 분과에서 영역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청소년기관-B)

③ 청소년기관 주도의 영향력의 한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청소년기관 주도 모형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모형이나 교육청이 주도하는 모형과는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나 영향력, 사업 자체의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상이하다. 또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수준이 청소년기관 자체의 지역 인지도와 지역에 미쳐왔던 기존의 영향력의 크기에 비례하여 작동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유성구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지자체가 일체의 모든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의 성격상,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지자체와 청소년수련관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유성구청소년수련관이나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과 스스럼없이 청소년교육과 관계한 유관기관으로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 아무리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각각의 추진체계와 실행구조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허물면서 지역사회협

의체를 구축하는 모형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성장지원협의체 개념이 뭐지?” 이 개념을 자체적으로 이해하고 출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요. 아까 설명 드렸지만, 어떤 기존 저희가 네트워크 분과를 구성함에 있어서의 관련 기관들을 섭외하고 설명하고 저희가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찌됐든 지자체 인터뷰도 하셨지만 지자체는 어찌됐든 상당히 소극적이고 “이거는 수련관 공모사업이 아니냐?”,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사실 이런 개념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청소년기관-F)

예를 들면, 1, 2차년도에는 교육청 참여가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회의는 참여를 하지만 실질적인 연계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3차년도에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됐어요. 1차년도, 2차년도에는 ○○지원청 장학사를 요청해가지고 참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는 실제적인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청의 교육감하고의 연계를 뜬 거죠. 제가 직접 교육감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결국은 3차년도에는 교육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여기 해결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저희 기관이 아니라 대전수련시설협회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소년기관-G)

이러한 이유로 유성구청소년수련관이나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범사업 이후에는 유성구 지자체 내 청소년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현재의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주관하는 형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청소년기관 스스로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네트워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를 청소년기관 본연의 책무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상당히 미지수에 가깝다. 만약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서 정체성을 향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면,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현재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주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누가, 어떤 기관이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시키고자 참여 동기를 부여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아마도 그래서, 유성구청소년수련관과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 시범사업은 향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사업이 아니면 지자체

의 고유사업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전담공무원이 네트워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6개 분과네트워크의 네트워크들은 유성구청소년수련관과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팀장들이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분과를 맡아서 정기적인 회의체를 결성하여 상시화 된 사업보고를 하는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청소년 기관이 주도하지 않고 참여 기관의 일원으로 분과네트워크에 참여한다면, 과연 현재의 팀장들이 그대로 각 분과의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수행하고자 할지 등에 대한 이슈가 새롭게 떠오를 수 있다.

성장지원협의체와 혁신교육지구사업과 청소년안전망이 되게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저희 유성구의 지자체에서도 청소년안전망과의 차이에 대해서 모호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예요. 문제는 그에 대한 차별성을 두어서 그걸 사업으로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네트워크에 관련된 광의의 개념의 네트워크를 보신다면 그런 네트워크들을 하나로 다 묶을 수 있게끔 가시는 게 향후에 방향성을 그렇게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기관-H)

역시나 정책적인 부분이 갖춰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시범사업이고. 그런 게 아니고 정책으로 발현이 돼서 각각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유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줘야 이게 저희들이 지금 실현해 놓은 이런 것들이 좀 더 넓게 확대되어서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게 지자체가 나서려면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 더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관-H)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반영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이게 법제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만약 지금 지자체형으로 진행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정책에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전담공무원이 저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행정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입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사실 저희 기관에서는 다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청소년기관-F)

(2) 연계협력의 실질적인 경험 확대

①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선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목적과 방향을 기획하고 실현하기

2020년은 시범사업이 2차년도로 접어드는 해이면서, 코로나19가 우리사회 전역으로 확산되는 시기로 전국비상방역대책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시설을 비롯한 학교까지도 모두 휴관 내지 휴교, 비대면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였다. 대면 형식의 만남과 소통, 행사가 일체 금지되었기 때문에 관계자 간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지역협의체 구성이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난관에 봉착하면서 유성구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기존의 기관 중심의 사업 기획의 틀을 깨고 분과네트워크로 분화하여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각을 그대로 투영한 성장지원협의체 구축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정책 요구를 그대로 유성구의 정책 현안으로 상정하고, 정책 아젠다를 모색하여 이를 성공사례로 실현하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청소년 상(想, 이미지)을 구현하게 된다.

사실, 2019년 1차년도부터 유성구 성장지원협의회의 운영모델은 단일한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를 구축하기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성장지원협의체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기존의 청소년안전망과 청소년지원망을 결합하여 청소년 지도자 및 전문가 중심의 청소년정책 및 사업 아젠다를 구상하고 실현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반하여 2차년도부터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청소년정책과 사업 현안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역 공동체가 모두 경험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지닌 시민의 일원으로 청소년의 위상을 높이고, 청소년이 적극적인 정책 참여자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역 활동가, 교육기관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 모두가 유성구 지역사회 내에 학교와 같은 공적 교육체계와 입시 위주의 청소년 지원체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매우 다양한 요구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가 상존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런 아가 청소년 설문조사도 하고 요구조사도 했다는 것처럼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관이나 우리 마을이나 관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을활동가-C)

저는 일단 이게 청소년정책이긴 하지만 모든 걸 청소년의 힘으로 하기는 솔직히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까지 저희의 의견이 반영되고, 저희의 의사결정을 항상 물어봐주시고, 저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는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A)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저는 이런 걸 듣고 싶어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줘요. 그래서 항상 하는 걸 보면 다 비슷비슷한, 그렇게 한정적이어서...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진로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되게 뻘한 진로검사, 성격검사, MBTI에 그치고 강연 오시는 분들도 다 학교에서 정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B)

저는 우리 교육청도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 패턴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학생들 참여만이 아니라 학교, 특히 학교장, 그리고 주민, 시민들 중에서도 교육 분야의 전문가나 능력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같이 참여하는 걸 보고 “아, 이젠 우리가 뒤늦은 감이 있다”는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교육청-A)

② 분과네트워크의 우수사례를 통한 성과공유와 지역홍보

유성구는 2차년도부터 분과네트워크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사례분석과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분과네트워크의 각 성과를 전체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의 성과공유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의 마지막 3차년도인

2021년에는 6개 분과네트워크를 주축으로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연합회, 운영위원회, 지자체, 교육청이 각 분과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지지체계로 구축하여 최종적인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성구의 청소년 성장지원의 핵심체계는 6개 분과네트워크이며, 분과네트워크별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수렴하고 확대, 재편성하여 청소년 중심의 의제 실행을 사례 성과로 도출하여 분과네트워크 간 고유 성과를 상호 공유하는 형식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차년도에는 청소년의 모집부터 개별적으로 분과네트워크에서 실행했으며, 각 분과네트워크의 고유 목적에 따라 청소년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도 분과별로 프로젝트와 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체 운영위원회는 상반기에 1회(6월) 개최하여 통합적으로 각 분과네트워크에서 보완사항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차 전체 운영위원회는 11월에 개최하며 사실상 2021년 마지막 운영위원회라고 볼 수 있으며, 2차 전체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분과네트워크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사실상 분과네트워크가 실행 추진체계에 해당하고, 운영위원회는 사례 중심의 성과공유를 위한 통합적 지지체계로 사례 연계 및 지역사회에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확산시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위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분과네트워크별 성과 도출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식은 모두 매우 다르다. 예컨대, 공간 분과네트워크의 성과는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청소년시설 홍보로, 공간 분과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조직은 모두 지자체(대전광역시 교육과학과, 홍보실)와 청소년기관/시설(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유성구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장대청소년문화의집)로만 구성되어 있다. 반면, 교육 및 학습 분과네트워크

는 청소년기관(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과 함께 관내 학교(관평중학교, 유성초등학교), 시민단체/마을공동체(유성구교육공동체연합, 유성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 학마을교육공동체, 합지박마을공동체), 기업사회공헌((주)놀만, ㈜메이킹협동조합)과 EBS네트워크로 구성하여 과학(3D 프린터), 기술(친환경메이킹, 비건요리), 인권교육으로 성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 및 학습 분과네트워크의 성과공유를 위해 학마을교육공동체의 우수사례로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분과별 사업 추진 목적과 사례 도출 및 공유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개방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작년에 저희가 분과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었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받았어요.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영역을 구축했고, 그 영역 안에 필요하다는 네트워크를 저희가 단체들에게 설명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분과가 그렇게 구성된 분과입니다. (청소년기관-F)

저희가 3차년도에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와 진로장학센터가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 결국은 지금 그것에 가장 적합한 몸통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몸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이런 개념들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고, 청소년들의 성장지원이니까 청소년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실체화해서 주변에 알리는 작업을 한 거고... (청소년기관-F)

한편,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차년도부터 분과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추진하여 왔지만, 기존에 구축된 청소년안전망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의 차별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서 및 상담 분과 <고운누리>의 네트워크 구성원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청소년안전망의 당연직 구성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구성원 자체로 보면 사실상 분과네트워크가 곧 청소년안전망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상 청소년안전망과 차별화를 가지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다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설정된 의

제나 정책과제는 청소년기관이나 지자체가 주도하여 이루어진 반면, 분과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당면과제를 도출하면서 결과적으로 얻어진 성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③ 교육의 높은 벽: 관계형성을 통한 단초 마련

시범사업 초창기에 양성구청소년수련관이나 양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대한 무관심과 무심한 태도로 인해 양성구청소년수련관이 단독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추동하는 추진주체가 되어야 하는 어려움에 맞닥뜨렸다. 그러나 1차년도와는 달리, 2차년도 사업부터는 양성구청소년수련관과 양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핵심 참여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청소년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고, 지역 활동가를 비롯한 정치인,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학부모 등이 모두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지닌 위원으로 참여하여 동일한 책임과 자율성을 가지고 분과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 사업과는 차별화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따라서 3차년도부터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고,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게 되었다.

저희들이 일단 청소년성장지원체계는 교육청에서는 주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그게 전국이 다 똑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특별하다고는 않고요...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이 달라졌어요. 교육감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행사도 했기 때문에 기존에 긴밀하게 안 했다기보다는 이번에 강화되어서 훨씬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표면적으로 형식상의 기구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실무자로 참석해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 방문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향성이 맞는 것 같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교육청-A)

저희가 심포지엄을 하거나 성장특목을 하거나 서로 안면이 트이고 저희도 대전MBC를 작년

에 하기도 하고 유튜브로 송출하기도 하니까 성장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그 네트워크가 오면 우리한테 이런 걸 해줄 수 있고 청소년들한테 '이런 걸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설명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거 같아요. (청소년기관-E)

또한, 이러한 공공행정력에 해당하는 관(官)과의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소요된 시간과 노력만큼이나 민(民)과의 연계협력관계를 이끌어내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학교와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기에는 여전히 힘들었으며, 3년차에 이르기까지 유성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와는 연계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만 마을활동가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학교의 높은 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교육과 청소년 네트워크 간 협력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

저희 ○○○ 같은 경우는 학교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마을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학교에서 마을로 나오는 것도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마을활동가-A)

활동을 하면서 수련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직접 학교에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수련관이 대신 협력해주고, 안내문도 해주고, 공문도 띄워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직접 할 수 있었거든요. 학교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우리가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기관을 통해 네트워크를 통해 수련관을 통해서 갔을 때는 반은 수월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네트워크가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을활동가-C)

(3)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에서 청소년 기관/지도자의 역할 재정립 (각 주체의 성장)

①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내 정체성 안착 및 위상 강화

무엇보다 본 시범사업을 추진해 온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

센터의 성장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의 정체성을 안착시키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확실하게 체감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유성구청소년수련관과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립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입지를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성의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와의 연대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시범사업 이전에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도 “청소년의 성장지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듯 했지만,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사실상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청소년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성장지원 방안 마련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청소년들의 요구와 참여를 기반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방안 모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인식하게 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청소년의 성장지원의 재개념화를 통해 유성구청소년수련관과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내 인지도를 높이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축하려는 노력 자체가 공공성 확장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수련관은 처음 3년이랑 2번째 3년은 많이 달라진 거 같아요. 지역 안에서의 인지도도 그렇고, 그런 협력 사례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청소년기관-A)

물론 관계자 분이랑 통화를 해서 연락은 됐었지만, 실제로 방문해보니 “아, 이런 사업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교육청-A)

저희 유성구 자체가 수련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위치하고 있고 다른 이제 청소년기관들이나 마을공동체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런 유관 단체들하고 끈끈한 연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트워크 연계하는 데 좀 더 용이하였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주요 성과들을 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자체-A)

또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모델에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이나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유성구 내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 조직들을 청소년들의 요구나 참여를 지지하기 위한 지원체계로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유성구청소년수련관이나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안고 있던 지역 내 위상이나 영향력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② 청소년지도자들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서 성장

유성구청소년수련관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이나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지원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들 모두 복합다중시설로 연결된 청소년시설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지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상호 의견을 조율하거나 공동사업을 모색할 필요는 거의 없었다. 물론, 각 기관의 개설 시기가 다르고 주요 목적사업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지도자들의 인식도 낮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운영방식대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기에는 공유할 수 있는 사업성과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과 네트워크로 분화하여 청소년 중심, 사례 중심으로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선 청소년지도자들부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서 정체성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 분과네트워크마다 구성원이나 추진체계, 당면한 현안과 아젠다 구상 등이 서로 매우 상이했지만, 각 분과의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과공유의 경험을 통해 네트워크로서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청소년지도사들도 개인적으로 청소년지도사가 직접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하고 진행을 해야 하고 그런 사고를 옛날엔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런 네트워크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구나'를 좀 배운 거 같거든요. (청소년기관-C)

저 또한 네트워크 사업을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인적자원이나 이런 기관 간의 연계나 발굴 역량을 좀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많이 알아야 청소년과의 가교 역할도 할뿐더러 기관과 시설과 또 다른 조직과도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 운영하면서 생각되었습니다. (청소년기관-E)

③ 지역공동체의 정책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 청소년'으로 성장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에 대하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최대 성과는 협의체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성장 그 자체이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에 구축하면서 가장 큰 고민 지점이 '청소년의 성장'을 무엇으로 개념화할 것인가, 실천 현장에서 청소년의 성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2차년도부터 청소년지도자들과 청소년기관이 주축이 되어 주도하는 청소년지원체계 구축보다는 '청소년 성장'이라는 개념을 "적극적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청소년 스스로가 묻고, 기획하며, 참여하고, 제안하는 청소년 주축의 분과네트워크로 개방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각 분과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성, 주체성과 참여성을 갖고 지역공동체를 주도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을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유성구청소년수련관과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제 청소년들의 요구와 발달, 이들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유성구 내 그 어떤 기관이나 조직보다 더욱 잘 알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내 위상도 높이는 성과를 부가적으로 보이고 있다.

저는 유성구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약간 곳곳에서 여러 중학교나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언니, 오빠들과 같이 무슨 정책을 만들고 싶어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분야에 대해

생각이 좀 맞으니까 뭔가 서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 더 다양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고, 미처 몰랐던 것들을 알 수도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청소년정책을 만드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평소에 알지 못했던 관련된 정책들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들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알 수 있으니까 되게 유익한 경험이었다는 것 같아요. (청소년-C)

2차년도에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게 발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삼은 거거든요.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말한 것들을 실현시키는 게 체감이 될 수 있는 것이 실현이 된 건 가장 큰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기 성장을 스스로 도운 것들이 발현된 거잖아요... 청소년들이 코로나시기를 통해서 2030 여성들 우울증 증가라든지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제안을 했던 것들이 올해년도 구의원님께서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계기도 있었거든요. (청소년기관-B)

3) 부천시

(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의미

① 청소년 활동가 중심 네트워크 토양위에 협의체의 목적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천 지역은 1999년부터 운영된 청소년 활동가 네트워크 '푸른모임'을 비롯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온 곳으로 협력과 연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재단에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조직한다고 했을 때 그 목적성에 대한 합의가 분명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부천은 꼭 성장지원에서 무얼 해야 한다고 하기 전에 다양한 구조의 모임들이 있어요. 토양이 좋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임 자체가 성장을 위한 토양이 될 수 있고. (수련관-A)

문제는 이게 지역에 이런 논의구조가 없었다면 지역에서 환영 받을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미 너무나 다양한 형태에서 논의 구조가 있고 기능이 있다 보니 협의체에 참여하는 분들도

차도 성장지원 협의체에 왜 와서 어떤 논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미션이 정확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마다 혼란스럽거나 지역에서 정말 필요해서 모였다고보다 재단의 필요에 의해 모인 것처럼 오해되고 왜곡되는 아픔이 있었어요. (수련관-C)

협의체 내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중심이 재단이나 특정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이라는 대의를 위해 모인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시범사업의 의도를 지역 내 기관들에 설득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시범사업 초기에는 부천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들의 토양 위에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서의 협의체 구조가 자리잡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원에서는) 협의체가 실질적인 의견이나 정보를 취합해서 지역에서 나와야 할 것들을 구조화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실행되는 구조를 꿈꾸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부천 환경에서는 이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돼 왔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다 헐고 만들 수는 없고. (수련관-B)

이에 1차년도 사업에서는 네트워크 파티, 비형식교육포럼 등, 청소년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분야 및 민간 단체들과의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협의체 내 논의구조가 제한되었다. 그러다가 2019년 말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특정 이슈에 대해 협의체 내에서 제안이 이루어지고 관련 기관과 단체들 간에 실행력이 결합되면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라는 거버넌스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을 하게 되었다.

부천은 거버넌스 구조를 짜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서, 구체적인 이슈, 갈급한 이슈없이 이렇게 큰 그림에 왜 우리를 넣냐는 게 아직까지는 지역의 몇 분들에게는 고민이고, 재단의 일이 아니라 지역의 일인 것을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우리 일인 듯한데. 어렵게 거기까지는 합의가 된 게 작년에 이주 배경 청소년 문제를 교육청에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고,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중심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재단은 재단대로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내미니까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청소년 영역 밖의 선생님들이 들

어오는 것, 청소년이슈로 모이지 않았던 문화 다양성 운동 사업하는 사람들이 뭉치는 것들은 사실 성장지원(사업)의 효과가 아닐까 해요. (재단-A)

작년 말에 성장지원협의체를 하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구성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시아 인권연대에서 교육청과 저희 청소년시설들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현안이 급하다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 교육청 과장님이 안산에 계시다 오셔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그래서 모임들에 다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워크숍)

이주배경 청소년 이슈의 경우 협의체 내에서 민간단체, 교육청, 청소년기관에서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제기가 되고 준비된 대응을 통해 곧바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빠르게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재단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기보다는 실제 관련 당사자들(교육청, 청소년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내 정당성과 동의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활동 쪽에서는 네트워크 조직을 했고 상담은 아이들 실태 조사를 시작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까 싶어서 과장님이 그 제안을 하기 전에 ‘니하오 부천’ 이렇게 중국어로 만든 시설 안내라든지 지역에 참여하는 방법을 먼저 재단 상담센터에서 준비했고 여기서 네트워크 회의를 몇 번 가동하고 있던 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공동 의제로 꼬집어내는 것은 약간 조심스러웠던 게 성장지원협의체가 그 때만 해도 지역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주 배경 청소년이 마이너한 이슈잖아요. 그것을 테이블 안으로 끌고 들어 오기에는 재단이 자신이 없었고... (재단-A)

이처럼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협의체 내 의사결정 구조를 가동해 본 경험은 처음에는 추상적이고 막연해 보였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라는 “큰 그림”에 실질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같이 기존 제도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슈가 네트워크의 의제가 되어 지역 내 관심과 참여 동력을 이끌어내고, 이주배경 청소년 이슈에 대한 교육청과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은 협의체 운영의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보통은 협의체 회의를 하자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두고볼까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이 얘기가 교육청에서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려하게 갈 수 있었죠. 좋았어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프레임은 짜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인지 알지만 재단 밖의 시설장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그림에 왜 자꾸 우리를 불러들이냐”는 불편함에서 구체적인 의제가 나온 거라 재단 입장에서는 3년차 되니 구체적 의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저 문제가 지사협이나 육성위원회와는 다른 의제를 끌고 가는 거라서 성장지원 협의체만의 특별한 이슈로 올라오는 것도 좋았어요. (재단-A)

이처럼 협의체에서의 실질적인 논의구조의 경험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의 생태계가 기존 청소년 활동가 또는 기관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보다 확장된 형태로 구축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 주었다.

청소년 시설장 네트워크나 시설장 회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만약 그 회의의 의미가 각각의 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 교류가 목적이었다면 성장지원협의체라는 의미가 부여 됐을 때는 이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 이슈와 관련해서 청소년 시설장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 힘을 모아야하는지에 대한.. 다른 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기관에서 어떤 걸 도와야 할지에 대한 책무성이 좀 더 부여될 수 있는 것. (수련관-C)

② 이슈 기반 분과 구조의 마련: 유연성과 느슨한 참여의 지향

부천에서는 3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이주배경, 노동인권, 거리청소년, 혁신교육 등 청소년 이슈들을 중심으로 협의체 내 논의와 실행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안 중심의 접근은 협의체 구조가 정형성을 갖기보다는 지역 현안에 따라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향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라는 지사협 형태의 기구를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어야한다는 얘기들은 계속 하고 있고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좀 전에 나온 플랫폼 구조일지, 허브 구조일지 그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재단 정책실 차원에서하고. (수련관-B)

저희가 생각하는 네트워크는 의제에 따라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 같다는 것이 거리 청소년들에 대한 현안을 보며 저희가 하는 고민입니다. (2차 워크숍)

이에 참가자들은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현안 중심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데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천의 100인’과 ‘네트워크 파티’와 같은 사업을 통해 청소년 이슈를 다루는 지역 내 전문가와 자원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확장함으로써 전보다 넓어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돈은 어디서든 끌어와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을 내고 여력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데. 이 3년을 통해 (재단)정책실의 패턴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어떤 활동들이 있으면 거기에 반신반의하며 관심 갖거나 적극 참여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또 하자고 그러면 모일 것이고. 저는 그런 형태로 지속될 거라 봐요. (수련관-B)

그동안의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 영역 안의 사람들끼리만 했다면 작년에 한 ‘부천의 100인’ 이 영역 밖의 opinion leader를 어떻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거고. 네트워크 파티도 청소년 영역의 실무자 말고도 시민사회의 실무자와도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 당장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노동조직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런 점에서 기존의 육성위원회나 지사협이나 이런 세팅된 구조와 다르게 좀 더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이슈가 생길 때마다 중요 파트너를 꼬집어내서 그(네트워크) 안에 심도록, 청소년의 가치나 지향하는 바를 심어가는 게, 이 조직이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재단-A)

이처럼 부천 지역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 간 신뢰와 연대의식이 쌓여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청소년 현안에 대해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실행해 나가는 과정 중심의 접근을 통해 기존의 제도화된 기구의 역할을 보완하면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의제 발굴과 실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저희가 신뢰/소통의 전략과 어려움이라는 부분에서 촘촘하게 보다는 천천히,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지역사회와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자는 게 3년차 진행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1차 워크숍)

네트워크 사업을 하며 저희가 느낀 점은 자발성과 목적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 보니 누구나 고민이 있으면 나누고 어떤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는 것에 대해 자율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단순 민간 영역에서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함께 해야 한다. 이게 필요하면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시됐구요.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는 유연한 조직이다.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나갈 수도 있고 자유롭다는 것을 배웠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기관이나 내 입장보다는 지역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함께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2차 워크숍)

③ 과제: 지역사회 청소년 현안의 통합적 해결을 위한 정책 실행력의 확보

부천 지역의 과제는 청소년 현안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내 논의와 실행 경험이 실질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실행력을 더욱 확보하는 데 있다. 특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가시화된 이주배경 청소년문제, 거리청소년 문제와 같은 이슈들은 기존에 관련 기관과 단체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지역 의제의 우선순위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장기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네트워크를 하면서 잘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현안 의제로 만났기 때문에 성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어떤 의제가 있다면 단순히 금방 해결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 방향이거나 역할을 갖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민간영역, 공공의 기관들, 중간 기관들, 행정기관, 각자에 대한 협의와 협조 체계가 중요하다. (2차 워크숍)

이에 앞으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내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거리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자립지원관을 설치하는 등, 지

자체의 사업으로 논의가 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에서 제기된 의제들을 실행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작년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내용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쉼터와 얘기해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유스 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고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자립을 같이할 수 있는 자립 지원관을 검토 중이에요. 설치 추진 준비 중입니다. (시청-A)

저희는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면 무언가를 없애야 하는 거예요. 기관에서는 우리 아이들 보호를 위해 무언가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솔직히 저희가 그걸 따라가 드리지는 못하죠. 저희 청소년이 워낙에 정책 사업이 많잖아요. 국가 정책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예산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되어 있는 게 공모 사업인데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그나마 해소하고자 하고, 올해의 경우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완화를 했어요. 민간단체까지 신청을 많이 하시라고 그래서 작년보다 신규 기관이나 단체가 여러 군데 증가했어요.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어요. (시청-A)

이와 관련해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되고 새로운 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자체에 책무성을 보다 폭넓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부천 지역은 상당히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분명 나의 일로 오고 무게로 오고 힘들 것을 알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부천은 사람이 새로 들어와도 역사와 전통은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성장지원협의체의 후속 활동은 사실 공모 사업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지속되고 연동되었으면 해요. 다만 이게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이게 정책과 예산을 수반하려면 지자체에 계신 주무관님들이 참석을 안 하면 안 돼요. (여성청소년센터-A)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의제 개발이나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관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해주는 역할을 지자체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의집-A)

결국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청소년 현안 해결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추진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계협력의 경험이 성공적인 문제해결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네트워크 활동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제로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저희는 네트워크 자체는 사실은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거나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지원청은 얼마 전에 관심을 보이고 민간이 제안한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시작했구요. 지자체의 경우 그런 게 다 뭐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하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이어서.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정도예요. (시민단체-A)

청소년들에게 노동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약간 좀 부분적인 역할이고, 이걸 청소년 담당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노동 담당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청소년 담당과에서는 우리 노동은 좀 생소해. 그럼 노동에서 하라고 하고. 그럼 노동은 우리 청소년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좀 꺼리고 있어요. (시민단체-B)

(2)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한 연계협력의 경험 확대

① 이주배경 청소년 의제화: 새로운 공통의 문제의식의 추구

이주배경 청소년 문제는 부천 지역에 이주민이 급증하고 중도입국 청소년이 늘어나 이들의 교육과 적응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존 다문화교육과 다문화가족 정책에서 다루지 못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협의체를 중심으로 의제 발굴이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2019년 당시는 협의체 구조가 안착되기 전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민간 이주노동자인권단체의 협력으로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와 서비스 홍보 안내자료제작 등이 이루어지는 등 실무 수준에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후 몇몇 주체들의 노력을 넘어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협의체에서 공식적인 안건으로 다루어지면서 본격적인 논의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각각의 단위별로 만나는 복지관이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내가 만나는 아이들을 만나는데 메인 중점사례 관리 대상자들은 아니었거든요. 이 아이들을 지역과 연결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적극적인 전담 관리기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역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면 좋을 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해서 저희 재단까지 들어오게 됐고. (상담복지센터-A)

네트워크를 통해 같이 논의해서 그것을 꼬집어내서 현실화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되더라구요. 1년 정도를 계속 고민하며 이 방법 저 방법을 쓰고, 실행위원회에서 분과를 하나 더 만들어보기도 하고 방법을 여러 가지 취해봤는데 역시 원점이더라구요. 저희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움직이자” 였어요. 그래서 19년 말부터 아예 저희가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년에 실제적으로 여러 매뉴얼이라든가 실제 이주배경 아이들 상담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부모님들 만나고, 하면서 다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전파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죠. (상담복지센터-A)

상담복지센터와 민간단체 간의 협업 경험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협력과 연대에 익숙한 부천이 가진 힘으로 평가된다. 비록 적은 예산의 사업이었지만 일단 실행 경험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와 같은 책임있는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지역 내 네트워크가 가진 힘을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에서 송출하는 모든 아이들의 발언 자막을 영어와 다국어, 중국어 넣고 수어 통역을 붙여줬어요. 그렇게 의제가 구체적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사례를 만든 거죠. 한번 이라고 나면 내년부터는 누가 하라 마라 해도 당연히 다국어를 하는 게 부천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한번 뭐가 결정되면 그것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참가해서 그것이 의미 있었다고 결과를 공유를 하면 다른 사업에도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좋은 점이에요. (재단-A)

이주배경 청소년 이슈에 대한 논의구조에 행정기관들이 참여하면서 기존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정책의 틀과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정책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추진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공통의 인식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나 지자체 내 주무부서 지정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기관에서 새로운 의제를 수용하고 정책화로 나아가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논의와 책무성에 대한 인식강화가 필요하다.

교육청에서는 이주배경 용어를 쓸 수가 없대요. 명칭을 정할 때 교육청은 다문화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럼 내부적으로 쓰라고 했죠. 시에서 이미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는 쓸 수가 없다구요. 그래서 이주배경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에서 용어를 정리하는데 3달이 걸렸어요. (재단-B)

과가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다문화 가족과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지 청소년과에서 접근할지 각자가 사실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해요. 지금 부천에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들이 2600명 정도 있는데 그 청소년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결국은 교육청이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교육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연초부터 네트워크에서 무시를 많이 넣고 있어서, 민간 단체들을 통해서 점점 교육청이 이게 자신의 역할이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찾아 가려고 이제 막 단추를 꿰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상담복지센터-A)

그래도 민간에서 이렇게 제안이 왔을 때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에 교육지원청도 참여해서 계속 회의를 주최하는 입장으로 온 것은 매우 큰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청-A)

② 지역교육협력의 의미와 한계: 동상이몽을 넘어 파트너십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서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는 주체들 간에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업과 정책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계협력을 넘어서 새로운 의제 발굴과 통합적인 문제해결 접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통의 목표를 마련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각 주체들 간 상호존중과 신뢰가 중요하다. 부천 지역의 경우 본 시범사업을 통해 비형식교육 포럼이나 지역교육포럼 등 지역 공동체 중심의 교육 담론을 형성해 왔으나, 실제 교과학점제 도입 등, 교육 정책과 관련한 교육청과 학교와의 파트너십 관계 구축에

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에서는 여전히 교육청이 필요에 의해 일방적인 접근을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된 가운데,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교과 과정이 마을과 결합하려면 마을에서 결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하고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요. 예를 들어 안전관리, 강사관리, 교육 과정이라 시험도 봐야 한대요. 시험에 대한 세팅과 평가 그 어떤 것도 저희가 청소년 지도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그런 방식 자체가 고려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우려하구요. 동등한 교육을 설계하는 주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마을교육의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어요. (2차 워크숍)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같은 새로운 거버넌스 시도를 경험하면서 여성청소년 재단을 비롯한 청소년 기관과 시설에서는 기존에 학교협력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에 머물렀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 가는 동등한 주체로서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할 변화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논의구조 안에서도 관련 주체들 간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예전에는 학교연계사업처럼 교육청이 요청하면 해주었던 부분들이 아니라 재단으로서 교육청과 민간영역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교육청과 지역사회 시설들이 소통하고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해 보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워크숍)

어찌 보면 소통하는 방식, 지역과 결합할 때 어떤 한계가 있는지 무엇을 서로 고려해야 하는지 새로 제도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2차 워크숍)

지역에서는 청소년이라는 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정책추진체계로 분절된 교육계와 청소년계 간의 이해관계와 신뢰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다만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 시도를 통해 교육을 제도권 안의 체계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을 이해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학교 밖에 있던 활동가분들은 학교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마을 곳곳에 이런 배움의 공동체 활동들만으로 이 지역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과 학교 안에만 계셨던 분들이 만나면 서로 의아한 부분들도 있지만 각각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교육청-A)

고교학점제를 진행할 수 있는 마을 체험처 기관들을 장학사님들이 찾아다니며 어떤 곳이 있고 무얼 하고 있고 아이들 몇 명에서 무엇을 하는지 조사를 했을 때, 그간의 이해도가 없다 보니 수업 몇 회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접근들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이게 어떤 취지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이 어떤 것인지, 긴 시간의 만남들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너무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만남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중략] 아직까지도 마을 활동가는 지역 기관에서는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하라면 해” 하는 식에 대한 것들에 트라우마가 많아서 그게 아니라 이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장학사 분들이 계속 좀 깨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교육청-A)

올해 여성청소년재단 내 설립을 앞두고 있는 미래교육센터는 향후 청소년계와 교육계 간 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실험대가 될 것이다. 재단 역시 시의 출연기관으로서, 그리고 민간에서 요구하는 민-관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다중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기관이 이미 갖고 있는 피로도나 업무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요. 재단이 시청에 속해 있잖아요. 시청 기준에 가지고 있었던 해석으로 하게 됐을 때 센터에 있는 직원들과 센터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청소년 기관들, 민간 자원들이 의미는 덜 느끼면서 피로도는 더 쌓이는 형태가 되면 가장 걱정하는 수순이에요. (교육청-A)

③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의 확장

부천 지역 내에 시민단체들과 청소년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는 본 사업 이전에도 있었으나 필요시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2020년부터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에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슈 중심의 분과 논의구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 거리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지역교육포럼과 작은마을 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교 밖에서의 교육체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 거리청소년에 대한 지원 문제가 긴급하게 요구되면서, 기존 관련 주체들만의 역할을 넘어 네트워크 내에서 추진해야 할 장·단기적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 이슈의 경우 실질적인 자원(인력, 사업 등)이 부족한 민간단체의 어려움을 청소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청소년 노동 문제의 경우에는 기존의 캠페인 중심의 단발적 활동이나 단기간의 학교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청소년기획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노동문제를 고민해보는 새로운 기획이 시도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집에 부모님이 있다 보니 눈치가 보이거나 실직하시다 보니 그에 대한 폭력이 아이들에게 가해지면서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리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이슈들이 나왔고, 이 상황에서 저절로 자생적인 모임들이 만들어졌고, 지역 중심에서 공간에 대한 활용, 먹거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협력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긴급지원은 가능했지만 부천역 주변에 40-50명 몰리는 아이들 현황들이 계속 있는데 일부 몇몇 위기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이나, 지역에서 이 현안들을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시작하자고 해서. (2차 워크숍)

상담복지센터는 도움요청을 하거나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받아주시거든요. 전에는 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자주 접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아이들을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늘 막막했거든요. 지금은 그 막막함이 많이 줄었죠. 어쨌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관들이 이주 청소년들에게 당사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고 지지예요. (시민단체-A)

노동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노동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선, 능력주의, 불공정,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변화된 지점이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고, 그걸 가지고 청소년 기획단을 꾸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청소년 기획단이 단순히 캠페인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청소년들 스스로가, 물론 청소년이 당장 일하는 청소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청소년 스스로가 노동의 문제가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되는지 공부도 하고, 본인들 스스로 기획도 해서 뭔가를 진행해보고. (시민단체-B)

이처럼 민간단체들은 거리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노동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과 네트워크에서 의제화 작업에 참여하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청소년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였다. 물론 해당 이슈들을 통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청소년 기관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업 구조가 마련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적어도 청소년계와의 상호 이해와 신뢰의 경험을 통해 이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늘 저희 고민은 이주청소년들이 관계를 넓혔으면 좋겠는데 우리 단체가 관계를 넓히는 게 아니라 이주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인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자기 롤모델을 찾아볼 수 있고. 힘들 때 찾아서 도움요청 할 수 있는 주변인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그럼 그 주변에 이웃 어른이 돼 줄 사람이 있는가. 막막해요. 그럴 때 이런 청소년 기관들을 연결을 해주면 거기서 인적 관계가 상당히 넓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여러 활동을 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인적관계를 넓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A)

노동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청소년 활동가들, 아니면 청소년 기관에서 일하는 선생님들하고 전면적인 토론을 해본 적은 없어요. (중략) 몇 년 전에 노동 영화제를 하자고 했을 때, 그 노동이 나의 노동으로는 연결이 안 됐다. 근데 요즘 같이 뭔가를 고민하다 보니 나의 삶 속에 노동이 이미 와 있고, 이걸 어떻게 풀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청소년 활동가와 청소년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노동의 문제를 자기 당사자성으로 받아들이고, 청소년들의 진로에 있어서 노동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고민

하고 질문하기에는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는 많이 막혀있지 않나 보고, 지금 현재 부천에서 하는 것은 특수한 케이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B)

실제로 민간에서는 청소년성장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이슈들이 지역의 의제로 다루어지고, 민-관의 소통 구조가 마련되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기존의 사업 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큰 틀에서 청소년 이슈를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 10년 동안 장학사가 바뀔 때마다 얘기하고 뭐 좀 할 것처럼 얘기하고 1-2년 만에 떠나고 그러면 굉장히 허탈하게 쳐다보고 다시 새로운 장학사한테 또 얘기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10년 이상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진전을 보인 것도 처음이에요. 시민단체-A)

일반고 직업 위탁반 학생들과 함께하는 노동인권 교육 예산을 저희가 받고는 있죠. 보통 지자체에서 노동이라고 한다면 그 의제는 취약계층과 관련한 노동으로 많이 이해를 하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노동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약간 좀 부분적인 역할이고, 청소년 담당과에서는 우리 노동은 좀 생소해. 그럼 노동에서 하라고 하고. 그럼 노동은 우리 청소년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좀 꺼리고 있어요. (시민단체-B)

(3)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참여를 통한 각 주체의 성장

① 재단: 푸른모임 이후 청소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정립

부천은 푸른모임 후 지역 내 청소년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로서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역할을 당시 새로 출범한 여성청소년재단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특히 청소년활동가가 생각하는 청소년 의제 개발을 넘어 청소년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보다 통합적인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본 시범사업은 이러한 지역적 요구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하였다.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이 하나 밖에 없었을 때 활동가들이 모여서 청소년들의 현안을 해결하고 같이 사업하는 푸른모임이 활동가 중심이었다면 재단이 출범하면서 2017년 3월에 푸른모임이 잠정적 종료선언을 하면서 해체됐어요. 그런데 17년에 청소년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다시 지역의 활동가들과 의제 개발 워크숍을 하면서 지역의 청소년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에 다들 공감했고, 그 역할을 재단이 해야 한다고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을 중심으로 된 정책으로 바뀌야 한다는 과업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천의 청소년 기관들과 다시 청소년의 의제 중심으로 전체 영역에 대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반을 다시 마련해보자는 욕구 때문에 19년에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차 워크숍)

우리가 (네트워크를) 잘한다고 얘기했지만 제대로 통합적인 그림이라든지 총괄적인 점검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한 번 정도는 이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당시 재단 설립 2, 3년차 밖에 안됐던 시절이라 재단이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미 흩어져 있거나 너무 단발적으로 각자 이뤄진 네트워크만으로는 재단에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수련관-C)

이에 부천 지역에서는 재단의 정책기획실에서 시범사업운영을 담당하고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청소년수련관 세 곳의 관장이 참여하는 구조로 시작되었다. 2019년에는 청소년 기관 및 시설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참여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복지 및 교육 분야의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협의체와 분과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지역의 청소년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구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재자이자 매개자로서 재단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각 지역 민간 영역에는 살아남기 위해 각자 자기 사업하기 바쁘니 변화되는 이슈에 대한 자극, 필요한 교육들에 대한지원과 같은 큰 그림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로서 재단이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매개자의 역할에 대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1차 워크숍)

예전에는 재단하면 돈을 대주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네트워크를 하면서 단순히 그걸 넘어서 하나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들을 수행할 때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잘못하면 기울어질 수 있으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매우 힘들듯해요. (법률지원센터-A)

부천의 경우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이슈 중심의 분과 네트워크에서 문제 제기가 시작되면 협의체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후 실무협의체와 분과 네트워크에서 실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의제를 선도하기보다는 협의체/실무협의체/분과 내 논의안건을 조율하고 네트워크 내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역할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과 연대의식을 공고히 함으로써 시범사업 이후에도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지역 차원에서 청소년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협의구조를 정착화 하는 것, 그것이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자극을 주는 게 역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스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운영과 실천되도록 하려면 누군가는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변화에 대한 이슈를 짚아 하는 부분이 적절히 작용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느낀 지역사회 의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하구요. 다만 이게 오해하기 쉬워서 조심하는 부분이 재단사업의 성과 도출이라기보다는 지역 차원에서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청소년 현안 과제를 지역의 과업으로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구요. (1차 워크숍)

부천 지역에서 청소년 활동가 중심의 네트워크는 본 시범사업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재구축되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면, 3년간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동은 청소년 성장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와 더불어 이제 는 실제적인 추진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더 큰 요구를 만들어냈다. 이에 재단의 역할은 민-관을 연결하고 시민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행정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이끌어내는 청소년 주류화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 이주 청소년 관련해서는 사실은 사회 전체와 정치와 국가 체계가 움직여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화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스템과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거 해줘야 하는데 여청재단 입장에서 접근해서 막 목소리 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

는 그렇죠. 다만 청소년들의 문제를 의제화 해서 계속 중앙 정부로 올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새로운 결단을 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더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단체-A)

② 문화로서의 네트워크: 청소년 관련 주체들 간의 연대의식 강화

부천에서는 청소년 이슈 중심의 논의구조를 통해 연계협력 경험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3년 동안 해마다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네트워크 참여구조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네트워크 파티는 예전의 푸른모임에 대한 향수를 지닌 활동가들 간의 구심점을 다시 만들어낸 동시에 청소년 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지사협 또는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목소리의 교류의 장이 되었다.

딱딱한 구조가 아니라 열린 형태의 기획단이 최대한 청소년 활동가들의 욕구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며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모아 같이 공론화하고 각 현장에서 풀어내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고, 2회도 마찬가지로 다시 새롭게 기획단 모임을 해서 지사협에 참여하는 청소년 분과 분들과 같이 연계했고. 기존 포럼이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활동가들을 일방적으로 교육하거나 좋은 사례들을 전시해서 이렇게 해봐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고 있는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목소리들을 내고 그 안에서 부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그것들을 현장에서 활용하거나 힘을 낼 수 있는 방향의 네트워크 파티를 만드는 것이 핵심 키워드거든요. (수련관-B)

네트워크 파티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지만 재단이 기획하기보다는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획단이 꾸려지고,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환대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19로 교류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온라인으로 활동가 간 교류의 장으로서 현안을 공감하고 나누며 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네트워크 파티도 온라인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는 게 획기적인 기획였고 적절한 타이밍에 재단에서는 그렇게 유연하게 돈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작년의 경우 그렇게 대응을 못 했을 거예요. 매우 좋았어요. (재단-A)

저희는 재단 밖의 기관이고 순환 보직이 없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게 되며 우물안개구리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의 것을 새롭게 채워가는 기회와 경험이 됐구요.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각 기관의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들을 뭘 하는지 조사하고 나누면서 네트워크에서 나눈 것을 다시 직원들과 나누면서 직원들의 역량도 키울 수 있던 기회였어요. (문화의집-A)

선배들이나 제 동료들 입장에서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다른 현장,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영역의 사람들과 청소년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좋은 매개체가 됐다고 생각해요. 네트워크 파티를 하며 셸럽들의 파티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 영역이나 전문성에 대한 뿌듯함과 자부심. (수련관-E)

더불어 매달 열리는 실무협의체 회의의 경우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중간관리자들이 모여 네트워크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지역의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라는 관점에서 기관의 역할을 재점검하며 기관 간 협력의 지점을 고민하는 등, 네트워크 활동과 기관 업무의 관련성을 심화시키는 학습의 장이 되었다.

일단은 매우 좋은 결과와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구요. 네트워크라는 것은 계속 밖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네트워크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지 그 주제에 대해 공유하거나 생각을 나누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수련관-D)

청소년 관련해서 성 관련, 수련관 프로그램,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제가 쉼터에 근무하며 겪은 어려움이나 고충을 생각해보니 고립되었다고나 할까요. 각 기관에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에 맞게 연계하고 저희는 저희가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하지 않았었나 싶었습니다. (쉼터-A)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청소년 복지로 어떻게 풀어내야할지 계속 고민 중인데 여기 회의에 참여하며 저희는 자원이 없으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진 거죠. 저희가 법률 지원을 하는 청소년 중에 쉼터가 필요하면 연결시켜 줄 수 있거나 하는 연결고리를 확보하게 된 거죠. (법률지원센터-A)

이러한 학습 경험은 재단 출범 이후 늘어난 청소년 시설들이 각자의 고유 업무에 간혀 지역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동기부여와 자극을 제공

해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 활동에 따른 새로운 업무가 계속 부과되는 점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게 사실이다. 네트워크 파티와 실무협의체 활동 등이 연계 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내는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 의제를 만들고, 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피로도도와 부담감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정책이나 공통 주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했다면 같이 실질적으로 각 시설 기관에서 액션으로 드러나는 게 이후의 작업들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사실 있어요. (여성청 소년센터-A)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게 어느 정도 부친의 기반에 깔려있어요. 여기 와서는 남 흉도 보고 하는데 적어도 여기 있는 선생님들만 큰 현장에 돌아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배로서 자리매김하고 그러다 보면 네트워크 사업에서 일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들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속명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련관-E)

③ 청소년: 정책 제안을 넘어 실현의 경험

부친 청소년성장지원 네트워크는 초기부터 청소년참여단을 주축으로 하는 청소년 참여 구조를 거버넌스 내에 마련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참여단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등, 주로 수련시설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참여와 관련하여 주된 문제의식은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지자체에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한지 18년째인데 아이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 것들이 지역 사회에 반영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 실제로 조례로 만들어지는 경험을 아이들이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는 확실한 동기 부여와 날개가 달린 듯한 느낌을 받아요. (수련관-C)

2020년까지는 우리가 청소년들의 많은 정책 제안이 있었는데 그걸 잘 받아서 정말 합리적인 제안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안서를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2020년도까지는 제안이 정말 많았어요. 1년에 4-5개 정도로 많은 제안을 하는 데 집중을 한 것 같은데 2020년 이후에는 줄여서 지금까지 했던 제안들이 정말 실현이 됐는지에 집중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2020년 전까지는 제안서 작성이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제안서 작성이 청소년에게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왜 어떻게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어떤 제안을 하는지 까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하고 자료조사와 인터뷰나 의견 수렴까지 다 저희 몫이라 그 작업을 다 같이 힘을 모아 하는 자체가 저희에게는 목표였어요. 그런데 막상 그런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실현이 되는 데에는 집중을 못했고 2021년부터는 청소년 정책에 많은 제안을 했을 때 실현이 되었는지를 목표로 보면서 진행한 것 같아요. (청소년참여단-B)

이에 재단에서는 시장 간담회, 시 의회 방문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이 실제로 전달이 되고, 공적인 논의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참여단 활동은 기존 참여기구 활동의 연장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 ‘청소년 주류화’를 모토로 삼게 되면서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추진력이 뒷받침 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고민은 정책 제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와 제도에 집중되었고, 타 지역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부천 지역에 필요한 청소년 관련 조례의 골격을 잡아나갔다.

성장지원 협의체에서 아이들이 조례라는 미션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청소년의 주류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조례나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성장지원 협의체와 별개로 저희 안에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그걸 어느 단위에서 준비를 할지, 그게 언제까지 해야 할지 어떤 조례를 만들지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막상 이것이 저희가 성장지원 협의체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구체화되고 시기가 명료해진 거죠. (수련관-C)

제가 만약에 어른의 입장으로 준비를 했다면 오히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 했을 때는 아이들의 인권 쪽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청소년이라면 이런 조례가 가장 피부에 와 닿고 체감이 될 것 같다고 정한 게 청참위 관련된 조례와 청소년의

날 제정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고 본인들이 모든 자료조사라든지 어른들 도움 없이 스스로 일궈낸 것이지만 그것들에 대한 동기 부여를 주거나 이 결과물을 올려 안에 내게끔 보이지 않게 뒤에서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저도 이 성장지원협의체 미션이 저 안에서는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수련관-C)

올해 4월에 통과된 부천 청소년기본조례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활동이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조례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5월 네 번째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며, 시장이 수여하는 청소년상을 제정하는 등,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지역 내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참여예산제 활동을 통해 공공수련시설 내 생리대 자판기 설치 예산을 따낸 경험 등을 통해 청소년 참여의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저희가 청소년들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안을 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을 시급한 데에 먼저 써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꾸 예산을 줄여서 저희가 정한 것에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그 점이 지금까지 해왔던 의미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힘들었어요. 저희가 19년에 부천시 참여 예산제 활동을 좀 해서 저희가 생리대 자판기라는 주제로 참여 예산을 실제로 따낸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색다르고 즐거웠습니다. (청소년참여단-B)

이 밖에도 청소년기본조례는 청소년 육성위원회에 청소년위원을 두도록 규정하여 청소년 참여의 제도적 요건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청소년 육성 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식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참석 자체에 의미를 두는 데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들은 개인의 자격이 아닌 지역 청소년들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의 의제발굴과 해결의 주체가 되길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지역 청소년 정책추진체계 내의 변화가 요구된다.

본인들이 대변자라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거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어른

들을 만나거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만나고 싶은 욕구도 강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참여 예산제나 지방 육성위원회나 부천이 굉장히 많이 그런 데 있어서 청소년 위원들을 많이 포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기분은 하나의 위원으로 존중을 받는다고보다 청소년들이 의견도 냈네, 대견해 하고 끝나는 경우. 의견보다는 참석에 대한 가치에 많이 치중하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아무래도 청소년으로 보이는 거죠. 어리게 보는 것 같아요. (청소년참여단-D)

사실 간단한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학교에서 할 수 있지만 등하교 시간 코로나 걱정 같은 것은 학교 차원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청참위의 역할이 커지는 것 같아요. (청소년참여단-C)

올해는 처음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에 학교밖 청소년이 참여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관심 이슈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 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청소년 시설들 간에 연계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진 점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 논의된 교육의회와의 연계 부분이 나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와 참여의 일상성 확보 문제 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아무래도 저희가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학교밖)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청소년참여단-C)

참 다행인 것이 저희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이 재단 소속이라 재단 산하에 청소년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분들의 담당자분들이 이용하는 단톡방에는 다양한 지역 자원 분들이 모여 있어요. 필요한 정보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건너건너 발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계거리를 찾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서 가능한 한 것 같아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참여단-D)

3. 결론 및 시사점

1) 지역별 질적 분석 결과 종합

이상의 지역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시범사업의 성과를 정리하면 <표 V-3>과 같다. 성과 영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귀납적으로 도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공동의 목적과 비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에 대해 얼마나 공감대와 공통의 비전이 마련되었는가? 2. 파트너십 형성: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해 참여 주체 간 파트너십이 얼마나 형성되었는가? 3. 신뢰와 연대 기반 연계협력: 어떤 연계협력과 학습의 경험이 있었는가? 4. 통합적 문제해결: 지역의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5. 청소년 주도성: 지역 청소년들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고, 청소년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6. 사업기관, 코디네이터, 네트워크의 역할: 네트워크의 성장을 위해 사업기관, 코디네이터, 네트워크의 역할이 충분히 명료화/지원되었는가? 7. 지역사회 영향력: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 8. 지속가능성: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있는가?

표 V-3. 지역별 질적 분석 결과 종합

성과 영역	지역별 분석결과
1. <u>공동의 목적과 비전</u>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에 대해 얼마나 공감대와 공통의 비전이 마련되었는가?	<p>곡성: 청소년의 성장보다 노인의 복지를 더 중시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문화는 균열이 생기고, 청소년을 육성의 관점에서 성장지원의 관점으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됨.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곡성군 전체의 철학적 비전이나 목표로 자리잡게 될 만큼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됨.</p> <p>유성: 분과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소년요구 중심의 청소년성장지원에 대한 공감대와 공통비전을 마련함. 각 분과네트워크별 청소년들의 요구와 정책</p>

성과 영역	지역별 분석결과
	<p>및 실천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분과별 청소년성장지원 목표 설정과 우수사례 성과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의 의의와 지역사회 내 공감대 확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p> <p>부천: 지역 내 청소년 이슈가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소통될 수 있는 구조 마련에 의의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단의 플랫폼 역할이 강화됨. 이슈 중심의 논의구조가 다양하게 작동되고 있는 부천 지역의 특성상 이주배경청소년지원과 같이 청소년과 관련된 지역 내 다양한 이슈들의 해결을 위해 지역 내 책임있는 주체들 간의 협업 경험을 통해 청소년성장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감.</p>
<p>2. 파트너십 형성 :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해 참여 주체 간 파트너십이 얼마나 형성되었는가?</p>	<p>곡성: 2020년도에 곡성미래교육재단이 설립함에 따라 참여 주체 간의 파트너십은 더욱 강력해짐. 그 이유는 재단에 소속된 행정기구(팀)가 그 자체로 네트워크의 성격을 띠기 때문으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는 장학사, 군청의 행정직 공무원, 학교를 대표하는 교사, 민간을 대표하는 청소년기관 전 관장 등이 한 기관 내에서 근무하면서 재단이라는 조직 자체가 네트워크의 실무 역할을 하게 됨.</p> <p>유성: 단일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축하기에는 청소년기관(유성구청 소년수련관 및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역사회 내 영향력이나 연계 협력의 경험이 부족한 환경이었음. 이에 연계협력 기관이나 조직, 연계협력 수준과 주요 목표 설정 등의 파트너십 구축은 각 분과별 청소년의 요구와 여건에 따라 이루어짐. 그 결과 개방형 네트워크의 특성을 지니며, 분과 네트워크별로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이슈와 목표 설정에 따라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연계협력 관계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님.</p> <p>부천: 구체적인 이슈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연대하는 느슨한 참여를 지향함.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은 의견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무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정책의 이행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기 보다는 함께 지역교육을 만들어가는 동등한 협력자로서 지역(그리고 지역 활동가)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p>
<p>3. 신뢰와 연대 기반 연계협력: 어떤 연계협력과 학습의 경험이 있었는가?</p>	<p>곡성: 2019년에 개최된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는 신뢰와 연대 기반 연계협력의 사례를 집약적으로 보여줌.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전체로부터 청소년 성장 지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로 삼았고, 참여주체들은 박람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연대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게 됨.</p>

성과 영역	지역별 분석결과
	<p>유성: 2차년도부터 분과네트워크별로 청소년 중심의 이슈 발굴 및 청소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성과를 거두고 있음. 분과별로 발굴한 청소년 관련 이슈와 현안 모색, 정책화 작업성과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우수사례로 공유하고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개별 분과네트워크의 성공 사례를 지자체 및 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과 공유함. 이를 통해, 3차년도에는 지자체와 교육청로부터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신뢰감을 고취해 나감.</p> <p>부천: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고 점진적으로 연계협력 경험을 쌓아감. 이슈를 중심으로 민간-청소년기관, 재단-교육지원청, 지자체 간에 다양한 자리에서 소통하고 논의하는 경험을 통해, 청소년 문제가 일부 단체의 책임이 아닌 지역 내 여러 책임있는 주체들의 참여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식기반이 마련됨.</p>
<p>4. 통합적 문제해결: 지역의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p>	<p>곡성: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전무했던 석곡권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곡중학교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됨. 더 나아가 다부처 정책연계 사업을 통해 석곡면에 청소년의 성장공간으로서 석곡어울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준비 중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유성: 청소년요구조사를 통해 모아진 주제를 중심으로 6개 분과를 구축하여 지역 내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각 분과별 우수사례를 공유해 나감. 이를 통해 유성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분과네트워크의 강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 연구모임 운영,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p> <p>부천: 이주배경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논의구조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어떤 책임을 맡아 참여할지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음. 지자체/정부 등 행정 주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 필요함.</p>
<p>5. 청소년 주도성: 지역 청소년들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고, 청소년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p>	<p>곡성: 청소년성장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시민으로서의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삶의 주체이자 지역의 주체로서 주도성을 발휘하게 됨.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밖 청소년협동조합을 통해 실제적인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p> <p>유성: 분과네트워크의 구성부터 청소년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청소년성장지원'에 관한 공통의 문제의식 도출, 의제 발굴, 의제의 청소년사업화 및</p>

성과 영역	지역별 분석결과
	<p>정책화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주도성을 실현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모형을 제시함.</p> <p>부천: 청소년참여단 활동으로 청소년기본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학생회와의 통합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참여기구 외에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참여문화를 형성하는 과제가 남아있음.</p>
<p>6. 사업기관, 코디네이터, 네트워크의 역할:</p> <p>네트워크의 성장을 위해 사업기관, 코디네이터, 네트워크의 역할이 충분히 명료화/지원되었는가?</p>	<p>곡성: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중심점이 청소년기관에서 미래교육재단으로 옮겨갔지만 청소년기관은 여전히 청소년성장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수행기관이면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떠받치는 핵심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기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참여주체들이 논의를 통해 보다 더 명료화할 필요가 있음.</p> <p>유성: 네트워크의 성장을 위해 유성구청소년수련관과 유성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노력과 역할은 매우 크며, 네트워크의 주도 기관으로서 역할과 방향도 명확하게 인지함. 분과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기관의 팀장들의 역할이 크게 차지함.</p> <p>부천: 재단/청소년 시설에서 총괄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맡아 협의체 전반의 운영과 분과 내 적극적인 실행의 주체로 활동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플랫폼으로서 재단의 정체성 확립하는데 기여함.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활동가들 간의 연대의식 강화와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함.</p>
<p>7. 지역사회 영향력: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p>	<p>곡성: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지역 전체의 중요한 비전과 철학을 청소년성장에 두게 됨.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에서 분과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현안, 예컨대 석곡면의 청소년시설 부족 등을 발견하게 되면서 석곡어울림센터 건립 등 지역에 청소년 성장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거두게 됨.</p> <p>유성: 청소년 중심의 분과네트워크의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네트워크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청소년정책 성과를 거두고 있음. 또한, 기존의 형식적인 기구로서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 운영의 한계를 벗어나서 실질적인 청소년성장지원이 무엇인지를 지역사회 공동체에 보여줌.</p> <p>부천: 참여 주체들이 기관 고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청소년 중심의 의제 발굴과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논의구조를 마련함. 이슈 중심의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주체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네트워크 문화의 확산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함.</p>

성과 영역	지역별 분석결과
8. 지속가능성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었는가?	<p>곡성: 미래교육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재단에서 향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확장성, 교육기관과의 협력의 용이성 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향후 여가부 시범사업에 참여를 통해 지역 내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를 희망하고 있음.</p>
	<p>유성: 청소년기관에서는 향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p>
	<p>부천: 재단 내 네트워크사업 예산 편성 또는 협의체의 제도화를 고민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의가 진행 중임.</p>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지역에서는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과 관련하여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곡성의 경우 청소년기관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다가 재단 설립으로 중심축이 재단으로 이행되면서 네트워크 안에서 청소년기관의 역할과 위상의 재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소년기관 실무자들은 많은 협력사업에 참여하면서 정서적, 육체적 소진을 경험하게 되었고, 재단 설립으로 청소년 중심의 의제보다는 교육중심으로 관점이 획일화되면서 청소년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되었다. 또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사업 시기나 문화의 차이, 각 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는 다름과 이해 부족 등은 앞으로 네트워크가 성장하는데 주체들 간 소통과 신뢰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성의 경우 유성구청소년수련관과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 청소년기관이 최근에 설립한 신생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성격의 네트워크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지자체나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의 연계협력도 매우 느슨하거나 미약한 수준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관 주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장을 추동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분과네트워크

별 청소년 중심의 우수사례 공유 전략을 통해 네트워크 확산을 추진하였다. 이에 시범사업이후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각 분과네트워크가 향후 얼마나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가 중요하며, 이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지와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부천의 경우, 재단은 초기 청소년 기관 중심의 협력 구조에서 나아가 민관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의 마련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의 플랫폼 역할을 정립해 갈 수 있었다. 향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서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책무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구조를 통해 신뢰 경험을 더욱 쌓아가야 하며, 이 점에서 재단 내 기구로서 네트워크협의체 구조를 추진하는 방식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네트워크가 재단 중심의 운영구조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과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열린 구조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가 지역 전체의 요구와 참여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형성된 의제들이 실제 실행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지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2) 네트워크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시사점

3년이라는 시간은 청소년성장지원에 대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연계협력의 경험을 점진적으로 축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학습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본 시범사업 이후에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세 지역 모두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의 행정기관의 영향력과 함께 민관 협력의 구조를 어떻게 지속해나갈 것인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구축과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거버넌스의 유형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을 구축해 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 지역의 사례와 같이 지역 내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재단, 시설 및 기관들의 지역 내 연계협력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확장함으로써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지역 중심의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전략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 제6장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 중심
거버넌스 구축 정책방안

- 1. 정책방안 개발 과정
- 2. 정책 방안

6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 중심 거버넌스 구축 정책방안¹⁷⁾

1. 정책방안 개발 과정

1) 정책 개발 개요

4~5장에서 제시하였듯이 본 연구를 통해 3년간 운영된 시범사업 성과 분석 결과는 향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지역마다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요구, 참여 주체들의 의지와 역량, 지자체의 관여도, 지역 내 연대·협력의 기반이 상이하다는 점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확산해 가는 데 있어 다양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는 당초 청소년 정책 영역 내 연계협력을 비롯하여 교육, 복지, 행정 등 영역 간 연계협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추진 역량과 행정 기관 간 연계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광역 단위 지원 체계 및 중앙 부처 간 연계협력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전략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정책추진체계를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의 장기적 정책방안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다양한 지역 및 정책 현황 분석을

17) 이 장은 황세영 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토대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전략 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기반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개념 및 운영 모델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1, 2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 분석 결과를 참고하고,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이하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지칭)의 2020~2021년 선정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목적, 연계협력의 주요 고려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네트워크와 관련된 더 많은 지역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의 경우 2020년 시범사업에는 구리시청소년재단, 성남시 청소년재단,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진해청소년수련관이 지자체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운영, 청소년 자원맵 작성, 연계협력을 위한 청소년 의제 개발 등을 시도하였다(김현철 외, 2020). 2021년에는 구리, 성남, 진해 지역이 2차년도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의 운영시스템 강화 및 연계협력의 확대심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구 수성구청청소년수련관이 신규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본 연구과제와 마찬가지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총괄·운영을 맡고 있다.

표 VI-1.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현황

사업주관기관	주요 특징	비고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구리시청소년재단	• 청소년 안전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네트워크에서 확장된 협의체 구성	2020~2021년 시범사업 참여
성남시청 교육청소년과, 성남시청소년재단	• 재단을 중심으로 민간으로 확장된 협의체 구성	
창원시청, 창원진해청소년수련관	• 진해 지역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안주군청 교육지원과, 안주군청소년문화의집	• 아동친화도시정책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2020년 시범 사업 참여
대구 수성구청 교육청소년과 수성구청청소년수련관	• 청소년 시설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2021년 시범 사업 참여

* 출처: 김현철, 최인재, 황세영, 김가희, 이유정 (202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사업.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둘째,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책무 강화방안을 비롯하여 기초, 광역, 중앙 단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1, 2차년도 정책 제안을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다. 또한 관련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을 통해 혁신교육지구사업 및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교육협력의 현황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에 갖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더 나아가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 행정안전부 다부처정책연계 체계구축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정책사업 간의 연결고리를 모색하는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앙 부처 간 실질적인 정책 연계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후 연구진은 이와 같이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책 과제 초안을 개발하였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방안을 제시하였다.

내용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의 전제 조건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방안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모델 도출 청소년 재단 및 시설 현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책무 강화방안 기초/광역/중앙 거버넌스 구축방안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사례 분석 (2020년: 구리, 진해, 성남, 완주, 2021년 신규: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분석 콜로키움(교육, 복지 분야 연계협력 관련) 정책실무협의회(교육부, 행안부 및 여성가족부 정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차년도 연구 네트워크 사례분석 및 정책제안 참고 전문가 자문회의(총 11회, 재단/시설 전문가 14명, 광역단위 센터 5명, 지자체 1명, 학계 3명, 기타 4명) 초안 작성 후 전문가 검토(서면 실시, 자문회의 참석자 포함 11명) 	

그림 VI-1. 정책 개발의 내용과 방법

2)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의 전제 조건

(1)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개념과 지향 가치 도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개념과 목적에 대한 지역 내 주체들 간의 이해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필요와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협력체계”로 정의하였다(최인재 외, 2019, p. 17). 그런데 이는 매우 추상적인 정의로, 실제 지역에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과 ‘네트워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이해는 지역별로, 그리고 참여 주체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곡성군은 인구감소라는 지역적 위기 돌파의 수단으로 청

소년 성장지원을 접근하였고, 지역 내 부족한 청소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지원청, 청소년시설, 학교 등, 관련 주체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상태에서 네트워크의 구성과 참여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부천의 경우 다양한 네트워크가 활발한 지역적 특성상 초반에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주배경 청소년 의제발굴 등, 지역의 이슈에 대해 여러 주체들 간에 논의구조를 경험하면서 네트워크의 목적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유성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발굴한 의제를 중심으로 연계협력 사업을 구상함으로써 청소년 중심성을 부각할 수 있었다.

한편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은 청소년 육성, 안전, 복지, 혹은 교육과의 개념적 차이 속에서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 영역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이미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간의 관계 맺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컨대 유성에서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 안전망과 마을교육공동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맺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는 등,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역할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의견조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대두되었으며, 실제로 다른 개념들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문제와 결핍이 아닌 성장 중심의 접근’, ‘성인 주도가 아닌 청소년 주도의 접근’, ‘정해진 대상이 아닌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 ‘교육의 틀로 규정하는 삶이 아닌 청소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접근’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은 시범사업지역인 곡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관 목표에서도 이미 드러나며, 군포시청소년재단, 광주서구청소년문화의집 등, 일부 청소년 기관에서 표방하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됨으로써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과 지향가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VI-2.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예시)

청소년 성장지원 개념의 차별성(의견조사)	관련 청소년기관 운영 사례
<p>(청소년 육성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상담, 보호, 복지 개별 영역을 넘어서 청소년 성장 전체로서 접근 • 청소년을 문제로 바라보는 '결핍에 대한 해결'의 관점이 아닌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꾸준함이 필요함 • 성인주도가 아닌 청소년주도의 '성장'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청소년들은 어떤 성장을 원하는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청소년들 스스로가 이러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의 활동을 지원 <p>(청소년 안전·복지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및 위기 가능 청소년, 복지혜택 청소년 등 정해진 대상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지원 <p>(교육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중심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삶(총체적인 성장환경, 생애주기, 삶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한 관점으로서의 전환이 필요 	<p>[군포시청소년재단 청소년 성장지원 플랫폼 아이디어 공모전] 군포시 청소년들이 지역의 타인들을 이해하고 공존하며, 군포시의 지속가능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건강한 주체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각종 역량과 관련한 주제 발굴과 지원'</p> <p>[광주서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교육-복지-돌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마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안전망 형성²⁾</p> <p>[곡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통합지원의 허브 기관으로 역할 정립, 활동과 상담의 경계를 넘어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³⁾</p>

※ 전문가 자문 및 아래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1) 군포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https://www.gpyf.or.kr/front/boardView.do?keykind=all&keyword=%ED%94%8C%EB%9E%AB%ED%8F%BC&page_now=&returl=%2Ffront%2FboardList.do&listurl=%2Ffront%2FboardList.do&brd_no=2308003&brd_mgrno=629&menu_no=1087&tab_no=&seq_no=undefined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2) 광주서구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http://seogyouth.com/>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3)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1388.gsyouth.kr/>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한편,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561호)에서는 청소년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육성 개념을 대신하

여 청소년 정책이라는 용어로 통일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제3조 2항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정책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청소년 성장지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책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하게 담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향후 청소년계 전반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표 VI-3.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의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561호)

현행	개정안
제3조 2. “ <u>청소년육성</u> ”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u>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u>	“ <u>청소년정책</u>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등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정책을 말한다.
7. “ <u>청소년지도자</u> ”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u>청소년육성</u> 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청소년정책에
8. “ <u>청소년단체</u> ”란 <u>청소년육성</u> 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8. 청소년정책 이행을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청소년육성</u> 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 출처: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의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561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Z0H1H1Q0I4Y1H7T4U7T1W0Y6R707
 (검색일: 2021년 10월 15일)

‘청소년 성장지원’ 개념은 국가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도적 관점과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협력을 위한 지역적 관점, 이 양 쪽 모두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다양한 관점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담론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 성장지

원 네트워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안전망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제도적 차원에서 설계된 네트워크와 달리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는 아직까지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 의제에 대한 지역 중심의 실천 운동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향성과 원칙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 4~5장의 시범사업 종합성과분석 결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가치를 <표 VI-4 >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개방성과 자발적 참여성’은 네트워크가 특정 기관이나 시설 중심의 운영이 아닌 지역 내 청소년 의제에 관심과 책무가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책무성’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참여 주체들이 실행에 대한 책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청소년 중심성’은 지역 내 모든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넷째, ‘지역 중심성’은 기관이나 조직 또는 정책 영역에 따른 이해관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의 이익과 청소년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주체들의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다섯째, ‘성과 및 책임의 공유’는 네트워크의 성과는 일부 기관의 것이 아닌 모든 참여주체들이 이룬 성과로 여겨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연계협력의 추진 과정에서 역할 분담과 책임 공유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연대 기반 지속가능성’은 네트워크의 성장과 발전의 내부 동력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계협력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포함하는 연대의식의 강화 기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I-4.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가치

-
- **개방성과 자발적 참여성:** 청소년 성장지원이라는 공동 목표의식을 표방하는 주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연계협력의 의지가 있는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 **책임성:** 공동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청소년 중심성:** 지역 내 모든 청소년들의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의제 개발과 실행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 청소년들의 주체적 역할을 전제로 한다.
 - **지역 중심성:** 개별 기관이나 단체 고유의 사업목표나 이해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공적 책임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성과 및 책임의 공유:** 공동의 목표를 선정하고 함께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 이익을 전제로 역할분담을 구조화하고, 성과에 대한 공동 책무와 공정한 분배를 지향한다.
 - **연대 기반 지속가능성:** 참여 주체들 간 연대의식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한 역량강화 기제(교육, 학습모임 등)를 통해 지속적인 실천력을 확보한다.
-

더 나아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각 기관이나 정책 영역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청소년 의제를 다루는 것이 네트워크의 역할이라고 볼 때,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연계협력은 일시적인 교류나 협조 수준을 벗어나 공동의 새로운 목표를 향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지향한다. Milward & Provan(2006)의 네트워크 목적에 따른 유형에 맞추어 본 과제 시범사업과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연계협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VI-5>에서와 같다.

먼저 정보공유는 청소년 의제의 발굴과 주체 간 연대를 위한 공감대 형성의 기초자료를 수집·공유하는 것과 관련되며,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자원 조사와 아카이브 등이 해당된다. 통합적 문제해결 접근은 기존의 정책으로는 포괄하지 못하거나 현재의 서비스로는 충분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연계협력을 통해 방안을 제시하거나, 연계협력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된다. 부천에서 진행된 이주배경청소년지원과 관련된 논의구조의 마련 사례와 청소년기본법 제정 사례, 곡성의 학교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례는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통합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방법과 관련이 깊다. 서비스 제공은 연계협력의 결과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리의 진로박람회, 유성의 참여예산 확보, 곡성의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역량 강화는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 운영의 지속적인 동력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기제로서 중요하다. 곡성의 네트워크 연수프로그램, 부천의 네트워크 파티, 진해의 자조모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참여 주체의 전문성과 책무 강화의 측면에서 진해의 마을단체 지원, 성남의 민간단체 지원도 이에 해당된다.

표 VI-5.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협력의 유형

연계협력의 유형	내용	사례
정보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자원 분포 및 청소년 실태·요구 조사 기관·단체 간 공유된 인식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맵 제작(구리, 성남, 완주, 진해) 유스 아카이브(부천)
통합적 문제 해결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정책으로는 포괄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청소년 의제의 발굴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협력 방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배경청소년지원(부천) 청소년기본조례 제정(부천) 학교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곡성)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협력을 통한 신규/확장 서비스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진로박람회(구리) 청소년문화공간 설치를 위한 참여예산 확보(유성)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곡성)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협력과 민주적 거버넌스의 지속을 위한 학습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기관·단체의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커 연수프로그램(곡성) 네트워크 파티(부천) 자조모임, 마을단체지원(진해) 민간단체 지원(성남)

※ Milward & Provan(2006)의 유형에 따라 연구자 작성

(2) 민관거버넌스의 실행(지원)기구로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체계 마련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개념과 지향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정책 사업이나 제도와 무관하게 지역 활동가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 또는 관련 기관 간 연대의식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예컨대 군산시 청소년자치연구소의 달그락달그락은 청소년들의 필요와 참여에 의해 의제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제로서 네트워크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고, 광주 지역교육공동체 화월주는 어린이·청소년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마을 내 다양한 기관·단체들이 연계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협의와 지원의 주체로서 관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네트워크의 참여 주체로서 네트워크의 의제 설정이나 운영체계 등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이들 사례는 지역 네트워크로서 청소년 시설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논의하는 데 있어 여전히 중요하다. 반면, 본 연구 시범사업에서는 지역별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한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을 두었고, 성과분석 결과 행정기관의 책무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관-관 협력 및 민-민 협력 포함)를 전제로 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형식으로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체계를 제안해보았다(표 VI-6).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다양한 주체 간 협력과 책임있는 참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동의 운영 목적과 운영 목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방식과 이에 따른 실행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 등 여러 층위의 운영구조를 통해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수적이다. 의사결정에 따른 실행은 단순 교류나 협조를 넘어 공동

기획과 역할 분담을 통한 높은 수준의 협업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표 VI-6). 협의체는 다양한 기관, 조직,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참여의 자발성과 목적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학습 및 성과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 그리고 연대의식을 쌓아가는 경험이 협업 역량강화의 주요 학습 기제로서 인정되고, 의사결정과 실행 전반에 따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협의체의 예산은 시범사업과 같이 협의체 운영에 대한 직접 지원예산을 비롯하여, 참여 주체인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확대마련될 수 있다.

표 VI-6.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체계 요소(안)

영역	내용
운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청소년 의제 발굴과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협력과 관련된 공동의 책임과 참여를 명시하는 목적 제시
운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 단계별 협의체 운영 목표 제시와 실행계획 수립 연계협력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목표 제시
의사결정과 실행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 구조화: 협의체/실무/분과 등 구조화 및 의제에 따른 역할분담 청소년 참여: 조사나 수혜의 대상이 아닌 논의와 결정의 주체 실행(공동사업 등): 단순 교류와 협조를 넘어 공동 기획과 역할분담을 통한 실질적인 협업
학습 및 성과 관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와 연대의식, 협업 동기부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습 운영 모니터링 및 피드백: 협의체 운영 과정에 추진 또는 외부 기관에 의한 컨설팅 지원 등 사업효과성, 거버넌스, 지역사회 영향력 등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지원, 기업 등 민간 주체의 공동 부담 등 네트워크 사무 인력 또는 코디네이터 등 활동가 지원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체계가 실제 구조화되어가는 과정은 본 연구의 시범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민관 거버넌

스의 역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가능한 유형들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협의체에서 민관 거버넌스 구조는 주체들의 참여 동기와 역학관계 등에 따라 역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를 지역 내 청소년 기관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먼저 청소년재단형은 부천과 구리의 사례처럼 지자체가 설립한 청소년재단이 네트워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실무적인 역할을 통해 전체 협의체 내 조정자·연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네트워크 등 모든 논의구조에 참여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조정·소통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구리시청소년재단의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협의체 내 실무적인 의사결정을 촉진·조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시설형은 청소년수련관 또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조정자·연결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유성에서는 사업 1차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이, 2차년도 이후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도하여 공동주관기관으로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두 기관은 백석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했다. 곡성에서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기반을 다져왔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시설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지자체형은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관여도가 높은 유형으로, 완주와 대구가 여기에 속한다. 완주의 아동친화도시라는 탄탄한 정책 기반위에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구성되는 장점이 있었으나, 관 주도의 의사결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대구는 현재 협의체 구성의 초기 단계로서 관내 7개 청소년 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마을교육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성구 미래교육지구 사업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다음으로 협의체 운영에 있어 민관의 역동은 청소년 의제의 발굴과 실질적인 연계협력의 양상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성이 크다. 집중형은 사전에 조사되거나 지자체 청소년정책의 우선순위 사항 등이거나에 의해 청소년 의제를 미리 결정하고 협의체의 운영은 실질적인 연계협력의 내용과 방법 등에 초점을

두는 경우로 구리와 곡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참여형은 청소년 의제의 발굴과 선정 과정에 있어 협의체의 논의구조를 충분히 활용하는 경우로 해마다 논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결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협의체 운영 사례를 볼 때 지자체나 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의 개입이 큰 경우 집중형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는 참여형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정책사업과의 연계 정도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의 구조 및 연계협력의 범위에 큰 영향을 준다. 구리 지역의 경우 시범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이 공식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독자형), 시청 평생학습과 내 담당 팀 간 협력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부천의 경우 재단 내 미래교육협력센터가 설치된 이후 교육지원청과 파트너십 형성의 과제를 안고 있다(연계형). 곡성의 경우 미래교육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 사업이 이미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볼 수 있다(결합형). 이러한 정책사업과의 연계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대한 지역 내 관심도와 참여도를 제고하는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표 VI-7.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모델(안)

영역	관련 유형 및 사례
협의체 운영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재단형(조정자·연결자): 예) 부천: 재단이 사무국 역할을 하며 협의체에서 주요 의사결정 도출 구리: 재단이 협의체와 지자체 간 조정·실무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시설형(조정자·연결자): 예) 유성: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시범사업 운영 곡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들이 공동으로 시범사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형: 예) 완주: 아동친화도시 관련 거버넌스의 확장 대구: 지자체 주도의 초기 협의체 구성단계
의사결정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형: 미리 설정된 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연계협력에 초점 예) 구리: 진로 의제 선정, 곡성: 지자체 및 미래교육재단 중심 의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형: 고정된 의제가 아닌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협력해 가는 과정에 초점

영역	관련 유형 및 사례
	예) 부천: 지역 이슈에 따라 분과네트워크를 유연하게 구성 유형: 청소년 요구에 따른 실행의제를 중심으로 분과 구성 진해: 마을네트워크 내 논의에 따라 2021년도 의제 선정
타 정책 사업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형: 예) 구리: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공식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았으나 지자체 평생학습과 내 교육-청소년 팀 간 협력 용이 • 연계형: 예) 부천: 재단 내 미래교육센터 설치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교육지원청간의 연계 수준 높아질 예정 • 결합형: 예) 곡성: 미래교육재단을 중심으로 본 연구 시범사업, 행안부, 교육부 사업이 긴밀하게 결합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민관 협력의 구조로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협의체의 운영에 있어 기관의 주도성이나 관리 측면을 Provan & Kenis(2007)의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표 VI-8>와 같다. 우선 참여기관 운영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참여 주체들 간 수평적 관계와 책임 공유를 전제로 한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사례에서는 주로 민간의 주도성과 자발성이 강한 지역인 진해에서 이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진해는 협의체의 위원장을 마을학교 대표가 맡는 등, 수련관이 주관하는 시범사업임에도 네트워크의 운영 자체는 참여 주체들 간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르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성의 경우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맡고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마을교육공동체, 안전망 등)의 연결지점을 확보·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두 지역 모두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질적인 공동사업의 실행이나 지역 청소년의제 추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책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주도조직 운영 네트워크는 하나의 기관이 비교적 주도권을 가지고 네트워크의 운영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사례 가운데는 지자체 관여도

가 높거나 청소년재단이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주로 해당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협력할 의제를 선정하거나 공동협력사업을 기획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어느 한 주체의 권한만으로는 추진이 어렵고, 여러 주체들 간의 논의와 소통 과정 자체를 중심 가치에 둔다는 점에서 주도조직의 권한은 주로 행정지원과 운영관리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네트워크 내 주체 간 역동성에 따라 네트워크 자체가 진화 및 성장한다는 점에서, 어느 유형이 반드시 바람직하거나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마지막 유형은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운영 및 관리 지원조직을 별도로 두는 경우로 본 과제의 시범사업과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맡고 있는 역할에 가깝다. 네트워크의 확산과 지역적 운영모델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학습 및 성과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협의체 외부의 지원조직의 기능을 통해 확립해 나갈 수 있다.

표 VI-8. 거버넌스 운영조직에 따른 네트워크 유형

네트워크 유형	개념	예시
참여기관 운영 네트워크	수평적·분권적 구조, 의사결정, 내부 운영,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 공유	유성 청소년수련관·상담복지센터 진해 마을네트워크
주도조직 운영 네트워크	하나의 기관이 네트워크의 활동과 의사결정을 주도하여 조정, 주도조직의 목표와 네트워크의 목표 밀접한 관계 형성, 참여조직은 협력과 지원, 주도조직은 행정, 협력과 조정 역할	완주 및 구리에서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 곡성에서 지자체/교육지원청의 주도적 역할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성남청소년재단
네트워크 지원조직	네트워크 활동은 하지 않고 조정과 촉진 역할만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 설치	본 과제 및 여가부 시범사업에서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역할

※ Provan & Kenis(2007)의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연구자 작성

(3) 청소년 재단 및 시설(기관)의 지역 내 연계협력 기능 강화

위에서 제시한대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서 운영 모델과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민-관 협력구조 역시 역동성과 다층성을 지니게 된다. 협의체에서 청소년 시설 및 재단은 민관 협력의 주요 주체이자 더 나아가 조정자 또는 연결자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내 연계협력과 관련된 현실적 맥락과 쟁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사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기관의 지역 내 연계협력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① 지자체 설립 청소년 재단의 현황 및 과제¹⁸⁾

2021년 10월 기준 전국적으로 31개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지리적으로는 경기 지역에 19곳(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연천군), 충청도 지역에 6곳(논산시, 당진시,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경상도 지역에 5곳(대구광역시, 대구 북구, 경상남도, 사천시, 포항시), 전라도 지역에 1곳(전라남도)에서 청소년재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경기도 여주시, 안성시, 오산시와 천안시 등에서 재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¹⁹⁾. 청소년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청소년시설·기관의 통합 운영으로 청소년사업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정책의 공공성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여겨진다(최창욱 외, 2020b).

따라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18) 청소년재단에는 지자체 설립 재단과 민간 설립 재단이 있으며,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에 각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서 민관협력구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지자체 설립 청소년재단의 현황 분석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1.10.01.)

허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며, 실제로 재단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와 관련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아래 <표 VI-9>는 본 연구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부천여성 청소년재단 외에 여러 지역의 청소년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협력 추진 현황을 보여주며,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교육정책과의 연계협력 강화 추세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성남형교육지원단을 비롯하여 군포시청소년재단의 사회적가치혁신센터,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미래교육협력센터 등, 재단 내 지자체-교육지원청 간 협력센터가 설치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올해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더 나아가 통합적 중간지원조직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에 중간기구 역할을 했던 청소년교육센터의 경험을 토대로 아산시청소년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의 경우에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수련시설 거점 다함께 교실’을 운영하면서 원클릭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로, 문화, 공동체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로체험센터의 지원대상에 학교밖청소년과 후기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청소년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의 경우에는 의정부시, 교육청 등이 공동업무협약을 맺고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된 재단-평생학습원 간 연계체제를 구축하였다. 수원시청소년재단의 경우, 재단 내 희망등대(진로직업센터)에 교육청 장학사가 파견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분야와 협력사업이 증가한 것은 기존에 청소년 시설 중심의 네트워크로 제한되었던 것에 비해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협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재단이 지자체-교육지원청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사업실행주체, 혹은 행정 편의성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청소년 중심의 사업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제공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파트너로서의 전문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 시흥시청소년재단의 경우 기존 청소년활동 인증제를 넘어서 지자체와 교육청 공동 인증제 마련이라는 새로운 제도 마련을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청소년 성장지원과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가치가 청소년재단의 설립 비전과 목표에 반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구리시청소년재단의 경우 2020년 설립되어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존의 혁신교육지구,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청소년 안전망 등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축함으로써 빠르게 지역 사회 내 연계협력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아산시청소년재단의 경우 2020년에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지역사회 성장 네트워크 구축을 명시하고, (가칭) 청소년지원협의체운동을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등, 지역 내 연계협력의 허브로서 재단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군포시청소년재단의 경우에는 청소년 성장지원 플랫폼 마련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커먼스(communs)라는 관점에서 지역 내 자원들에 대한 공공성과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공통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모든 청소년재단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네트워크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지역 내·외부적 공감대 형성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 갖는 성격은 지역 내 연계협력 강화에 대한 책무를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청소년시설들이 청소년재단 산하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재단의 규모가 비대해지면서 민간 영역들과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재단 출범 전 청소년 활동가 네트워크인 '푸른모임'을 계승·확장하면서 청소년과 관련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고 네트워크의 역동성을 불어넣는 민간단체의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의 경우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실무협의체 구성을 지역 내 민간단체들에게 개방하고, 재단 내 사업과의 연계성 속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종합하면 지역 내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영역 간 연계협력 및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장점이 있지만, 재단의 규모가 비대해지면서

수평적 관계와 연대의식에 기반한 네트워크 구축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최근 청소년재단에서 교육분야와의 연계협력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은 청소년 성장지원의 비전 확립과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양날의 검과 같이 작용할 수 있다.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이 넓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교육 정책과 청소년 정책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쪽의 일방적인 사업성고를 강조하게 될 때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VI-9. 청소년 재단의 지역 내 연계협력 현황

청소년 재단 (설립연도)	지역 내 연계협력 주요 현황	비고
부천시여성 청소년재단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개발 중심의 사무국(정책기획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연계협력 강화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2021)로 지자체-교육지원청 협력 강화 	본 연구 시범사업 주관기관
성남시 청소년재단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설치하여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청소년성장지원 실무협의체를 통해 민간단체 협력 강화 	여성가족 부 시범 사업 주 관기관
구리시 청소년재단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리혁신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축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청소년 안전망 등을 확장하여 청소년성장 지원 협의체 운영 	
고양시 청소년재단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시설·단체·유관기관·청소년동아리 간 교류회 실시 (2018-2019)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수련시설 거점 다함께 교실을 운영 하여 시설 예산 확보(원클릭 시스템) 및 학교에 양질의 콘텐츠 제공(학생기록부 기재) 진로체험센터 지원대상을 학교밖청소년 및 후기청소년으로 확장 	
의정부시청 소년재단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 의정부시, 지역민간 단체 (30개 단체), 청소년시설 연계 기관과 함께 청소년친화도시 실천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을 (2020년 1차, 2021년 2차) 추진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원과 연계체제 구축 보다 다양한 지역 청소년 의제 형성을 위해 민간영역(청소년단체, 문화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방안 필요 	
수원시 청소년재단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 내 희망등대(진로직업센터)에 교육청 장학사 파견근무 	
시흥시 청소년재단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 교육청 공동 인증제 모색 	

청소년 재단 (설립연도)	지역 내 연계협력 주요 현황	비고
아산시 청소년재단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운영해 온 시민참여학교사업이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운영되며 지원조직 역할을 담당해 옴¹⁾ •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에 '지역사회 성장 네트워크 구축'을 명시하고, (가칭) 청소년 지원 협의체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 제안²⁾ • 행복교육지구의 중간지원조직 설치 논의 시작단계로 청소년재단에서 역할 필요 	
군포시 청소년재단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내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사회적가치혁신센터로 전환하고 후기청소년으로 확장지원, 진로프로그램의 고교학점제 연동 계획 • 청소년 성장지원 플랫폼 아이디어 공모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청소년성장지원에 이바지할 수 있는 커먼즈(communs) 조성 노력³⁾ 	

※ 전문가 자문 및 아래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 1) 김승보(2021). 아산행복교육지구 아산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자문 보고서. 충남행복교육지구 아산 성과보고회 및 2기 업무협약식 발표자료(검색일: 2021년 9월 8일)
- 2) (재)아산시청소년재단(2020). 아산시청소년재단중장기발전계획(2021-2025). p.184.
- 3) 군포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https://www.gpyf.or.kr/front/boardView.do?keykind=all&keyword=%ED%94%8C%EB%9E%AB%ED%8F%BC&page_now=&returl=%2Ffront%2FboardList.do&listurl=%2Ffront%2FboardList.do&brd_no=2308003&brd_mgrno=629&menu_no=1087&tab_no=&seq_no=undefined (검색일: 2021년 10월 1일)

② 청소년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재단에 비교하여 청소년시설은 제한된 규모와 조직 운영상의 여건을 지니며, 기관 고유의 서비스 제공 기능을 고려할 때 모든 시설이 지역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전제할 수 없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서 청소년 시설은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시범사업 운영기관), 하나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연계협력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등, 참여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스펙트럼의 어느 위치에 놓여있는지 청소년 시설이 고유의 영역에만 갇혀있기보다는 청소년 성장지원이라는 지역 전체의 그림을 바라보고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군구 단위 지역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공공 성격을 지닌 청소년시설에서의 지역 내 연계협력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191개소, 청소년문화의집은 29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공이며 운영방식으로는 직영(수련관: 123개소, 문화의집: 110개소), 대행(수련관: 21개소, 문화의집: 15개소), 위탁(수련관: 47개소, 문화의집: 168개소)이 혼재되어 있다²⁰.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부분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21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a, p. 237).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들 시설에서의 지역 내 연계협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청소년 시설의 고유 업무 영역은 주로 청소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제공과 단순 연계 등을 넘어서서 지역 내 청소년 의제의 발굴이나 청소년 관련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또한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행 기관으로서 여러 네트워크에 이미 속해있어 이들 시설에서 주도하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정체성과 범위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유성이나 진해와 같이 시범사업 운영에 있어 지자체 관여도가 낮은 경우 이러한 경향이 컸다. 이들 지역의 경우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찾아오는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중심의 역할을 넘어 ‘지역 청소년 모두를 위한 연계협력’의 목표를 기관의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자 노력하였다. 실제로 청소년 시설의 지역 내 연계협력의 적극성과 전문성은 지역별로, 그리고 시설 간에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시설에서의 지역 내 연계협력 기능 강화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에 있어 활동시설과 상담시설의 역할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소위 활동 시설과 상담 시설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20) 출처: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sSn=704791 (검색일: 2021년 10월 13일)

서비스의 영역에 대한 인식이 고정된 경우 '모든 청소년의 성장'을 표방하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는 활동 시설 위주의 네트워크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유성의 경우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가 시범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청소년 안전망과 차별성있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시범사업이 운영되면서 기존의 안전망에 비해 다양한 민간 영역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협력이 수월해진 경험을 통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곡성군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청소년통합지원의 허브 기관'으로 비전을 재설정하고, 함께 참여한 6개 청소년 시설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활동과 상담의 경계를 넘어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자체 중심의 청소년안전망 운영과 관련하여 민관협력 중심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시범지역의 사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있는 청소년 안전망에 비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방향 수립과 함께 이에 대한 홍보와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시설에서 지역 내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지자체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보라매청소년센터는 서울시 사업인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되면서 청소년 시설 간 협력뿐 아니라 다른 지역 네트워크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해갈 수 있었다. 곡성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력관계 속에 미래교육재단이 출범하면서 청소년 시설의 역할이 사업 실무수행자로 제한될 우려를 안고 있다. 완주는 시범사업 운영을 군청에서 주도했던 경우로, 아동친화도시사업 위주로 협의체가 운영되면서 청소년문화의집 자체의 지역 내 연계협력 역량이 크게 발휘되지 못했던 한계를 지녔다. 광주서구청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에는 화월주라는 지역교육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문화의집이 설립되었고 지역 내 연계협력의 가치를 문화의집 역할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연계협력 기능을 하는 데 있어

지자체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 결국 청소년 시설의 지역 내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지원은 중요하긴 하지만 이는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일방적인 주도권이 아닌 청소년 시설의 전문성과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 내 연계협력 활동은 그 자체로도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청소년 시설에 협력사업 등 추가적인 사업 수행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청소년 시설의 조직운영과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곡성의 경우 미래교육재단의 여러 사업을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하면서 사업 규모는 크게 늘었으나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무자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와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의 범위와 예산규모상의 제약으로 코디네이터 인건비 비중이 매우 낮았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서울시에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사업을 운영 하면서 지역 네트워킹과 협력망 구축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청소년코디네이터를 지원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2021년 현재 서울시 21개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1). 다른 한편으로 활동이나 상담 등 영역 내 전문성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연계협력의 촉진자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도자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청소년 시설들의 연계협력에 대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광역 단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상담복지센터(또는 재단), 등의 기관과,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지도자협회 등, 청소년 유관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지도자의 역량강화뿐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의 요구조사와 행정기관과의 연계협력 등, 청소년시설에서 다루기 어려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표 VI-10. 청소년 시설의 지역 내 연계협력 현황

청소년시설 (설립연도)	지역 내 연계협력 주요 현황	비고
유성구청소년수련관(2016)/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해 청소년안전망, 마을교육공동체 등 기존 네트워크 간 연결 •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 협력 어려움 	본 연구 시범사업 운영기관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비전을 ‘청소년 통합지원의 허브 기관’으로 설정 • 미래교육재단의 설립 이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비전 재설정 필요 • 지자체, 교육지원청 간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나 사업실무 역할에 한정될 우려 	
진해청소년수련관(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계협력 동력 마련 •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 협력 어려움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운영기관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직업체험 및 마을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지원청 연계 활발 •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사업 위주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한계 	
대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시설 중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초기 단계 • 수성구청 교육지원과와 긴밀한 협력관계 	
보라매청소년센터(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선정되어 아동, 여성, 복지 분야 협의체 및 주민자치회 등 연계 강화 • 서울시 사업으로 청소년 코디네이터 배치 	
광주서구청소년문화의집(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에서 위탁 운영 • 네트워크 구성원 간 신뢰형성 및 상호 성장의 가치 강조 • 동단위 협의체 운영 등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 전문가 자문 및 아래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김현철, 최인재, 황세영, 김기희, 이유정 (202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사업.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 전략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이슈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과 네트워크의 지향가치 도출과 관련하여, 국가 수준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개념을 확립하고, 동시에 지역 수준의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담론의 확산을 통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이 구축·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의 확산성과 높은 수준의 연계협력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영역 간 연계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추동하는 청소년 재단 및 시설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들 기관 및 시설의 역량강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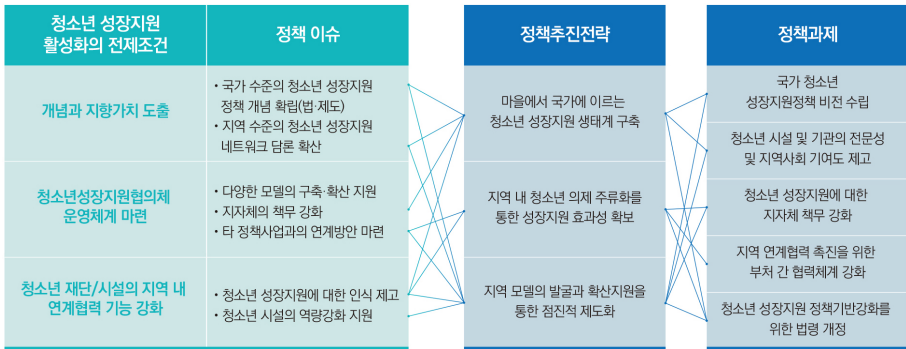


그림 VI-2.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조건-전략-정책과제 흐름도

이러한 정책 이슈를 다각도로 접근해 가는 데 있어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추진전략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01 마을에서 국가에 이르는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계 구축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이 모든 청소년들을 포괄하여 이들의 삶 전반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마을** 단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청소년 시설들은 마을에서 청소년과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기관으로서, 청소년들의 주체적이고 안전한 성장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련된 주체들 간의 연계협력이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민관협력 실행거버넌스로서 기능해야 한다. 지역 내 청소년 시설 또는 재단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시·군·구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은 협의체의 운영과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의 실행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 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청소년지도사협회 등과 함께 청소년 시설·단체·지도자의 지역 내 연계협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청소년 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내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는 기초 단위 청소년성장지원 실행모델을 확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은 지역별로 다양한 모델이 운영·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과 예산 지원의 책무를 가져야 한다. 광역 단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활동과 상담복지 영역에서 지도자들의 연계협력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청소년 성장과 관련된 의제 발굴에 필요한 기초 조사 및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이러한 지역 중심의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로서 청소년 성장지원 지역 모델의 확산과 청소년 시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 행정기관 간 연계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간 연계 협력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02 지역 내 청소년 의제 주류화를 통한 성장지원 효과성 확보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의 발굴과 실행 과정은 기존의 청소년 정책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보완하는 것을 넘어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따라서 청소년 성장지원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공감대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구성은 청소년시설 중심의 운영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주체들 간 소통과 의사결정의 구조마련에 집중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시설뿐 아니라 교육, 복지, 행정 등 정책유관 네트워크와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 성장지원 의제가 담론으로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예산확보, 청소년 시설 및 민간단체 지원,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 등, 제반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성장지원의 효과는 결국 청소년의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는 지역 청소년들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이들의 참여로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03 지역 모델의 발굴과 확산지원을 통한 점진적 제도화

네트워크는 성장과 학습을 통해 발전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모델로 접근되어야 한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어느 한 주체의 주도권을 가정하지 않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은 네트워크의 지향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의체가 의사결정 권한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별로 협의체 운영모델이 정착되기 위한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해 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교육공동체 등과의 제도적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지역 모델의 발굴과 확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성장지원 및 지역 중심 거버넌스 강화와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2. 정책 방안

정책 과제 01

국가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비전 수립

제안 배경

마을에서 국가에 이르는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은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는 지자체와 청소년시설 등이 지역 내 생태계 조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의 확대개편 전략을 통해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다양한 실행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광역 지자체 수준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성과를 근거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추진체계 구축’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시범사업 확대개편 전략

2020년 시작된 시범사업은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관하에 4개 기초 지자체와 청소년 기관·시설 간의 컨소시엄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축·운영을 통해 지역 모델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모델 확산과 기초-광역 지원체계마련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의 시범사업 기간에 맞추어 내년까지 3년간의 사업기간을 설정하고(1단계), 단계적인 확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는 기초 지자체 범위에서 모델을 발굴하는 단계로, 2022년에는 성과지표(지역사회청소년성장영향지표) 개발을 통해 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2단계 사업 확대개편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내년 이후 2단계 진입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장기 사업계획 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광역 지자체 지원체계를 갖추으로써 광역 단위 지역 모델을 확산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둔다. 2단계 진입 지역에서는 사업 공모시 지자체(광역 및 기초)의 예산을 매칭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공동협력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한다. 한편으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또는 재단)에서 청소년 시설·기관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광역 수준의 지역 모델을 확산·지원한다. 진해 지역의 경우 작년부터 시범사업에 경남 청소년지원재단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어 협의체 참여기관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고 향후 자체적인 광역 모델을 고려하고 있어, 이와 같은 단계적 확산 가능성에 현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지역 모델의 확산에 따른 컨설팅·아카데미 운영과 성과평가 관련 예산도 확대·편성한다. 특히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과 네트워크 활동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3단계는 전국적인 확산 단계로 광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통해 기초 지자체 단위

의 실행 모델을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둔다. 이 단계에서는 광역 단위 자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초 지자체 실행 모델을 발굴·확산하도록 하며, 필요시 광역거점센터를 지정하여 다른 시도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컨설팅·아카데미·네트워커 양성은 계속해서 추진하여 현장 전문가의 양성과 지역 네트워크 활동의 지속적인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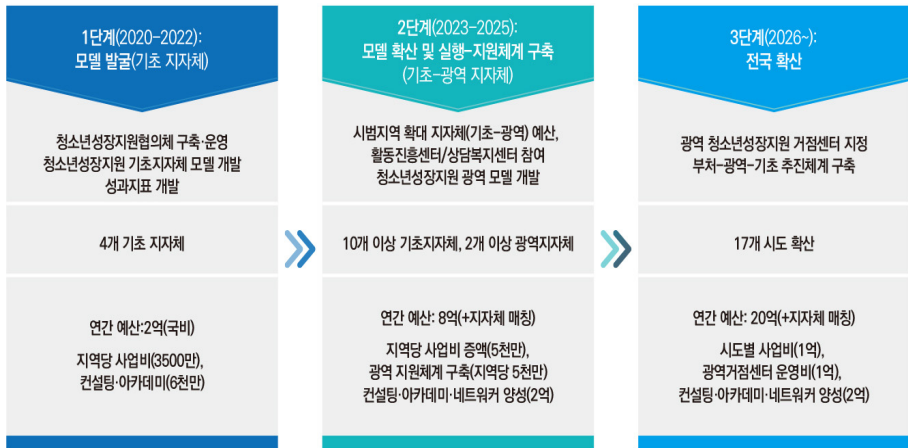


그림 VI-3.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개편전략

내년은 1단계 사업의 마지막 해로서, 2단계 진입을 위한 준비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3년차 운영지역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여 협의체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사전 협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1단계 3개년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2단계 사업 확장의 근거 마련을 위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지역별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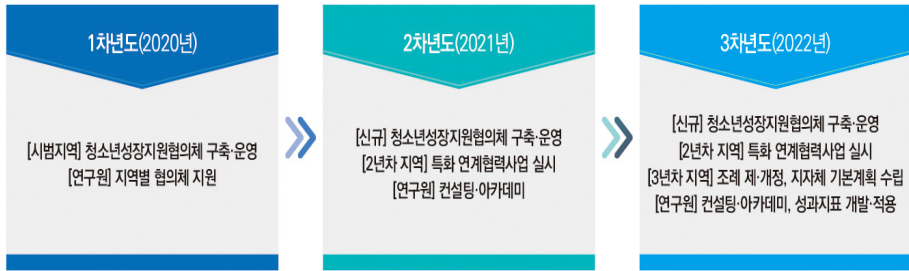


그림 VI-4. 1단계 사업 세부 추진내용

1-2 국가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중장기 계획 마련(제7차 청소년기본계획)

시범사업 확대개편을 통해 지역 중심의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수준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중장기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기적으로는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에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추진체계 구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점차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추진체계 구축은 통합성, 유기성, 효과성이라는 명확한 목표하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통합성은 지역 내 여러 영역과 정책 간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유기성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등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연계협력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효과성은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영향지표'와 같은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연계협력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특징으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아래 <그림 VI-5>와 같다. 6차 기본계획에서는 관련 정책과제들이 산발적으로 제시되었다면, 7차 기본계획에서는 뚜렷한 정책 목표하에 관련 내용들을 확대·지속하는 방향으로 정책과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제안 과제의 내용은 아래 제안된 과제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그림 VI-5.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3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확보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예산 외에도 실질적인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시범사업 이후를 고려한 안정적 자원 확보 역시 필요하다. 이에 시범사업 운영 지자체의 경우 현행 전액 국비 지원에서 앞으로는 지자체 매칭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 내 예산 확보를 위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시 지자체-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경비 예산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학교협력사업 지출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교육 지구 사업의 경우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청소년 활동이나 자치 관련 많은 사업이 실제로는 청소년 시설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경비의 활용 근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자원 확보의 출처를 다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구리와 성남 지역의 경우 협의체 의제와 기업 사회공헌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운영시 컨설팅·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 기관·시설에서 기업 사회공헌사업을 연계·추진할 수 있는 역량강화 워크숍 등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제안 배경

지역 중심의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 활동의 주체인 청소년 시설 및 기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청소년 시설은 기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의 영역에 갇혀있기보다는 지역 내 청소년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능한 연계협력의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광역 단위의 활동진흥센터와 상담복지센터 등은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청소년 시설의 비전 정립과 청소년 지도자의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2-1 지역사회 연계협력 우수 사례 확산 및 지원(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 개최 등)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에서의 주도적인 참여는 지역 내 다양한 청소년 관련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 지역 청소년 의제를 발굴하고 연계협력의 방법을 찾기 위한 통합적인 시각, 단순 교류나 협조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협업 역량 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청소년 기관 및 시설들이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학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도자들의 실질적인 경험 축적과 기관 전체의 비전 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본 과제 및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협력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 모델을 홍보하는 등 현장 활동가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박람회는 우수 사례 발표, 정책 이슈 토론회, 현장 활동가 포럼 등, 다양한 형식을 포함할 수 있다.

표 VI-11.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 주요 내용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 주요 내용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모델 홍보 우수 사례 발표 정책 이슈 토론회 현장 활동가 포럼
예산: 시범사업

한편으로는 광역 단위 청소년기관(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수련시설협회 등)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확산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경우, 현재도 청소년 활동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청소년 사업 지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2020) 사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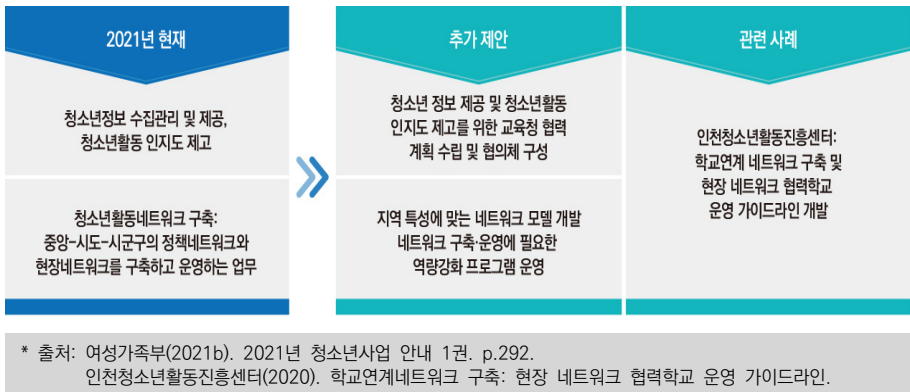


그림 VI-6.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업무 지침 수정 제안

청소년 시설의 지역사회 연계협력 기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련시설 평가 지표에 지역사회 연계협력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평가지표에는 대외협력 및 홍보 항목에서 일부 연계협력 기능

을 강조하고 있으나, 배점이 5점에 불과하며 내용상으로도 시설 간 차별성을 드러 내기에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연계협력의 지속성과 실제 효과성을 중심으로 평가 지표와 요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즉시 실행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확대되고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청소년 시설들의 인식 제고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VI-12. 청소년 수련관 평가지표 추가 제안

평가지표	요사항목
대외협력 및 참여정도	1) 대외협력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2) 연계대상 및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3)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활동의 노력수준	1)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
	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 홍보대상별 홍보방법이 적합하다.
	4) 청소년활동 성과중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다.
↓	
지역사회 연계협력 지 속성(추가 제안)	1) 지역사회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2)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협력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3)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다.
	4)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위한 조직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지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 시설. pp.41-42.

2-2 지역 네트워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성장지원 아카데미 운영 확대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네트워크의 양성은 필수적이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협의체가 운영되고, 민관 협력의 역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 확보와 지속적인 활동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네트워크의 양성은 현재 시범사업에 운영하는 청소년 성장지원 아카데미의 참여 대상과 내용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제안해보고자 한다. 2021년의 경우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범사업 참여 기관 및 네트워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가 강의 및 사례 발표 등을 중심으로 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본격적인 지역 네트워크의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상담복지개발원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운영 방식은 청소년활동진흥원의 혁신리더 아카데미를 모델로 하여 1기, 2기 등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 및 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1).

	2021년 시범사업	제안
운영 주체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활동진흥원·상담복지개발원 공동 개발 및 시범 운영 향후 시도센터, 시설협회 등이 협력하여 지역별 운영
참가 대상	시범사업 참여 기관 및 네트워크 참여자 20여명	청소년 시설 및 기관 종사자 50여명
목적	시범사업 운영 역량강화	▶▶ 청소년성장지원 현장전문가 양성(기수제)
주요 내용	청소년성장지원 사업안내 유관 정책분야 전문가 강의 청소년성장지원 네트워크 사례 발표 네트워크 강의	청소년성장지원 정책 이해 활동, 상담복지 연계 운영 사례 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지역사회 연계협력 실습
예산	150만원(강의료)	3천만원 (교육과정개발, 워크숍, 책자제작비 등)

그림 VI-7. 지역 네트워크 양성 프로그램(안)

2-3 통합형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실시(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 성장지원은 여러 영역 간 협력과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을 지원해나가야 한다. 첫 출발 시도로서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청소년성장지원’ 영역을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청소년참여위원회 중심의 활동에서 나아가 주민자치와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활동·상담이 융합된 지역 특화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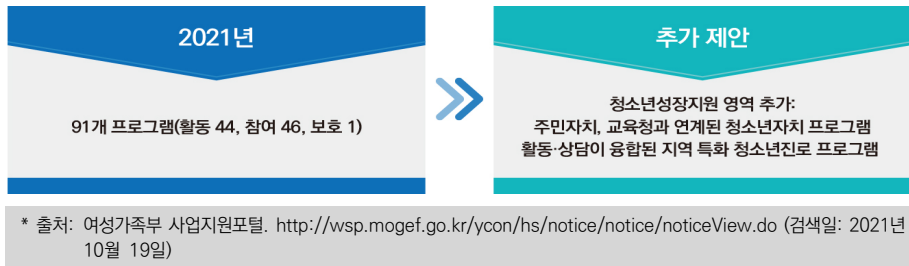


그림 VI-8. 통합형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제안

2-4 시도 청소년성장지원 거점센터 지정·운영

1-1. 시범사업의 확대개편 전략에 제안하였듯이, 광역 수준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전국적인 지역 모델 확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광역 단위 청소년성장지원 거점센터의 지정을 고려할 수 있다. 센터의 지정은 2단계 사업 이후 시범사업 참여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상담복지센터(또는 컨소시엄) 가운데 지정할 수 있으며, 거점센터로서의 과업으로는 타 시도센터 지원, 청소년성장지원 거버넌스 우수사례 확산, 네트워크 양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유사 사례로 여성가족부의 성인지정책 분석평가운영(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운영)²¹⁾ 등을

21)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wdi.re.kr/center/gja/rule.do> (검색일: 2021년 10월 19일)

참고할 수 있으며,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기초-광역-국가 수준의 체계구축에 대한 논의를 정교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03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지자체 책무 강화

제안 배경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연계협력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무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다양한 모델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책무 역시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지향가치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에 기여하고, 행정적 지원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지자체의 책무 강화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홍보 및 지자체 컨설팅 실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정책적, 제도적 체계가 미흡한 상태로 인해 지자체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시범사업 지역에서도 지역마다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와 관심도에는 편차가 있어 사업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본 사업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을 충분히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는 지역 여건(지역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이슈, 지자체 청소년정책 여건, 민관 협력의 경험, 청소년 시설·기관의 지역 내 역할)

등에 따라 추진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추진여건에 대한 기초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22년 기본연구로 인구소멸위기지역 관련 연구와 지방정부 청소년정책인프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관련 청소년정책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자체 추진전략 수립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 여성가족부,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성장지원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역 청소년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고유의 청소년 성장지원과제 발굴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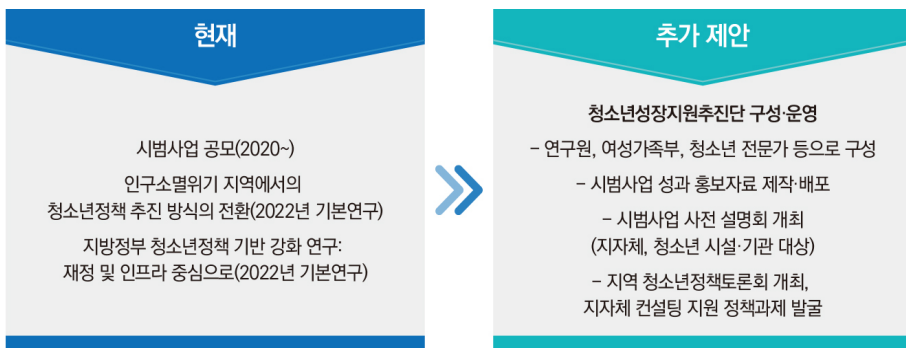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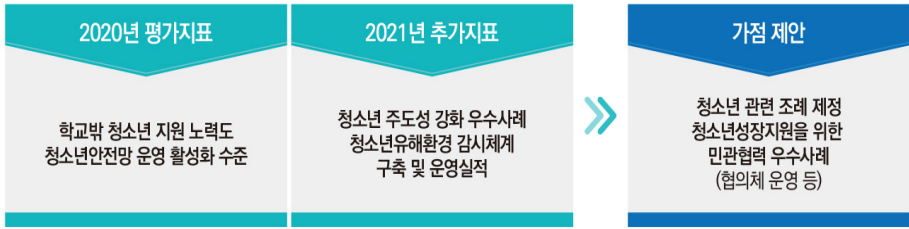


그림 VI-9. 청소년성장지원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한 지자체 홍보·컨설팅 방안

이를 통해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 역량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평가지표항목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및 정책을 대상 범위로 하므로, 가점을 통해 평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관련된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등 민관협력 우수사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2021b).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 1권. p.63.

그림 VI-10. 지자체 합동평가 가점 제안

3-2 민관협력을 통한 청소년성장지원 연간계획 수립(지자체)

본 연구의 시범사업에서 보듯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서 논의된 제안들이 실제 실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의 경우 연간 청소년성장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 논의구조와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을 연동하는 등, 실질적인 실행력 마련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는 지자체 청소년시행계획 수립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 내 연계협력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민관협력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컨설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VI-11. 지자체 청소년성장지원 계획수립 방안

3-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동력 마련을 위한 청소년 자치 활성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지향가치로 제시하였듯이 ‘청소년 중심성’은 청소년 정책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에는 민관의 기관·단체들만을 주체로 한정짓지 않고 실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의 가장 효과적인 명분인 청소년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는 참여위원회의 제안사항을 지자체 정책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가능하다(아래 5-1 조례 제·개정 참조). 또한 최근 주민자치회 또는 혁신교육지구 거버넌스 내 청소년분과가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가는 추세로 볼 때, 이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활동과 연계하여 기존의 청소년 참여기구 중심의 활동에서 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참여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청소년교육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협력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청소년 분과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히 분과를 구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역 청소년 시설을 통해 코디네이터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자치의 다양한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자치활동 종합정보망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참여포털 내 지역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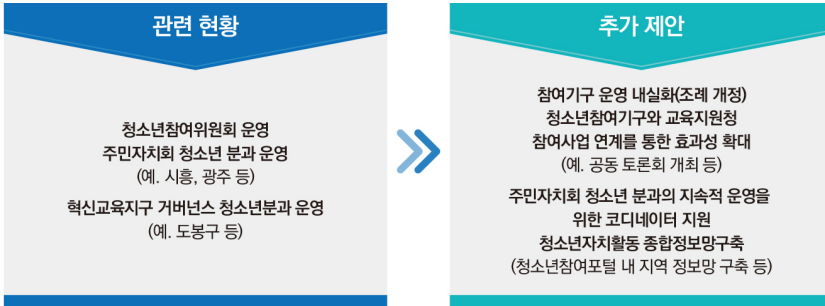


그림 VI-12. 청소년자치 활성화 제안²²⁾

3-4 청소년 성장지원 전담인력 확보(지자체)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지닌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는 시범사업 예산에서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운영 실무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향후 기초 지자체 단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확산될 것을 고려할 때,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이에 2단계 시범사업 추진시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의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21개 청소년센터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지역 내 청소년자원 연계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서울특별시, 2021), 이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 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2) 관련 현황 출처:

도봉구청·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2021).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도봉지구 2021년 사업실행계획서.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2020). 보도자료: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발굴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2020.8.19).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lId=79441검색일: 2021년 10월 19일.
시흥신문(2021.5.18.). 신천동 청소년주민자치회 출범. <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712>. 검색일: 2021년 10월 19일.



그림 VI-13. 청소년 성장지원 전담인력 확보(안)

정책과제 04 지역 내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제안 배경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 내 다양한 기관 간 연계협력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 협의·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관련성이 높은 교육정책과 지역발전과 관련된 다부처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1 지역 청소년교육협력을 위한 교육부-여성가족부 협약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에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 행정기관 간 협력은 네트워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는 촉매로서 매우 중요하다. 시범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협의체 논의구조 마련을 통해 교육지원청과의 연계협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 간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에 지역 수준에서의 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청소년활동, 청소년 자

치와 중복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학교 밖 기관들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청소년교육협력을 위한 교육부-여성가족부 간 협약’ 체결을 제안하고자 한다. 협약은 큰 틀에서 정책 영역 간 협력 사항을 제시하고, 지역에서 협력모델을 만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시도교육청,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청소년교육협력단’ 구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협력단의 구성은 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육분야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제인 교육정책네트워크²³⁾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다. 협력단은 공동연구로 출발하여 지역별 실태 파악을 먼저 한 후, 부처 간 협력방안 및 각 주체의 역할들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들은 선도지역 선정 등,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사업을 통해 공동 추진되어 협력모델을 만들어가고, 이후 우수 사례 확산과 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 VI-13. 지역 청소년교육협력을 위한 교육부-여성가족부 간 협약(안)

협약 주요 내용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청소년교육협력의 주체로서 교육청, 학교, 청소년 기관·시설, 청소년 간 협력 증진 지역 청소년·교육 거버넌스 내 상호 협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과 청소년활동 연계 정보·자원·공간 공유 및 통합방안 마련 교육과정 개발, 청소년자치, 청소년공간 확보 등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교사-청소년지도자 네트워크 구축 	<p>지역청소년교육협력단 구성(부처, 시도교육청, 청소년정책연구원, 교육개발원 등) ⇒ 공동실태조사 실시 ⇒ 중앙부처, 교육청 추진과제 발굴 ⇒ 선도지역 지정 및 협의체 운영 (혁신교육지구사업 및 청소년성장지원사업과 연계) ⇒ 우수 사례 확보 및 확산, 조례·교육청 평가 등 제도개선</p>

2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s://edpolicy.kedi.re.kr/frt/contents.do?strCurMenuId=45> (검색일: 2021년 10월 19일)

4-2 교육부-여성가족부 정책사업 연계를 통한 청소년교육정책협력 모델 도출

위에 제시한 협약 추진의 실마리는 두 부처 간 정책사업 협의를 통해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은 혁신교육 지구의 확장 버전으로 지역 내 중앙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교육거버넌스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방과후 활동, 학교밖 청소년 및 위기학생 지원, 청소년 자치 등은 청소년 성장지원과 연계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두 정책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 사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협력모델의 확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표 VI-14. 교육부-여성가족부 정책사업 연계방안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 현황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연계 방안
2020년 10개 지구, 2021년 12개 지구 선정. 지역 특화모델: 지역연계 마을 방과후 활성화, 학교밖 청소년 및 위기학생 지원, 마을 연계 교육과정 개발, 주민자치회와 마을교육자치 연계, 부처사업 협력모델 개발 등	해당 지역 청소년 기관·시설 연계협력 현황 파악 ⇒ 교육부-여성가족부 협의회 실시 ⇒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협약 추진 ⇒ 교육협력모델 확산

* 출처: 교육부(2020). 2021년 미래교육지구(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공모 계획(내부자료).

4-3 지역 발전 사업과 청소년 정책 연계 추진

지자체 청소년 성장지원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있어 청소년 성장지원이 지역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곡성군은 인구 소멸이라는 지역전체의 과제를 풀어감에 있어 청소년성장지원을 중요한 동력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정부는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을 확대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에 나섰다²⁴⁾.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부처 추진사업에서 청소년 의제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행안부 지역사회활성화 계획(곡성군 참여)에 따른 다부처연계사업에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이 참여하여 협력 사례를 개발할 수 있다. 이 사업의 경우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도 협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처 간 협력체계 마련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와 여성가족부 간 협의가 진행되었고, 행안부에서 현재 이 사업을 뉴딜사업으로 확장하여 추가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 협력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표 VI-15. 지역발전연계 강화를 위한 행안부-여성가족부 협력방안

(예시)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활성화 계획	연계 방안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체·복지·교육·문화 분야 관련 지역 대상 국가사업의 연계·통합 지원 중앙부처-지자체 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연계지원	행안부·여성가족부 협의(2021.9) ⇒ 행안부 뉴딜 예산 확보(진행 중) 행안부·여성가족부 시범사업 협약 추진 ⇒ 추가 시범사업지역 지정 ⇒ 지역발전협력모델 개발 및 확산

* 출처: 행정안전부(2021). 지역주도계획수립-부처연계지원체계구축: ‘지역사회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내부자료).

24) 문화일보 (2021.10.18.). “지방소멸 막는다”. 매년 1조씩 10년간 지원. <https://news.v.daum.net/v/20211018115052839> (검색일: 2021년 10월 18일)

제안 배경

지역 중심의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모델을 확산·지원하면서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청소년 성장지원의 지역적 모델을 확산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제도구축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 전략을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5-1 청소년 관련 조례 제·개정 확산

조례 제·개정은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지자체 책무를 강화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으며, 지역의 여건과 네트워크(협의체) 활성화 정도에 따라 아래의 내용들을 동시에 또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조례 제·개정은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컨설팅을 통해 추진하여 사례를 만들고, 이후 점차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지자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 의사결정 기구의 기능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청소년 육성위원회조례의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육성위원회와 참여위원회 등을 포괄하는 청소년기본조례의 제정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여기에

청소년위원 위촉 의무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제안 실현을 위한 지자체 책무 강화,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민관협력 강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청소년 기본조례는 서울, 광주, 대전, 수원, 오산 등에서 제정되어 있고, 경기도는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전국적인 확산이 기대된다. 이에 올해 제정된 부천시 청소년기본조례의 틀을 참고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VI-16. 청소년 기본조례 제·개정안

[참고] 부천시 청소년 기본조례	청소년 기본조례 추가반영제안
<p>제3장 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제12조(의견 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p>	<p>(신설) ③ 소관부서에서는 참여위원회의 제안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장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p>	<p>제2장 청소년정책 시행계획[기본법 개정에 따라 향후 변경 필요] (개정)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 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시장은 청소년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부서에 법 제25조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²⁵⁾.</p>
<p>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공무원</p>	<p>(신설) 5. 청소년 지도자 또는 청소년관련 협의체 대표</p>

[참고] 부천시 청소년 기본조례	청소년 기본조례 추가반영제안
3. 청소년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6조에 따른 참여위원회 위원	

* 출처: 부천시 청소년 기본조례 제·개정안,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천시청소년기본조례/\(3688,20210520\)](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천시청소년기본조례/(3688,20210520)) (검색일: 2021년 10월 17일)

두 번째는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청소년 시설·기관의 지역 내 연계협력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2021년 8월 이용호 의원 등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수립·실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마을교육공동체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기초 단위 조례 제정이 확산 중에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주체 중 청소년 시설·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조례에 반영할 가치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를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나 광주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경남과 세종 등은 청소년기본법(학교교육과의 연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구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조례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를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분야와의 연계협력,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 등을 명시하여 마을교육공동체와 청소년 성장지원 간의 연계 수준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례 제·개정 방식은 시범사업 지역 가운데 마을교육공동체와의 연계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25)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조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기본조례/\(1822,20210930\)](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기본조례/(1822,20210930)) (검색일: 2021년 10월 17일)

표 VI-17.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제·개정안

[참고]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	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 교육력 제고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시민단체, 주민 등이 협력·지원·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p>(개정) 2.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 교육력 제고와 지역사회 청소년의 성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시민단체, 청소년 시설·기관, 청소년, 주민 등이 협력·지원·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p>

* 출처: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친화적마을교육공동체조성에관한조례/\(5165.20190301\)](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친화적마을교육공동체조성에관한조례/(5165.20190301)) (검색일: 2021년 10월 17일)

세 번째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2차년도 연구(최인재 외, 2020)에서 조례의 구성요소와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협의체 조례’ 제정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 가운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성과가 확인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협의체 운영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제정할 수도 있고, 청소년기본조례 또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내 조항으로도 가능하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기본조례의 경우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어, 여기에 지역 내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의 사업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표 VI-18.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조례 안

[참고]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조항 제안
<p>제5조(청소년육성사업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3. 청소년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 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양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체육 등의 활동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p>②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부서에 법 제25조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p>	<p>(신설) 7. 지역 청소년의 성장지원 요구조사, 지역 자원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 등의 운영 지원</p>

* 출처: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기본조례/\(1822,20210930\)](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기본조례/(1822,20210930)) (검색일: 2021년 10월 17일)

또한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지역인 진해의 경우 청소년육성위원회 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협의체 구성과 조직, 간사조직을 청소년시설에 위탁,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협의체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로서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5-2 청소년 기본법 개정(청소년 성장지원 근거 마련)

청소년 성장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기본법 개정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561호)은 이미 청소년 육성을 청소년의 주도적, 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청소년 ‘육성’을 ‘정책’으로 일괄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기본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청소년정책의 정의에 청소년 성장지원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등의 시책을 통해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내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청소년 성장지원의 정책 범위로 삼을 필요가 있다.

표 VI-19.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제안
<p>제3조</p> <p>2. “청소년정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정책을 말한다.</p> <p>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p> <p>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p> <p>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성장에 유해한</p>	<p>제3조 2항의 청소년정책의 정의에 청소년 성장지원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내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청소년 성장지원의 시책으로 삼도록 함.</p>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제안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이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561호), 국회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Z0H1H1Q0I4Y1H7T4U7T1W0Y6R7O7
 (검색일: 2021년 10월 15일)

한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 조항에 대해서는 1차년도 연구(최인재 외, 2019)에 이미 제안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교육기본법상에 마을교육공동체 조항을 마련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²⁶⁾.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역별로 확산되고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 성장지원 또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별 모델이 어느 정도 확산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3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청소년활동진흥원 및 활동진흥센터의 연계협력 기능 강화)

위의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성장지원 시책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연계협력의 범위를 강조하는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 우선은 학교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청소년활동분야에 대한 법 개정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4-1의 부처간 협약 추진 사항에 포함). 먼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서 ‘육성’을 ‘성장지원’으로 수정하여 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능에 성장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2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대안가결). 국회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Q1N0O8N1F2C1C0B1Z0E5F9H5X4C4 (검색일: 2021년 10월 18일)

또한 제7조와 9조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기능으로 지역 내 연계협력 지원 기능 강화와 교육청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센터 기능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표 VI-20.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현행	개정 방향(안)
<p>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3. 2., 2017. 3.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8. 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p>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제18조의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대한 지원 11.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 등 <u>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u> 2. <u>청소년 성장지원에</u>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p><이하 동일></p>

현행	개정 방향(안)
<p>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p> <p>12.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7조</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신설) 5.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지원</p> <p>(신설) 6. 청소년시설의 지역사회 연계협력에 대한 지원</p>
<p>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수련 시설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p> <p>④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생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할 때 필요하면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u>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u></p> <p>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 지역 <u>교육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u>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 출처: 청소년활동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 (검색일: 2021년 10월 17일)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추진 시기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연계추진	주관
		단기	중·장기		
1. 국가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비전 수립	1-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시범사업 확대개편 전략	●	●	○	여성가족부
	1-2. 국가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중장기 계획 마련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	●	●	○	여성가족부
	1-3. 청소년 성장지원 재원 확보		●	○	여성가족부, 지자체
2. 청소년 시설과 기관의 전문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2-1. 지역사회 연계협력 우수 사례 확산 및 지원	●	●	○	여성가족부
	2-2. 지역 네트워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성장지원 아카데미 운영 확대	●		○	여성가족부
	2-3. 통합형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실시	●			청소년활동진흥원
	2-4. 시도 청소년성장지원 거점센터 지정·운영		●	○	여성가족부
3.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지자체 책무 강화	3-1.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홍보 및 지자체 컨설팅 실시	●		○	여성가족부
	3-2. 민관협력을 통한 청소년성장지원 연간계획 수립	●		○	지자체
	3-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동력 마련을 위한 청소년 자치 활성화		●		지자체
	3-4. 청소년 성장지원 전담인력 확보		●	○	지자체
4. 지역 내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4-1. 지역 청소년교육협력을 위한 교육부-여성가족부 협약		●	○	여성가족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4-2. 교육부-여성가족부 정책사업 연계를 통한 청소년교육정책협력 모델 도출	●	●	○	여성가족부, 교육부
	4-3. 지역 발전 사업과 청소년 정책 연계 추진	●	●	○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5.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기반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5-1. 청소년 관련 조례 제·개정 확산	●	●	○	지자체
	5-2. 청소년 기본법 개정		●		여성가족부
	5-3.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		여성가족부

그림 VI-14. 정책추진 로드맵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경균, 성윤숙, 김승보, 장현진 (2019).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연구보고 19-R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강혜규, 안수란, 류진아, 엄태영, 진재문, 홍재봉, 유애정, 권영빈 (2018).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 II: 지역 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8-10.).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광용 (2014). 자치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비교연구: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131-159.
-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1a). **3차년도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1b). **3차년도 최종 사업보고서**.
- 곽기영 (2019). **소셜 네트워크 분석**. 서울: 청람.
- 관계부처합동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 교육부 (2020). **2021년 미래교육지구(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공모 계획(내부자료)**.
- 김경민, 강철희, 이영빈 (2019). 교육복지 네트워크 참여 비영리조직 간 협력의 성공 및 실패 요인 연구: 협력사업 코디네이터의 경험을 통한 탐색. **사회복지연구**, 50(2), 207-240.
- 김경애 (2009). 아동청소년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요소 및 원리. **한국청소년연구** 20(3), 85-114.
- 김교정, 김용준 (2004).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연계에 대한 연구 아동학대

- 예방센터 근무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1), 155-182.
- 김기현, 맹영임, 이재연 (2011).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 방안 연구** (수시과제 11-R2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최정원, 변금선, 이종원, 이민정, 정지희 (2019).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연구보고서 19-R5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병옥, 최은수 (2019).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에서 평생교육 부서장과 기관장의 공유리더십, 평생교육 실무자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적 의사소통, 조직효과성, 협력적 거버넌스 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문화연구**, 25(2), 247-272.
- 김상민 (2016). 주민자치와 협력적 마을만들기 협력적 마을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1), 181-209.
- 김승보 (2021). **아산행복교육지구 아산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자문 보고서**. 충남행복교육지구 아산 성과보고회 및 2기 업무협약식 발표자료(2021.9.8.)
- 김영지, 황세영, 손진희, 박명선, 박종원, 조기영 (2020).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 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예린 (2018).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네트워크의 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15(1), 101-135.
- 김용련, 이길재, 신철균, 차지철 (2020). **지역사회 교육거버넌스 실태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서울: 국가교육회의.
- 김용학 (2003).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 김용학, 김영진 (2016).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 김우중 (2013). 거버넌스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성 평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1), 1-30.
- 김의용, 조성숙 (2016). 대구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무자의 교육복지네트워크 활동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서울도시연구**, 17(3), 143-160.
- 김이수 (2015). 자원봉사 분야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연

- 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1), 81-106.
- 김정욱, 송영현, 여관현 (2020). 인천광역시 민관협력 네트워크 분석: 비영리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1), 269-289.
- 김정현 (2019).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경기도 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 김희성 (201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관리방안 연구. **비판사회정책**, 46, 125-163.
- 김현철, 최인재, 황세영, 김가희, 이유정 (202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사업**.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 연구 II** (연구보고 12-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김정주, 김인규 (201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연구보고 15-R0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성, 류진아, 오옥찬, 채현탁, 황정윤 (2020). **복지부문의 민관 협력 성과와 혁신 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홍주, 김순남, 나만주, 하봉운 (2015). **일반행정과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 2015-02).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남재걸 (2016). 지방자치단체 사회정책의 협력적 로컬거버넌스 분석. **도시행정학보**, 29(3), 199-230.
- 도봉구청·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 (2021).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도봉지구 2021년 사업실행계획서**.
- 류기형, 류영미, 박병현 (2009).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1-30.
- 모상현 (2019).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연구보고 19-R2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보경, 김경주, 이인희 (2019).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중간지원조직 체제분석. **교**

육행정학연구, 37(5), 179-208.

박혜원, 문형구 (2009). 집단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양성이 집단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황적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2(5), 2667-2695.

백희원, 조영정, 장승권 (2016). 사회복지기관과 사회적기업 간 협력을 통한 가치 네트워크 구축. **서울도시연구**, 17(2), 97-117.

보건복지부 (2015).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2021a). **3차년도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2021b). **3차년도 최종 사업보고서**.

서울특별시 (2021). **2021년 청소년 코디네이터 운영계획(청소년정책과-3840)**.

서혜미, 민소영 (2012). 지역기반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효과성 연구. **서울도시연구**, 13(2), 89-108.

손동원 (2008). **사회 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손지현 (2016).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3(2), 215-239.

심수현 (2020). 구로혁신교육지구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민·관·학 협력적 거버넌스에 주목하여. **교육인류학연구**, 23(2), 39-66.

양병찬 (2018). 한국 마을교육공동체 운동과 정책의 상호작용: 학교와 지역의 관계 재구축 관점에서. **평생교육학연구**, 24(3), 125-152.

양병찬, 김용련, 이진철, 조운정, 전광수, 이유진 (2019). **혁신교육지구 사례 분석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1a).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1b).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 1권**.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020). **‘육성과 수련’의 대상에서 ‘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http://www.mogef.go.kr/nw/enw/n>

- w_enw_s001d.do?mid=mda700&bbtSn=708281에서 2021년 8월 11일 인출.
- 오석홍 (2020). **조직이론**. 서울: 박영사.
- 유란희 (2018).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2(2), 147-172.
- 유선미 (2015).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모델에 관한 연구: K형 신교육지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2021a). **3차년도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2021b). **3차년도 최종 사업보고서**.
- 윤정호, 조민호, 이숙중 (2018). 설립유형별 지역아동센터 간의 협력에 관한 연구
협력 네트워크 및 협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0(2), 387-409.
- 윤혜정, 김희수 (2019). 활동이론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분석. **교육연구**, 41(1), 105-123.
-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연구보고 11-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이운주, 오해섭, 김언주, 강지원, 백승주, 탁현우 (2018).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주현, 김선자, 조권중, 박성문 (2009). **서울시 복지서비스전달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서울: 서울연구원.
- 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20). **학교연계네트워크 구축: 현장 네트워크 협력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인천: 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임지연, 김한별, 한도희 (2016).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16-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문호영, 정정호, 김평화 (201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V** (연구보고 18-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연진 (2010). 여성복지조직의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중심성(centrality)과 조직효과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4), 313~343.
- 전대욱, 박승규, 최인수 (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2012-10).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재)아산시청소년재단 (2020). **아산시청소년재단 중장기발전계획(2021-2025)**.
-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원저: Cres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Sage Publications Inc.)
- 초의수 (200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실태와 네트워크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 265-290.
- 최균, 장영신 (2013). 지역복지 네트워크 모델 비교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와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211-228.
- 최용환, 성유리, 박윤수, 김보경, 허효주 (2020).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연구** (연구보고 20-R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유미, 심성지 (2008). 자원봉사조직의 네트워크 특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6(3), 133-183.
- 최인재, 강경균, 송민경, 조운정, 김가희, 이유정 (202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연구보고 20-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이운주, 송민경, 조운정, 이유정 (2019).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9-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재성, 이준영, 김신열, 박소정, 이수연, 안은영 (2011). 다중이해관계자 관점에 근거한 지역사회 전체네트워크 효과성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3(1), 57-84.
- 최정은, 김혜원 (2019).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도봉

- 구, 마포구, 은평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3(4), 261-291.
- 최창욱, 좌동훈, 남화성 (2020a).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연구** (연구보고 20-R40). 서울: 여성가족부,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 좌동훈, 문호영, 남화성, 노자은 (2020b).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하동원 (2015). 광역관광개발에서 네트워크의 구조와 효과의 관계: 연결정도중심성을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11(1), 79-9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202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지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1). **2021년 혁신리더 3기 모아(M.O.A) 아카데미 운영계획**(내부자료).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행정안전부 (2021). **지역주도계획수립-부처연계지원체계구축: '지역사회활성화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내부자료).
- 홍지오 (2018). 학교와 지역사회 간 교육공동체 구축에 관한 인과지도 분석.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9(3), 95-120.
- 황세영, 김남수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 16-R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외국 문헌]

- Ansell, C., & Gash, A. (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543-571.
- Bryson, J. M., Crosby, B. C., & Stone, M. M. (2015). Designing and implementing cross-sector collaborations: needed and challeng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5(5), 647-663.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rosby, B. C., & Bryson, J. M. (2005). *Leadership for the common good: tackling public problems in a shared-power worl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Emerson, K., Nabatchi, T., & Balogh, S. (2012).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collaborative governan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2, 1-29.
-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 Lin, N. (1982). Social resources and instrumental action. In P. V. Marsden, & y N. Lin (Eds.),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pp. 131-145). Beverly Hills, CA: Sage.
- Milward, H. B., & Provan, K. G. (2006). *A manager's guide to choosing and using collaborative networks*. In J. S. Ott & L. A. Dicke. (Eds.), *Understanding nonprofit organizations* (2nd ed.) (pp. 219-227). Boulder, CO: Westview Press.
- Provan, K. G., & Kenis, P. (2007). Modes of network governance: structure, management, and effectivenes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2), 229-252.
- Scott, J. (1992). *Social network analysis*. London, Newbury Park,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Stabell, C. B., & Fjeldstad, Ø, D. (1998). Configuring value for competitive advantage: on chains, shops and network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9(5), 413-437.
- Taylor, M. (2007).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real world: Opportunities and pitfalls in new governance spaces. *Urban Studies*, 44(2), 297-317.

Thomson, A. M., Perry, J. L., & Miller, T. K. (2007).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llabor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9(1), 23-56.

Wasserman, S. and Faust, K. (1998).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shire Coun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사이트]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1388.gsyouth.kr/>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광주서구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http://seoguyouth.com/>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군포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https://www.gpyf.or.kr/front/boardView.do?keykind=all&keyword=%ED%94%8C%EB%9E%AB%ED%8F%BC&page_now=&returl=%2Ffront%2FboardList.do&listurl=%2Ffront%2FboardList.do&brd_no=2308003&brd_mgrno=629&menu_no=1087&tab_no=&seq_no=undefined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여성가족부 사업지원포털. <http://wsp.mogef.go.kr/ycon/hs/notice/notice/noticeView.do>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s://edpolicy.kedi.re.kr/frt/contents.do?strCurMenuId=45>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wdi.re.kr/center/gia/rule.do>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91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관련 법령]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에 관한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친화적마을교육공동체구성에관한조례/\(5165,20190301\)](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친화적마을교육공동체구성에관한조례/(5165,20190301)) 에서 2021년 10월 17일 인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대안가결).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Q1N0O8N1F2C1C0B1Z0E5F9H5X4C4 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기본조례/\(1822,20210930\)](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서구청소년기본조례/(1822,20210930)) 에서 2021년 10월 17일 인출.

부천시 청소년 기본조례 제·개정안,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천시청소년기본조례/\(3688,20210520\)](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천시청소년기본조례/(3688,20210520))에서 2021년 10월 17일 인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561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Z0H1H1Q0I4Y1H7T4U7T1W0Y6R7O7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청소년활동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2021년 10월 17일 인출.

[기사]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2020). 보도자료: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발굴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2020.8.19.).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79441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문화일보 (2021.10.18). “지방소멸 막는다”. 매년 1조씩 10년간 지원. <https://n>

ews.v.daum.net/v/20211018115052839에서 2021년 10월 18일 인출.
시흥신문(2021.5.18.). 신천동 청소년주민자치회 출범. <http://www.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712>.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 — 부 록

부록

1. 설문 조사 조사지

1) 기관 설문 조사지



ID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을 위한 국가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Ⅲ(본원 고유과제)'의 일환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지역(부천, 유성, 곡성)의 참여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익명성이 보장되고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지며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설문에 대한 응답은 생각하시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 조사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 08

- ▶ 조사연구기관 :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설문내용 및 조사진행 문의 :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044-415-2228, iks1428@nypi.re.kr
- ▶ 조사기간 : 2021.08.01.~2021.09.10.
- ▶ 설문조사방법 : 온라인설문조사시스템을 활용한 설문조사 실시
 - ☞ 혹시 온라인설문조사시스템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 응답한 설문지파일을 namdam@nypi.re.kr 로 송부요망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비동의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정의 :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필요와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협력체계. 협의체/실무협의체/분과네트워크 등 모두 포함.

※ 시범사업 추진기관

- 곡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 설문응답자 : 올해 3차년도(2021년) 사업 참여자(2019년, 2020년 참여 여부 무관, 단 2019년, 2020년에는 참여했으나 올해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외) 중에서 올해 3차년도(2021년) (중앙) 협의체, 분과네트워크/실무협의체 회의에 1번 이상 참석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회의에 1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설문응답을 중지해주세요).

- ① 1, 2, 3차년도(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 모두 참여하신 분, ② 2, 3차년도(2020년, 2021년) 사업에만 참여하신 분, ③ 1, 3차년도(2019년, 2021년) 사업에만 참여하신 분, ④ 3차년도(2021년) 사업에만 참여하신 분 모두 중에서 올해 3차년도(2021년) (중앙)협의체, 분과네트워크/실무협의체 회의에 1번 이상 참석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회의에 1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설문응답을 중지해주세요).
- 1, 2차년도(2019년, 2020년) 사업에만 참여하신 분, 2차년도(2020년) 사업에만 참여하신 분, 1차년도(2019년) 사업에만 참여하신 분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1-1. (= 설문응답자 모두 응답해주세요. / 올해 3차년도(2021년) 사업경험만을 대상으로 응답해주세요.)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 관련 3차년도(2021년)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시시오.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보통			매우 동의함
(1) 지역사회 내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매우 부족			보통			매우 충분
(2) 지역사회 내 연계가능한 관련기관의 분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매우 작음			보통			매우 큼
(3)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참여 제약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참여 자율성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간 갈등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간 신뢰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무유			충분성 (☞ 왼편에서 ②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만 응답)			
	모름	없음	있음	매우 부족		보통	매우 충분
(7) 청소년 성장지원 교육지원정과의 연계협력의 무유/충분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와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의 무유/충분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교육지원청내 전담인력(지역사회협력전담장학사 등)의 무유/충분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지자체내 전담인력(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등)의 무유/충분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모름	매우 작음			보통		매우 큼
(11) 지자체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 **실문응답자 중 1, 2, 3차년도(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 모두 참여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 **전체사업기간인 1, 2, 3차년도(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경험 전체를 대상으로 응답해주세요.**)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추진배경 및 조건 관련 지난 3년(2019년, 2020년, 2021년)간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시시오.

항목	매우 감소			변화 없음			매우 증가
(1) 지역사회 내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지역사회 내 연계가능한 관련기관의 분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참여 제약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참여 자율성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간 갈등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네트워크 구성(변경)과정에서 관련기관간 신뢰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 **실문응답자 모두 응답해주세요. / 올해 3차년도(2021년) 사업경험만을 대상으로 응답해주세요.**)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목표설정) 관련 3차년도(2021년)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시시오.

항목	매우 작음			보통			매우 큼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현안발굴역량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네트워크 참여 기관들의 공동 목표설정의 명확성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 **설문응답자 중 1, 2, 3차년도(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 모두 참여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 **전체사업기간인 1, 2, 3차년도(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경험 전체를 대상으로 응답해주세요.**)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목표설정) 관련 지난 3년(2019년, 2020년, 2021년)간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세요.

항목	매우 감소			변화 없음			매우 증가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현안발굴역량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공동 목표설정의 명확성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 **설문응답자 모두 응답해주세요. / 올해 3차년도(2021년) 사업경험만을 대상으로 응답해주세요.**)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신뢰관계) 관련 3차년도(2021년)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세요.

항목	매우 작음			보통			매우 큼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탈퇴/참여의 자율성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이 가진 책임감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관계의 수평적인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협력적 의사소통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갈등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신뢰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 **설문응답자 중 1, 2, 3차년도(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 모두 참여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 **전체사업기간인 1, 2, 3차년도(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경험 전체를 대상으로 응답해주세요.**)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신뢰관계) 관련 지난 3년(2019년, 2020년, 2021년)간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세요.

항목	매우 감소			변화 없음			매우 증가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탈퇴/참여의 자율성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이 가진 책임감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관계의 수평적인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협력적 의사소통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갈등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신뢰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1. (☞ **설문응답자 모두 응답해주세요. / 올해 3차년도(2021년) 사업경험만을 대상으로 응답해주세요.**)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의사결정규범) 관련 3

차년도(2021년)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시요.

항목	무유			충분성 (☞ 왼편에서 ②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만 응답)				
	모름	없음	있음	매우 부족		보통	매우 충분	
(1) 운영관련 규정/지침의 무유/충분성	⑥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네트워크 운영관련 기본계획의 무유/충분성	⑥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네트워크 운영관련 담당자(코디네이터, 기관별담당자 모두 포함) 역할규정의 무유/충분성	⑥	①	②	①	②	③	④	⑤
항목	매우 작음			보통				매우 큼
(6) 네트워크사업 운영의 투명성(예산집행, 사업내용공개 등)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의 민주적/숙의적/합의적인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수요자(지역사회 청소년) 중심적인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명확한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2. (☞ 설문응답자 중 1, 2, 3차년도(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 모두 참여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 전체사업기간인 1, 2, 3차년도(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경험 전체를 대상으로 응답해주세요.)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의사결정규범) 관련 지난 3년(2019년, 2020년, 2021년)간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시요.

항목	매우 감소			변화 없음			매우 증가
(1) 네트워크사업 운영의 투명성(예산집행, 사업내용공개 등)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의 민주적/숙의적/합의적인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수요자(지역사회 청소년) 중심적인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명확한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네트워크 내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1. (☞ 설문응답자 모두 응답해주세요. / 올해 3차년도(2021년) 사업경험만을 대상으로 응답해주세요.)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참여자 책무성) 관련 3차년도(2021년)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시요.

항목	매우 부족			보통			매우 충분
----	-------	--	--	----	--	--	-------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자원 동원/지원 내용(기관정보, 물적자원, 인적자원, 프로그램 등) 및 방법(제공, 교류, 공유 등)이 충분한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매우 작음			보통			매우 큼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자원 동원/지원의 호혜성(서로 혜택을 베풀)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네트워크 참여기관 전체 대표자들의 연계협력에 대한 관심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네트워크 참여기관 전체 담당자들의 목표달성의지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네트워크 참여기관 담당자들의 연계협력역량(공동기획, 의사소통, 협업,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등)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담당자 연계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연계협력 성과 공유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공유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2. (☞ **실문응답자 중 1, 2, 3차년도(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 모두 참여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 전체사업기간인 **1, 2, 3차년도(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경험 전체를 대상으로 응답해주세요.**)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참여자 책무성) 관련 **지난 3년(2019년, 2020년, 2021년)간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세요.

항목	매우 감소			변화 없음			매우 증가
(1)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자원 동원/지원 내용(기관정보, 물적자원, 인적자원, 프로그램 등) 및 방법(제공, 교류, 공유 등)이 충분한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네트워크 참여기관들 간 자원 동원/지원의 호혜성(서로 혜택을 베풀)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네트워크 참여기관 전체 대표자들의 연계협력에 대한 관심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네트워크 참여기관 전체 담당자들의 목표달성의지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네트워크 참여기관 담당자들의 연계협력역량(공동기획, 의사소통, 협업,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등)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담당자 연계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연계협력 성과 공유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공유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1. (☞ **실문응답자 모두 응답해주세요.** / **올해 3차년도(2021년) 사업경험만을 대상으로 응답해주세요**)

세요.)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운영구조의 효율성) 관련 3차년도(2021년)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시십시오.

항목	매우 작음			보통			매우 큼
(1) 운영주관기관(국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 청소년수련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네트워크 운영이 효율적인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네트워크 등 운영 구조가 체계적인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무유			충분성 (= 원편에서 ②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만 응답)			
	모름	없음	있음	매우 부족		보통	매우 충분
(3) 네트워크 사업 전담인력(전담코디네이터)의 무유/충분성	⑧	①	②	③	④	⑤	⑥
항목	모름	매우 부족		보통			매우 충분
(4) 네트워크 사업 운영 예산지원의 충분성	⑧	①	②	③	④	⑤	⑥

6-2. (= 설문응답자 중 1, 2, 3차년도(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 모두 참여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 전체사업기간인 1, 2, 3차년도(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경험 전체를 대상으로 응답해주세요.)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과정적 운영요소(운영구조의 효율성) 관련 지난 3년(2019년, 2020년, 2021년)간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시십시오.

항목	매우 감소			변화 없음			매우 증가
(1) 운영주관기관(국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 청소년수련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네트워크 운영이 효율적인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네트워크 등 운영 구조가 체계적인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1. (= 설문응답자 모두 응답해주세요. / 올해 3차년도(2021년) 사업경험만을 대상으로 응답해주세요.)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효과 관련 3차년도(2021년)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시십시오.

항목	매우 작음			보통			매우 큼
(1) 개별기관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에서 부담하는 비용 감소(중복지원비용 감소 등)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준비 및 제공 시간 단축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지원가능성(계획수립부터 실행까지)의 불확실성 감소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다양성 증대(새로운 서비스 발굴, 맞춤형 서비스 발굴, 서비스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통합적 문제해결 가능성 증대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기관 담당자의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자원간 연계협력 역량 제고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전반에서의 양적, 질적 제고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증대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식 및 참여 증대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확대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의 자생성 증대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협의체, 기구 등)와의 차별화된 역할 확보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사업 증가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공동기획 사업에 대한 기관 참여도 증가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본 네트워크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2. (⇒ 설문응답자 중 1, 2, 3차년도(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 모두 참여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 전체사업기간인 1, 2, 3차년도(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경험 전체를 대상으로 응답해주세요.)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운영효과 관련 지난 3년(2019년, 2020년, 2021년)간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시시오.

항목	매우 감소			변화 없음			매우 증가
(1) 개별기관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에서 부담하는 비용 감소(중복지원비용 감소 등)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준비 및 제공 시간 단축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지원가능성(계획수립부터 실행까지)의 불확실성 감소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다양성 증대(새로운 서비스 발굴, 맞춤형 서비스 발굴, 서비스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의 통합적 문제해결 가능성 증대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기관 담당자의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자원 간 연계협력 역량 제고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전반에서의 양적, 질적 제고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증대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식 및 참여 증대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확대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운영의 자생성 증대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협의체, 기구 등)와의 차별화된 역할 확보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 사업 증가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공동 기획 사업에 대한 기관 참여도 증가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본 네트워크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본 네트워크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 **실문용답자 모두 응답해주세요.**) 본 네트워크 사업 종료(2021년 10월) 이후에도 현재의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참여여부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세요.

항목	무유	
	없음	있음
(1) 본 네트워크 사업 종료(2021년 10월) 이후에도 현재 네트워크에 지속 참여의향 여부	①	②

9. (⇒ **실문용답자 모두 응답해주세요.**) 향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지속적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세요.

항목	전혀 필요 없음			보통			매우 필요함
(1) 관련 법률 제·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관련 조례 제·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코디네이터 인건비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여성가족부의 네트워크사업 지원 및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관련 중앙부처(교육, 복지, 행정 등) 간 연계협력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

10. (※ **실문응답자 모두 응답해주세요.**) 다음은 귀하의 소속기관과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곳에 표기해주시시오.

(1) 소속기관의 기관유형	① 공공기관 ② 민간기관
(2) 소속기관의 네트워크 참여 유형	① 지자체 ② 교육(지원)청 ③ 운영주관기관 ④ 협의체(협의체/분과/실무) 소속 기관·단체·조직(1,2,3 제외) ⑤ 협의체(협의체/분과/실무) 소속이 아닌 연계협력기관·단체·조직
(3) 귀하의 네트워크 사업 참여형태 (※ 중복될 경우 제일 중요한 1곳에만 응답요망)	① 협의체 ② 분과네트워크/실무협의체 ③ 협의체/분과/실무 소속이 아닌 연계협력으로 참여
(4) 귀하의 네트워크 사업 참여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 초과~2년 이하 ③ 2년 초과~3년 이하
(5) 귀하가 사는 지역	① 부천시 ② 유성구 ③ 곡성군
(6) 귀하의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7) 귀하의 소속분야 근무경력	()년

바쁘신 가운데 응답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청소년 설문 조사지

--	--	--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을 위한 국가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부천, 유성, 곡성)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익명성이 보장되고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지며 향후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설문에 대한 응답은 생각하시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 조사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 08

- ▶ 조사연구기관 :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설문내용 및 조사진행 문의 :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044-415-2228, lks1428@nypi.re.kr
- ▶ 조사기간 : 2021.08.01.~2021.09.10.
- ▶ 설문조사방법 : 온라인설문조사시스템을 활용한 설문조사 실시
⇒ 혹시 온라인설문조사시스템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
응답한 설문지파일을 namdarn@nypi.re.kr 로 송부요망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 설문응답자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부천, 유성, 곡성) 올해(2021년) 참여 청소년들만 응답.

1.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한 활동의 참여과정 및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시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 자신의 성장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활동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활동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함께 참여한 친구들과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5)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변사람들(지도자 또는 전문가)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6) 활동 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활동 결과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활동 참여전후 귀하의 인식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한 활동 참여전후 귀하의 생각의 변화(감소 또는 증가) 정도를 표기해주시시오.

항목	매우 감소하였다	감소하였다	변화 없다	증가하였다	매우 증가하였다
(1)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진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의 필요에 맞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청소년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 중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 표기해주시시오.

-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 (2)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 (3)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 (4)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 (5)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 (6)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
- (7)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 (8)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9) 기타 ()

4. 다음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표기해주시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활동이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활동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주제를 선정할 때 더 많은 청소년들의 생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더 많은 청소년들이 알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효율적인 시간, 공간 활용을 위한 학교와 학교 밖 기관(청소년기관 등)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곳에 표기해주시요.

(1) 지역	① 부천시 ② 유성구 ③ 곡성군
(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3) 출생연도	()년
(4) 현재 학교재학여부	① 학교에 다니고 있음 ② 학교에 다니지 않음

바쁘신 가운데 응답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면담 조사지

1) 시범사업기관 담당자

(1)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 지역사회 요구, 청소년 요구
- 지역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운영 관련 요구

(2) 네트워크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까?

-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의 의미
- 네트워크 참여기관과의 소통 방법 및 참여 유인을 위한 전략

(3)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협력의 주요 성과와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 연계·협력 성공 사례
- 연계·협력의 주도자, 네트워크 내 협의 과정, 결과 등
- 청소년 의제 형성,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

(4) 네트워크 운영 및 여러 주체들과의 연계·협력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기관별 고유 영역과 협력의 범위 설정, 업무 문화의 차이,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 등

(5) 네트워크 운영 경험을 통해 기관(또는 실무자) 차원에서 어떤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까?

- 네트워크 주도 기관의 역할과 책임
- 네트워크로서 실무자의 역량 강화

(6) 장기적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 내 청소년 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 법적, 제도적 지원, 중앙 부처 정책과의 연계
- 지자체 정책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 지역 특성에 따른 성장지원 모델 개발

2) 네트워크 참여기관 담당자

(1)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연계·협력의 동기
- 공동의 목표

(2)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협력의 주요 성과와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 연계·협력 성공 사례
- 연계·협력의 주도 경험, 공동의 관심사 확인, 통합적 문제해결 관점 등

(3)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여러 주체들과의 연계·협력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기관별 고유 영역과 협력의 범위 설정, 업무 문화의 차이,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 등

(4) 네트워크 참여 경험을 통해 기관(또는 실무자) 차원에서 어떤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까?

-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네트워크 주도 기관의 역할 인식
- 청소년 관련 영역에 대한 전문성 향상, 연계·협력 역량 강화

(5) 장기적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존 네트워크와의 관계 설정, 지역적 상황 고려 등

3) 청소년

(1) 이 활동에 참여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 사전 경험: 청소년 활동, 동아리 등
- 평소 지역 내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

(2)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루고자 한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 개인적인 목표와 기대
- 참여과정에서 공동으로 설정한 목표

(3)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 자유로운 토론분위기, 존중받는다는 느낌,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기여, 협력과 성취의 경험 등

(4)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 기획 등 과정 자체의 어려움, 도움의 부족, 역할분담과 협력의 어려움, 실질적인 영향력 부족 등

(5) 이번 활동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청소년 관심사를 반영한 기획, 참여시간 확보를 위한 학교와의 협력, 홍보 강화 등

(6)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문화·여가 관련 시설·공간, 자유로운 활동 시간의 보장 등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제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3개년사업으로 수행되는 과제의 3차년도 사업으로 올해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확산방안과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범사업(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분석 결과,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본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가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본 네트워크 사업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현재의 네트워크에 참여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나, 지역별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네트워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네트워크운영에 대한 지원요구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역할 및 제도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전략을 1) 마을에서 국가에 이르는 청소년 성장지원 생태계 구축, 2) 지역 내 청소년 의제 주류화를 통한 성장지원 효과성 확보, 3) 지역 모델의 발굴과 확산지원을 통한 점진적 제도화로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정책추진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역 네트워크, 청소년 성장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시범사업, 성과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formulate a policy support system for youth growth by utilizing local community networks. This year's study, which was the last of a three-year study, focused specifically on conducting a comprehensive impact analysis on the outcomes of the pilot projects and proposing ways in which youth growth support networks can be extended across the country and locally-based youth growth support governance can be established. The analysis of the pilot projects, which were implemented in Bucheon, Gokseong, and Yuseong, indicated that, over three years, the youth growth network had a positive impact on establishing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se communities. Further, 90.4% of the network participants responded positively in terms of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network even after the pilot project ended, indicating the sustainability and potential for these local networks to grow. Despite some differences among the three regions, the results also showed a high demand for accountability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support for operating local network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network activities. This suggests the need to establish the role of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policy measures to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se networks. In conclusion, the study proposed policy strategies to activate networks for youth support and a roadmap to implement the policy in terms of 1) establishing an ecological system for youth support from the local to the state level, 2)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youth support by mainstreaming youth agendas within communities, and 3) pursuing a gradual institutionalization by supporting the activation and expansion of local models.

Keywords: local network, youth growth support,
collaborative governance, pilot projects, impact study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 장근영·임지연
- 21-R02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정은주·정현우
- 21-R03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 최정원·문호영·전진아·박용천
-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모상현·최용환·남미자·정건희
- 21-R05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 김경준·강경균·변나향
- 21-R06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 김영한·이유진
- 21-R07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유민상·신동훈
- 21-R08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 김지연·김승경·오육찬·정소연
- 21-R09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이민희·김진호
- 21-R10-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 유성상
- 21-R10-2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
- 21-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 황세영·이경상·송민경·조윤정
- 21-R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홍순구·권일남
- 21-R12-1 비정형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순구·임지원
-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성호
- 21-R13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1-R13-1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박찬호
- 21-R14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2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1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김은정 (자체번호 21-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2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 김희진·서고운·김미정·류정희·권지성 (자체번호 21-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임희진·황여정·유성렬 (자체번호 21-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해외사례 분석 / 임희진·박윤주·황여정 (자체번호 21-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황여정 (자체번호 21-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배상률·이창호·김남두 (자체번호 21-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 중심 소셜리빙랩
운영 방안 / 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자체번호 21-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1-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9-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정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김형주·연보라·정세정·변금선 (자체번호 21-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일자리
/ 김기현·배정희·김창환·성재민 (자체번호 21-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2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보고서 /
김기현·배정희 (자체번호 21-R19-1)

수 시 과 제

- 21-R20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 김지연
- 21-R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 서고운
- 21-R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호영
-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 신동훈·김세현
-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 배상률

21-R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 양계민

연구개발적립금

21-R26 정책동향분석 / 이지연

수탁과제

- 21-R27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승경·배정희
- 21-R28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수립 연구용역 / 최용환·이희철·장혜운
- 21-R29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 / 김형주·강영배
- 21-R3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방인자·김유민·조아라
- 21-R3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홍성호·김현수·장원빈
- 21-R32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Ⅱ / 유민상
- 21-R3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5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6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7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8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9 2020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김옥수
- 21-R40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김정민·김효주·장원빈
- 21-R4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김옥수
- 21-R4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

- 21-R4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 양계민·장윤선
- 21-R44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기현·문호영·황세영·유민상·이용해·김균희
- 21-R45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시범 운영 매뉴얼 / 성윤숙·장원빈·최동혁·김예원
- 21-R46 (초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7 (중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배상률
- 21-R49 강원 2024 청소년 참여 기본계획 / 김정숙·김경준·정은주·이용해·김혁진
- 21-R50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서지원체계 통합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이상정·정소연
- 21-R51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정경은·권해수
- 21-R52 인천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 연보라·김정숙·신동훈·김재우
- 21-R53 지자체 및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야별 시행계획 평가방안 심화연구 / 배정희·장근영·이용해
- 21-R5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 최창욱·좌동훈
- 21-R55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좌동훈·김지수
- 21-R56 20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 정은주·문호영
- 21-R5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안전략 수립 연구 / 최용환·곽창규·김민주
- 21-R58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성은·김영지·김지연·강경균·서고운·최홍일·임경원
- 21-R59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 정은주·임지연
- 21-R60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장원빈
- 21-R61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유설희·김예원
- 21-R62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신보람
- 21-R63 지속가능한 청소년국제교유사업 발전방안 연구 / 양계민·김민
- 21-R64 2021 경기도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방안 / 양계민·장윤선·강희숙
- 21-R65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정윤미·장윤선
- 21-R66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단계별 지원 방안 / 김영지·박하나·손진희

- 21-R67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유형 조사 및 연계 방안 / 김성은·송원일·최홍일·배수인
- 21-R68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 21-R6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 배상률·장수·김수영
- 21-R70 니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배정희·신동훈
- 21-R71 청년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 김기현
- 21-R72 청년과 정의 연구 / 김기현
- 21-R7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개발(2차) / 연보라·좌동훈·장운선·김재우·오성배·장훈성
- 21-R74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서고운
- 21-R7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개발 연구 / 황진구·좌동훈
- 21-R75-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매뉴얼 / 황진구·좌동훈
- 21-R76 강진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연구용역 / 김영한·이유진·선민철·이상선
- 21-R77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1-S0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1.28)
- 21-S02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27)
- 21-S03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시상 및 성과보고회(1.28)
- 21-S04 청년 연속기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한다』3차 포럼-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1.15)
- 21-S05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2.26)
- 21-S06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및 사전교육 자료집(6.5)
- 21-S07 근거기반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7.27)
- 21-S08 21세기 비전, 한국-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7.19)
- 21-S09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이해 및 활용 직무연수 자료집(7.27)
- 21-S1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0)
- 21-S11 202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8.20)
- 21-S1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역량강화 연수(8.18)

- 21-S13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8.18)
- 21-S14 2021 미디어교육 현장지원단 워크숍: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제고 및 현장 적용 방안 수업의 실제와 사례 공 유(8.13)
- 21-S15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India(6.14)
- 21-S16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Malawi(6.21)
- 21-S17 제41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구상(11.5)
- 21-S18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Gambia(6.29)
- 21-S19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중간워크숍 자료집(8.21)
- 21-S20 제4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기회보장에 관한 한일비교 (9.25)
- 21-S21 미래를 대표하기: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9.10)
- 21-S22 제12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10.5)
- 21-S23 콜로키움 Mongolian Youth Policy Review 5차(10.1)
- 21-S24 콜로키움 Guatemalan Youth Policy Review 6차(10.8)
- 21-S25 Youth and Public Policy in Afghanistan(11.22)
- 21-S26 제42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11.25)
- 21-S27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10.27)
- 21-S28 영국의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11.23)
- 21-S29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방안'(11.3)
- 21-S30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11.10)
- 21-S31 직원역량 콜로키움: 실무자를 위한 예산 편성의 실제(11.22)
- 21-S32 2021 대안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랜선토크 워크숍 자료집(11.25)
- 21-S33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12.2)
- 21-S3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Ⅲ" 시범사업기관 성과공유 워크숍 (11.24)
- 21-S35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요 청소년 정책 사례(12.3)
- 21-S36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9)
- 21-S37 2021년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연차평가 사전 워크숍(12.17)
- 21-S38 2021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성과공유회(12.16)
- 21-S39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12.16)
- 21-S40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익식 신장을 위한 제도(12.15)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0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01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0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03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0호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1호 :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Ⅱ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2호 :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Ⅲ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3호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4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5호 :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6호 :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NYPI Bluenote 통계 53호 :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NYPI Bluenote 통계 54호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인식조사

NYPI Bluenote 통계 55호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NYPI Bluenote 통계 56호 :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통계 57호 : 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NYPI Bluenote 통계 58호 :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주요 조사 결과

NYPI Bluenote 통계 59호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6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 청년 이직자

NYPI Bluenote 통계 61호 :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NYPI Bluenote 통계 6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3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NYPI Bluenote 통계 63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 협 력 진 ◆

- 권준근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관장)
김 민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지선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과장)
김지수 (군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혁진 (청소년지원네트워크 연구위원)
반기완 (의정부청소년재단 팀장)
배정수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관장)
서영옥 (진해청소년수련관 관장)
서재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설상숙 (광주광역시 서구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손병근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연구철 (수원광교청소년수련관 관장)
윤석희 (경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이상화 (시흥시청소년재단 본부장)
이종순 (고양시청소년재단 진로직업센터장)
이준기 (대구청소년상담센터 부장)
전명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
전재은 (여성가족부 전문위원)
정근희 ((사)들꽃청소년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정태종 (완주청소년문화의집 부장)
허신도 (경상남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연구보고 21-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II

인 쇄 2021년 12월 23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044-865-8115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22-0 93330

연구보고 21-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22-0